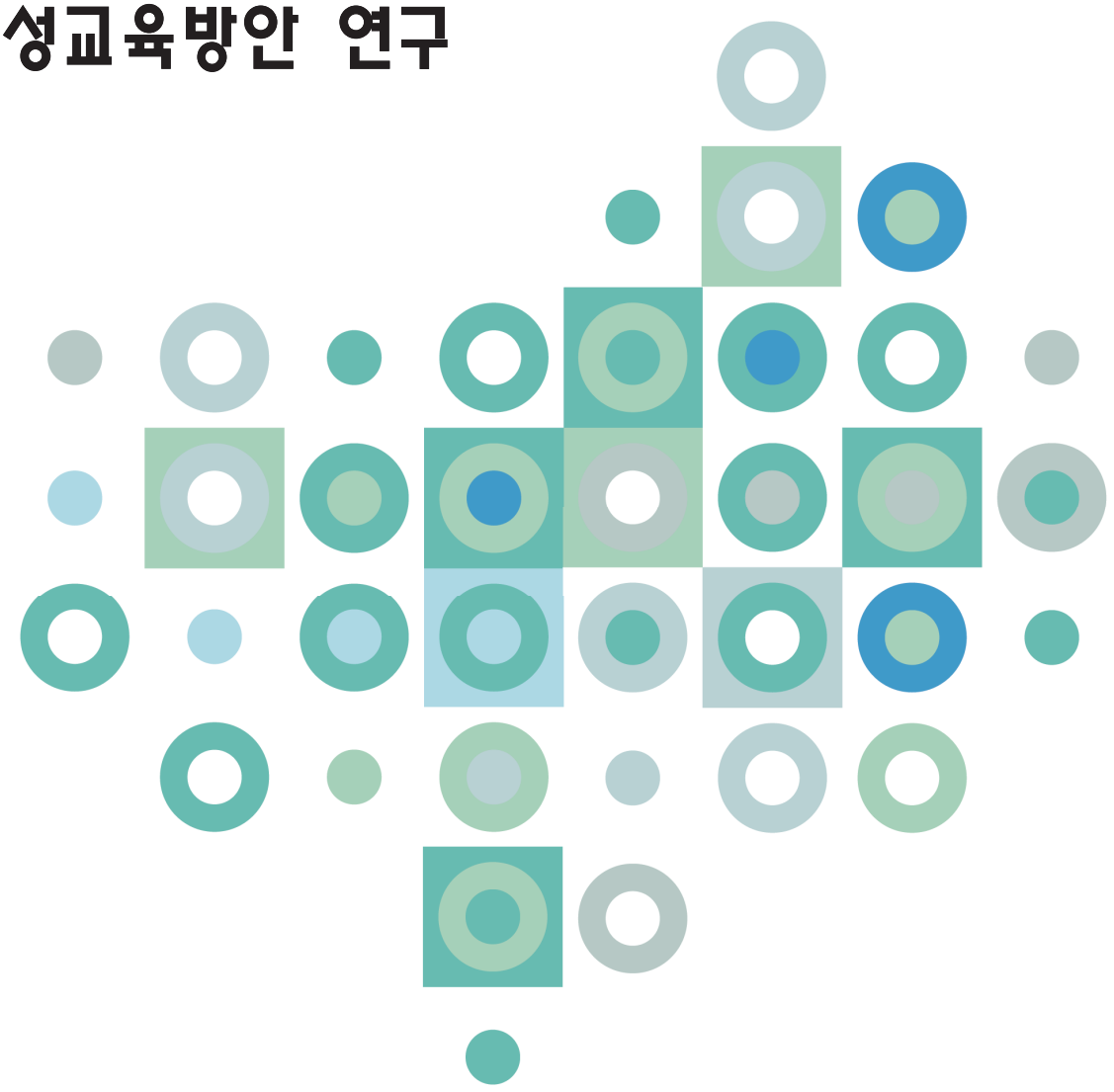
[최종보고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방안 연구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최종보고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방안 연구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최종보고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손경원(충북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영돈(인천대학교)
김윤경(금파중학교)
이혜진(동탄국제고등학교)
김하민(월정초등학교)
연구보조원: 송해영(충북대학교)
김시원(충북대학교)

연구협력관: 한혜주(경기도교육청)
심은영(경기도교육청)

2022. 12.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경기도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연구 요약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문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와 같은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에 확산되면서 교육 전반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한다. OECD는 미래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학습자들이 변혁적 역량을 갖추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번영인 '웰빙(well-beibg)'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제안하며 학습 틀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인성교육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인성교육의 방향과 전략,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우선 인성교육 정책 변화 및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매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발표해왔는데, 주로 주체적·공공적 시민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시민적 인성교육을 추진해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방향성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펜데믹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소통, 공감, 배려, 예의(바른 언어)에 인성의 영역에 한정되어 인성교육이 논의되고 있다. 국외 인성교육으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의 번성과 행복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는 국가 수준의 틀인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이하 CSED, 2022)를 발표하여 사회정서학습과 통합한 새로운 인성교육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영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와 같은 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을 발표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Ⅲ장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고 인성교육의 틀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은 미래교육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가져온다. 디지털 문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이 진전될수록 이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으로 다차원적 측면의 인성(the multiple dimension of character)에 기초한 인성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통합을 강조한 데이비슨과 리코나(M. Davidson & T. Lickona)의 논의에서 좀 더 확장된 논의로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이 총체적으로 연관된 인성 모델이다. 공감과 배려와 같은 도덕적 인성은 인내, 끈기, 용기 등과 같은 수행적 인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공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적 인성을 발휘할 때도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지적 인성이 요구된다.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 역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이 결여된다면 비도덕적 목표를 위해 지적 탐구와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어느 하나 결여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Ⅳ장에서는 학교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와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학교급별 인성지수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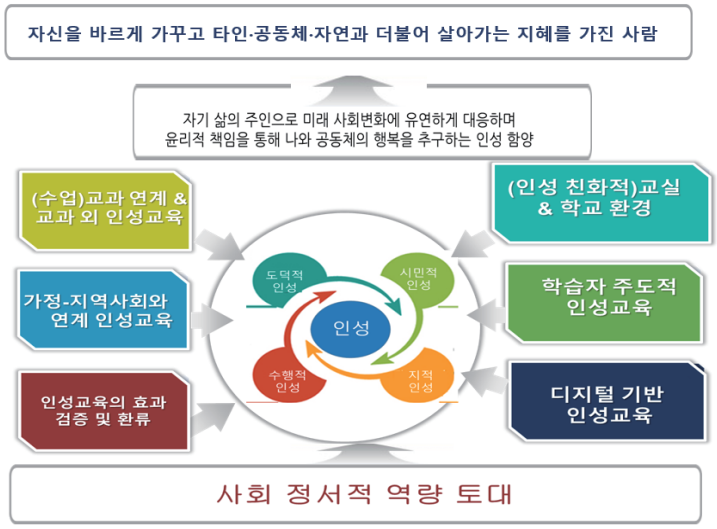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학부모·교사는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인성교육의 방향 전환에 동의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낮은 동의를 보였다. 그리고 미래 인성교육의 틀에 근거하

여 인성의 구인을 도덕적 인성, 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설정하고 인성별 하위구인을 설정하였다. 4영역 20개의 덕(과 역량)을 조사하였다.

도덕적 인성지수와 시민적 인성지수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값이 낮아지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 차원의 인성지수 중 수행적 인성이 가장 낮으며 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도덕적 인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나 규범, 사회적 기대 등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잘 관리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호기심을 갖고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Ⅴ장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신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간상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인성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성교육이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을 길러 도덕적 인간과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나와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경기 인성교육의 모델은 아래와 같다.



[경기 인성교육의 모델]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향은 사회 정서적 역량의 토대 위에서 ①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과외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②인성 친화적 교실 &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 & 회복적 생활교육 연계) ③인성발달을 고려한 학습자 주도적 인성교육 ④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한 인성교육 ⑤학교 및 프로그램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환류하기 ⑥대면-비대면이 전환되어 인성교육이 진행되는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다.

Ⅵ장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진입한 이래,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으며 온라인 기반 삶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비실재감과 익명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인간의 도덕적 행위 동기를 감소시키는바, 이에 대한 인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인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혁신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의 핵심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인성교육의 실행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히는 교육”이다. 정보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시민성 교육과 연계된 인성교육 주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인의 인성 특성에 기초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정보윤리, 디지털 시민성, 인공지능 윤리 등의 윤리적 이슈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육환경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모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기초하여 (1)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네 차원의 인성과 인성교육 목표를 확립하여)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 (2) 중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 (3)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인성교육 정책 수립 및 실현 (4) 인성발달 특징을 고려한 인성교육 성취 기준 설정을 위한 지속적 연구 및 정책 수립 (5)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인성교육 (6)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 및 다양한 인성교육 효과성을 검증하는 증거 기반 인성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차례

Ⅰ. 연구 과제의 개요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범위 ····· 3

가. 인성교육의 연구 현황 및 실태 진단 ····· 3

나.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인성교육 요구 분석 ····· 3

다. 미래 인성교육 ····· 4

라.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향 제안 ····· 5

3. 연구 방법 ····· 5

Ⅱ. 인성교육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 9

1.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 9

가.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 9

나. 경기도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 11

2. 국내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 13

가. 국내 인성교육 동향 분석 ····· 13

나. 국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 25

3. 소결 ····· 40

Ⅲ.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 44

1.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 44

가. 디지털 문명 시대와 교육 ····· 44

나. 인공지능 시대와 교육 ····· 47

다. 불확실성 시대와 교육 ····· 53

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육 ····· 57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미래교육 동향 분석 ····· 59

가.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교육 ····59
나. 학생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 ····61
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63
3.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특징 ····67
가. 미래사회 변화와 인성교육의 관계 ····67
나.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성의 특징 ····68
다. 다차원적 인성교육의 방향 ····77

Ⅳ.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84
1.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84
가. 개발 개요 ····84
나.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분석 ····88
다.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125
라.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종합 ····131
2. 학교급별 인성지수 실태 ····137
가. 인성지수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8
나. 인성지수 기술통계 결과 ····141
다. 인성지수의 학교급별 비교 ····177

Ⅴ. 인성교육의 구조와 방안 탐색 ····182
1.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 내용 도출 과정 ····182
가.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182
나. 분석결과 ····184
2. 인성교육의 구조와 정의 ····214
가. 인성교육 체계의 구성원리와 특징 ····214
나. 인성요소별 덕목의 의미 ····231
3.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중점 ····252
가. 목표 ····252

나. 내용 ····· 255
다. 방법 및 전략 ····· 257

Ⅵ.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 276
1.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 ····· 276
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 ····· 276
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 ····· 291
가. 디지털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성 문제 대응 ····· 291
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 방법 혁신 ····· 293
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실천 과제 ····· 297
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목표 설정 ····· 297
나.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내용 구체화 ····· 299
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방법의 현실화 ····· 304

Ⅶ. 요약 및 정책 제언 ····· 311
1. 연구의 요약 ····· 311
2. 정책 제언 ····· 317

참고문헌 ····· 329

부록 ····· 345
<부록 1 경기도 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설문지> ····· 346
<부록 2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설문지> ····· 367
<부록 3 학생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 374
<부록 4 미래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 381
<부록 5 학교급별 인성교육 체계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 설문지> ····· 388
<부록 6 덕 교육적 접근에 대한 추가 설명> ····· 398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2016~2022) ·····11

<표 Ⅱ-2> 기관 수준 인성교육 정책 연구 ·····14

<표 Ⅱ-3> 배경 학문 및 인성교육 방향 제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16

<표 Ⅱ-4> 교과 관련 인성교육 연구 ·····18

<표 Ⅱ-5>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교과 외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21

<표 Ⅱ-6>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사례 연구 · 중점학교(2016~2022) ·····23

<표 Ⅱ-7> CSED 의 주요 요소별 개념정의와 지표 ·····28

<표 Ⅱ-8>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 ·····32

<표 Ⅱ-9>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의 목표 ·····35

<표 Ⅱ-10> 효과적인 인성 및 시민교육을 실행을 위한 환경요인 ·····38

<표 Ⅲ-1> 개인적 인성의 영역과 그것을 촉진하는 학교 문화 ·····79

<표 Ⅳ-1>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경기도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교사용) ·85

<표 Ⅳ-2>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미래인성교육 방향 교사용) ·····86

<표 Ⅳ-3>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학생용) ·····86

<표 Ⅳ-4>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학부모용) ·····87

<표 Ⅳ-5>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사용) ·····89

<표 Ⅳ-6>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교사용) ·····90

<표 Ⅳ-7>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교사용) ·····91

<표 Ⅳ-8>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이나 역량(교사용) ·····92

<표 Ⅳ-9> 인성교육의 효과성(교사응답) ·····93

<표 Ⅳ-10> 생활지도의 효과성(교사응답) ·····96

<표 Ⅳ-11> 학교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교사응답) ·····97

<표 Ⅳ-12>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교사응답) ·····99

<표 Ⅳ-13>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만족도(교사응답) ··100

〈표 Ⅳ-14〉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교사응답) ·····105
〈표 Ⅳ-15〉 지역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교사응답) ·····105
〈표 Ⅳ-16〉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생 응답) ·····107
〈표 Ⅳ-17〉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학생 응답) ·····108
〈표 Ⅳ-18〉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학생 응답) ·····108
〈표 Ⅳ-19〉 학생이 느낀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효과(학생 응답) ·····110
〈표 Ⅳ-20〉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학생 응답) ·····114
〈표 Ⅳ-21〉 학교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 정도(학생 응답) ·····114
〈표 Ⅳ-22〉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학부모 응답) ·····117
〈표 Ⅳ-23〉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학부모 응답) ·····118
〈표 Ⅳ-24〉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학부모 응답) ·····119
〈표 Ⅳ-25〉 학부모가 느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 정도(학부모 응답) ·····120
〈표 Ⅳ-26〉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응답 비교 ·····120
〈표 Ⅳ-27〉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학부모 응답) ··122
〈표 Ⅳ-28〉 지역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학부모 응답) ··122
〈표 Ⅳ-29〉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교사용) ·····126
〈표 Ⅳ-30〉 미래 사회변화 전망을 고려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교육 방향(교사 응답) ·····127
〈표 Ⅳ-31〉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교사 응답) ·····128
〈표 Ⅳ-3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교사 응답) ·····130
〈표 Ⅳ-3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반대하는 이유(교사 응답) ·····133
〈표 Ⅳ-34〉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응답 차이 ··133
〈표 Ⅳ-35〉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대해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응답 ·····134
〈표 Ⅳ-36〉 인성지수 연구대상 ·····138
〈표 Ⅳ-37〉 인성지수 검사도구 ·····139
〈표 Ⅳ-38〉 초등학생 도덕적 인성의 기술통계 ·····141
〈표 Ⅳ-39〉 초등학생 시민적 인성의 기술통계 ·····143
〈표 Ⅳ-40〉 초등학생 수행적 인성의 기술통계 ·····145

〈표 Ⅳ-41〉 초등학생 지적 인성의 기술통계 ·····147
〈표 Ⅳ-42〉 중학생 도덕적 인성의 기술통계 ·····150
〈표 Ⅳ-43〉 중학생 시민적 인성의 기술통계 ·····153
〈표 Ⅳ-44〉 중학생 수행적 인성의 기술통계 ·····155
〈표 Ⅳ-45〉 중학생 지적 인성의 기술통계 ·····157
〈표 Ⅳ-46〉 고등학생의 도덕적 인성 기술통계 ·····160
〈표 Ⅳ-47〉 고등학생의 시민적 인성 기술통계 ·····162
〈표 Ⅳ-48〉 고등학생의 수행적 인성 기술통계 ·····165
〈표 Ⅳ-49〉 고등학생의 지적 인성 기술통계 ·····167
〈표 Ⅳ-50〉 전체 학교급의 도덕적 인성 기술통계 ·····170
〈표 Ⅳ-51〉 전체 학교급의 시민적 인성 기술통계 ·····171
〈표 Ⅳ-52〉 전체 학교급의 수행적 인성 기술통계 ·····173
〈표 Ⅳ-53〉 전체 학교급의 지적 인성 기술통계 ·····175
〈표 Ⅳ-54〉 학교급에 따른 도덕적 인성의 차이 ·····177
〈표 Ⅳ-55〉 학교급에 따른 시민적 인성의 차이 ·····178
〈표 Ⅳ-56〉 학교급에 따른 수행적 인성의 차이 ·····179
〈표 Ⅳ-57〉 학교급에 따른 지적 인성의 차이 ·····180
〈표 Ⅴ-1〉 전문가 패널 현황 ·····182
〈표 Ⅴ-2〉 다차원적 인성의 4가지 범주 ·····184
〈표 Ⅴ-3〉 인성의 구조와 관계 설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85
〈표 Ⅴ-4〉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범주별 타당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86
〈표 Ⅴ-5〉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87
〈표 Ⅴ-6〉 미래 인성교육 방향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91
〈표 Ⅴ-7〉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93
〈표 Ⅴ-8〉 인성과 역량을 구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비전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94
〈표 Ⅴ-9〉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197
〈표 Ⅴ-10〉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핵심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198

<표 Ⅴ-11>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200
<표 Ⅴ-1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205
<표 Ⅴ-1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주제 ·····206
<표 Ⅴ-14>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의 인성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 ·····209
<표 Ⅴ-15>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적절성 ·····211
<표 Ⅴ-16> 인성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213
<표 Ⅵ-1> 사이버 폭력 유형 ·····280
<표 Ⅵ-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288
<표 Ⅵ-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 현황 ·····290
<표 Ⅵ-4>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296
<표 Ⅵ-5>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개요 ·····308
<표 Ⅶ-1> 인성교육의 범위 재설정 ·····318
<표 Ⅶ-2> 중등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 ·····321
<표 Ⅶ-3> 미래 인성교육 방안 ·····322
<표 Ⅶ-4> 학교급별 인성교육 성취기준 예시 ·····325
<표 Ⅶ-5>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 활용 ·····325

그림 차례

[그림 Ⅰ-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7
[그림 Ⅱ-1] CSED의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체계 도식 ·····28
[그림 Ⅱ-2]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과정 ·····30
[그림 Ⅱ-3]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 프레임 ·····36
[그림 Ⅲ-1] 인공지능 대체 위험 : 인지노동과 육체노동 ·····49
[그림 Ⅲ-2] 인공지능 시대의 '6C' 핵심 역량 ·····50
[그림 Ⅲ-3]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향 ·····52
[그림 Ⅲ-4] OECD 학습 나침반 2030 ·····60
[그림 Ⅲ-5] OECD 학습 프레임워크 2030 ·····62
[그림 Ⅲ-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 ·····62
[그림 Ⅲ-7]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 ·····63
[그림 Ⅲ-8]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 ·····64
[그림 Ⅲ-9]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근거 ·····65
[그림 Ⅲ-10] 인성의 구성 요소 ·····81
[그림 Ⅳ-1]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 저해 요인 ·····94
[그림 Ⅳ-2]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95
[그림 Ⅳ-3]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96
[그림 Ⅳ-4] 인성 친화적 학교 풍토 저해 요인 ·····97
[그림 Ⅳ-5] 인성교육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98
[그림 Ⅳ-6]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99
[그림 Ⅳ-7]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99
[그림 Ⅳ-8] 만족스러웠던 연수 주제 ·····100
[그림 Ⅳ-9] 연수에 만족한 이유 ·····100
[그림 Ⅳ-10] 연수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101

[그림 Ⅳ-11]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102
[그림 Ⅳ-12] 인성교육 평가와 활용 정도 ·····103
[그림 Ⅳ-13] 인성교육 평가방법 ·····103
[그림 Ⅳ-14] 학교단위 인성교육 성과의 평가 방식 ·····104
[그림 Ⅳ-15]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 필요한 지원 ·····104
[그림 Ⅳ-16] 자신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 학교 활동 ·····110
[그림 Ⅳ-17] 인성교육의 효과성이 높은 덕목 또는 역량 ·····111
[그림 Ⅳ-18]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 ·····111
[그림 Ⅳ-19]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112
[그림 Ⅳ-20] 학생이 느낀 생활지도의 효과 여부 ·····113
[그림 Ⅳ-21]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인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 ·····113
[그림 Ⅳ-22] 학부모가 느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가 높은 영역 ·····121
[그림 Ⅳ-23] 효과적인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30
[그림 Ⅳ-24] 도덕적 인성(초등학생) ·····142
[그림 Ⅳ-25] 시민적 인성(초등학생) ·····144
[그림 Ⅳ-26] 수행적 인성(초등학생) ·····146
[그림 Ⅳ-27] 지적 인성(초등학생) ·····149
[그림 Ⅳ-28] 도덕적 인성(중학생) ·····152
[그림 Ⅳ-29] 시민적 인성(학생) ·····154
[그림 Ⅳ-30] 수행적 인성(중학생) ·····156
[그림 Ⅳ-31] 지적 인성(중학생) ·····158
[그림 Ⅳ-32] 도덕적 인성(고등학생) ·····161
[그림 Ⅳ-33] 시민적 인성(고등학생) ·····163
[그림 Ⅳ-34] 수행적 인성(고등학생) ·····165
[그림 Ⅳ-35] 지적 인성(고등학생) ·····167
[그림 Ⅳ-36] 도덕적 인성(전체) ·····170
[그림 Ⅳ-37] 시민적 인성(전체) ·····172

[그림 Ⅳ-38] 수행적 인성(전체) ·····174
[그림 Ⅳ-39] 지적 인성(전체) ·····176
[그림 Ⅴ-1] 인성의 4가지 차원 ·····217
[그림 Ⅴ-2] 4가지 인성의 하위 덕과 역량 ·····218
[그림 Ⅴ-3] 인간 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세 축(triadic) 이론 ·····222
[그림 Ⅴ-4]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인성 발달 모델 ·····227
[그림 Ⅴ-5]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 ·····266
[그림 Ⅵ-1]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 ·····303
[그림 Ⅶ-1] 인성지수 결과 ·····313
[그림 Ⅶ-2] 인성교육의 구조와 전략 ·····315
[그림 Ⅶ-3] 경기 인성교육의 모델 ·····317

I

연구 과제의 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내용 및 범위 2

연구 방법 3

Ⅰ. 연구 과제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등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미래 사회는 지난 3차 산업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변화의 속도와 범위, 깊이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OECD는 2030년이라는 구체적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테러, 환경 문제 등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역량을 규명하며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였다.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OECD Education 2030’(이하 Education 2030)에서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심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과 행위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역량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인성교육 역시 미래 사회를 대비한 방향 전환의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목적이나 본질이기에 국가·사회적 요구 및 개인적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의 시대, 팬데믹의 지속,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엄과 같은 휴머니티들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성은 무엇인가?’, ‘위기 극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인성은 무엇인가?’, ‘미래에도 행복하고 번영(flourish)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성 및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하게 한다.

청소년들의 인성에 대한 염려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쉽게 노출되고 사이버 중독을 비롯해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정서 행동 문

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향신문, 2021. 2. 11.) 그중에서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의사소통과 협력 의식이 저하되고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등 타인 존중 의식이 부족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지며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경기도교육청, 2022). 이처럼 새롭게 부각되고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다가올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인성교육에 대해 입장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육 주체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에서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양정실, 2013).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특징은 사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관 및 정체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갖춰야 할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미래사회의 특징과 변화 양상에 맞게 강조해야 할 인성의 측면을 도출함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특징과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정착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단편적이거나 단기적 이벤트성 교육의 실행으로는 교육 목표에 도달될 수 없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다양한 교수 학습방법을 활용하며 개인차를 고려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신호재,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다음의 네 방향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2015~2022년까지의 경기도 인성교육의 실태와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의 새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인성교육의 모델에 근거한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학교급에서 실행할 인성교육의 구조와 원리를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반영한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점을 탐색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연구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성교육의 연구 현황 및 실태 진단

인성교육의 현황 및 실태 진단은 국내외 인성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일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인성교육 정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내 외 인성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동향
- 교육과정 내 교과 연계 중심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비교과 활동 중심 인성교육
- 교육과정 외 인성교육 및 기타 인성교육
- 국외 인성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실태 탐색

○ 학교 인성교육 실태 파악
- 교과 및 비교과 인성교육 인식 평가
- 인성교육의 실행 노력 평가
- 인성교육의 효과 평가
- 인성교육의 실행에서의 주요 문제점 진단

나.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인성교육 요구 분석

미래 인성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전망 및 요구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인성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성교육 요구 분석

-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 미래사회 대비하는 교육 방향, 내용, 방법에 대한 요구
-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 목표, 중점에 대한 요구

○ 학생 인성지수 실태 조사
- 인성(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틀
- 초 · 중 · 고 학교급 인성지수 조사
-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다. 미래 인성교육

미래사회 변화와 인성교육의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인성교육의 방향, 목표, 주요 쟁점을 제안하였다.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 인성의 틀(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제안
-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
-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중점

○ 인성교육의 효과성 조사 및 환류 방향 모색
- 인성지수 개발 및 조사
- 인성교육 효과성 증진을 위한 환류 방안 모색

○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
-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주요 쟁점
- 온라인 기반 인성교육의 과제

라.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정책 추진 방향 제안

국내외 관련 문헌 탐색 및 시사점 도출 그리고 인성교육의 실태, 미래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정책과제 설정 탐색
- 정책과제 방향 제시
- 관련 교육정책과의 연계 방향 제시
- 학문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제 설정 방향 제시

○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 탐색
- 학교 수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교사 역량 지원을 위한 요구 조사 등

○ 관련 역할 및 지원 설정 탐색
- 인성교육 관련 주체의 역할 설정 전략 제시
- 인성교육 지원 설정 전략 제시
- 단위 학교 및 교사 교육 지원 전략 제시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 방향에 대한 근거 탐색과 사례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들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 목적: 국내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 내용: 국내외 인성교육에 관한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저서 분석, 국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분석, 해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 시기: 11월~ 12월

나. 설문조사

인성교육에 관계된 세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를 조사한다.

○ 목적: 인성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조사, 청소년의 인성지수 분석
○ 내용: 인성교육의 실태를 분석. 청소년 인성 영역을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으로 확대하여 조사.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인성교육의 요구 분석.
○ 시기: 11월~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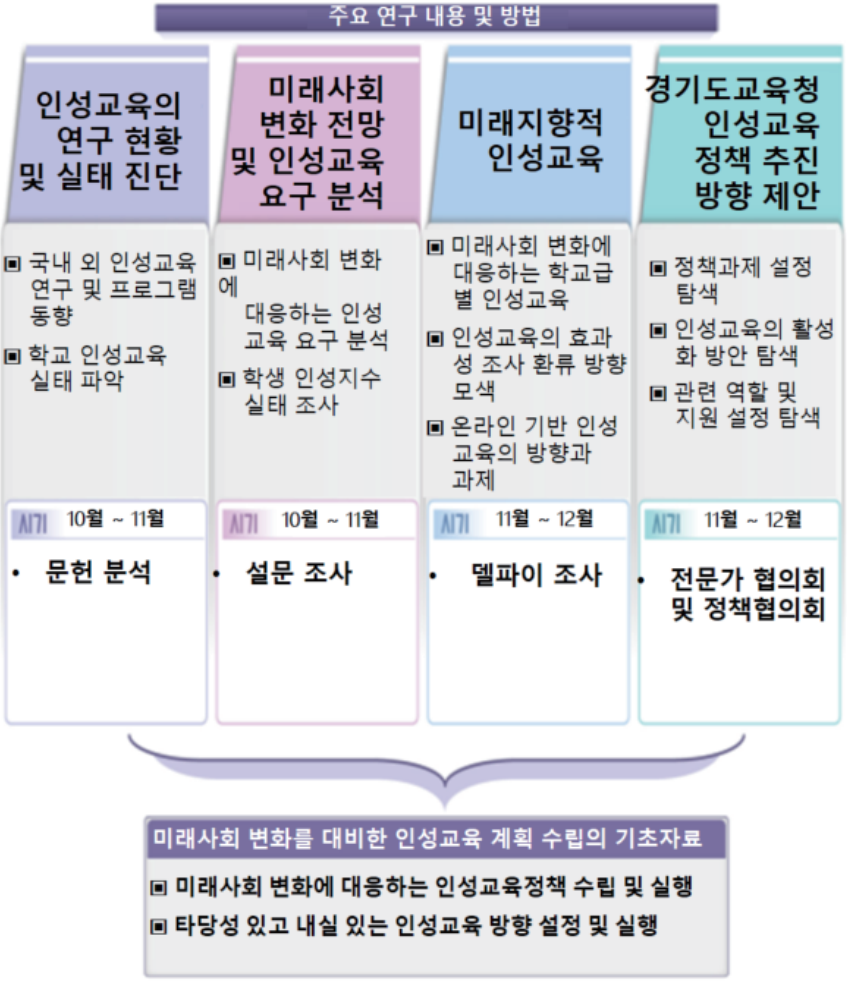
다. 델파이 조사

○ 목적: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인성교육 모델을 정립하고, 인성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전문가 요구를 분석
○ 내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의 타당성 검증, 미래 인성교육 정책 방향 및 전략 설정
○ 시기: 11월~12월

라.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 협의회

○ 목적: 연구 방향 수립 및 연구과정 점검, 결과 논의 및 타당성 제고
○ 내용: 설문조사 문항 및 델파이 조사 문항 구성 논의, 설문조사 및 델파이 조사 결과 논의, 미래 인성교육 정책 개선 및 전략 마련 등
○ 시기: 11월~12월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 내용 및 범위, 연구 방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1]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인성교육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내외 인성교육 동향 2

소결 3

Ⅱ. 인성교육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1.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가. 우리나라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우리나라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은 인성교육이 학교교육의 목적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 「교육기본법」
> -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 제9조②(학교교육)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와 수양을 통해 훌륭한 성품을 갖는 것은 중요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품성을 의미하는 '인성(人性)'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인성교육이 교육과정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 때부터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본 방향의 중점 사항으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제시하여 학교 교육이 건전한 인성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 이후 2011년 빈번하게 발생한 학생들의 집단 괴롭힘과 자살 사건 등으로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함께 인성교육 강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다. 이 계획으로 도덕·윤리 교과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반영되고, 학교 단위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즈음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단편적이고 분산적이며 일시적인 노력은 모두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성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도덕적 양심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 (인성교육의 정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핵심 가치·덕목)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현재,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법이다. 이후, 인성교육진흥법의 법령에 따라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이 수립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활발하게 확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인성교육 정책이 전통적인 덕목을 지향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즉 바람직한 시민에게 요구되는 인성적 측면도 중요한데,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2020년 발표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교육부, 2020. 10.)은 도덕적 인성뿐만 아니라 시민적 인성도 주요 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다음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인성교육의 비전 및 목표이다.

비전

-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표

- 책임 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

나. 경기도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은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수준의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단위의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매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발표하여 왔다. <표Ⅱ-1>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인성교육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1〉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2016~2022)

연도	추진 방향		추진과제
2016	• 지시와 통제에서 참여와 소통으로 • 이론과 지식에서 체험과 실천으로 • 타율과 회피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 폐쇄적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		• 인성교육 실천 기반 조성 •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 •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협력 지원
	비전	추진 목표	추진 과제
2017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 학생의 자존감과 자기결정력을 기르는 삶의 역량 증진 •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실천하는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	•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 협력지원
2018		• 시민적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는 주체적인 민주시민 육성 • 공공적인 삶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	• 시민적 인성 중심 교육과정 •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교육
2019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교실 속 자존감 회복과 책임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주체적·공공적인 시민역량 강화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과정연계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 • 교원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 •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확산
2020		• 따뜻한 감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문화 조성 •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주체적·공공적인 시민역량 강화	• 따뜻한 감성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 교원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 •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적 인성교육
2021		• 인성 친화적인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 •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주체적 공공적인 시민 역량 강화	• 인성 친화적인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 교원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 • 미래사회를 위한 시민적 인성교육 전개
2022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시민적 인성교육 실천을 통한 주체적 · 공공적인 시민역량 강화	•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문화 조성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 교원 인성교육 실천역량 강화 • 미래사회를 위한 시민적 인성교육 전개

<표Ⅱ-1>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주체적·공공적 시민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시민적 인성교육을 추진해왔다. 이는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자세 및 자질을 육성하는 데에 관련 정책의 역량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시민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나 도덕적 가치관 또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민 교육 여론조사〉(2021)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 함양(18.6%)'보다 '인성 함양 및 도덕성 발달(21.9%)'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학교 교육이 '인성 함양 및 도덕성 발달(37.6%)'의 효과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하여 기본적인 인성 함양 및 도덕성 발달에 대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교육백서〉(2022)는 교권침해 사례의 폭발적 증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덕목교육의 한계,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추진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방향성 정립"을 제시한 바 있다.

2. 국내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팬데믹 이후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인성교육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국내외의 인성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국내 인성교육 동향 분석

1) 국내 인성교육 연구 분석

주지하다시피 팬데믹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블렌디드 러닝, 웹기반 수업, 다양한 에듀테크의 활용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및 노동시장이 급변하였고 이에 따라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 목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인성교육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성교육을 설계하는 데 보다 유의미하다 보고, 팬데믹 이후 시대 변화에 대한 각성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2022. 11. 15.)까지 국내 연구 및 교육 동향을 분석하였다.

가) 기관 정책 연구

<표 Ⅱ-2> 기관 수준 인성교육 정책 연구

기관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이쌍철	2020	놀이로 꽃피는 인성 놀이터	놀이로 소통, 협력, 책임, 존중, 배려를 즐겁게 배우는 프로그램을 제안함.
법무부	정제영 외	2020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인성탐험대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 개발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며, 타인, 공동체와 함께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기르기 프로그램을 제안함.
대구광역시 교육청	윤병수 외	2020	생활 속 인성교육 자료 명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생활 속 인성교육 자료 '명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함.
보건복지부	곽종형 외	2020	효행 장려 기본계획 수립 연구	효행장려 5개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연차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제시함.
교육부	조향숙	2021	사이버미학	온라인에서 요구되는 인성과 관련한 교육 자료를 개발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신희주 외	2021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수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대두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중·고등학교에서의 사회적 가치 교육을 제안함.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원호 외	2021	사회적 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 방안 연구	사회적 공감교육의 확대 필요성 및 교육의 방향성 등을 제시함
농림축산식품부	김병수 외	2021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과 이에 대한 올바른 실천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함.

법무부	권해수 외	2021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이 공감,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민주적. 협력적 상호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함.
한국교육개발원	신호재 외	2021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존중과 책임	학생 자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보호자 총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함.

<표Ⅱ- 2>는 교육부 산하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매해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거나 평가해야 하는 인성교육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정책연구들은 순수 연구로서 함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인성교육에 관한 시도교육청 정책 연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생활 속 인성교육 자료 명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윤병수 외, 2020)’ 등 총 3건으로 활발히 수행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관련 부처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다수가 수행되었는데 공감, 감정 조절, 관계 맺기 등 사회정서적 역량 발달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생태감수성, 메타인지, 온라인 기반 또는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제안된 개념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도된 점도 특징이라고 하겠다.

나) 학술 연구

학술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은 KCI 등재 또는 KCI 등재후보 학술지에(2020.1.1. ~ 2022.11.15.) 게재된 인성교육 관련 논문으로, 인성교육을 핵심어로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학교 인성교육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아, 대학생, 성인에 대한 인성교육 연구, 지역 센터나 소년시설, 종교 관련 연구는 제외하였다.

① 배경 학문 검토 및 방향 제시 등 인성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표 Ⅱ-3〉 배경 학문 및 인성교육 방향 제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신재한	2020	‘인성영재’의 개념 및 교육 원리 탐색	인성과 영재성의 개념 및 특성을 토대로 뇌과학에 기반한 ‘인성영재’의 개념 및 특성을 탐색함.
김대권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 역량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활용 방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미래교육에 효율적으로 준비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의 관계성을 고찰함.
윤가영 신주랑 신창호	2020	국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분석: 정의적 영역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국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논문을 정의적 영역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공통점이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도출함.
문정애	2020	다문화 정의와 인성 및 진로 교육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을 인재로서 육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문화 정의와 관련한 인성과 진로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함.
이경미	20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가방안 연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안함.
박용금 조용태 임병학	2020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선진유학적(先秦儒學的) 의미	선진유학에서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의 의미에 대한 고찰함.
박미현 허균	2020	인성교육을 위한 언택트 시대 원격교육 사례 연구 : 교수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원격교육 사례를 연구를 바탕으로 언택트 시대 교수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서비스 방향 및 개선점을 제안함.
김형술	2020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본 〈양사룡전〉의 자료적 가치	서귀 이기발의 작품에 담긴 핵심적 사유를 분석하여 인성교육 자료로서 특징을 밝힘.
전명순	2020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의 타당성 및 인성교육 방향성 모색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이 타당한지 고찰함.
박종덕	2020	인성의 개념: 「중용」의 관점	성과 명에 관련한 중용의 진술을 바탕으로 인성의 개념을 탐구함.
함규진	2020	전통 사상의 민주시민교육에서의 활용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신으로 ‘회통’, ‘활언’, ‘공의’의 의미를 탐구하고 제안함.
김지원 이인재	2020	초등학교 다문화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성교육의 측면에서 교과별 다문화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다문화적 인성 연구를 제안함.
권선향 신현우 이현정 홍세희	2020	초등학생 인성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관계성을 중심으로 -	인성을 ‘관계’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를 핵심요인으로 삼아 초등학생의 인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함.
권지웅 박종효	2020	초등학생의 공감, 친사회성 및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공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매개효과가 또래지위를 통해 조절되는지, 더 나아가 또래지위의 조절효과가 성차

		성차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함.
장희선	2020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전략, 인성 차이 분석	초등학생의 학습동기 프로파일의 잠재집단 유형을 파악하고, 학습전략과 인성의 차이를 확인함.
최준섭	2020	초등학생의 자기수용과 인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에 따른 인성 수준을 살펴보고, 초등학생의 자기수용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공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함.
지준호	2021	논어 군자론의 인격교육적 함의	사람다움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는 유학의 군자 공부론은 인격교육의 차원에서 분석함.
안관수	2021	마음그램 척도 개발	청소년용 마음그램 척도를 개발하고 구인 타당도를 확인함.
윤병수 전종국	2021	인성교육으로서의 마음챙김 명상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인격적인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명상의 가능성을 확인함.
노선희	2021	지식사회학의 시각으로 보는 인성교육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의 인성교육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식사회학의 이론으로 분석함.
김연후 김하연	2022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특성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특성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함.
박현영 채수은	2022	국내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어떠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함.
박형빈	2022	서당교육의 인성교육적 의의와 수업 적용 방안: John Wilson과 James Rest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서당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하고 윌슨과 레스트의 이론을 서당교육, 인성교육, 도덕성 요소 이론의 연결점을 모색하여 이를 접목한 인성교육 수업 방안을 구안함.
박균섭	2022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도덕교육론 관련 계보학에 대한 교육학적 논구를 통해 현재 한국교육의 걸림돌을 분석함.
Lisheng Tong	2022	儒家사상을 통해 본 『弟子規』의 인성덕목연구: 〈入則孝〉 편을 중심으로	『弟子規』를 통해 인성교육의 의미와 덕목을 고찰함으로써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
서원혁	2022	율곡 인성교육의 실천성 연구 -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	율곡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성을 분석함.
고명희 엄경남 이현숙	2022	인성교육자는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하는가: 인성교육자의 학습자 인식(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성교육자들이 인성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가치와 태도,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인성교육자에게 어떠한 교육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인성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탐색함.
오준석 배종희	2022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 인성의 구조적 관계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 인성의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박지희 임홍남 연정진	2022	칼 로저스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함의 - 인본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칼 로저스의 감정표현과 공감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함의를 분석함.

배경 학문 및 인성교육 방향 제시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총 28편이 발표되

었다. 주목할 점은 전통 사상과 관련된 연구가 9편으로 많은 편인데, 효에 관한 것은 Lisheng Tong(2022)의 논문 한 편인 반면, 성(性), 명(命), 회통(會通) 등 다양한 전통 개념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 사상이 효(孝)와 예(禮)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의 다양한 내용에 함의를 줄 수 있으며, 전통 사상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인성교육을 전개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의사소통 역량 활용 방안(김대권, 2020)을 비롯해 머신러닝(이경미, 2020), 원격 교육(박미현 외, 2020)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특히 기관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감'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박지희 외, 2022; 최준섭 2020; 권지웅 외, 2020)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인성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서 공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교과 관련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표 Ⅱ-4〉 교과 관련 인성교육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대상	연구교과
최윤정	2020	건설적 논쟁 수업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건설적 논쟁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	초	도덕
김현주	2020	성별 및 학교 수준 변인에 따른 수학교과 인성수준 차이의 분석	학생들의 수학교과 인성수준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학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안함.	중	수학
강미선	2020	시조창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시조창 '석암제'를 적용하여 인성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시조창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제시함.	초	국어
박만구	2020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수학교육	수학과 문학의 연계를 통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등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함.	초	국어, 수학
권정현 문영빛	2020	인성동화제작 프로젝트를 통한 가치덕목의 재인식	학생 자신이 감동받은 이야기를 소재로, 인성동화를 제작함으로써 가치덕목을 재인식하는 효과를 확인함.	초	도덕

전명순	2020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교육 내용 분석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인성 요소의 반영을 점검해 보고, 국어과 교육에서 강화할 인성 역량을 분석함.	중	국어
정혜현 노하늘 조재윤	2020	중학교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례 연구 -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중심으로 -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및 언어문화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수업 사례를 탐색함.	중	국어
서재복 송태규 임명희	2020	중학생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인성과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중학생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인성과 문화다양성 요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함.	중	시민과 자치, 민주시민교육
양소영	2020	창의·인성교육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 음악극의 창의적 접근 요소 탐색	초등학교 3학년 음악극의 창의적 접근 요소를 탐색하는 데 있어 먼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음악극에 나타난 창의적 접근 요소를 분석함.	초	음악
정누리 김정렬	2020	초등 3·4학년군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영어 동화책의 분석 및 활용방안 고찰	초등 3~4학년군 영어교육에서 영어 동화책을 활용한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을 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한 동화책을 분석하여 보고 창의·인성 동화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고찰함.	초	영어
정지선 이숙향	2020	포스터 제작 협동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의 인성역량, 장애학생 수용태도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포스터 제작 협동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의 인성역량, 장애학생 수용태도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	초	융합
이하림	2020	포스트휴먼 시대 핵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 미술과 중심 교과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핵심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안으로서 미술과 중심 교과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함.	초	미술

박윤경	2020	고등학생의 독서 의식 탐구를 통한 독서 교육 사례 연구 - 학문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과 공감적 독서를 중심으로 -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문식성(functional literacy)을 익히고, 직업과 학업에 필요한 학문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태도를 분석함.	고	국어
강유진 박지훈 박종석 남정희	2021	과학교육 기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CoProC) 프로그램 실천 교사들의 이해 분석	CoProC 프로그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성역량 성취도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함.	중, 고	과학
한송이	2021	내러티브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인성 음악교육 방안	인성교육과 현악기 실기교육의 접목 방안으로 Bruner의 내러티브 구성, Burke의 내용 구분, Josephson이 제안한 인성의 여섯 가지 가치관과 음악 실기교육 내용을 내재한 내러티브를 제시함.	초	음악
정여름 손장호	2021	유기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교육(AA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유기견을 활용한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함.	초	실과
김아영 차우규	2021	인성교육으로서 정보윤리교육의 핵심 주제 및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탐색	정보윤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내용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범주화 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탐색함.	초, 중	도덕
권태완	2021	인성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연생태 교육활동 탐색	자연생태교육 중점 교육과정 재구성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교육 활동이 인성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	초	융합
홍현주 이인재	2022	‘Second STEP’ 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성장 마인드 셋 & 목표설정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	Second STEP 프로그램을 성장 마인드 셋 & 목표설정,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탐구한 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초	도덕
박경애	2022	AI 시대 한문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 방향 - 논어를 중심으로 -	AI 시대 기술문명의 실용적 가치가 인성에 미치는 영향과 한문 고전에 담겨 있는 인문적 가치를 성찰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인성교육의 방향을 한문 고전을 통해 제시함.	중, 고	한문

양영희	2022	가치교육을 통한 어휘교육의 인성 함양 교수 · 학습 시안 - 혐오 표현을 대상으로 -	혐오 표현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가치명료화 절차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안함.	중, 고	국어
이용섭 김윤경	2022	초등학교 원격 과학수업이 과학 학업성취도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원격 과학수업이 과학 학업성취도와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	초	과학
김현욱 최화숙	2022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요소 고찰	생활교육 차원에서 반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성함양 교육과정 내용요소를 탐색함.	초	전체

교과 관련 인성교육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이 15편, 중학생 대상이 8편, 고등학생 대상이 6편으로 초등학생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 연계가 총 5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덕교과와 수학교과에서 2편씩 수행되었다. 도덕교과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자체가 바른 인성 함양에 있으므로, '인성'을 핵심어로 사용한 연구나 별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수행된 연구가 적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수학 교과의 연구처럼 다양한 교과와 인성교육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학교 수업을 통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③ 교과 외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표 Ⅱ-5〉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교과 외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연구 대상
김금희 강순실 황재욱 박형건	2020	고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분석	유도수업, 연극수업, 인성수업을 포함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만족도를 파악함.	고

손경원	2020	고등학생의 인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학급토론 개방성의 조절 효과 검증	고등학생의 인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인성과 정치참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급토론 개방성의 조절 효과를 검사하여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함.	고
이민자 김옥진	2020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에 미치는 효과	방과후활동으로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초
김진아	2020	삶의 철학을 위한 철학상담과 인성교육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원리와 실천 -	다양한 인성교육의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인성교육의 철학적 원리와 기초내용을 토대로 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철학적 원리로서 정립하고자 함.	중, 고
유지현 이시종 김수미 김옥진	2020	토끼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토끼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이 초등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초
조용	2022	미래사회 대비 중학교 예술교육 구현 양상에 관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 분석 및 논의: 학급 뮤지컬 프로젝트 중심으로	미래사회 대비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을 구상하고자 학급 뮤지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예술 수업 참여인식과 핵심역량 증진의 사전-사후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운영 담당 교사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역량기반 중학교 예술교육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중
이은수	2022	인성교육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심심풀이 M3 (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심심풀이 청소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해 탐색하고 질적으로 분석함	중, 고
민현덕 김미경 고현	2022	질문중심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중심 하브루타 학습이 이들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중
김남경	2022	쿠바의 오가노포니코 PEST 분석에 기초한 초등학교 텃밭교육의 전략적 발전방향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학교텃밭 운영을 위하여 인성교육의 전략적인 방법을 탐색함.	초

박성호 최준섭	2022	학생과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학생과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학생과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봄.	초

교과 외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대상 4편, 중학교 대상 4편, 고등학교 대상으로 4편의 연구가 수행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특히 연극, 동물교감, 뮤지컬, 명상, 텃밭 가꾸기처럼 교과에서 실시하기 힘든 체험형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2) 경기도 인성교육 (

본 연구는 ‘경기도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인성교육연구 현황을 검토하였다. 우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인성교육 중점 · 연구학교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인성교육 관련 정책연구로 2건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먼저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방안〉(진숙경 외, 2017)은 경기도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의 담당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진숙경 외, 2017)은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안하였다.

나) 인성교육 우수학교 사례

경기도교육청의 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실시된 이후 현재(2016년~2022년)까지 관할 학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연구학교나 중점학교 사례를 정리하면 <표 Ⅱ-6>와 같다.

<표 Ⅱ-6> 경기도 인성교육 우수 사례 연구·중점학교(2016~2022)

년도	학교명	주제	주요 교육활동
2016	광주매곡초등학교	『身言書判』 교육을 통한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 신언서판(바른 몸가짐과 생각, 언어문화개선, 배려와 소통, 이해 존중 참여 나눔 감사를 실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학교 텃밭, 감사편지, 건강먹거리, 가족음악회, 지역 체험활동 등 운영
2016	대덕초등학교	'배움·나눔·어울림'의 마중물로 '참삶' 학교문화 가꾸기	•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공감, 배려, 나눔, 어울림의 인성 핵심역량 강화 •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호연지기 신장 • 대덕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다지기
2016	덕소중학교	통-통(通-通)으로 6-core 인성을 세우는 행복한 학교	• 전 학년 교과 핵심인성교육과정 편성 • 스쿨팜 운영, 위기학생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2016	문산수억고등학교	꿈과 끼를 북(Book)돋우는 행복학교	• 인성마일리지 운영 • 교과융합 '논어'로 보다 • 유네스코 시민교육
2017	청옥초등학교	ECHO(메아리) 인성프로그램을 통한 핵심 인성역량 기르기	• 태도, 친화, 감성, 책임 중심 프로그램 운영 • 1학급 1인성 브랜드 갖기
2017	산본고등학교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 학교	• 참여형 융합 창의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 삶이 녹아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성장스토리 만들기
2017	신백현중학교	인성 깊은 나무를 위한 가정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누리 행복 학교	• 감성소통 독서인문 프로그램 • 예술·체육 특성화 교육을 통한 감성, 공감 교육
2017	충현중학교	세움-다움-이음 프로젝트를 통한 바른 품결 기르기	• 다새움 교실(대안교실)운영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작은 성공의 기회 제공해 자존감 높여주기 • 봉사연계 지역화 교과통합 체험학습 운영
2017	퇴계원고등학교	학생중심 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인재를 키우는 행복한	• 학교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 연계 • 인문학교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 발표대회

		학교	• 가정 지역사회와 인성체험 프로젝트 운영
2018	양일고등학교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 신장 프로젝트	•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과정 • 인문학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 마을 나눔 공동체 활동 •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효실천 프로그램
2018	신백현중학교	학생에서 시민으로 3-GO 프로젝트 적용으로 인성누리 시민학교 만들기	• 소시민(소통하는 시민) 교육과정 운영 • 교실로 찾아가는 따뜻한 시상식 • 아침 명상, 1인1화분 가꾸기, 언어순화교육 •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참시민되기 학생자치회 활동

<표Ⅱ-6>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인성교육 중점 · 연구학교들은 교과연계, 비교과 연계, 특색 사업, 가정 · 지역 연계하여 충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학교나 중점학교가 아닌 학교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학교 또는 중점학교 사례가 없어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부족을 보여준다. 나아가,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적절한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수업을 반영한 프로그램 사례가 없다는 점, 주로 소통, 공감, 배려, 예의(바른 언어)에 인성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 국외 인성교육 동향 분석

인성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이래, 국외의 인성교육 사례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국가별 인성교육 연구 및 실행의 역사와 특징을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외의 인성교육 정책이 담긴 문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 설계를 위한 함의를 찾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1) 미국

미국에서 세속적인 인성교육의 전통은 20세기 초 맥거피 교본(McGuffey

Readers), 허친스(Hutchins)의 아동 도덕 수칙(Children’s morality code)과 같은 글이나 ‘인성이 중요해(Character Counts!)’, ‘네 번째 R(respect)과 다섯 번째 R(responsible) 센터(the Center for the 4th and 5th Rs)’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딜레마 토론, 래스(Raths)와 하먼(Harman)의 가치명료화 기법, 리코나(Lickona)의 인격교육론과 같은 인성교육에 관한 담론들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담론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단지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맥락

이와 같은 연구 및 실천의 흐름과는 별개로 미국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승인되고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가 미국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미국 의회는 학교교육에서 학문만큼 인성 발달이 중요하다는 호레이스 만의 1840년대 주장을 미국 인성교육의 전통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1994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파트너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인성교육협회는 11가지 인성교육 원리를 발표하고 미국에서 인성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주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확산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미국 연방 정부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2001년 아동낙오금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다. 이 법은 미국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전통을 다시 강조하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미국 교육부는 미국 교육의 6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젊은이의 인성과 시민성을 증진시키는 것’(Strategic Plan, 2002-2007)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미 교육부는 전국의 국가 교육기관 및 학군과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미국 교육부는 주정부 및 지역 교육 기관에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는 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www.ed.gov/programs/charactered/index.html)을 통해 학생들이 인성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끔 양질의 교육 활동 및 계획의 설계, 구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거 기반(evidence based) 인성교육 목록이 미국 사회정서학습 협회인 CASEL이 제공하는 우수한 사

회정서학습 프로그램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삶의 기술 훈련(Life Skills Training’, ‘시애틀 사회적 발달 프로젝트(Sea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 ‘아동 발달 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I Can Problem Solve)’는 CASEL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학교 개입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학 연구 기관이나 비영리 교육 기관이 재단의 후원을 받아 만드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는 학교 폭력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후에 미국 인성교육협회나 사회정서학습 협회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 20년간 미국에서 사회정서학습이 확산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성교육과 사회정서학습 모두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최근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는 인성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인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이하 CSED, 2022)를 발표하여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성을 높이며 아동을 위한 개입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다양한 인성 강점(character strength)과 사회정서적 기술 및 역량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질을 함양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며, 현장의 교육자들에게 공통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아래 여섯 가지의 신념을 공유한다.

- 인성교육에서 아동이 처음 만나는 교사는 가족이다.
- 인성 강점과 사회정서적 기술은 필수적인 것으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 긍정적인 학교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측면 전체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인성 강점을 가르치고, 포착하고, 추구해야 한다.
-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은 모든 종류의 학교 계획을 포괄한다.

[그림 Ⅱ-1]은 CSED의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체계 도식이다.



[그림 II-1] CSED의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체계 도식

구체적으로 CSED는 아동이 학교 및 사회에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번성할 수 있도록 인성 강점과 사회정서적 역량 및 기술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끔 로드맵을 제공한다. <표 II-7>는 CSED의 주요 요소별 개념정의와 지표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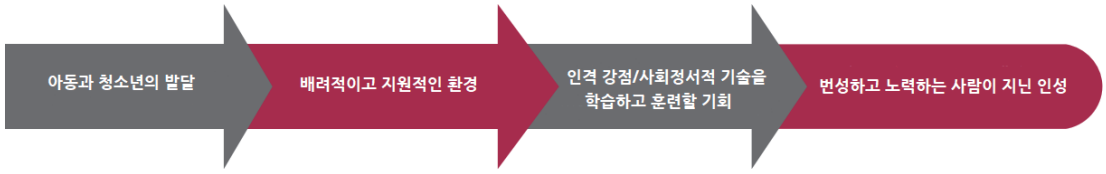
<표 II-7> CSED의 주요 요소별 개념정의와 지표

		개념 정의	지표(성취기준)
인성	도덕적 인성	정직, 성실, 배려, 연민, 감사, 솔선하는 용기를 포함하는 인성 강점	A. 정직, 성실, 배려. 연민, 감사, 솔선하는 용기의 인성 강점을 알고 이해하며 실천한다. B. 정직, 성실, 배려. 연민, 감사, 솔선하는 용기의 인성 강점을 적용하고 보여준다.
	수행적 인성	수양, 책임감, 목표 설정, 그릿을 포함하는 인성 강점	A. 수양, 책임감, 목표 설정, 그릿의 인성 강점을 알고 이해하며 실천한다. B. 수양, 책임감, 목표 설정, 그릿의 성격 강점의 인성 강점을 적용하고 보여준다.
	지적	호기심, 신중함, 지적	A. 호기심, 신중함, 지적 자율성과 겸손, 개방성, 비판

	인성	자율성과 겸손, 개방성,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인성 강점	적 사고의 인성 강점을 알고 이해하며 실천한다. B. 호기심, 신중함, 지적 자율성과 겸손, 개방성, 비판적 사고의 인성 강점을 적용하고 보여준다.
	시민적 인성	공정성, 존중, 봉사,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는 인성 강점	A. 공정성, 존중, 봉사, 공공선에 대한 기여의 인성 강점을 알고 이해하며 실천한다. B. 공정성, 존중, 봉사, 공공선에 대한 기여의 인성 강점을 적용하고 보여준다.
사회정서적 역량	자기 인식	감정이 어떻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사고방식, 그리고 개인적인 강점을 인식 · 이해 · 표현하는 능력	A. 감정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사고방식, 개인적인 강점을 인식 · 이해 · 표현한다.
	자기 관리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충동, 감정, 생각, 행동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	A. 다양한 상황에서 충동, 감정, 생각, 행동을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보여준다.
	사회적 인식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관점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A.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관점을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보여준다.
	대인/관계 기술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동료의 부적절한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	A.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건강하고 보람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동료의 부적절한 압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책임감	윤리적 원칙, 안전, 적절한 사회 규범,	A. 윤리적 원칙, 안전, 적절한 사회 규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있고 윤리적인 의사 결정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건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결과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나아가 CSED는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5학년,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4개의 연령군별로 하위에 4~9개의 구체적인 지표(성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인성강점 및 사회정서적 발달 교육을 계획, 실행, 평가를 실제적으로 돕는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CSED가 목표하는 바는 학생이 '번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닌 인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며, 이는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배려적이고 지원적인 환경'과 '인성 강점 및 사회정서적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림 Ⅱ-2]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과정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는 개인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번성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한 학교 개입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인성교육 정책은 시민교육적인 측면과 사회정서학습적인 측면에 별도로 전개되어 온 면이 있는데, 결국 인성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번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하는 정책적인 프레임이 필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군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성취기준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을 실제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영국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통일된 형태가 없고 강조점도 달랐다. 그럼에도 영국의 학교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영적(spiritual), 도덕적(moral), 문화적(cultural), 사회적(social)발달을 증진시키는 것' (QCA, 1999)이 목표로 명시된 바와 같이 인성교육에 대한 지향점을 담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1년, 영국 교육고용부는 인성교육을 명시한 『성공으로 가는 학교(Schools Building on Success)』를 발표하였는데, 이때부터 영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된다(김봉제, 2018). 이 보고서는 "어느 누구도 학업성취가 학교 교육의 유일한 결과라고 믿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옳은 것을 배우고, 배경과 상관없이 친구를 사귀며, 협력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삶과 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민간 재단과 사회적 기업의 주도로 〈삶을 위한 배움 프로젝트(Leaning for life)〉가 추진되고, 버밍햄 대학교에 '주빌리 센터(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가 설립되는 등 인성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행이 활발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영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분석한 〈학교에서 인성 기술 발달시키기(Developing character skill in schools)〉(2017)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학교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교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2019년 배포된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는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제작된 것이다.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 지침을 통해 인성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영국 인성교육의 실행을 안내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 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character education framework guidance)>는 영국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위한 것으로 주로 교사와 관리자를 위해 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는 인성이라는 개념에 관한 정의, 6개의 주요 기준(benchmark),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 실행 루브릭, 평등법 관련 준수 사항, 데이터 관리 지침을 포함한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인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이 중첩되는 복잡한 개념이다.

-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며, 현재의 노력과 장기적인 성과의 연결성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좌절로부터 배울 줄 아는 능력
- 용기, 정직, 관대함, 성실함, 겸손함, 정의감과 같은 긍정적인 도덕적 특성, 즉 '덕(virtue)'의 학습과 습관화
- 신뢰감 있고 명확하며 건설적으로 주장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예의와 있게 행동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 가족, 동료,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 지역사회, 종교 또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개인이 깊이 뿌리 내리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끔 돕는 지속적인 헌신(commit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이처럼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에서 인성은 도덕적 특성인 덕뿐만 아니라, 주도성과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 다른 사람 및 세계와의 연결성 속에서 삶의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도성, 회복탄력성 등 최근 몇십 년간 강조되는 특성이 도덕적 인성 특성인 덕보다 먼저 제시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대신 세계와의 연결성 속에서 개인의 의미 있고 성실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한편, <표 II-8>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의 여섯 가지 주요 기준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중요한 특징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학교가 자신의 책무를 평가하고 인성교육 계획과 실행을 안내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표Ⅱ-8〉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

주요 기준	구체적인 기준
A.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 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가? • 학교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 정체성을 형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돕는가?
B. 우리 학교는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 학생들이 학교생활 규칙과 좋은 행동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가? 학교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의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격 자질의 범위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C. 우리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얼마나 회복탄력성과 자신감을 잘 길러주는가?	•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는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문화 자본을 가르치는가? • 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가? 효과적인 교육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돕는가?
D. 교육과정 연계 활동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경험 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창의, 공연, 스포츠, 토론, 도전 활동을 광범위하게 다루는가? •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홍보하는가? • 학생들이 도전하고 전문성을 쌓을 양질의 활동을 제공하는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학생들이 대회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며,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가?
E.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잘 촉진하는가?	• 연령에 따른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봉사활동 기회가 다양하고, 의미 있으며, 질이 높고, 지속적인가? • 봉사활동 기회가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하는가?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가?
F. 우리가 제공하는 것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주는가?	• 인성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예를 들면, 비용, 시기, 부담 등)을 이해하며 감소시키고 있는가? • 모든 배경의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가? •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였는가?

이러한 루브릭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기준점 삼아 묻고 답함으로써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채워가며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책무가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관리자는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기 전에 시간, 보수, 사용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성교육에 따른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회복을 돕기 위한 업무량 감소 도구(the workload reduction toolkit)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소속감과 자부심, 타인에 대한 봉사, 교육의 형평성과 공평한 기회가 큰 틀에서 강조된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한편,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는 부록으로 영국에서 활용 가능한 인성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의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학교가 자율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이 목록에는 영국인성교육협회(Association for Character Education), 버밍햄 대학의 쥬빌리 센터(Jubilee Centre), 에든버러 공작(Duke of Edinburgh), 적십자(Red Cross), 스카우트(Scouts), 프리미어리그의 프라이머리 스타(Premier League Primary Stars) 같은 단체나 기관이 포함된다.

3) 싱가포르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싱가포르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학업 면에서 우수하기만 한 싱가포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도전을 만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절박하게 느꼈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입시 압박 속에서 싱가포르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각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2014년, 싱가포르는 미래 사회로의 변화에 적절하게끔 교육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전체 교육과정을 관통하는 체계로서 〈인성 · 시민 교육과정(Character & Civic Curriculum)〉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21세기 핵심 역량과 추구하는 인간상' 체계는 '자신감 있는 사람,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사람, 활동적 기여가, 참여적인 시민'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존중, 성실 등'과 같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정서적 역량과 미래사회가 싱가포르

요구하는 ‘시민문해력, 글로벌 인식과 문화 간 기술, 비판적·투자적 사고, 정보·소통기술’을 포함한다.

이후 2021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훌륭한 인성(Good character)’, ‘회복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웰빙(Resilience and social-emotional well-being)’, ‘미래에 대한 준비(Future readiness)’, ‘활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ship)’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Ⅱ-9>와 같다.

<표Ⅱ-9>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의 목표

목표	구체적인 내용
훌륭한 인성	건전한 도덕적 나침반, 옳고 그름에 대한 높은 이해, 비판적 · 윤리적 사고, 분별력 있는 판단력 선택, 행동에 대한 책임, 타인 배려, 탁월함을 위한 노력
회복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웰빙	균형 잡힌 자아의식, 건강한 관계 형성, 회복탄력성, 삶의 의미 추구, 감사와 긍정적인 태도
미래에 대한 준비	삶의 목적의식, 삶의 목적의식에 바탕을 둔 진학 · 진로 탐색이 가능하게끔 돕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 배울 수 있는 능력
활동적인 시민	국가에 대한 소속감, 자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 싱가포르의 취약성과 제약에 대한 현실 인식, 타인의 삶을 개선하고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에 바탕을 둔 강한 국가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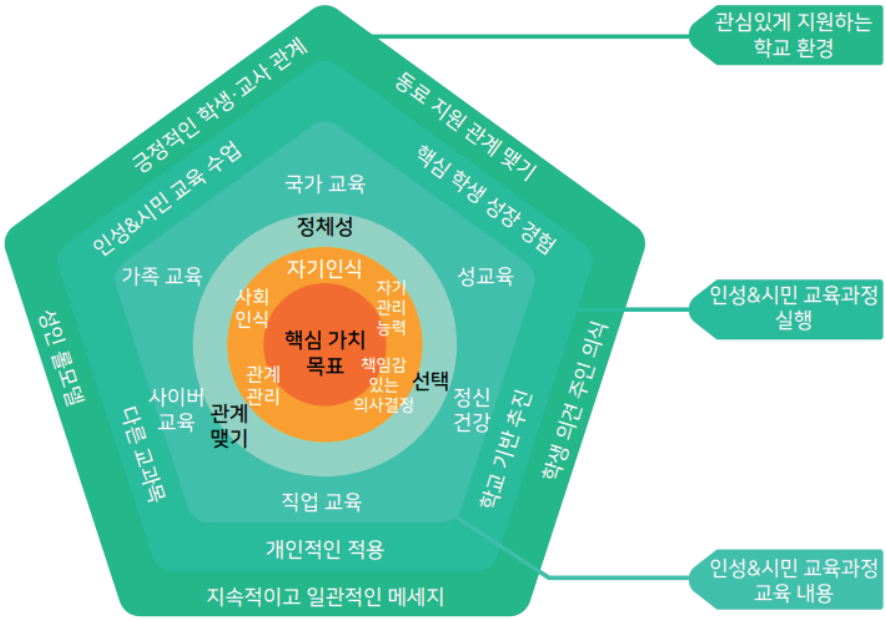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의 프레임은 ‘학생 중심’, ‘의도성’, ‘일관성’을 기본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학생 중심’은 교육 활동의 설계에 학생을 참여시키고, 학생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학생을 ‘도덕적으로 올바른 개인 그리고 책임감 있고 활동적인 시민’으로 기르는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의 목표가 타당한 것은 학생의 사회정서적 웰빙을 도모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칙인 ‘의도성’은 학습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가치, 사회정서적 역량, 시민 의식을 개발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학적 접근을 의도적으로 적용하며, 의도된 학습 결과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일관성'은 전체학교접근(schoolwide approach)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에 걸쳐 일관된 방식으로 인성 및 시민 의식, 사회 정서적 웰빙의 발달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교육, 진로 교육, 정보 윤리교육과 같은 우리나라의 범교과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이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일관성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 태도 및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일관성은 교육 주체 간의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된 비전과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 관리자, 교육청이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설계된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 프레임은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 프레임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 프레임의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핵심 가치 목표

핵심가치 목표는 인성의 핵심으로, '존중, 책임, 회복력, 진실성, 배려 및 조화가 포함' 된다. 이러한 가치는 싱가포르가 공유하는 사회 · 국가적 가치의 기초가 된다.

② 사회정서적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은 핵심 가치의 실현과 인성을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여기에는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 관리, 관계 관리,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포함된다.

③ 핵심 아이디어 - 정체성, 관계 맺기, 선택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의 내용은 '정체성', '관계 맺기', '선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이 설명하는 핵심 아이디어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체성' 은 목적의식을 갖고 주변 세계에서 본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 개념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관계 맺기' 는 사회적 맥락과 관계 및 사회적 상호 작용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개인의 인성과 잠재력의 개발은 개인이 살아가고 발전하는 것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세계적 맥락을 고려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관계 맺기' 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의미 형성의 사회적 협력 과정과 함께 문화적 전달을 통해 내면화되므로 중요하다.

세 번째 핵심아이디어는 '선택' 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선택은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마주치는 복잡한 환경에서 그들이 내려야 할 다양한 유형의 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이 누구이고 누가 되고 싶은지 정함

으로써 ‘선택’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학습 영역

내용적인 면에서 <2021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은 국민교육(National Education; NE), 성교육(Sexuality Education; SE), 보건교육(Mental Health; MH), 진로교육(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ECG), 정보윤리교육(Cyber Wellness; CW), 가족교육(Family Education; FE) 영역에서 학습된다.

⑤ 실행 영역

교육과정 상에서 <2021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수업 및 활동에는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에 대한 명시적 수업, 생활지도 등 교실 밖 경험, 학교 단위 프로그램, 교과 연계, 학교 밖 활동’이 포함된다.

⑥ 환경 지원

효과적인 인성 및 시민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표Ⅱ-10>과 같은 환경요인이 필요하다.

<표Ⅱ-10> 효과적인 인성 및 시민교육을 실행을 위한 환경요인

효과적인 인성 및 시민교육 실행을 위한 환경요인	내용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메시지	핵심가치, 인성, 사회정서적 웰빙, 시민성에 대해 일관적인 메시지를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에서 지지하고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환경은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학생 · 교사 관계	사회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과 대화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
성인의 역할 모델	교사를 비롯한 학생 주변의 성인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른들은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역할 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래지지 및 관계	또래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지의 원천이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러하다.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마인드 셋, 온·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웰빙, 좋은 인격 형성을 촉진하게끔 해야 한다.
학생의 목소리와 주인의식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회 제공하는 것은 학습 주체성, 자기 주도성, 책임감, 주인의식을 발달시키므로 중요하다.

한편, <2021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로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관계', '의미 형성', '메타인지와 딥러닝'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 의미 형성(sense-making) 원리는 학생들이 비판적 질문, 자신의 학습경험과 새로운 지식과의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의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메타인지와 딥러닝 원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을 가시화하여 점검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발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끔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와 지식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원리이다. 나아가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학적 접근으로 '내러티브 접근', '명시적 기술 훈련 접근', '배려 접근', '경험학습', '인지발달접근', '가치명료화접근'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성 및 시민 의식 교육과정>의 평가는 '평가는 학습 과정의 일부로 꼭 필요하다',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피드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평가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교사의 학생 평가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학생의 자기 평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과정은 대화와 성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이 자신과 동료의 성장을 위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싱가포르에서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에 처음 제안된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은 시대적이며 국가적인 요구에게 대응하려는 고민이 담겨 있으며, 2021년의 개정 역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사례가 된다. 특히, 메타인지, 딥러닝 및 평가 피드백에 관한 교수-학습 전략과 평가 방안은 효과적인 교육 실행에 관한 최근의 이론 및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르게 명시적인 인성 및 시민 교육 수업과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여러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피상적인 인성교육의 시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3. 소결

지금까지 '인성교육 정책 및 추진 현황'과 '국내외 인성교육 동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중요한 목표였다. 하지만 학교폭력문제 등을 계기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틀 속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추진되게 된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법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매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발표해왔는데, 주로 주체적·공공적 시민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시민적 인성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는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인성교육 전반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나 도덕적 가치관 또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방향성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의 변화는 국내의 인성교육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관은 정책연구를 통해 공감, 감정 조절, 관계 맺기 등 사회정서적 역량 발

달에 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였으며, 생태 감수성, 메타인지, 온라인 기반 또는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도하였다. 국내 연구 동향의 특징적인 점은 전통 사상과 관련된 연구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성(性), 명(命), 회통(會通) 등 다양한 전통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전통 사상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인성교육을 전개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연계 또는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주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인성교육 중점 · 연구학교들은 교과 연계, 비교과 연계, 특색 사업, 가정 · 지역 연계한 인성교육 사례와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들 사례는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학교 또는 중점학교 사례가 없어 인성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적절한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수업을 반영한 프로그램 사례가 없다는 점, 주로 소통, 공감, 배려, 예의(바른 언어)에 인성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인성교육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외 인성교육 사례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의 번영(flourish)과 행복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미국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는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인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2022)를 발표하여 사회정서학습과 통합한 새로운 인성교육 체계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각 주에 마련된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한 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개입 프로그램이 많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인성교육과 통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는 연령군별로 구체적인 지표(성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인성강점 및 사회정서적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한 계획, 실행, 평가를 실제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인성교육 정책은 시민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정서학습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전개되어 온 면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영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와 같은 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 지침서는 인성을 도덕적 특성인 덕뿐만 아니라, 주도성과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 다른 사람 및 세계와의 연결성 속에서 삶의 목적의식을 지니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성교육이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인성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훌륭한 인성', '회복탄력성과 사회정서적 웰빙', '미래에 대한 준비', '활동적인 시민'을 목표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역량의 역할, 아이디어, 학습·실행 영역, 환경적 지원 요소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20201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은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로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관계', '의미 형성', '메타인지와 딥러닝'을 제시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상 인성교육 정책 및 연구 동향 분석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인성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의 인성교육 연구과 정책을 보면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보다 학생의 삶에 의미 있으며,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이 실행되어왔다. 반면,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은 인성을 시민성으로 축소하여 추진해온 측면이 있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다양하게 수행된 연구 및 실천의 성과를 포함하면서도, 해외의 유사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성을 학생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변화된 인성교육 정책의 수립이 요청된다.

III

미래지향적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미래교육 동향 분석 2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특징 3

Ⅲ.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1. 미래사회 전망과 교육의 변화

가. 디지털 문명 시대와 교육

세계경제포럼(WEF)인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미래 시대의 이슈로 제시한 이후, 4차 산업 혁명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예측하는 핵심 용어가 되고 있다. 슈밥(C. Schwab)은 현재 진행되는 빠른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꾼다고 본다(Schwab, 송경진 역, 2016). 디지털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 혁명은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영역과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사회를 만들었다. 즉, 주요 과학기술 혁신은 전 세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의 차원에서 이전 사회와는 현저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 혁명은 신기술로 인해 이전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진행하며 경제, 기업, 사회에 전환적 패러다임을 유도한다. 이는 '무엇'을 '어떻게'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변화를 이끌며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와 충격을 수반한다(Schwab, 송경진 역, 2016).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선포된 이후 4차 산업 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 혁명 도래와 디지털 문명의 등장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를 탄생시켰다.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란 태어날 때부터 개인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해온 세대라는 의미이다. 교육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마크 프렌스키(M. Prensky)가 처음 소개한 용어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시대에서 살았다는 의미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모 세대의 경우 살다 보니 디지털 시대로 이주하게 된 '디지털 이주민'으로 디지털은 그들에게 '도구'일 뿐이지만, 디지털 원주민인 아이들에

게는 디지털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 그 자체이다(김지영, 2022). 또한 이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하는 사람, 즉 스마트폰을 인공장기와 같이 신체 일부처럼 쓰는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으로 포노 사피엔스라 불리기도 한다.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 생활하며 비대면 또는 언택트(Untact) 상황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검색을 통해 빠르게 해결한다(최재천 외, 2020). 다시 말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네트워크화된 개인(networked individual)’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서로 소통하며 미래사회의 운영 주체로 등장한다(정호범, 2017).

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디지털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 현상은 학생들의 집중력 및 학습 능력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 고유의 능력인 호기심을 줄어들게 하고 깊은 사고 작용을 더욱 힘들게 한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지만, 직접 만나 소통을 나누는 것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결과에 따르면, 관계 맺기는 어떠한 온라인 혹은 전자기기로 대체되기 어렵다. 관계란 뇌가 복합적 활동을 펼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서 나누는 소통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에 비해 자극의 정도가 높지 않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직접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촉각까지 사용하며 내적 감정 상태와 기억회로까지 동원한다. 여기에 상대의 표정, 손짓, 태도 등 비언어적 정보를 파악하는 동시에 실시간 언어까지 사용한다. 이 모든 작업은 복잡한 뇌 회로가 동시에 쓰이면서 가능한 것이다(이은이, 2020). 이를 통해 진정한 관계 맺기는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다양한 관계적 상황에서 접하는 다양한 자극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지영, 2022).

한편 생산 도구와 접근 도구가 활자와 종이에서 디지털과 인터넷으로 바뀌며 지식의 생산량은 빠르게 늘어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새로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은 정보처리의 과정을 알고리즘의 형태로 바꿨다. 달라진 지식 구조와 정보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한 인터넷 검색 분야와 기술은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구본권, 2020). 심지어 정보의 유효기간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지식의 유용성과 효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줄어드는 ‘지식의 반감기’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아브스만(S. Arbesman)의 경우, 지식 반감기 시대에는 인간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변화하는 지식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Arbesman, 이창희 역, 2014). 즉 디지털 문명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학습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도태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는 신뢰성 없는 정보와 가짜 뉴스를 선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화에 따라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리터러시의 사전적 의미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우리가 일하고 배우는 환경이 디지털화되면서 정보 이해 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다(이주호 외, 2022).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먼저 미국도서관협회(ALA)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정보의 탐색, 이해, 평가, 제작,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고 기술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캐나다 비영리단체(MNet)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하드웨어 기기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디지털 기술을 창조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애초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는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선별해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수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는 기술적 역량에서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주체적 역량을 의미하게 되었다(이주호 외, 2022). 앞으로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정보를 양산하고 때로는 정보의 홍수 혹에서 가짜 뉴스를 쉽게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잘못된 정보를 식별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며 목적에 맞게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줘야 한다.

둘째,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반영한 학습자 주도성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기를 원하며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실제적인 배움을 원하고 학습에 있어서 통제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한다. 교육자들은 이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이러한 특징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주도성과 도전정신, 문제해결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김지영, 2022).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는 스스로 학습자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는 주도성을 키워줘야 한다. 이와같이 주도적 학습 동기를 갖고 공유된 콘텐츠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최고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과정이 개별화로만 이루어지기보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결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인공지능 시대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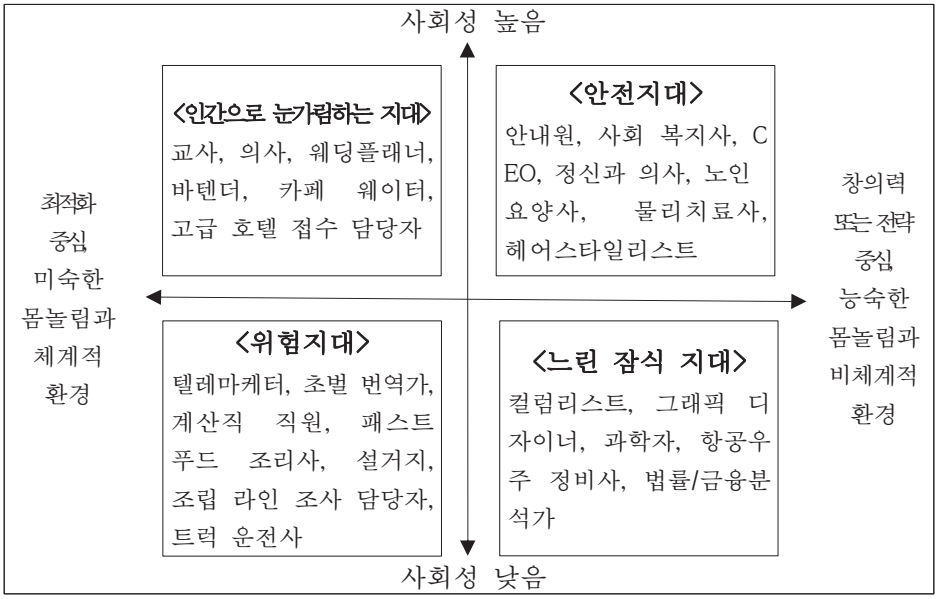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으로 초연결(superconnectivity)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보다 지능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다.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새로운 지능을 말한다(김문주 · 신현주, 2020). 무어의 법칙에 따른 컴퓨팅 능력의 발달 가속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은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컴퓨터가 따라 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연산 능력이나 지능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지닌 '초지능'의 탄생을 가져온다(구본권, 2020).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삶에 편리함과 여유를 가져다주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각과 청각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 기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아직 인간의 번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계 번역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조병익, 2018).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교통 정체를 줄이고 운전으로 야기되는 각종 위험을 제거해줄 수 있다. 국내 병원에서는 인공

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해 진료를 시작하는 등 점차 기계의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의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조병익, 2018).

이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기술이 의료, 정치, 법률, 경제 등의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등장한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갖춘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임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의한 통제사회가 등장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잠식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알고리즘이 공정해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적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AI 기반 챗봇, 개인정보 유출 피해,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시위대를 식별하기 위해 안면 인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한 흑인 남성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첨단 딥페이크 기술은 여성을 타켓으로 삼아 상업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마존, MS, IBM과 같은 여러 기술 회사들이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범죄자 예측이 인종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최근 관련 기술 사용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정창우 · 이혜진, 2022).

한편,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날수록 기계에 의해 인간이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제조업과 각종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리카이푸(Lee Kai-Fu)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수행하게 될 미래의 일들은 ‘최적화 중심’의 직업과 ‘사회성이 낮은’직종이라고 말한다. 최적화 중심의 직업이란 미숙한 몸놀림이나 체계적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으로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력과 전략이나 높은 수준의 사회성이 필요 없는 텔레 마케터, 보안 요원, 설거지, 트럭 운전 등은 위험지대에 속하며 기계에 대체되어 곧 사라질 직업군으로 본다. 반대로 능숙한 몸놀림과 비체계적 환경에서 창의성, 전략에 의존하거나 높은 수준의 사회성이 필요한 직업은 인

공지능 시대에서도 대체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Kai-fu Lee, 박세정 · 조성숙 역, 2019).



[그림 Ⅲ-1] 인공지능 대체 위험 : 인지노동과 육체노동
(Kai-fu Lee, 박세정 · 조성숙 역, 2019)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성 또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창의성과 메타인지 전략, 높은 수준의 정서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유토피아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이며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적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을 인공지능 전문가로 만들거나 단순히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놀라운 가능성

을 활용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이주호 외, 2022).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사회에서 급격한 변화를 유연하게 그리고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인재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이주호 외, 2022). 이처럼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체적 삶을 가능하기 위해 다음 [그림 Ⅲ-2]와 같은 '6C' 역량이 필요하다.



[그림 Ⅲ-2] 인공지능 시대의 '6C' 핵심 역량(이주호 외, 2022)

6C에서 '창의성'은 기존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는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판단할 때 편향된 분석 없이 사실적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 '컴퓨팅 사고'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효과적 해결을 위해 문제를 정의하고 답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융합'은 여러 학문과 실제 영역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인성'은 여전히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지구적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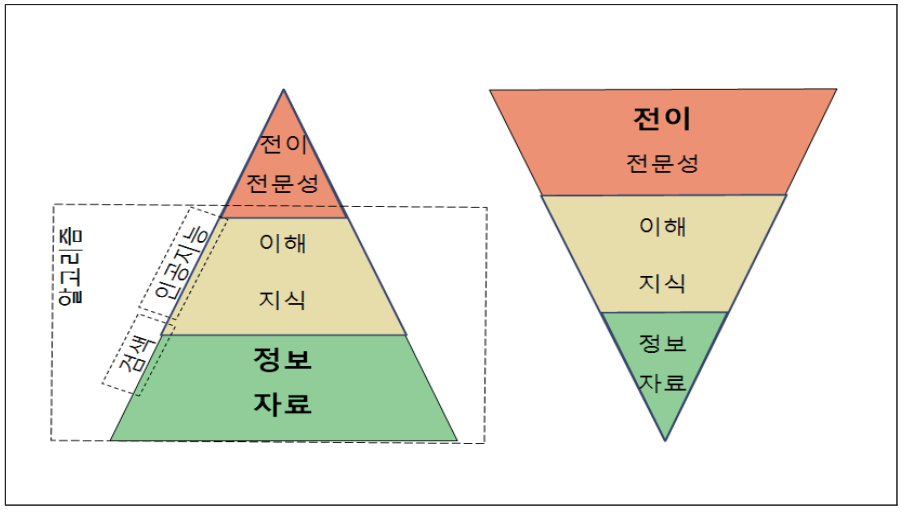
여겨지는 인간 본연의 성질을 의미한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보유한 조직일수록 문제해결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때 필요한 의사소통과 협업은 인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과 대안은 바로 인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이주호 외, 2022).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서 '개념적 지식'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측면과 유사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개념적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며 각 교과마다 '핵심 아이디어'를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 교과의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반영하였다(교육부, 2021c).

인공지능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인간다움을 강화하기 위해 '인간의 본질'인 '휴머니티'를 그 어느 때 보다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한다. 사람에 대한 관심, 배려, 애정, 예의 등을 갖추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저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휴머니티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다(최재붕, 2020).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사색'과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을 그 어느 때 보다 확대해야 한다. 사색과 성찰은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인간이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이지성, 2019). 다시 말해 인간이 로봇이나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현상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본주의(humanism)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성태제, 2017). 이것의 일환으로 협력 능력, 프로젝트 관리, 창의력과 같은 **소프트스킬**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따른 질문하는 능력, 공감 능력, 의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지적 호기심을 숙성시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 가는 통해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이철현 · 전종

호, 2020; 구본권, 2020). 이와 같은 인간의 본질로서 휴머니티의 기반인 지속적인 탐구 능력, 호기심, 질문에 따른 깊은 성찰은 부모의 요구와 기대, 사회적 압력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의 교육,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교육, 깊이 생각할 기회보다는 정답만을 가르치는 교육, 꺼내는 교육이 아닌 집어넣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전히 학교의 교육은 기존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조병익, 2018).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는 현 교육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인공지능에 따른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인간 존엄성과 인문학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메타인지를 활용한 문제해결 교육의 기회를 늘린다. 학습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한 지식을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활용할 수 있는 전이(transfer)능력 계발에 도움을 준다. 예전 교실에서는 단편적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면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학습은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래 [그림 Ⅲ-3]처럼 검색과 인공지능의 도입은 학교 교육의 위협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이 능력과 전문성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Ⅲ-3]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향
(Holmes et al., 정제영 · 이선복 역, 2020)

[그림 Ⅲ-3]과 같이 실제 삶의 윤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이와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메타 학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메타 학습(meta learning)이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메타인지 능력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성장 마인드 셋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Holmes et al., 정제영 · 이선복 역, 2020). 메타인지 분야의 원류라 할 수 있는 프라벨(J. H. Flavell)은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과제, 전략'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Flavell, 1979). 먼저 메타인지에서 '개인'은 학습 단계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촉구하며 학습이 끝난 후에는 평가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시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힘을 부여하는 셀프 임파워먼트(self-empowerment) 습관을 지니고 있어 '자기 동기 부여'와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하다(김지영, 2022). 그다음 문제해결을 위해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아이들은 '과제'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익숙한지 아닌지, 흥미로운지 지루한 것인지, 까다롭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쉬운 것인지를 살피며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한다(Flavell, 1979). 다시 말해서 과제를 해나가면서 과제의 난이도, 필요한 시간,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과제 차원의 메타인지 능력이다(김지영, 2022). 마지막으로 '전략' 차원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을 탐색하고 활용한 전략이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더 효과적인 다른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다(김지영, 2022). 이렇듯 1970~80년대에 정립된 인지 발달 차원의 메타인지 개념이 최근 들어 미래교육의 필수 요소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교육은 자기 주도 학습력의 향상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 불확실성 시대와 교육

미래사회는 단순히 빠른 변화만이 아닌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파괴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미래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는 우

리의 시대를 비대칭성, 복잡성,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 비대칭성은 비용이나 이득이 크기에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복잡성(complexity)은 복잡계(complex system)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일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의 상호 의존성을 의미한다. 세상의 복잡성 지수 증가는 결국 미래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한다(Ito & Howe, 이지연 역, 2017).

달라지고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은 심리적 불편함을 동반한다. 인지 부조화란 "개인이 지니는 신념, 생각,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할 때 생기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한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기보다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이나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와 같은 심리적 전략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확증편향은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 기대, 신념, 판단에 부합하는 확증적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인식 방식"이다. 또한, 선택적 인지란, "환경을 인지할 때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을 인식하는 경향"을 말한다(구본권, 2020). 이로 인해 불확실성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변화하는 지식을 나누거나 오류를 수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고수하려는 경향의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는 '절대 지식'이 될 수 없고 '가변적 지식'이라는 통찰의 힘은 미래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집단지성의 발휘나 시스템 사고를 통한 지혜로운 통찰보다는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절박함과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인의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경쟁력 중시의 풍토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여전히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 성취를 중시하고,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율을 선택하고,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보완하는 평등사회보다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18년 동일한 조사보다 한층 강화되었다(한겨레신문, 2020. 6. 24.). 이와 같은 자료는 우리 사회에서 경쟁 구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불확실한 사회에서 각자도생과 같은 개인주의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존과 상생 문화보다 배타적 혐오 문화가 심화되고 경쟁적 승자독식 구조가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더욱 우선시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를 '메리토크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란 "능력지상주의라는 의미로 우리 사회 전체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삶의 방식에 심층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념"으로 정의된다(장은주, 2017). 우리 사회는 메리토크라시의 헤게모니가 너무도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정치적 노력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교육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장은주, 2017).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구조와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많은 학자들은 생태적 전환과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탐욕에 대해 경계하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욕망에 대한 질서 부여,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강조한다(최재천 외, 2020). 특히 기후 변화가 아닌 참혹한 기후 재앙이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국내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덧붙여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어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와 불균형이 예측되고 있다(이근호 외, 2012). 연도별 출생아 수에 따르면 1975년 약 87만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약 14만명으로 무려 84%가 줄어들었다. 지난 40년간 50% 정도의 감소 폭이 있었던 것에 비해 최근 5년간 34%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받게 될 인구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송영범, 2022).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9를 기록했다. 작년 합계 출산율 0.81명에서 0.03명 감소한 것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 1명을 밑도는 국가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 이에 따라 35개월째 연속 인구 자연 감소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연합뉴스, 2022. 11. 23.).

이와 같이 기후 위기와 생태환경의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삶과 사회 전반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요구된다. 앞서 불확실성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고수하려는 확증 편향이나 선택적 인지가 더욱 강해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후 위기나 인구 구조 등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따른 통찰이 요구된다. 특히 비판적 사고 과정은 수동적 학습 과정이기보다 적극적 상호 작용과 성찰을 가져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폴(R. Paul)은 비판적 사고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제안한다. '약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자기중심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한 개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의 준거 틀 내에서만 사고하는 '단순 논리적 사고(monological thinking)'이다. 여기에는 지적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논증하며 어떤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 추론을 사용한다. 반면 '강한 의미'의 비판적 사고는 공정한 마음과 관련이 있어 하나 이상의 관점에서 이슈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중논리적 사고(multilogical thinking)'이다. 이러한 사고는 타자에게 반응적이고 지적 표준에 일관적이며, 많은 가치와 태도를 구체화해 독단과 교화를 거부한다. 또한, 지적 의견 차이를 허용하고 공정한 마음과 지적 통합성을 성취할 수 있게 격려한다(Fisher, 노희정 역, 2011). 비판적 사고가 다중적 차원에 강한 의미를 내포할 때, 자신의 사고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사고에 '반응'하는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성향이 강화된다. 이는 사고와 정서의 연결을 도와 도덕적 헌신과 행동을 이끈다. 립맨 역시 다차원적 사고의 전제 조건으로서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의 관계를 도식화한다(Lipman, 박진환 · 김혜숙 역, 2005). 독단을 거부하는 다중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다른 사람의 사고에 반응하는 감정이입과 결합되면 배려적 사고와 접합점이 마련된다. 이로써 불확실성 시대에 제시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래사회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과 공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측 불가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요즘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성적 및 대인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삶의 여유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의사소통과 협업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 시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협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 및 공감을 주고받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상호 소통과 대화는 자신의 생각에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기회로 집단지성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육

2020년 이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 역시 시민의 정신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 초기 국내 포털과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을 수집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블루와 연관된 핵심어로 “우울감, 극복, 장기화, 마음, 불안” 등을 들 수 있고, 주제분석 결과 주요 주제로 “심리적 어려움(29%), 정신건강 서비스(18.6%), 청소년 지원(17.7%), 코로나 이겨내기(17.5%), 의료분야 관심(17.2%)” 순으로 나타났다(임유하, 2021).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일컫는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가 생겨났다. 재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아이들 역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이은이, 2020; 김지영, 2022). 본 연구팀이 진행한 경기 인성교육 현황 분석 중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학생들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단어로 ‘부정적인(33.3%)’, ‘짜증나는(44.9%)’, ‘무기력한(45.4%)’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과 조절 불가능성에서 오는데 이는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 사람들의 불안 신호를 높여 여러 가지 현상을 낳는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실패에 대한 내성이 더욱 낮아짐에 따라 불안도가 높아지며 그만큼 아이들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사회적 격리기간 동안 학교라는 리얼리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도가 증가하였다(하지현, 2021). 또한 사회적 격리기간이 해제되었음에도 3년이 넘는 마스크 착용에 따라 점차 서로 간의 감정 읽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한 채 대화에 임하고,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과도 적절한 상호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타인과 소통하는 배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하지현, 2021).

코로나19 팬데믹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시간 관리의 어려움, 자존감 저하, 우울감, 무력감 등을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메르스나 경주지진, 세월호 참사 이상으로 정신건강에 위협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일상적 경험’과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저항력에는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 변화가 요구된다.

첫째, 회복탄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팬데믹 상황은 위험사회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제고는 다방면의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요구한다(정근식, 2020; 이은환, 2020).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시련을 이기고 쉽게 복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은 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차이는 회복탄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다시 튀어 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뜻인데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내지 ‘마음의 근육’을 의미한다(윤영돈 · 김혜진, 2016).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성공하는 경험들을 쌓아 점차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생각과 행동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로써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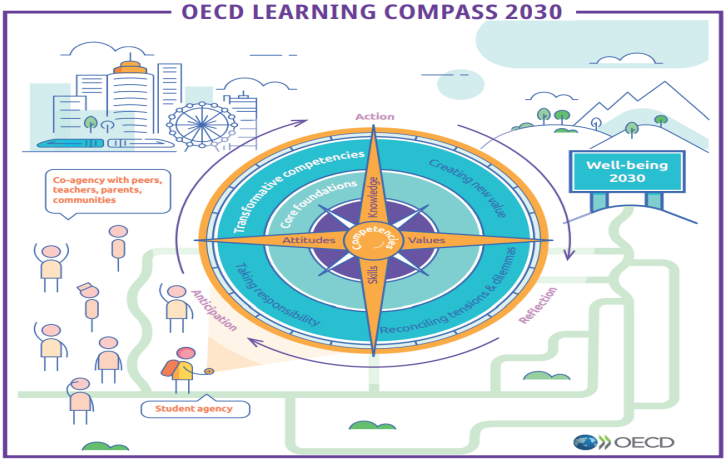
둘째, 자기 동기로서 그릿(Grit)을 강화한다.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평소에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

면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마음 챙김은 활성화된 편도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음 챙김은 일종의 정신적인 근육인데 이 근육은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을 훈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의 특정 영역의 회색질이 늘어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전방대상피질은 자기 조절 능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의와 행동을 통제한다(김지영, 2022).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힘이다(Duckworth, 김미정 역, 2019).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마음 챙김과 그릿은 회복탄력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미래교육 동향 분석

가. 웰빙(well-being)을 지향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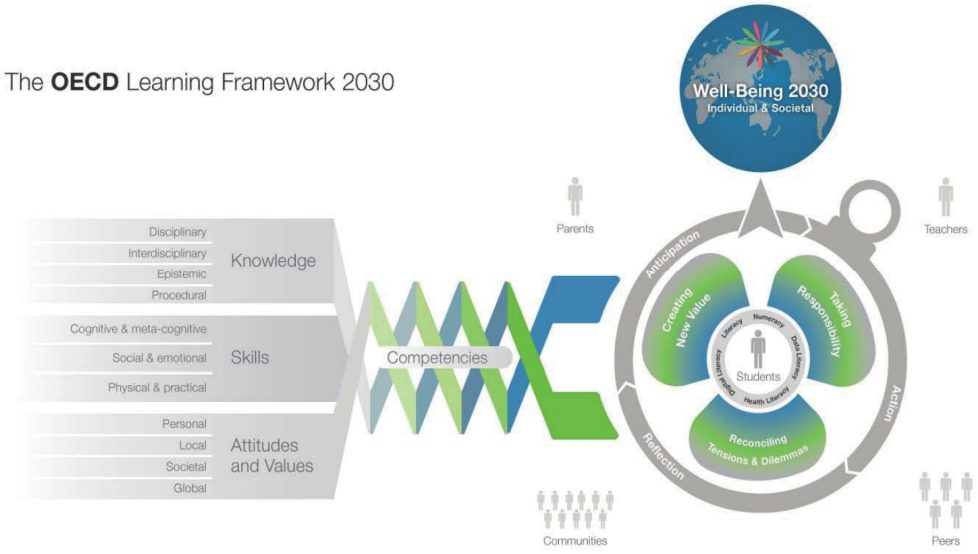
OECD는 2015년부터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며, 2030년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한 ‘학습 나침반 2030’을 발표하였다. 미래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학습자는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갖춰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역량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며, 변화하는 세계를 형성하고 기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새로운 가치 만들기’,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책임감 가지기’는 번영된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OECD, 2019). 이와 같은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 즉 번영을 목표로 한다.



[그림 Ⅲ-4] OECD 학습 나침반 2030(OECD, 2019)

학습 나침반 2030은 미래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행복과 번영이 궁극의 목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48개 중 47위로 처참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임에도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교육부, 2017). 이와 같은 현실은 학습의 방향이 행복과 번영에 맞춰져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아직도 요원함을 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에서도 반드시 '행복하고 번영(flourish)'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의 최종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아래 [그림 Ⅲ-5]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과정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는 학습 나침반과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위해 유용한 틀로 강조되고 있다.



[그림 Ⅲ-5] OECD 학습 프레임워크 2030(OECD, 2018)

위 그림에서 제시한 학습 프레임워크는 역량 개념의 정의와 역량 교육의 목적 및 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으로 역량의 하위요소로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도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지식의 하위요소는 학문적, 간학문적, 인식론적, 절차적 지식 4가지 범주로 나누고, 기능은 인지적·메타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실용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마지막 가치·태도의 경우도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세계적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개인과 사회 공동의 행복 추구'를 교육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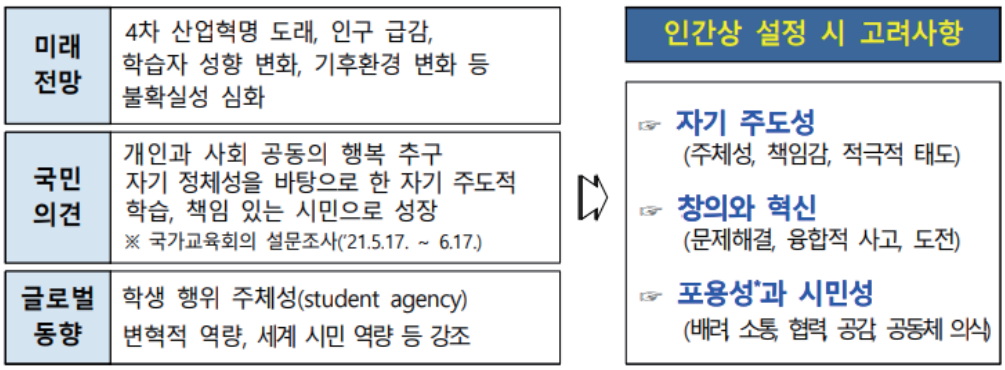
나. 학생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

앞서 OECD 교육 2030에서는 미래교육에서 학생 주도성에 주목하여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해서 교사는 학생의 행위 주도성에 가치를 두는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학생의 주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 역할을 강조하였다(김미경 외, 2022). 학생 행위 주도성(student agency)은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로부터 고정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맥락을

통해 스스로 탐색하고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협력적 행위 주도성(Co-agency)은 학생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며 선택 의지를 발휘하는 것으로 학생들 주변의 동료, 교사, 가족, 지역 공동체는 학생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웰빙으로 안내한다(OECD, 2019).

미래사회 역량 차원에서도 학생 주도성은 필요하다. 기존 4C에서 미래사회의 역량을 6C라고 할 때, 콘텐츠(Content)와 자신감(Confidence)이 추가된다. 이는 미래사회에서 어떤 양질의 콘텐츠를 배우느냐가 관건이고 어떻게 하면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콘텐츠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교육은 자신감 형성과 같은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습에 있어 자신감은 성장형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롤 드웩(C. Dweck)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성장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밝힌다.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은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것으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지금 우리의 자질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며, 노력이나 전략, 타인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한다(Dweck, 김준수 역, 2018).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학생 주도성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설정에서도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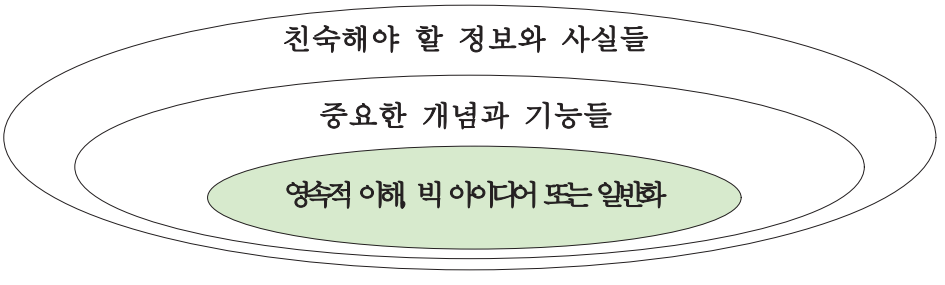


[그림 Ⅲ-6]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교육부, 2021c)

4차산업혁명, 인구 급감, 기후 환경 변화,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주체적이고 책임감을 지니며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 ‘자기 주도성’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 주도성은 미래교육에 있어 내적 동기를 높이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활용하며 자기관리를 가능하게 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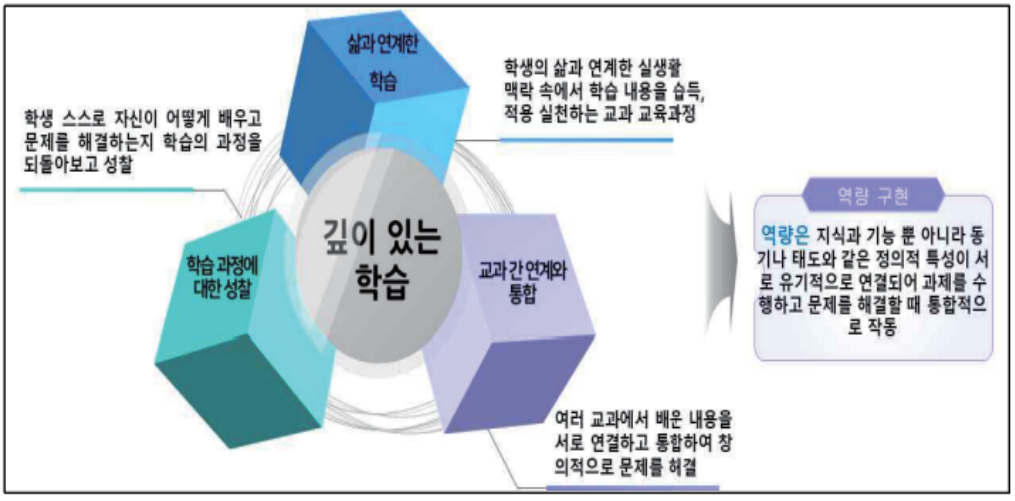
다.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역량 함양을 위해서 지식에 대한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은 “지식과 기능 뿐 아니라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교육부, 2021c). 따라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지식만을 위한 교육을 비판하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지식이 선정, 조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교과의 지식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방법론적 차원에서 학생의 피상적 학습과 다른 ‘깊은 이해’ 과정을 중시함을 의미한다(백남진 · 온정덕, 2016). 위긴스와 맥타이(Wiggins & McTigh)는 영속적 이해(enduring understanding)를 도모하기 위해 핵심 개념 위주의 내용을 학습해야 한다고 밝힌다(백남진 · 온정덕, 2016). 영속적 이해라는 것은 핵심 개념으로 교과 내용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상위 위계에 해당한다. 교과 내용을 위계화하여 우선순위를 그려보면 [그림 Ⅲ-7]와 같다.



[그림 Ⅲ-7]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김경자 · 온정덕,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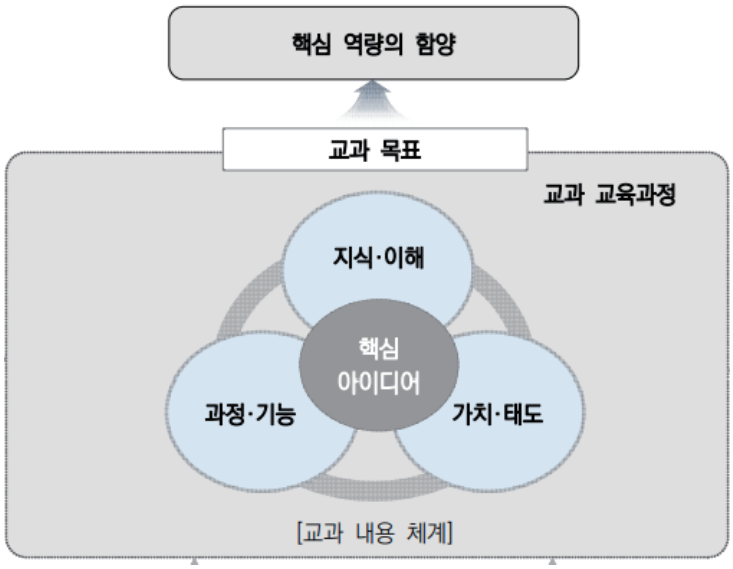
영속적 이해와 같은 깊은 이해는 깊은 배움이자 학습의 과정인 디퍼러닝(Deeper Learning)으로 이어지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 디퍼러닝은 “한 개인이 인지 능력, 대인 관계, 개인 내 역량을 개발하여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Bellanca et al., 김하늬 · 최선영 역, 2019). 여기서 ‘적용’은 연습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과 관련성이 높다(Anderson et al., 강현석 외 역, 2005). 또한, ‘적용’을 강조하는 디퍼러닝은 앞서 강조한 ‘깊은 이해’와도 밀접하다. 지식의 전이가 수월한 맥락적 지식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함으로 디퍼러닝의 과정에서 창출된다. 이렇듯 새로운 상황과 맥락에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디퍼러닝은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도모하고 역량 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질 또한 개선된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한 측면을 표현하면 다음 [그림 Ⅲ-8]과 같다.



[그림 Ⅲ-8]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의 강조점(교육부, 2021c)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 자료를 스스로 자신의 것

으로 만들고,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은 전이 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이란 “어떤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일반화된 형태로 전환해 다른 상황에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와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 과정, 발명, 예술 창작에서 핵심이 된다(Sousa, 2017).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경험과 지적 활동을 통한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는 깊게 몰입하기 어렵고 교과 내용을 전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 맥락 즉 실생활 맥락을 제공할 때 학생들은 타인과 의미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이후 학교 밖에서도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교육부, 2021d).



[그림 Ⅲ-9]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근거(교육부, 2021d)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주요 용어 중 하나는 ‘핵심 아이디어’이다. 빅 아이디어를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으로 선정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일수록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새로운 상황에 이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미래교육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핵심 아이디어란,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이다(교육부, 2021d).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 내용을 자신의 삶과 관련짓고 여러 교과의 내용들을 연결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핵심 아이디어는 해당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 요소에 기초한 것이 아닌 가능한 교과 내 영역이나 여러 교과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제시해야 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의 본질과 얼개를 드러내는 것으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 교과의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기준이 된다(교육부, 2021d).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요소 간의 통합적 작동은 학생의 수행으로 발휘되며 이는 곧 핵심 역량의 함양으로 이어진다.

3.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특징

가. 미래사회 변화와 인성교육의 관계

디지털 문명,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양상이 진전될수록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의 시대, 팬데믹의 지속,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 존엄과 같은 휴머니티들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인성은 무엇인가?', '위기 극복,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인성은 무엇인가?', '미래에도 행복하고 번영(flourish)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등과 같은 질문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성 및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민하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디지털 문명사회는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배우는 공식이 깨지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이 성장할 기회는 다양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늘 연결되어있는 초연결사회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의 의존 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우리의 삶은 이제 분리되기 어렵고 이 공간에서의 경험과 활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혐오 표현, 사이버 괴롭힘 등 사회적, 윤리적, 인권 문제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은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혐오, 악성 댓글, 가짜 뉴스와 같은 악의적 정보의 유통을 더욱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인재상과 이에 맞는 인성교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10명 중 9명(89.2%)이 인성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주변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을 보거나 TV나 신문 등에 보도되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정도의 심각성 때문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청소년들의 인성에 대한 염려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고 학생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쉽게 노출되고 사이버 중독을 비롯해 우울, 불안, 공격성 등 정서 행동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경향신문, 2021. 2. 11.) 그중에서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의사소통과 협력 의식이 저하되고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등 타인 존중 의식이 부족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경기도교육청, 2022). 특히 학생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언행을 책임지며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교육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경기도교육청, 2022). 이처럼 새롭게 부각되고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특징은 사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관 및 정체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들이 갖춰야 할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된다. 미래사회의 특징과 변화 양상에 맞게 강조해야 할 인성의 측면을 도출함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 특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나.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성의 특징

인성은 개인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이자 덕이며, 인성교육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성을 길러주는 일로 규정할 수 있다(정창우, 2017). 데이비슨과 리코나(M. Davidson & T. Lickona)에 따르면 인성은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는 학습과 행동을 개선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력으로 여겨졌다(Davidson & Lickona, 2006).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쉴즈(D. L. Shields)는 인성을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 수행적 인성으로 확대해 인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였다(Shields, 2011). 이를 적용한 국내연구에서는 복합적 차원의 인성 요소로 실천적 지혜가 포함된 지적 인성, 인권 존중, 준법, 책임, 협동, 정의 등을 강조한 시민적 인성, 성실, 절제, 용기, 예, 효, 배려 등을 포함한 도덕적 인성으로 제시하였다(정창우, 2017). 이후 인성의 두 차원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설정한 뒤 훌륭한 인성을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기관리(self-management)를 강조하는 수행적 인성의 경우는 행동과 정서 조절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에서 도덕적 인성을 포함하고, 인성의 대표적인 두 차원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설정하였다(정창우, 2019).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인성의 요소로 거론되어온 네 가지 인성의 측면을 다시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미래사회의 변화와 미래교육 전망에 맞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1) 도덕적 인성

현실 속 실제적인 관계가 꾸준히 디지털 관계로 대체되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이지만 외로움과 우울감이 고조되는 사회적 단절이 공존한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공감에서 오는 배려와 존중의 필요성을 더욱 요청한다. 인간다움과 같은 휴머니티는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고귀한 행위이다. 이해가 포괄적으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면, 공감은 ‘타인의 심정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김재인, 2017). 인터넷을 통해 전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Lim-Lange & Lim-Lange, 박선령 역, 2020). 따라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의 심정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상호존중과 같은 도덕적 인성을 갖추게 해야 한다. 이는 의미있는 인간관계를 지속하게 하고 그 속에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해준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인간다

움을 강화하고 다듬어가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몇 년 전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상품으로 값을 매겨 거래한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 인성교육의 실패를 보여준다(매일경제, 2020. 3. 25.).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들이 n번방의 주역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감시 체제를 경험했고, 차별과 혐오의 인종주의가 확산하는 경향을 직접 목격했다. 타인 존중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의식의 부재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타인에 대한 예의, 존중, 배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선과 옳음을 지향하고 인간다움을 강화하는 도덕적 인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도덕적 인성은 개인의 내면적 행동 영역과 타인 관계적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내면적 행동 영역으로서의 도덕적 인성은 선(good)과 옳음(right)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도덕적 인성은 선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어 선택과 갈등 상황에서 비도덕적인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도덕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Shields, 2011). 한편 데이비슨과 리코나가 정의한 도덕적 인성은 타인과의 관계적 영역에 주목한다. 그들에 따르면 도덕적 인성은 관계 지향적인(relational orientation) 특성으로 성공적인 대인 관계와 윤리적 행동에 필요한 진실성,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Davidson & Lickona, 2006).

이처럼 인성교육 측면에서 도덕적 인성은 종종 바람직한 덕목의 목록으로 정의되며 덕목을 성찰하고 장려해 학생들의 도덕적 감수성을 향상하는 데 교육적 가치를 둔다. 다만 도덕적 인성을 위한 교육은 특정 덕목의 목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추구하는 성향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Shields, 2011). 다시 말해서 도덕적 인성은 특정 덕목을 배우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직과 공감과 같은 도덕적 덕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람과 상황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도덕적 고결성을 지닌 사람이 때로는 부정직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도덕적 고려를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성향은 변함이 없다. 인지심리학에서 도덕적 인성을 가진 사람은 만성적으로(chronically) 도덕적 스키마와

각본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잠재된 도덕적 이슈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려 한다(Shields, 2011). 어떤 정의에 따르더라도 도덕적 인성에는 학생들이 도덕적 고려 사항에 민감해지고 도덕적 문제와 원칙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2) 시민적 인성

미래사회는 복잡성으로 인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위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정확한 문제 인식 및 분석이 요청된다. 이때 구성원들이 협력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통찰력이라 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가치를 발휘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이 더욱 요청된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지만, 자산가나 안정적 고용을 누리는 이들에게는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불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로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가 등장하였다(세계일보, 2021. 3. 28.).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질수록 공동선 실현을 위한 타인과의 협력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가속화된 디지털 문명사회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단절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동선과 참여, 공동체 의식과 협력, 의사소통,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시민적 인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시민적 인성이란 공동선을 위한 도덕적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초월적 능력을 활용해 공동선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려는 성향이다(Shield, 2011). 버코워츠 역시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적 성향과 기능을 갖춘 시민적 인성을 강조하는데, 그는 개인이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공론장에 참여하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성품을 강조한다(Berkowitz,

2008). 마찬가지로 보스톤에게 시민적 인성이란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 있는 도덕적 행동으로 시민적 권리와 책임과 같은 지식 측면만이 아닌, 의사소통과 시민 참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능과 성향, 동기를 의미한다. 이때 시민 참여와 같은 성향은 주로 학교와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면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Boston, 2005). 종합해보면, 시민적 인성이란 사회적이고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과 협력하는 것이다(이혜진, 2019).

특히 시민적 인성에서 중요한 협력과 의사소통과 같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은 인성교육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때 소프트 스킬은 협력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연한 사고방식, 인내심을 가지고 힘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보통 수학, 읽기, 타이핑 등과 같은 하드 스킬에 비해 소프트 스킬은 측정이 훨씬 어렵지만, 하드 스킬보다 학문적인 성공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주지하다시피 주목받고 있는 21세기 역량으로서 4C인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은 주로 소프트 스킬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말하며 홀로 고립상태에서는 발현될 수 없다. 소프트 스킬은 다른 분야의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해주고 발전된 결과를 성취할 가능성을 높여준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의하면, 가장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평등, 관용, 팀원의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 공감, 감성 지능과 같은 소프트 스킬을 갖춘 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정창우, 2019). 정리하자면, 미래사회는 하드 스킬만으로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협력과 의사소통과 같은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을 갖춘 시민적 인성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사회적 양극화 속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성 시대에의 복잡한 문제 등장은 학생들에게 더욱 요청되는 인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변화와 관련된 공동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토대로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인성이 요청된다.

3) 수행적 인성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은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의 부재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의 상태”이다.[1] 여기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안녕’의 추구, 즉 정신건강(mental health)의 추구는 교육의 고유한 목표 중 하나이며,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Wilson, 1972). 정신건강과 친화력이 높은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 · 건강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성교육에서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여론조사에서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학교 수준의 프로그램 다음으로, 상담심리기법을 적용한 정서 함양 프로그램이 두 번째로 높다(경기도교육청, 2022). 이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이를 이겨내야 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태도, 회복탄력성, 그릿 등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데이비슨과 리코나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 발휘와 결부된 탁월성(excellence)이자 과업 완수 지향적(mastery orientation) 자질로서 수행적 인성을 강조한다. 수행적 인성은 대표적으로 근면, 인내, 강한 직업윤리, 긍정적 태도, 독창성, 자기 수양 등을 말하며, 학업이나 직업처럼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우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Davidson & Lickona, 2006). 가령, 학생들은 수학 교과목에서 수학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인내’나 ‘정확성’을 체득할 수 있고, 체육 교과목을 통해 ‘용기’나 ‘강인함’을 체득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대다수 교사들은 ‘윤리적 논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과학 교사의 경우 ‘나는 화학을 가르치고 인성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 그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려면 필요한 자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활동이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면성, 어려움에 직면할 때 보여줘야

1)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하는 인내심, 프로젝트에서 역할 수행을 위한 신뢰성, 필요한 물품과 재료를 준비하는 책임감, 작업에 있어서 질서정연함,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은 학습에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키워질 수 있는 수행적 인성이다(Davidson & Lickona, 2006).

쉴즈 역시 수행적 인성은 인내, 근면, 용기, 회복탄력성, 긍정성, 주도성,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자기관리 등과 같은 자질로 설명한다. 수행적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활용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며 열심히 작업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주목하며 도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근거 있는 낙관주의를 유지한다. 다만 이와 같은 특징은 좋은 목적을 달성할 때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차를 훔치는 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고 진실을 숨기는 데 집요할 수 있다. 이처럼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인성과 결합할 때 의미가 있으며 수행적 인성이 결부되지 않은 도덕적 인성 역시 실행에 옮기기 매우 어렵다. 공감과 같은 도덕적 덕목의 발휘도 끈기와 회복탄력성이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Shields, 2011).

정리하자면 불확실성 사회일수록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하는 힘과 성향이 필요하다. 자기관리, 회복탄력성, 긍정성, 주도성, 그릿, 용기 등과 같은 수행적 인성은 미래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다만, 도덕적 인성이 결여된 수행적 인성은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끈기와 용기로 발휘될 수 있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주도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만 독립적으로 강조될 수는 없고 다른 인성들과 적절히 결합될 때 인성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다.

4) 지적 인성

어디에나 많은 정보가 흔하게 차고 넘치는 빅데이터 시대는 4개의 V로 설명된다. 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진실성(Veracity)으로 정보의 양과 생산되는 속도가 수많은 다양한 형태를 양산하며 이들 중 어떤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적응성'과 '학습 민첩성(learning ability)'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단순히 학습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고 어떻게 통

합적이고 혁신적인 결론을 도출하는지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모호하게 정의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변화에 유연한 정신을 지닌 깊은 사고력과 학습이 필요하다(Golinkoff & Hirsh-Pasek, 김선아 역, 2018).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편함을 필연적으로 겪는다. 이는 새로운 지식이나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해하기보다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이나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와 같은 심리적 전략을 사용하게 한다(구본권, 2020). 이는 협력과 의사소통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 난관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사고(group think)'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단사고는 미국의 심리학자 제니스(I. Janis)가 제시한 개념으로 "결속력이 높은 소규모 집단에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를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경향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조병익, 2018). 이는 집단 지성과는 분명히 다르며 사회 구성원들이 응집력이 강하고 다양성과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한 사회일수록 발생하기 쉽다고 볼 때, 문제해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사고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의사 결정에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역할을 구성원들에게 부여하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 호기심과 개방적 태도를 지니며 우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메타인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적 의사소통과 같은 시민적 인성은 물론 끊임없는 개방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등과 같은 지적 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여론조사에서 인성교육 강화에 있어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분야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선정되었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성에는 협력과 소통과 같은 시민적 인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도덕적 원리와 가치는 무엇이고, 다양한 가치와 견해들이 섞여 충돌하는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아야 휘말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위한 실천적 지혜와 같은 제대로 된 앎을 우선하는 지적 인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쉴즈에 따르면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이란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며 반성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 인성은 교사가 내용을 보다 귀납적이고 개방적이며 탐구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호기심을 장려할 때 발달할 수 있다(Shields, 2011). 따라서 지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호기심과 신중함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봉착할수록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와 같은 고차적 사고는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인지는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생각하는 기술로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자질로 강조되고 있다(최재붕, 2020). 여기서 메타인지(metacognition)란, 1976년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프라벨(J. H. Flavell)이 만든 용어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으로 '초인지(超認知)'라 할 수 있다(서상훈 · 유현심, 2019). 메타인지 연구의 선구자인 프라벨은 메타인지는 정보 교환과 설득, 이해, 문제해결, 자기 조절과 자기 지시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Flavell, 1979). 이와 같은 지적 인성을 갖춘 사람은 무엇인가를 접근할 때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적 인성으로써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는 복잡한 문제해결은 물론 앞서 디지털 문명사회에서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이고 메타인지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성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주목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과 달리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은 최근 연구에서 수행적 인성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인성의 영역이다. 지적 인성은 기존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 인성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지만,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 실제로 인성교육에서 호기심, 주의집중, 개방성, 지적인 용기, 지적인 겸손과 같은 지적인 덕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Baehr, 2012). 이러한 지적 인성은 데이비드와 리코나가 제시한 수행적 인성과 더불어 명백한 도덕적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수행적 인성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도전이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발휘되는 것이지만, 지적 인성은 지식이나 진리와 같은 지적인 목적을 향한 것으로 지식과 이해와 같은 인식론적 선(epistemic goods)에 의해 동기 부여가 된다. 이처럼 지적 인성은 기존의 전통적인 인성교육이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를 주입한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적 인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지식과 학습은 그 자체로 좋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식을 성취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질이 교육환경을 통해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Baehr, 2012).

지적 인성은 학교에 다닐 때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잠깐 필요한 능력이 결코 아니다.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반드시 갖춰야 할 인성이다. 평생 학습 시대인 만큼 스스로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내적 동기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는 자질을 갖추는 것은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 다차원적 인성교육의 방향

1) 인성의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앞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부각되는 인성은 존중, 배려, 공감과 같은 도덕적 인성과 공동체 의식, 협력, 의사소통과 같은 시민적 인성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이지만,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 호기심과 같은 지적 인성과 회복탄력성, 주도성,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행적 인성까지 고려하여 인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차원적 측면의 인성(the multiple dimension of character)이란 쉴즈가 제시한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말한다(Shields, 2011). 이는 기존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통합을 강조한 데이비슨과 리코나의 논의에서 좀 더 확장된 논의로 볼 수 있다.

쉴즈는 개인 차원의 인성을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풍토(문화) 간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Shields, 2011). 지적 인성(intellectual character)이란 교과목의 세부적 내용 지식보다는 귀납적이고 개방적이며 탐구적인 방식의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지닐 수 있는 호기심, 개방된 태도, 반성적이고, 전략적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 시민적 인성(civic character)은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의 공동선과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비판적 사고와 같은 지적 기능과 사회적이고 참여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한편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은 앞서 데이비슨과 리코나 등의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수행적 인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발휘와 결부된 탁월성(excellence)을, 도덕적 인성은 도덕성(morality)을 지향한다. 예컨대 수행적 인성은 인내심, 근면함, 회복탄력성, 도전 정신, 비판적인 사고, 주도성, 용기, 긍정성, 자기 규율 등과 같이 유혹이나 저항(어려움) 등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으로 볼 수 있다면, 도덕적 인성은 정직이나 정의(justice), 배려와 협력, 존중 등 핵심적 도덕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도덕적 인성은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옳고 그름의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타 인성의 근간이 된다.

이로 인해 도덕적 인성이 결여된 채 나머지 인성들만 발휘될 경우, 옳지 않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수행적 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도적적 인성이나 지적 인성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도덕적 인성은 좋은 이웃의 성품이고 지적 인성은 훌륭한 사상가나 탐구자의 성품으로 보기도 한다. 과학, 정치, 역사와 같은 지식이나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과학자는 지식과 이해를 위해 사려깊고 개방적이며 엄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탐구하지만, 그의 가족이나 동료 및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철하고 무뚝뚝할 수 있다. 이처럼 도덕적 인성이 없이도 수준 높은 지적 인성을 소유할 수 있고, 반대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인성을 가진 사람은 지적 인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시민적 인성과도 유사하다. 존중, 협력, 관용,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적 인성을 갖춘 이가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지적인 덕에 거의 관심이 없을 수 있고, 지적으로 탁월한 과학자는 그의 연구물이 사회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 있

다(Baehr, 2012). 이를 통해 개인 차원의 인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인성은 긴밀하게 결합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차원의 인성을 촉진하고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공동체적 인성(collective character)을 촉진하는 학교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Shields, 2011). 지적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교실) 분위기, 도덕적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랑과 정의 간 균형 있는 학교 풍토, 시민적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봉사와 참여의 학교 분위기, 수행적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배움의 질적 측면과 탁월성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Shields, 2011).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개인적 인성의 영역과 그것을 촉진하는 학교 문화(Shields, 2011)

개인적 인성	학교 차원의 문화
지적 인성	사고를 중시하는 문화
도덕적 인성	사랑과 정의를 중시하는 문화
시민적 인성	봉사와 참여를 중시하는 문화
수행적 인성	자질과 탁월성을 강조하는 문화

요컨대 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 시민적 인성 및 도덕적 인성 간 다차원적 결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합은 명시적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같은 학습 활동 및 학업성취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성교육은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바탕으로 하되,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들 개인 차원의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다차원적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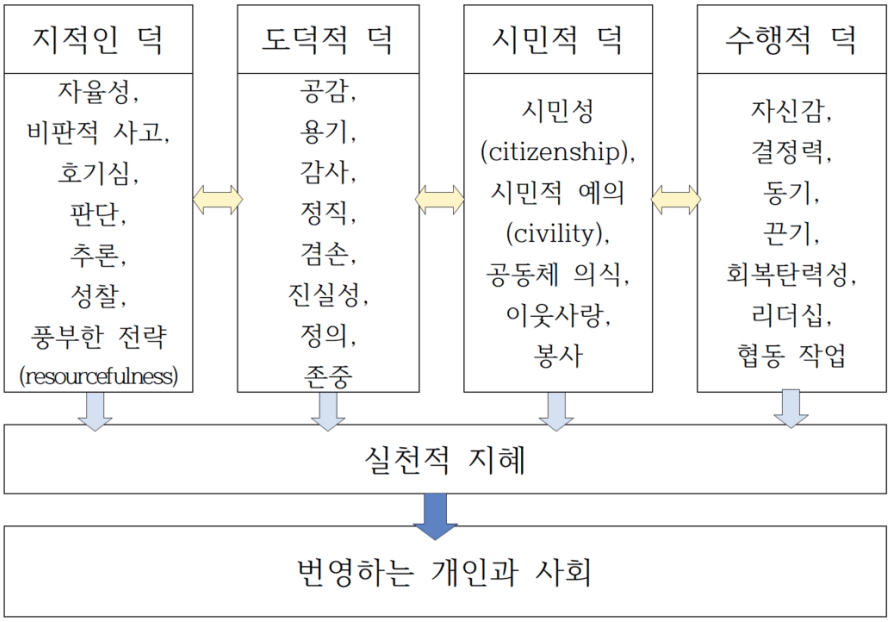
미래사회의 특징과 더불어 예상되는 위기 요소들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재정비하게 한다. 앞서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과 같이 인성의 다차원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래 인성교육을 위해서 네 가지 차원의 인성을 균형적으로 길러줘야 함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 네 가지는 각각 분절되기보다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네 가지를 중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최종 목적인 개인과 사회의 행복은 OECD 학습 나침반 2030의 '웰빙'과 쥬빌리 센터의 인성교육 목표처럼 '번영'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OECD는 1997년부터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미래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1단계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DeSeCo 2.0버전으로 'OECD 교육 2030'을 진행하였고 2019년 이후 2단계 연구가 진행중이다.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역량개발의 목표를 '성공'에 두었지만, 현재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지영, 2022). 여기서 말하는 '웰빙'은 직업과 수입, 주거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 일과 삶의 균형, 교육, 안전, 삶의 만족도, 건강, 시민 참여, 환경과 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OECD, 2019). 다차원적인 인성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인성적 자질과 성품을 길러주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인간다운 가치를 우선하는 도덕적 인성과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적 인성, 타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민적 인성, 전문성 발휘를 위해 인내와 끈기, 회복탄력성을 갖춘 수행적 인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성공보다는 웰빙이나 행복에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은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 지적 인성을 균형적으로 갖출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개인들이 모일 때 결국 사회 전체의 웰빙과 행복도 가능해진다.

쥬빌리 센터(the Jubilee Centre)의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 역시 번영하는(flourishing) 개인과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와 달리 쥬빌리 센터의 인성교육 프레임워크는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분별

력과 올바른 행동, 지식, 진리와 이해의 추구에 필요한 인성 자질로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s),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인성 자질로 도덕적 덕(character virtues), 공동선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위해 필요한 인성 자질로 시민적 덕(civic virtues), 지적, 도덕적, 시민적 미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적 가치가 있는 인성 자질로 수행적 덕(performance virtues)이 있고 이 모두를 통합하는 덕으로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제안한다. 4가지 차원의 덕의 예시와 함께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Ⅲ-10]과 같다.



[그림 Ⅲ- 10] 인성의 구성 요소(the Jubilee centre, 2017)

경기도교육청에서 새롭게 강화할 다차원적 인성교육 역시 쥬빌리 센터에서 제시한 네 가지 인성 차원의 덕목처럼 미래 대비를 위해 더욱 강화해야 할 덕목을 인성에 따라 나누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인성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도덕적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덕목이 있지만, 예, 효, 정직, 감

사, 정직 등을 도덕적 인성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기본적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가르쳐야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창의성, 신중함, 비판적 사고, 호기심 및 성취동기와 같은 지적 인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용적 자세로서 개방성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적 인성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협력과 의사소통과 같은 시민적 인성이 필요하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한국 사회 역시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저하, 무력감과 같은 정신건강 전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생들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규제,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그릿, 용기가 수행적 인성의 핵심으로 요청된다. 이처럼 네 가지 다차원적 인성에 따른 구체적인 자질들은 개인과 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성별로 제시한 구체적인 성품과 덕목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상호 촉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감과 배려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인내, 끈기, 용기 등과 같은 수행적 인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공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게도 비판적 사고를 활용해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고 증거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지적 인성이 요구된다.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 역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이 결여된다면 비도덕적 목표를 위해 지적 탐구와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인성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어느 하나 결여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덧붙여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할 때 효과성이 커지고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할 수 있다.

Ⅳ

학교급별 인성교육 및 인성지수 실태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1

학교급별 학생 인성지수 실태 조사 2

Ⅳ. 학교급별 인성교육 및 인성지수 실태

1.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가. 개발 개요

1) 검사 도구 개발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두 가지 성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학교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상이며, 문항 개수는 교사용 총 27문항, 학생용 총 10문항, 학부모용 총 6문항이다. 설문 문항은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과제들을 학교 인성교육 실행 영역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영역별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시 현황과 만족 정도, 필요한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두 번째 설문 조사는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사가 대상이며, 문항 개수는 총 12문항이다. 설문 문항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강조되어야 할 인성교육 성격과 요소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사항을 묻는 것으로 구성하였다(설문 문항은 <부록> 참조).

각 조사 내용은 설문 대상의 특성에 맞춰 진술하였으며, 응답자가 피로하지 않도록 질문 수를 조정하였다. 설문에 대한 답은 질문 의도에 따라 서열식, 평정식(리커트 5점 척도), 양자택일형, 선다형, 개방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질문 초안은 연구진 간의 수차례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Ⅳ-1>, <표 Ⅳ-2>, <표 Ⅳ-3>, <표 Ⅳ-4>와 같다.

<표 Ⅳ-1>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
(교사용-경기도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시/참여 현황	성과에 대한 평가/ 만족 정도	필요 지원
방향	인성교육의 중요성	1	·	·	·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2	·	·	·
	미래 인성교육의 주안점	3, 4, 5, 6	·	·	·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	7, 11	12
	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주제 학습, 인성교육 관련 학교 특색 사업 및 활동 등)	·	·	8, 10, 11	13
교육과정 외인성교육	인성친화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	·	14, 15	·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	16	9, 11	·
경기도교육청의지원	교육 지원	·	·	18, 18-1	·
	교원역량 개발 지원	·	19. 19-1	20, 20-1, 20-2-1 20-2-2	21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업무 부담 완화	·	·	·	17
인성교육 평가		·	22, 22-1, 23	·	24
가정 및 지역 연계	학교-가정 연계	·	·	·	25
	학교-지역 연계	·	·	·	26

〈표 Ⅳ-2〉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
(교사용-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고려한 인성교육 방향	1, 2, 3, 4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 하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인성 요소	5, 6, 7, 8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동의 여부	9, 9-1
효과적인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10

〈표 Ⅳ-3〉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학생용)

영역		조사 내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시/참여 현황	성과에 대한 평가/ 만족 정도	필요 지원
방향	인성교육의 중요성	1	·	·	·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2	·	·	·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	3, 4, 5, 6, 7	·
	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주제 학습, 인성교육 관련 학교 특색 사업 및 활동 등)	·	·	3, 4, 5, 6, 7	·
교육과정 외인성교육	인성친화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	·	9	·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	·	8, 8-1, 8-2	·

<표 Ⅳ-4> 설문 문항별 영역 및 조사 내용(학부모용)

영역		조사 내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실시/참여 현황	성과에 대한 평가/ 만족 정도	필요 지원
방향	인성교육의 중요성	1	·	·	·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2	·	·	·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	·	3, 3-1	·
	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주제 학습, 인성교육 관련 학교 특색 사업 및 활동 등)	·	·	3, 3-1	·
교육과정 외인성교육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	·	3, 3-1	·
가정 및 지역 연계	학교-가정 연계	·	·	·	4
	학교-지역 연계	·	·	·	5

2) 표본 추출

가) 조사 대상

- 경기도교육청 초, 중,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 조사 대상자 중 초등학생은 설문 내용과 평가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제한

나) 조사 대상 선정 방법 - 전수 조사

다) 표본의 크기

- 경기도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설문 조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234명, 학생 1,573명, 학부모 557명
-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19명

라) 설문조사 실시

- 조사 기간 : 2022년 11월 25일~ 12월 16일
- 조사 방법 : 온라인 조사

3) 설문지 회수 및 데이터 처리

- 회수된 설문지를 코딩 작업 후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 실시
- 3개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같은 선다형 문항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처리하였고, 빈도(명)와 백분율(%)로 제시

나.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분석

1) 교사용 결과 분석 ·

가) 응답자 특성

설문 대상 교사는 총 234명으로 초등학교 교사 96명, 중학교 교사 138명, 고등학교 교사 73명이 참여하였으며, 학년, 성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비율은 <표 Ⅳ-5>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교사 비율이 72.6%로 남교사 비율 27.4%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년 이상 교사들의 참여도(36.8%)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는 경력별로 분포가 고르게 형성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담임교사였으며,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 담당 교사의 응답 비율(1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3.0%)에 비해 대도시(56.0%)와 중소도시(41.0%)에 근무하는 교사가 많이 참여하였다.

<표 Ⅳ-5>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사용 - 경기도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교사		170	72.6
	남교사		64	27.4
학교급	초등학교		96	41.0
	중학교		138	59.0
	고등학교	전체	73	31.2
		일반고	70	29.9
		특성화고	1	0.4
		특수목적고	0	0.0
		자율고	2	0.9
교직 경력	5년 미만		38	16.2
	5년 이상- 10년 미만		32	13.7
	10년 이상 -15년 미만		34	14.5
	15년 이상- 20년 미만		44	18.8
	20년 이상		86	36.8
직급	담임교사		119	50.0
	비담임교사		52	22.2
	부장교사		50	21.4
	관리자(교장/교감)		13	5.6
담당 교과 (중등 대상자)	국어		25	10.7
	도덕・윤리		2	0.9
	수학		15	6.4
	사회과		17	7.3
	과학과		14	6.0
	실과(기술・가정)		8	3.4
	영어		15	6.4
	음악		7	3.0
	미술		1	0.4
	체육		11	4.7
	실업		0	0.0
	기타		23	9.8
학교 소재지	대도시(특별·광역시)		131	56.0
	중・소 도시		96	41.0
	읍・면		7	3.0

나) 설문 결과

교사 요인은 학교 인성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교 인성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행하며 어떤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① 인성교육의 방향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는 총 3개의 하위문항으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이나 역량'을 질문하였다. 먼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표 Ⅳ-6>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단위: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1 (0.4)	0 (0.0)	0 (0.0)	11 (4.7)	222 (94.9)	234 (100.0)	4.935	.334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99.6%로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에 관한 구체적인 응답을 보면 <표 Ⅳ-7>과 같다.

교사들이 응답한 학교급별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를 보면 세 학교급 모두에서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과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학교급과 상관없이 인성교육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인성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규범과 덕목의 이해 및 실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에서 요구가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학교폭력문제 발생 빈도가 높고 발달상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 시기에 '또래 관계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

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된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에 대해 관심이 커져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은 중학교에서 특히 응답이 높았음으로 중학교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Ⅳ-7>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 (단위: 명(%))

학교급 / 인성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복탄력성 향상	22(5.7)	13(5)	9(3.1)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62(16.1)	41(15.8)	41(14)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37(9.6)	35(13.5)	32(11)
인류애 및 생태 감수성 함양	18(4.7)	7(2.7)	6(2.1)
인성과 관련한 인문소양 함양	9(2.3)	15(5.8)	18(6.2)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31(8.1)	21(8.1)	33(11.3)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3(0.8)	7(2.7)	10(3.4)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43(11.2)	24(9.2)	36(12.3)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8(2.1)	8(3.1)	11(3.8)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38(9.9)	14(5.4)	12(4.1)
타인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향상	38(9.9)	26(10)	35(12)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53(13.8)	36(13.8)	35(12)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함양	21(5.5)	13(5)	14(4.8)
기타	1(0.3)	0(0.0)	0(0.0)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이나 역량에 관한 질문은 인성의 네 가지 범주, 즉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각 범주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은 <표 Ⅳ-8>와 같다.

<표 Ⅳ-8>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덕이나 역량

도덕적 인성 (단위: 명(%))

효	공감	배려	성실	예의	정직	정의	존중	디지털 윤리 의식과 실천	환경친화적 태도 및 생태감수성	기타
32 (3.4)	176 (18.8)	178 (19)	63 (6.7)	124 (13.2)	97 (10.4)	68 (7.3)	148 (15.8)	34 (3.6)	15 (1.6)	1 (0.1)

시민적 인성 (단위: 명(%))

준법	참여	책임	평화	협동	갈등해결 능력	의사소통능력	소속감과 연대	관용과 다름의 수용	공동체 의식 (공동선과 공익 추구)	기타
137 (14.6)	69 (7.4)	160 (17.1)	30 (3.2)	123 (13.1)	88 (9.4)	123 (13.1)	33 (3.5)	78 (8.3)	94 (10)	1 (0.1)

수행적 인성 (단위: 명(%))

용기	긍정성	열정 (활력)	자기 주도성	자기 효능감	그릿 (절제, 끈기)	성장 마인드셋	자기 관리 및 조절	기타
82 (8.8)	178 (19)	52 (5.6)	137 (14.6)	153 (16.3)	115 (12.3)	50 (5.3)	169 (18.1)	0 (0.0)

지적 인성 (단위: 명(%))

창의성	지적 호기심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 및 성찰	기타
75 (16.0)	112 (23.9)	117 (25.0)	159 (34.0)	5 (1.1)

각 범주별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성 요소로는 ‘메타인지 및 성찰’(34.0%), ‘배려’(19.0%)와 ‘공감’(18.8%), ‘책임’(17.1%), ‘긍정성’(19.0%)과 ‘자기 관리 및 조절’(18.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적 인성에 관한 기타 의견이 비교적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지적 인성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합의가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적 인성 자체에 관한 교

사들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해당하는 기타 의견으로는 '삶과 지식을 연결시키는 능력, 융합적 사고 능력, 문제 대처 능력' 등과 같이 학생의 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들이 제시되었다.

②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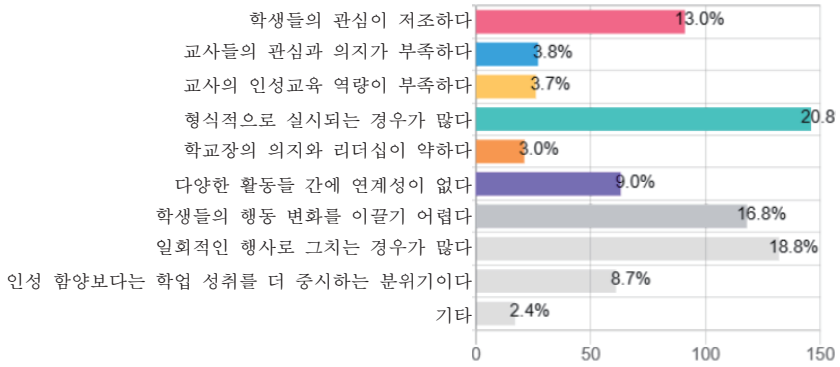
교육과정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평가되는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교과 연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교과 외 인성교육 활동', 캠페인, 학예 행사 등과 같은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질의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Ⅳ-9>과 같다.

<표 Ⅳ-9> 인성교육의 효과성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평균	표준편차
교과연계 인성교육 수업	3 (1.3)	4 (1.7)	30 (12.8)	81 (34.6)	116 (49.6)	4.295	.851
교과 외 인성교육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주제 수업 등)	3 (1.3)	6 (2.6)	34 (14.5)	81 (34.6)	110 (47)	4.235	.884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 활동(인성교육 특색사업이나 캠페인, 학예행사 등)	3 (1.3)	11 (4.7)	36 (15.4)	86 (36.8)	98 (41.9)	4.132	.929

교사들은 대체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과연계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가장 높이 평가하였다. 교사가 응답한 수업의 효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에 관한 문제와는 별개로, 교사 스스로 교과연계 인성교육 수업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교과연계 인성교육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구와 지원을 파악하고자 인성교육 저해 요인과 지원 사항을 질문하였다. 교사의 인성교육 시행을 저해하는 요인은 [그림 Ⅳ-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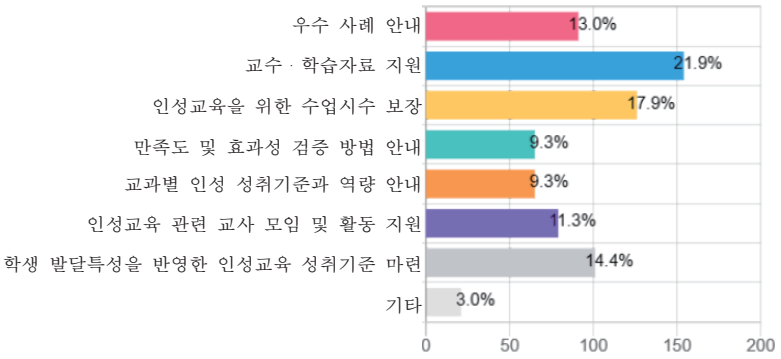


[그림 Ⅳ-1]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 저해 요인

교사들은 ‘형식적인 실시’(20.8%), ‘일회적인 행사로 실시’(18.8%)를 인성교육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교사 및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나 역량 부족을 원인으로 응답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교원의 인성교육에 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성교육이 행사적으로 실시되면 안 된다는 문제인식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온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타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다.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다.
-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어렵다.
- 한문 등 인문·사회·철학과 관련된 수업 시수가 매우 부족하다.
- 인성교육이 지식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교사가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야 한다.
- 교사가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 등이 없어 지도가 어렵다.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응답은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교수 · 학습자료 지원'(21.9%)과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 보장'(17.9%)이 차례대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차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이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실시되고, 우수학교 사례가 매년 축적되었으며, 많은 자료들이 개발되어 인성교육지원센터 플랫폼을 통해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수 · 학습자료 지원에 관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홍보 및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이미 개발된 자료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타 의견으로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5명)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시설을 많이 마련하여 학생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르지 못한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Ⅳ-3]과 같이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충분한 예산지원'(17.8%),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23.3%), '학교의 자율성 보장'(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Ⅳ-3]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명)
- 교권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습관과 관련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다.
- 업무 경감이 최우선이다
- 모든 사업을 실시공문으로만 보내 놓고 현장에서 수업과 학생지도로도 충분히 바쁜 학교교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문제다. 결국 형식적으로 전개된다.

③ 교육과정 외 인성교육(생활지도 및 학교 풍토)

생활지도와 학교풍토는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지는 않지만,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교육과정 외 인성교육에 관한 현황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먼저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효과성은 <표 Ⅳ-10>과 같다.

<표 Ⅳ-10> 생활지도의 효과성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0 (0.0)	5 (2.1)	15 (6.4)	73 (31.2)	141 (60.3)	234 (100.0)	4.496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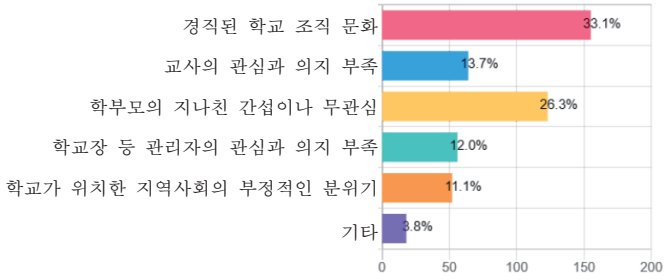
교사들 대다수는 평균 4.496으로 생활지도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인성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에 관한 교사 응답은 <표 Ⅳ-11>와 같다.

<표 Ⅳ-11> 학교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

(단위: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3 (1.3)	9 (3.8)	31 (13.2)	97 (41.5)	94 (40.2)	234 (100.0)	4.154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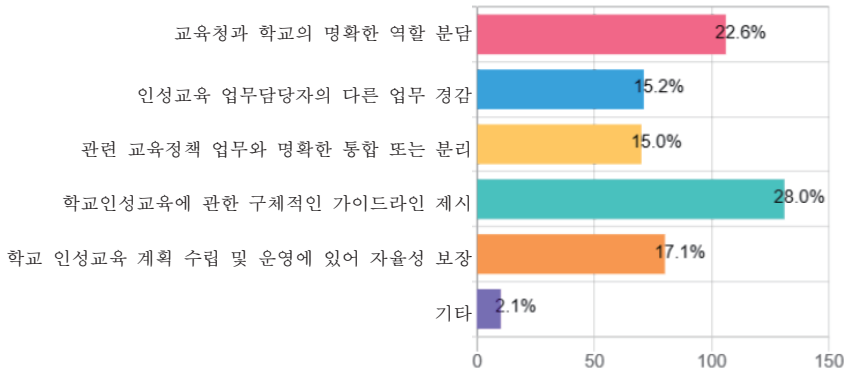
평균 4.154점으로 81.6%가 '매우 그렇다'(41.45%) 또는 '그렇다'(40.17%)고 응답하여 인성과 관련한 학교 풍토에 관해 대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 인성친화적 학교 풍토 저해 요인

[그림 Ⅳ-4]에서처럼 인성 친화적인 학교 풍토 저해 요인으로는 경직된 학교 조직 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교육청의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타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업무 과다(2명)
- 유튜브 등 부정적인 미디어 노출
- 학교 자체의 문제보다 외적인 요인이 더 크다.
- 학교관리자의 의사 결정 권한이 너무 강하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림 Ⅳ-5] 인성교육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림 Ⅳ-5]은 인성교육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응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28%)와 교육청과 학교의 명확한 역할 분담(22.6%)에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인성교육 실시 공문 시행이 축소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기타의견으로는 '기타 행정 업무 경감'(2명), '실질적인 수업 자료 지원', '교권 보호', '인성 중시에 대한 사회 공동체 분위기', '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지원' 이 제시되었다.

④ 교육청의 인성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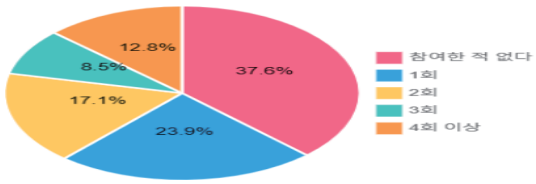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실행 지원 이외에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만족 정도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자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먼저 <표 Ⅳ-12>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2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표 Ⅳ-12>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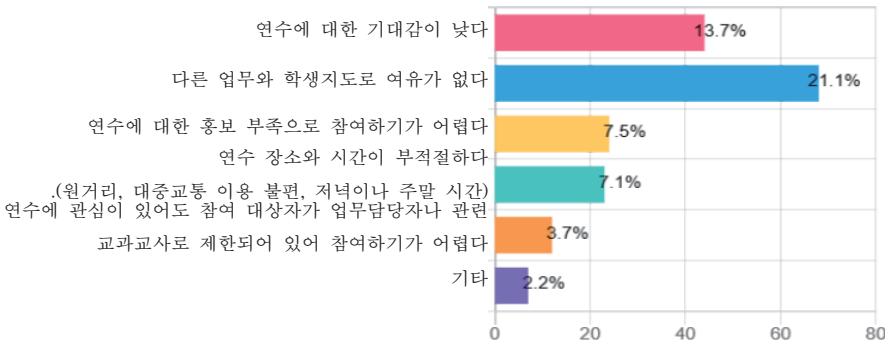
(단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26 (11.1)	42 (17.9)	121 (51.7)	39 (16.7)	6 (2.6)	234 (100.0)	2.816	.929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참여 경험은 [그림 Ⅳ-6] [그림 Ⅳ-7]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37.6%로 가장 많았다.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업무와 학생지도로 참여할 여유가 없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림 Ⅳ-6]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 참여 경험



[그림 Ⅳ-7]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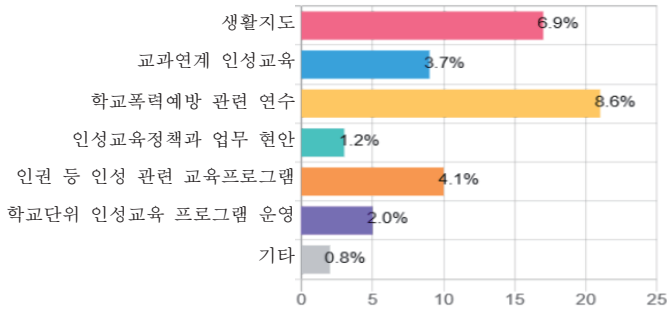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인성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한 경우, 교사들이 응답한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표 Ⅳ-13>와 같다.

<표 Ⅳ-13>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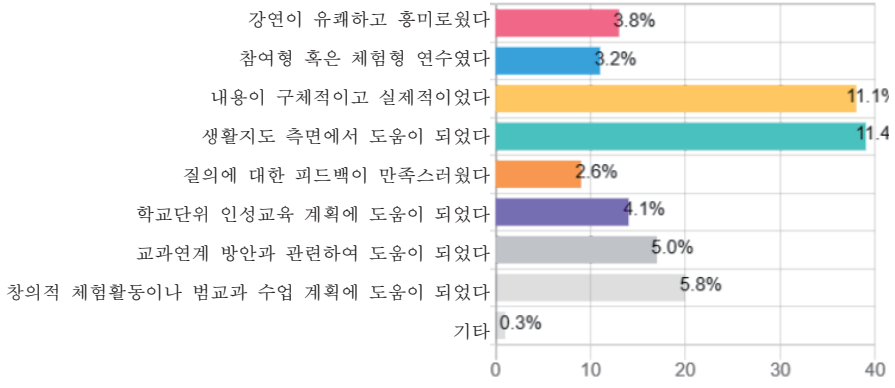
(단위: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평균	표준편차
3 (1.3)	9 (3.8)	81 (34.6)	46 (19.7)	10 (4.3)	234 (100.0)	3.342	.778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역량강화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42점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편이었으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만족스러웠던 주제와 만족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그림 Ⅳ-8], [그림 Ⅳ-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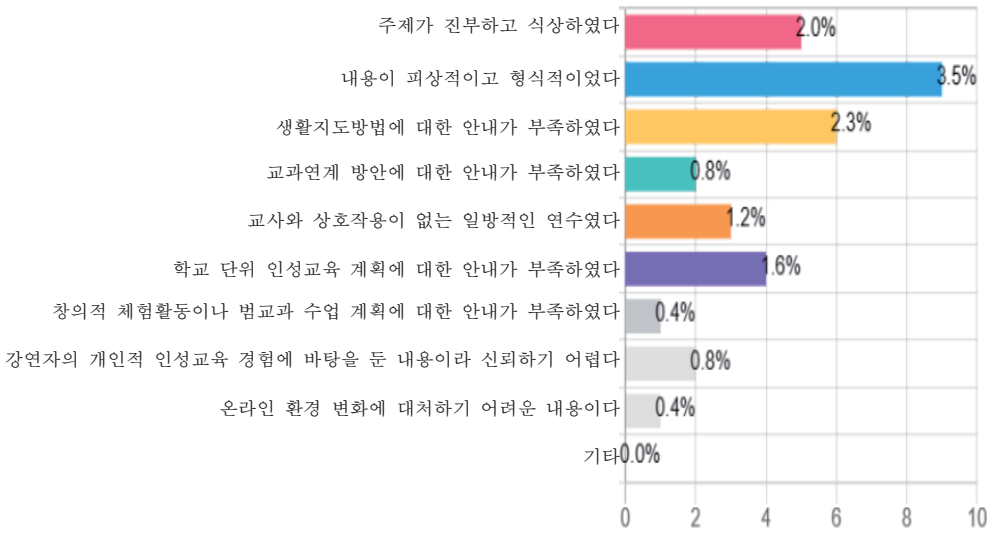
[그림 Ⅳ-8] 만족스러웠던 연수 주제



[그림 Ⅳ-9] 연수에 만족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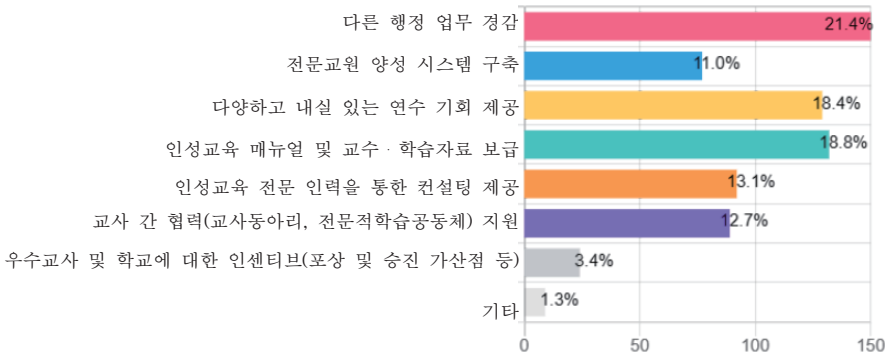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수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생활지도에서의 유용성’을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만족스러운 주제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는 ‘직접 자기 학교의 인성교육 계획을 기획하고 실천한 후 평가해 본 프로그램’, ‘애니어그램과 긍정적 학급 훈육’, 만족스러운 이유의 기타 의견으로는 ‘교사의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강사선생님이 열의가 있으셨다’가 있었다.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림 Ⅳ-10]과 같다. 교사들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실제적인 내용의 연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Ⅳ-10] 연수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한편,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그림 Ⅳ-11]와 같이 ‘다른 행정 업무 경감’(21.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아 업무 경감과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를 일관되게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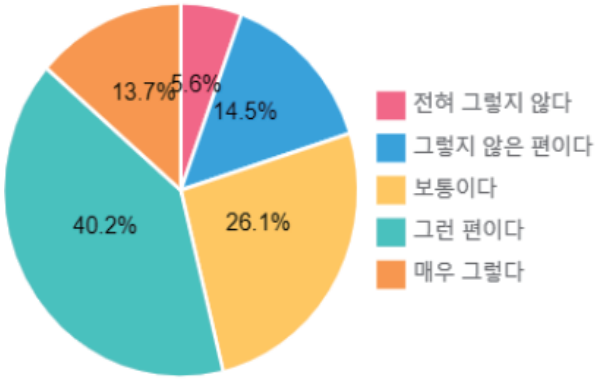
[그림 Ⅳ-11]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기타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교권보호부터 해야 한다.
- 의무 연수, 의무 동아리 등은 도움이 안 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인성교육은 교원의 역량 문제가 아니며, 가정과 학생 본인의 책임이 크다.
- 인성교육의 기본적인 교원의 의무이므로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인성교육은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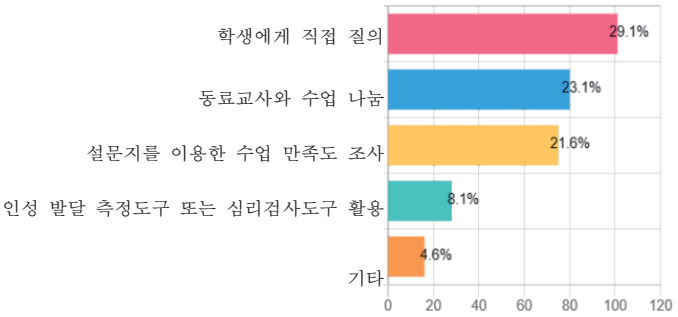
⑤ 인성교육 평가

인성교육 평가에 관한 질문은 현황과 지원을 파악하기 위해 총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그림 Ⅳ-12]와 같이 인성교육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53.9%)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40.6%)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응답률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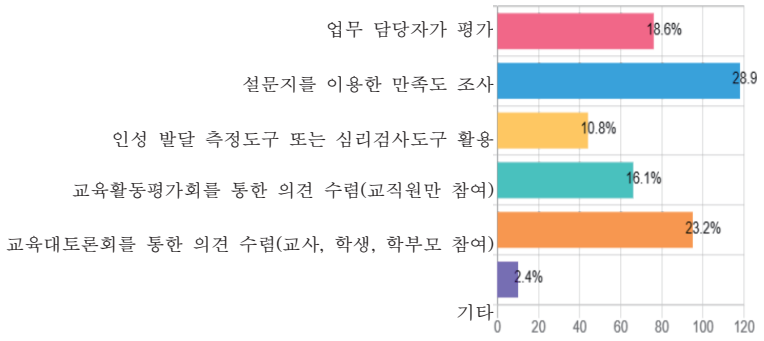
[그림 Ⅳ-12] 인성교육 평가와 활용 정도

‘평가한다’ 고 응답한 교사도 학생에게 직접 질의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체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림 Ⅳ-13] 과 같이 평가 방법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 관찰’, ‘학부모와 상담’, ‘인성교육의 효과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 회의적이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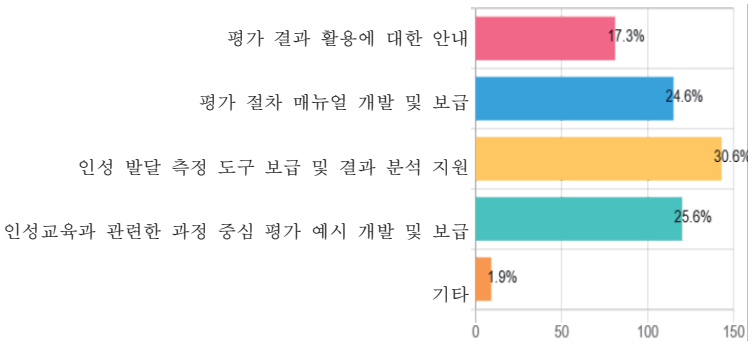
[그림 Ⅳ-13] 인성교육 평가 방법

학교 수준의 인성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그림 Ⅳ-14]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28.9%)와 ‘교육대토론회를 통한 평가’(23.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성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명)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Ⅳ-14] 학교단위 인성교육 성과의 평가 방식

평가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인성 발달 측정 도구 보급 및 결과 분석 지원'(30.6%), '평가 절차 매뉴얼'(25.6%)과 '과정중심평가 예시'(24.6%) 개발 및 보급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로는 '인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3명)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 인성교육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15] 인성교육 평가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⑥ 가정 및 지역 연계 인성교육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과정 외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가정 연계와 지역 연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가 30.1%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표 Ⅳ-14>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학교인성교육 관련 의사결정 시 학부모 참여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주민 시설 및 지역 내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확대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기타
빈도	42 (9.0)	141 (30.1)	169 (36.1)	58 (12.4)	57 (12.2)	1 (0.2)

지역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32.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로는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시설 확충 및 이수 의무 부여'가 있었다.

<표 Ⅳ-15> 지역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단위: 명(%))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 내 전문기관(대학 등)과의 교육협력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학부모 재능 기부 포함	마을교육 및 교육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기회 확대	기타
빈도	153 (32.7)	110 (23.5)	113 (24.1)	88 (18.8)	4 (0.9)

⑦ 자유 응답 결과

아래는 교사들이 개방형 응답란에 제시한 의견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 가정(부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11명)
- 인성교육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 인성은 학교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예산 증액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 학교교육만으로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직장에서의 부모 교육 의무이수(휴가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교사의 자율적인 인성교육을 독려해야 한다(5명)
- 학습공동체의 활성화(1명)

- 연수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한다(1명)

■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5명)
- 무너진 인성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다.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학부모의 협조 아래 실제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업무 경감이 우선되어야 한다(4명)
-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와주어야 한다

■ 인성교육을 위한 자원 및 안내가 필요하다(4명)
- 다양한 인성교육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인성교육에 대한 정량 평가에 반대한다(3명)
- 인성교육은 효과측정이 어려우므로 정량 평가보다 정성평가가 중요하다.

■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3명)
- 양극화, 입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다, 학생의 행복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입시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 차원에서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교권부터 보호해야 한다(2명)
-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 교권 부족으로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기를 포기하여 학생이 옳고 그름을 배우기 어렵다.

■ 기타 소수의견
- 인성교육에 대한 교과간경계가 모호하다
- 인성교육이 정치적 입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 학교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 인성교육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정신 질환 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안내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 간 관점과 전문성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2) 학생용 결과 분석

가) 응답자 특성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1,573명이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43.3%, 중학생 28.6%, 고등학교 28.1%가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여학생 48.6%, 남학생 51.4%이었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비율을 <표 Ⅳ-16>과 같다.

<표 Ⅳ-16>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681	43.3
	중학교		450	28.6
	고등학교		442	28.1
학년	초등학교	4학년	173	25.4
		5학년	197	28.9
		6학년	311	45.7
	중학교	1학년	225	50.0
		2학년	118	26.2
		3학년	107	23.8
	고등학교	1학년	241	54.5
		2학년	195	44.1
		3학년	6	1.4
		일반고	437	98.9
		특성화고	0	0.0
		특수목적고	1	0.2
		자율고	1	0.2
		기타	3	0.7
성별	여학생		764	48.6

	남학생	809	51.4
학교 소재지	대도시(특별·광역시)	699	44.4
	중·소 도시	837	53.2
	읍. 면	37	2.4

나) 설문 결과

학생 대상 설문의 경우는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의 요구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사안들을 질문하였다.

① 인성교육의 방향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총 2개의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각 문항의 응답 결과는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

(단위: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14 (2.1)	7 (1.0)	131 (19.2)	203 (29.8)	326 (47.9)	681 (100.0)	4.204	.926
중학교	22 (4.9)	21 (4.7)	86 (19.1)	116 (25.8)	205 (45.6)	450 (100.0)	4.024	1.129
고등학교	11 (2.5)	13 (2.9)	65 (14.7)	98 (22.2)	255 (57.7)	442 (100.0)	4.296	.990
합계	47 (3.0)	41 (2.6)	282 (17.9)	417 (26.5)	786 (50.0)	1573 (100.0)	4.179	1.010

<표 Ⅳ-18>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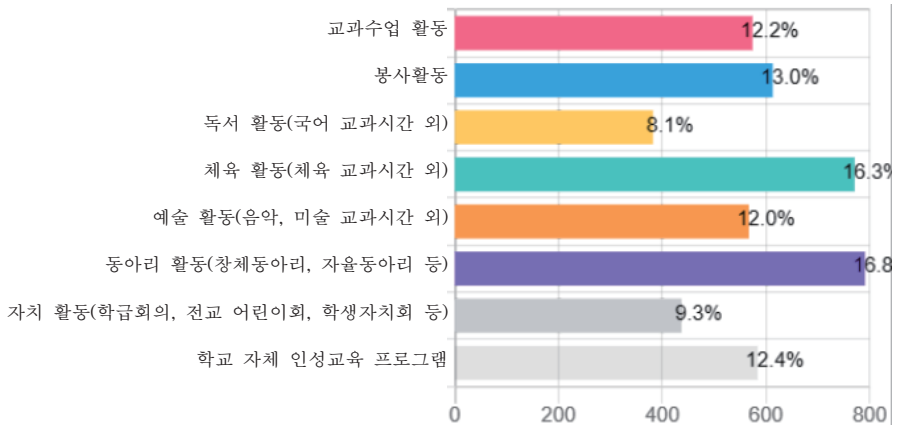
학교급 / 인성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복탄력성 향상	310(11.4)	229(12.7)	196(11.1)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414(15.2)	269(14.9)	304(17.2)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304(11.2)	201(11.2)	182(10.3)
인류애 및 생태 감수성 함양	157(5.8)	82(4.6)	72(4.1)
인성과 관련한 인문소양 함양	107(3.9)	80(4.4)	73(4.1)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213(7.8)	150(8.3)	169(9.6)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237(8.7)	161(8.9)	143(8.1)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104(3.8)	85(4.7)	92(5.2)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218(8)	157(8.7)	162(9.2)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346(12.7)	217(12.1)	173(9.8)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282(10.4)	163(9.1)	198(11.2)
기타	32(1.2)	6(0.3)	4(0.2)

학생들은 대부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학교급별 목표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교급에서 모두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목표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는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 폭력 문제 예방', 중학교에서는 '회복탄력성 향상', 고등학교에서는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나쁜 의도가 없는데 친구에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감정표현이 미숙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서 감정조절하기가 배우고 싶다', '분노 조절하기' 가 제시되었다.

②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

학교 교육 계획을 통해 이뤄진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총 네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학교 활동 중 학생 자신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16.8%), '체육활동(체육 교과 시간 외)' (16.3%), '봉사활동' (13%)순으로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Ⅳ-16] 자신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 학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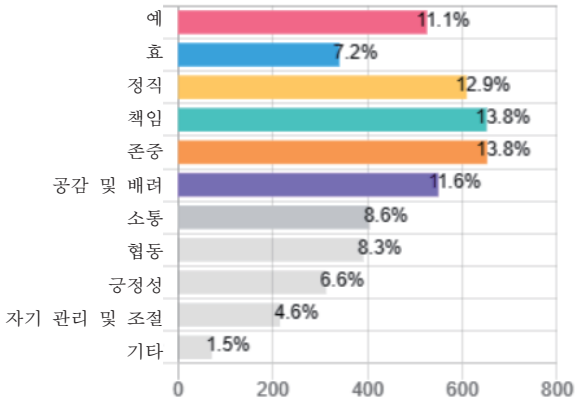
학교에서 참여한 인성교육 수업이나 활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77.7%의 학생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9〉 학생이 느낀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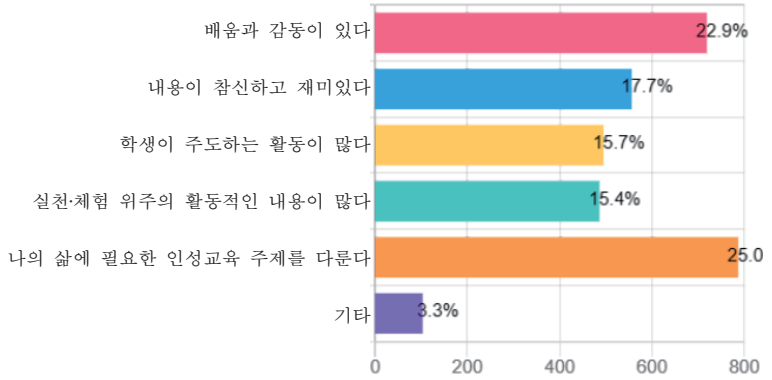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29 (4.3)	52 (7.6)	203 (29.8)	217 (31.9)	180 (26.4)	681 (100.0)	3.858	1.081
중학교	51 (11.3)	47 (10.4)	161 (35.8)	112 (24.9)	78 (17.3)	450 (100.0)	3.478	1.154
고등학교	40 (9.0)	53 (12.0)	204 (46.2)	72 (16.3)	73 (16.5)	442 (100.0)	3.602	1.125
합계	120 (7.6)	152 (9.7)	568 (36.1)	401 (25.5)	331 (21.0)	1,573 (100.0)	3.677	1.126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이나 역량에 대한 배움의 효과가 컸는지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책임’(13.8%)과 ‘존중’(13.8%), ‘정직’(12.9%), ‘공감 및 배려’(11.6%)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그림 Ⅳ-17] 인성교육의 효과성이 높은 덕목 또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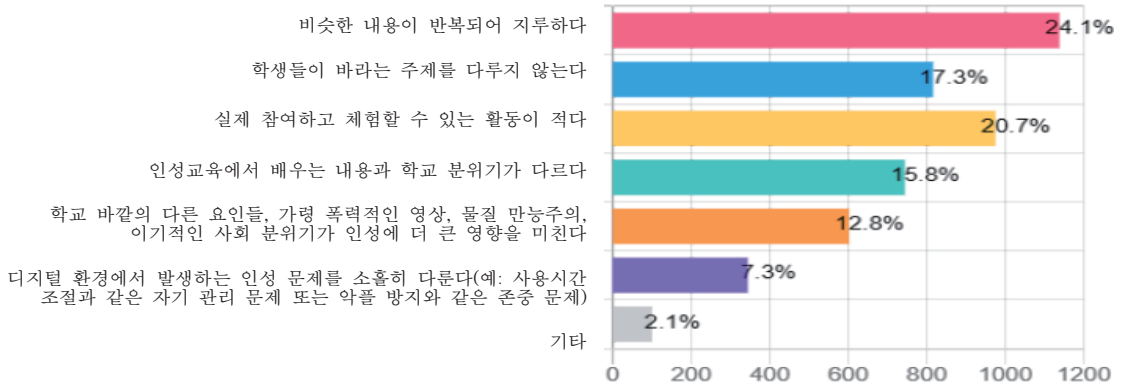


[그림 Ⅳ-18]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

도움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나의 삶에 필요한 인성교육 주제를 다룬다'(25%), '배움과 감동이 있다'(22.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기타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인성이 이미 좋은 친구만 인성교육에 참여한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실천을 다짐하게 된다', '모둠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갈등을 실제로 해결해보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인성에 관한 이론을 배울 수 있어 좋다',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셨다', '영상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인성교육 수업이나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응답 결과는 [그림 Ⅳ-19]와 같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다'(24.1%), '실제 참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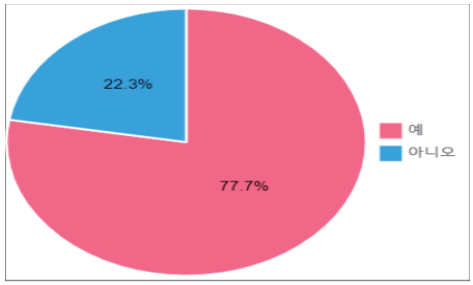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적다’(20.7%)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기타로는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삐딱하다’, ‘불량 학생을 변화시키기에는 인성교육으로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수업도 아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 등과 같이 학생의 태도 문제를 지적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선생님께서 평소 옳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셔야 한다’, ‘수업이나 활동이 성의가 없다’, ‘선생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내신다’, ‘선생님은 업무하시고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다’처럼 교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너무 기본적이고 지루하며 재미없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그림 Ⅳ-19] 인성교육 수업이나 교육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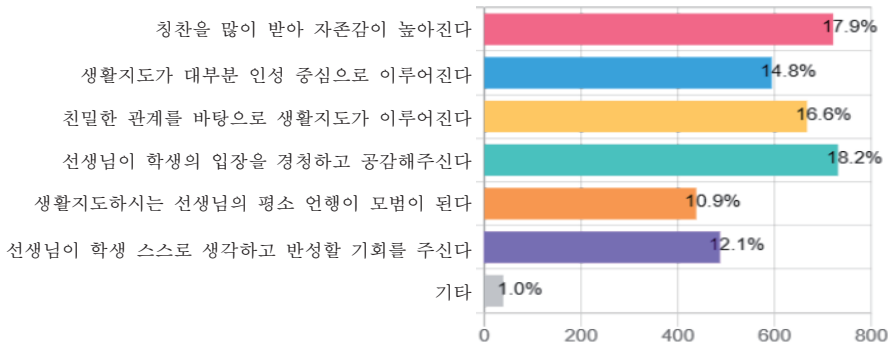
③ 교육과정 외 인성교육

교육과정 외 인성교육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학교의 인성 친화적 분위기와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체로 효과가 있다(77.7%)고 응답하였다.



[그림 Ⅳ-20] 학생이 느낀 생활지도의 효과 여부

효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18.2%), '칭찬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높아진다'(17.9%)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인성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기타의견으로는 '차근차근 알려주신다', '친절하게 대해주신다' 가 있었다.



[그림 Ⅳ-21]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인성에 도움이 되는 이유

교사의 생활지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생활지도 시 규칙과 규정을 더 강조하신다'(27.8%)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23.9%)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무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선생님과 학생의 가치관이 다른데 선생님만 옳다고 하신다'와 '선택

지의 모든 이유가 해당된다', '아이들의 인성이 이미 나쁘게 형성되어서 소용이 없다' 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소수 의견으로는 ,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내신다', '생활지도가 형식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Ⅳ-20>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자신의 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시다	선생님은 생활지도 시 규칙과 규정을 더 강조하신다	생활지도 규정을 정할 때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신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기타
빈도	46(22.4%)	57(27.8%)	45(22%)	49(23.9%)	8(3.9%)

학교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 정도에 대해서는 <표 Ⅳ-21>와 같이 평균 3.67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매우 인성 친화적이다' 라는 응답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Ⅳ-21> 학교의 인성친화적인 분위기 정도

(단위: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24 (3.5)	46 (6.8)	171 (25.1)	202 (29.7)	238 (34.9)	681 (100.0)	3.858	1.081
중학교	31 (6.9)	52 (11.6)	136 (30.2)	133 (29.6)	98 (21.8)	450 (100.0)	3.478	1.154
고등학교	23 (5.2)	41 (9.3)	141 (31.9)	121 (27.4)	116 (26.2)	442 (100.0)	3.602	1.125
합계	78 (5.0)	139 (8.8)	448 (28.5)	456 (29.0)	452 (28.7)	1573 (100.0)	3.677	1.126

④ 자유 응답 결과

아래는 학생들이 개방형 질문에 제시한 의견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47명)

-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형식적이고 지루하다. 재미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20명)
- 야외·체험·봉사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9명)
- 모둠(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3명)
- 주입식이 아닌 방법이면 좋겠다.(2명)
- 연극 활동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더 열심히/자주 했으면 좋겠다).(11명)

■ 인성교육을 해도 소용이 없다(제대로 해야 한다).(10명)

■ 교사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8명)

- 학생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4명)
- 선생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 선생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 영상만 보여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
- 선생님은 인성보다 규칙을 강조하시는 것 같다.

■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7명)

■ 바른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6명)

■ 현재의 인성교육에 만족한다.(4명)

■ 학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4명)

-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지 않기.

- 존중하기.
- 남의 물건 손대지 않기.
- 생생한 강의로 긍정적이고 이로운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싶다.

■ 기초적인 예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3명)

■ 인성교육이라는 말이 이미지가 나쁘니 다른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2명)

■ 소수 의견

- 인성 교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 온라인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이런 조사를 자주 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 웃는 연습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 담임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인성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 인성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교과 수업에 인성교육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 가정에서 어릴 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
- 핸드폰의 이른 사용이 인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3) 학부모용 결과 분석

가) 응답자 특성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는 총 557명으로, 초등학생 학부모 192명, 중학생 학부모 177명, 고등학생 학부모 188명이 참여하였다, 자녀의 학년, 성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 비율을 <표 Ⅳ-22>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는 대부분 자녀의 어머니이며(95.2%), 학교급별로 고르게 참여하였다. 자녀 성별은 여학생 46.8%, 남학생 53.2%로 고르게 분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읍면 지역(0.5%)에 비해 대도시(60.6%)와 중소도시 거주자(38.8%)가 많이 참여하였다.

<표 Ⅳ-22>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급	초등학교		192	34.5
	중학교		177	31.8
	고등학교		188	33.8
자녀 학년	초등학교	1학년	28	14.6
		2학년	23	12.0
		3학년	19	9.9
		4학년	53	27.6
		5학년	35	18.2
		6학년	34	17.7
	중학교	1학년	122	68.9
		2학년	41	23.2
		3학년	14	7.9
	고등학교	1학년	94	50
		2학년	71	37.8
		3학년	23	12.2
		일반고	184	97.9
		특성화고	1	0.5

		특수목적고	0	0.0
		자율고	1	0.5
		자사고	2	1.1
성별	여학생		88	46.8
	남학생		100	53.2
부모 자녀 관계	어머니		179	95.2
	아버지		9	4.8
	조부모		0	0.0
	기타		0	0.0
학교 소재지	대도시(특별·광역시)		114	60.6
	중·소 도시		73	38.8
	읍. 면		1	0.5

나) 설문 결과

학부모 대상 설문의 경우는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중요한 사안들을 질문하였다.

① 인성교육의 방향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는 총 2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와 각 학교급에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4.8점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23>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

(단위: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3 (1.6)	1 (0.5)	0 (0.0)	9 (4.7)	179 (93.2)	192 (100.0)	4.875	.574

중학교	1 (0.6)	0 (0.0)	2 (1.1)	6 (2.8)	169 (95.9)	177 (100.0)	4.927	.399
고등학교	9 (4.8)	0 (0.0)	3 (1.6)	16 (8.5)	160 (85.1)	288 (100.0)	4.691	.908
합계	13 (2.3)	1 (0.2)	5 (0.9)	30 (5.4)	508 (91.2)	557 (100.0)	4.829	.672

한편,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로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를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Ⅳ-24> 학교급별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

(단위: 명(%))

학교급 / 인성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복탄력성 향상	25(3.3)	35(4.9)	23(3.1)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109(14.2)	73(10.3)	88(11.7)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103(13.4)	116(16.4)	102(13.6)
인류애 및 생태 감수성 함양	9(1.2)	11(1.6)	7(0.9)
인성과 관련한 인문소양 함양	36(4.7)	48(6.8)	45(6.0)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62(8.1)	62(8.8)	82(10.9)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17(2.2)	23(3.2)	41(5.5)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91(11.8)	90(12.7)	90(12)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79(10.3)	50(7.1)	73(9.7)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98(12.8)	71(10)	58(7.7)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139(18.1)	129(18.2)	142(18.9)

② 학교 인성교육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총 2개로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의 함양에 효과적인지를 질문하였다. 생활지도나 학교 풍토와 같이 학부모가 파악하기 어려운 실태에 대한 문항은 묻지 않았다. 우선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학부모 응답은 <표 Ⅳ-25>과 같다.

<표 Ⅳ-25> 학부모가 느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 정도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5 (2.6)	6 (3.1)	72 (37.5)	75 (39.1)	34 (17.7)	192 (100.0)	3.661	.895
중학교	5 (2.8)	11 (6.2)	89 (50.3)	49 (27.7)	23 (13.0)	177 (100.0)	3.475	.930
고등학교	6 (3.2)	19 (10.1)	83 (44.1)	56 (29.8)	24 (12.8)	188 (100.0)	3.388	.944
합계	16 (2.9)	36 (6.5)	244 (43.8)	180 (32.3)	81 (14.5)	557 (100.0)	3.492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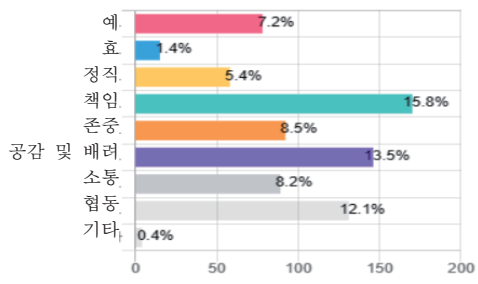
평균 3.49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초등학교에서는 '보통이다'(37.5%) 보다 긍정인 응답('도움이 된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56.8%)이 높았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 빈도가 높아 초등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Ⅳ-26>처럼 모든 학교급에서 학부모는 교사나 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낮은 편이었다.

<표 Ⅳ-26>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 응답 비교

(단위: 명(%))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초등학교	교사	0 (0.0)	1 (1.0)	5 (5.2)	28 (29.2)	62 (64.6)	96 (100.0)	4.573	.645
	학생	29 (4.3)	52 (7.6)	203 (29.8)	217 (31.9)	180 (26.4)	681 (100.0)	3.858	1.081
	학부모	5 (2.6)	6 (3.1)	72 (37.5)	75 (39.1)	34 (17.7)	192 (100.0)	3.661	.895
중학교	교사	0 (0.0)	1 (1.5)	11 (16.9)	21 (32.3)	32 (49.2)	65 (100.0)	4.281	.806
	학생	51 (11.3)	47 (10.4)	161 (35.8)	112 (24.9)	78 (17.3)	450 (100.0)	3.478	1.154
	학부모	5 (2.8)	11 (6.2)	89 (50.3)	49 (27.7)	23 (13.0)	177 (100.0)	3.475	.930
고등학교	교사	3 (4.1)	2 (2.7)	14 (19.2)	32 (43.8)	22 (30.1)	73 (100.0)	3.932	.991
	학생	40 (9.0)	53 (12)	204 (46.2)	72 (16.3)	73 (16.5)	442 (100.0)	3.602	1.125
	학부모	6 (3.2)	19 (10.1)	83 (44.1)	56 (29.8)	24 (12.8)	188 (100.0)	3.388	.944

다음으로, 인성교육의 효과가 높은 덕이나 역량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책임(15.8%), 공감 및 배려(13.5%) 순으로 높았다. 기타로는 '시간 관리를 하게 되었다', '옳고 그름을 알고 옳은 선택을 내리도록 이끌어 주었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Ⅳ-22] 학부모가 느낀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가 높은 영역

③ 가정 및 지역 연계 인성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에게도 가정 및 지역 인성교육에 관한 요구를 질문하였다. 가정연계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30.6%),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24.2%)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의 욕설 사용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정과 연계하여 가르쳐야 한다', '인성교육 관련 수업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시되었다.

<표 Ⅳ-27>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학부모 응답)

	학교인성교육 관련 의사결정 시 학부모 참여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주민 시설 및 지역 내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확대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정 연계 인성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기타
빈도	102(9.2)	270(24.2)	341(30.6)	53(4.8)	169(15.2)	167(15.0)	12(1.1)

지역 연계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36.7%)이 가장 높았다. 기타로는 '지역 연계보다 교사나 부모가 인성의 본보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활성화',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가 제시되었다.

<표 Ⅳ-28> 지역 연계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학부모 응답)

(단위: 명(%))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 내 전문기관(대학 등)과의 교육협력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학부모 재능 기부 포함	마을교육 및 교육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기회 확대	기타
빈도	409(36.7)	299(26.8)	139(12.5)	258(23.2)	9(0.8)

④ 자유 응답 결과

아래는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제시한 의견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11명)
- 미래 사회에서 더 중요하다.(4명)
-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인성교육이 절실하다.(4명)
-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인성교육 때문이다. 학습보다는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 입시보다 인성이 우선되는 변화가 필요하다.(3명)
- 더 심층적이고 다방면의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2명)
- 인권교육보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2명)
- 인성교육이 필수였으면 좋겠다/주 1회 인성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2명)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참여해야 한다.(1명)
- 아이들의 문제는 곧 어른들의 문제다. 어른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학교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1명)

■ 선생님의 자질(인성)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9명)
- 선생님은 직업이 아니라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3명)
- 문제가 생기면 욕먹지 않는 선에서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1명)
- 교사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1명)
- 공부 잘하는 학생 몇몇에게만 관심 있고, 아이들에게 관심 없는 교사가 많다.(1명)
-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한다.(1명)
- 학생 인성교육보다 교사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1명)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기본이다(7명)
- 지속적인 가정연계 인성교육(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3명)
- 부모교육도 이뤄지면 좋겠다.(1명)
- 부모가 인성교육 참여 시 자녀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정 내 인성교육을 유도했으면 좋겠다.(1명)
- 가족 간의 대화를 독려해야 한다.(1명)
-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게 교육해야 한다.(1명)

■ 기본적인 인성을 가르쳐야 한다(4명)
- 윤리나 예절은 학생 인권보다 하위에 있다. (1명)

- 인사하기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1명)
- 우리나라 예절을 모르는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를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예절교육이 중요하다.(1명)

■ 바른 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4명)

■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홍보가 부족하다(4명)
- 인성교육에 관한 홍보와 정기적인 안내가 필요하다.(2명)

■ 행사를 위한 행사, 일회성 인성교육을 지양해야 한다(4명)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1명)
- 실제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1명)

■ 인성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4명)
-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인(평가)과 지속적인 시행도 중요하다.(1명)
- 인성교육 우수학교를 선정하거나 인증해야 한다.(1명)
- 학교 인성교육 내용과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다.(1명)

■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3명)
-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 학생에 대해 이해를 잘 해주면 좋겠다.(1명)
- 학생의 생각을 폭을 넓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2명)

■ 교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5명)
- 학생들이 권리만 누리며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1명)
- 교권을 지켜야 한다. 교권이 무너져도 방관하고, 학생과 학부모 탓만 한다.(1명)
- 학생인권 향상과 교권보호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명)
- 선생님에게도 심리 상담과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1명)
- 학부모가 수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1명)

■ 배려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2명)
-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1명)
- 애인이나 약자를 위한 배려 프로그램도 교육했으면 좋겠다.(1명)

■ 왕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2명)

■ 정치적 성향을 벗어나 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명)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2명)

- 공동체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1명)
- 사제동행, 교내참여, 지역사회 가정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1명)

■ 기타의견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할극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1명)
- 약하고 바른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지켜줘야 한다.(1명)
- 중2병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명)
- 학교 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및 인력이 보충되어야 한다.(1명)
- 감정 조절을 가르쳤으면 좋겠다.(1명)
-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1명)
- 학교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1명)
-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1명)
-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학생 개개인의 가치와 다양성 존중, 역량개발을 지향해야 인성교육의 본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협소한 기준으로 일등만 인정하면서 인성교육을 반복해야 무슨 진정한 호소력이 있을까요. 이러한 변화를 이룩하려면 IB코스 같은 새로운 지도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더불어 모든 교사에 대한 교수 역량지원, 학교행정 및 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은 사회는 실패한 사회입니다. 절치부심으로 바꿔야 합니다.(1명)

나.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1) 응답자 분석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119명으로 초등학교 교사 52명, 중학교 교사 24명, 고등학교 교사 43명이 참여하였으며, 학년, 성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응답비율은 <표 Ⅳ-29>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여교사 비율이 70.6%로 남교사 비율 2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교

사,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순서로 참여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년 이상 교사들의 참여도(3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경력별 분포가 고르게 형성되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담임교사를 맡고 있으며, 교과별로는 국어 교과 담당 교사의 응답 비율(11.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0.8%)에 비해 대도시(54.6%)와 중소도시(44.5%)에 근무하는 교사가 많이 참여하였다.

<표 Ⅳ-29> 설문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교사용-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교사		84	70.6
	남교사		35	29.4
학교급	초등학교		52	43.7
	중학교		24	20.2
	고등학교	전체	43	36.1
		일반고	42	35.3
		특성화고	0	0.0
		특수목적고	0	0.0
		자율고	1	0.8
교직 경력	5년 미만		23	19.3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2.6
	10년 이상 -15년 미만		16	13.4
	15년 이상- 20년 미만		24	20.2
	20년 이상		41	34.5
직급	담임교사		65	54.6
	비담임교사		27	22.7
	부장교사		22	18.5
	관리자(교장/교감)		5	4.2
담당 교과 (중등 대상자)	국어		14	11.8
	도덕・윤리		2	1.7
	수학		7	5.9
	사회과		9	7.6
	과학과		6	5.0
	실과(기술・가정)		3	2.5
	영어		5	4.2
	음악		3	2.5

	미술	1	0.8
	체육	2	1.7
	실업	0	0.0
	기타	15	12.6
학교 소재지	대도시(특별·광역시)	65	54.6
	중·소 도시	53	44.5
	읍·면	1	0.8

2) 설문 결과

가)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고려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교육 방향

디지털 문명 시대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공동체 의식 교육', '대인 관계 교육'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서는 '인간 존엄 교육', '대인 관계 교육'이, 불확성실 시대에 대비해서는 '인간 존엄 교육', '공동체 의식 교육'이, 포스트 코르나 시대에 대해서는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순서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인간 존엄 교육, 대인 관계 교육 등은 인간다움, 인간성, 인간됨에 대한 교육과 깊은 상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해 학생들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간다움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시민교육 중심의 이전 경기도인성교육 정책은 '자기 관리 및 조절', '긍정적 태도 함양' 등 수행적 인성을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Ⅳ-30〉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고려할 때 주안점을 두어야 할 교육 방향

(단위: 명(%))

	디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인 관계 교육	47(13.2)	43(12.0)	24(6.7)	40(11.2)

인간 존엄 교육	44(12.3)	51(14.3)	38(10.6)	41(11.5)
인문 소양 교육	14(3.9)	17(4.8)	21(5.9)	11(3.1)
공동체 의식 교육	49(13.7)	31(8.7)	33(9.2)	32(9.0)
기본적 예절 교육	39(10.9)	19(5.3)	19(5.3)	33(9.2)
다양성 존중 교육	27(7.6)	25(7.0)	24(6.7)	19(5.3)
비판적 사고 교육	22(6.2)	29(8.1)	25(7.0)	14(3.9)
의사소통 능력 교육	34(9.5)	21(5.9)	12(3.4)	25(7.0)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7(2.0)	17(4.8)	24(6.7)	18(5.0)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12(3.4)	20(5.6)	23(6.4)	13(3.6)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12(3.4)	24(6.7)	20(5.6)	9(2.5)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14(3.9)	16(4.5)	28(7.8)	20(5.6)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9(2.5)	11(3.1)	20(5.6)	34(9.5)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20(5.6)	24(6.7)	28(7.8)	37(10.4)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7(2.0)	9(2.5)	16(4.5)	11(3.1)
기타	0(0.0)	0(0.0)	2(0.6)	0(0.0)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으로 교사들은 공감과 배려, 책임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는 시대적 변화의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감, 배려, 책임과 같이 도덕성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31〉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

(단위: 명(%))

	디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용기	8(2.2)	5(1.4)	9(2.5)	9(2.5)
정의	14(3.9)	15(4.2)	13(3.6)	12(3.4)

책임	49(13.7)	33(9.2)	39(10.9)	34(9.5)
협력	27(7.6)	20(5.6)	16(4.5)	36(10.1)
호기심	11(3.1)	10(2.8)	7(2.0)	2(0.6)
창의성	32(9.0)	30(8.4)	17(4.8)	4(1.1)
주도성	16(4.5)	22(6.2)	21(5.9)	10(2.8)
의사소통	21(5.9)	26(7.3)	22(6.2)	23(6.4)
갈등 해결	15(4.2)	15(4.2)	17(4.8)	20(5.6)
회복탄력성	17(4.8)	10(2.8)	34(9.5)	31(8.7)
공감과 배려	42(11.8)	34(9.5)	33(9.2)	51(14.3)
공동체 의식	22(6.2)	33(9.2)	27(7.6)	41(11.5)
비판적 사고	18(5.0)	23(6.4)	18(5.0)	7(2.0)
정직과 성실	10(2.8)	13(3.6)	15(4.2)	8(2.2)
존중과 예의	24(6.7)	25(7.0)	29(8.1)	31(8.7)
사회정서적 기술	12(3.4)	22(6.2)	10(2.8)	22(6.2)
그릿(절제, 끈기)	11(3.1)	7(2.0)	12(3.4)	10(2.8)
메타인지 및 성찰	8(2.2)	14(3.9)	17(4.8)	6(1.7)
기타	0(0.0)	0(0.0)	1(0.3)	0(0.0)

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문항은 교사용 총 3문항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제 구축’의 목표를 위해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묻고자 하였다. 이때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 선행연구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인성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나가야 하는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위해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물어 향후 정책적 지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Ⅳ-3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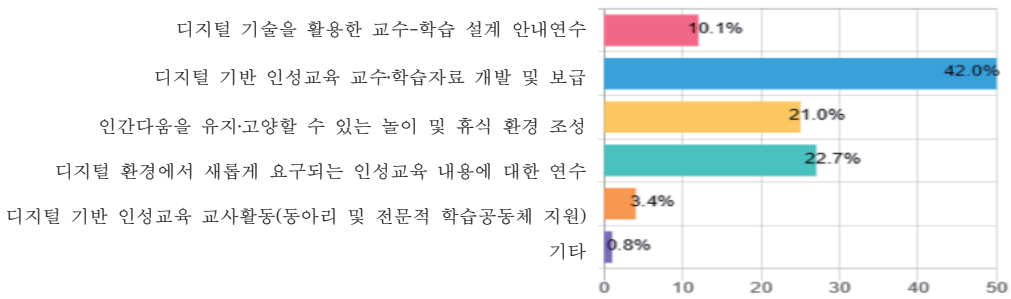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평균	표준 편차
5(4.0)	7(6.0)	30(25.0)	47(40.0)	30(25.0)	119(100.0)	3.756	1.033

대다수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업 형태가 변화하고, 이에 맞춰 인성교육의 실행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반대하는 이유

(단위: 명(%))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도 인성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해 별도로 가르쳐야 해서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기타
4(34.0)	6(50.0)	1(8.0)	1(8.0)



[그림 Ⅳ-23] 효과적인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

라.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 분석 종합

첫째,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아래에 포함되거나 대체되어 추진된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계획은 시민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나 도덕적 가치관(도덕적 인성), 또는 개인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수행적 인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녀야 할 주도성이나 성찰 능력(지적 인성)과 같은 인성적 요인들을 포괄하기에는 인성을 협소하게 규정한 측면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해외 사례에서도 인성교육은 시민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등을 포괄하는 교육 아젠다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 조사에서도 인성교육 목표로 ‘회복 탄력성 향상’이나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삶의 탁월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적 인성이 인성교육의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는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도 교사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적 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펜데믹으로 인해 원격수업을 경험한 이후 공부할 이유와 삶의 목적 및 가치를 스스로 성찰하고 찾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특히 다원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온갖 종류의 도덕적 쟁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사항들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바탕이 되는 ‘도덕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메타인지, 온라인 기반 또는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제안되고 있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필요한 인성교육 요소에 대한 응답도 자기 관리 능력이나 긍정성 함양 등 수행적 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결국 미래사회에 대비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

해서는, 공감·배려·책임과 같은 기본적인 인성교육에 핵심을 두면서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인성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태조사에서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학생 발달 특성을 반영한 인성교육 성취 기준 마련'(14.4%)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으며, '교과별 인성 성취기준과 역량 안내'(11.3%)와 합치면 25.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목표 설정이 중요하는 이유는 그것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행의 타겟이나 청사진, 로드맵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업에 공통의 언어와 구조를 제공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이에 미국의 CSED는 연령군별로 구체적인 발달 지표(성취기준)를 제시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계획, 실행, 평가를 실제적으로 돕고 있었다. 아무리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교사의 실행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효율적으로 인성교육을 실행하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단편적인 시도로 그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학교급별로 인성교육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학년군별 또는 연령군별로 구체화한 목표나 성취기준(발달 지침)을 개발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이 역시 연령에 따라 학교급별 목표를 구체화하여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인성에 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급별 목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학생·학부모는 모두 학교급에 상관없이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과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과 같이 인성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회복탄력성 향상',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도덕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에 대한 응답은 설문 대상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컸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은 '회복탄력성 향상'과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에 대한 응답이 초·중·고에서 모두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는 교사와 학부모의 응답이 학생의 응답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즉,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시민적 인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학생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행적 인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교육과정은 학생의 관심을 고려한 학습 주제 설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학교급별 목표를 설정할 때 이와 같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교사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는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배워야 한다는 요구가 4~5배 정도 높았는데, 이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성찰할 수 있게끔 목표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 폭력 예방'이 중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이,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Ⅳ-34〉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대해 교사·학생·학부모에 차이가 있는 응답

(단위: 명(%))

학교급 / 인성교육 목표	교사 응답	학생 응답	학부모 응답
회복탄력성 향상	22(5.7)	310(11.4)	25(3.3)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62(16.1)	414(15.2)	109(14.2)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3(0.8)	237(8.7)	17(2.2)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43(11.2)	104(3.8)	91(11.8)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8(2.1)	218(8.0)	79(10.3)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53(13.8)	282(10.4)	139(18.1)

<표 Ⅳ-35>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에 대해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응답

(단위: 명(%))

학교급 / 인성교육 목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38 (9.9)	346 (12.7)	98 (12.8)	14 (5.4)	217 (21.1)	71 (10.0)	12 (4.1)	173 (9.8)	58 (7.7)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37 (9.6)	304 (11.2)	103 (13.4)	35 (13.5)	201 (11.2)	116 (16.4)	32 (11.0)	182 (10.3)	102 (13.6)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31 (8.1)	213 (7.8)	62 (8.1)	21 (8.1)	150 (8.3)	62 (8.8)	33 (11.3)	169 (9.6)	82 (10.9)

셋째, 생태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청 수준에서 담당해야 할 인성교육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형식적인 실시'(20.8%), '일회적인 행사로 실시'(18.8%)를 인성교육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인성교육이 행사적으로 실시되면 안 된다는 문제인식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을 비효과적으로 만드는 현재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개방형 자유 응답의 결과이다. 개방형 응답의 경우 응답자가 선다형 응답으로 표현할 수 없거나 강조하고 싶은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방형 응답란에 교사의 경우는 '가정 및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의 경우도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안내와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또한 '입시가 우선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지적도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서 많이 있었다. 이는 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교 밖에도 존재하며 요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성을 고려한 계획 수

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기존의 인성교육 계획에도 학생의 수업, 학교 풍토, 가정, 지역사회 등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영역별 계획이 있었지만, 각 영역들이 상호 연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된 부분이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학생의 인성 문제를 학교의 체계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인성 문제는 가정을 비롯한 이웃, 공동체 등 다른 사회 환경의 맥락과 영향을 고려해야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김윤경, 2020). 즉,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며 학생과 상호 작용하는 여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이 인성을 가꿀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의 수업과 교과 외 활동, 가정과 지역 연계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학교 단위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학생들은 개방형 응답란에 '친구와 함께 야외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바란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했는데, 가정 연계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학교보다는 교육청 수준에서 추진 가능하므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실천, 체험 또는 봉사학습의 기회의 마련은 교사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 지역 연계 인성교육에 대해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결과도 교육청 수준의 인성교육 정책 마련 및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들은 인성교육 관련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학교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청과 학교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같이 교육청의 역할 확대와 명확화에 대해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협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지혜로운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교원의 인성교육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행정 업무 경감'(21.4%)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아 업무 경감과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 확보에 대한 요구를 일관되게 나타냈다. 또한 개방형 응답 문항에서도 업무 경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선한 행동에 대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

다. 그래서 업무 경감은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이에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업무 과다로 인한 교사의 소진 방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인성교육 사례에서 영국은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를 통해, 사회정서학습은 평가 가이드라인(measuringsel.com)을 통해 구체적인 인성교육 실행 가이드라인과 업무 소진에 대비한 안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해외의 사례는 교사를 인성교육 성패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지어 경기도교육청의 우수학교 사례들을 살펴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학교의 인성교육 추진 내용은 교과수업 외의 특별 사업을 통해 실행한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며, 다른 학교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교과수업과 학급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교과 외 활동의 과도한 추진은 교사들의 소진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인성교육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는 교육청 수준에서 마련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에서 모든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절차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에서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실제적인 생활지도 방법 안내’ 및 ‘교수-학습 자료 지원’과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시수 보장’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수나 지도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응답에 다수 제시된 학부모의 의견처럼 교육자가 아닌 직업자로서 학교 일에 임하는 교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면, 이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사 대상 조사의 개방형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시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나 교권 문제를 비롯한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고 교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여러 요소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성교육 정책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급별 인성지수 실태

가. 인성지수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인성지수 연구의 내용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인성지수를 진단하여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학교급별 인성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이후 학생들의 인성실태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인성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인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성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이에 근거한 진단도구가 필요했다. 타인이 인성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인성평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기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인성지수 개발 연구>에서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의 총합으로 정의하며 청소년의 인성 수준을 진단하였다(지은림, 2013). 인성의 3영역에 7개의 구인으로 설정하여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여 지필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정체성으로 정의하여 학교급별 인성수준을 진단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인성교육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 인성검사 개발 및 매뉴얼을 보급하였다. 표준화 인성검사에서는 인성은 10개의 덕과 역량(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으로 구성되었다(현주, 2014).

인성검사 도구 개발에서는 인성의 개념정의 및 하위 구인 설정에 따라 검사도구가 달라졌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인성교육의 틀을 제안하고 있기에 국내외 인성교육의 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네 차원의 인성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인성은 도덕적 인성은 물론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더 각 영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선과 원칙을 추구하는 인성으로 윤리적 가치가 성품화된 자질을 말한다. 하위 구인으로는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공감, 정의이다.

둘째, 시민적 인성은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하는 인성이다. 하위구인으로 협동, 책임, 공동체 의식,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이 있다.

셋째,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인성으로 과업을 완수하거나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탁월성을 실현하는 자질이다. 하위 요인으로는 자기규제,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 그릿, 용기가 있다.

넷째, 지적인성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에서 강조되는 인성으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있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의 인성이다. 하위구인으로 메타인지, 창의성, 신중함, 비판적 사고, 호기심(& 성취동기) 지혜이다.

2) 인성지수의 연구 방법

가)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인성지수 실태는 온라인 기반 설문조사로 이용했다. 인성지수 조사에서는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에 관해서, 미래인성지수에서는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성지수의 설문 문항은 20구인의 100문항이었다. 인성지수의 문항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응답의 진실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었다. 학교급별의 추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응답을 고려하여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표 Ⅳ-36> 연구대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인성지수	남	195(52.3%)	154(47.7%)	192(51.3%)	541(50.6%)
(도덕적 인성 &	여	178(47.7%)	169(52.3%)	182(48.7%)	529(49.4%)
시민적 인성)	계	373(100%)	323(100%)	374(100%)	1070(100%)
미래인성지수	남	180(49.9%)	112(50%)	171(61.7%)	463(53.7%)
(수행적 인성 &	여	181(50.1%)	112(50%)	106(38.3%)	399(46.3%)
지적 인성)	계	361(100%)	224(100%)	277(100%)	862(100%)

나)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인성덕목으로 구성한 표준화 검사도구를 수정하여 도덕적 시민적 인성의 차원이외에도 수행적 지적 차원의 인성을 모두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Ⅳ-37>에서처럼 도덕적, 시민적 차원의 총 11개의 덕을, 그리고 수행적, 지적 차원의 20개 구인으로 구성하여 각 구인별 5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0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Ⅳ-37> 검사도구

항목		문항구성	문항수	신뢰도
인성지수	도덕적 인성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정의	30	.953
	시민적 인성	협동, 책임, 공동체 의식,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25	.953
미래인성지수	수행적 인성	자기규제, 낙관주의, 회복탄력성 & 그릿, 용기	20	.925
	지적인성	메타인지, 창의성, 지혜, 비판적 사고, 호기심(& 성취동기)	25	.951

다) 분석방법

학교급별 인성지수를 조사하여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인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성의 네 차원을 모두 진단하는 것이다. SPSS 21을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PSS 21을 활용하여 주성분 분석을 하여 인성의 구인 타당화하였다. 구인별 신뢰도를 측정하고 기술통계를 하여 인성별 구인별 평균값을 조사하였다.

둘째, 초 · 중 · 고 학교급에 따른 인성지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고 학교급별 차이를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를 이용하였다. 초·중·고 세 집단의 차이의 사후검증으로 등분산은 Schaffe를 등분산이 아닌 경우 Dunett T3를 활용하여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였다.

나. 인성지수 기술통계 결과

인성지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 학교급의 인성 구인 및 문항값을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인성지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인성 지수는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네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원의 하위 구인별로 각 문항의 최소, 최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가) 도덕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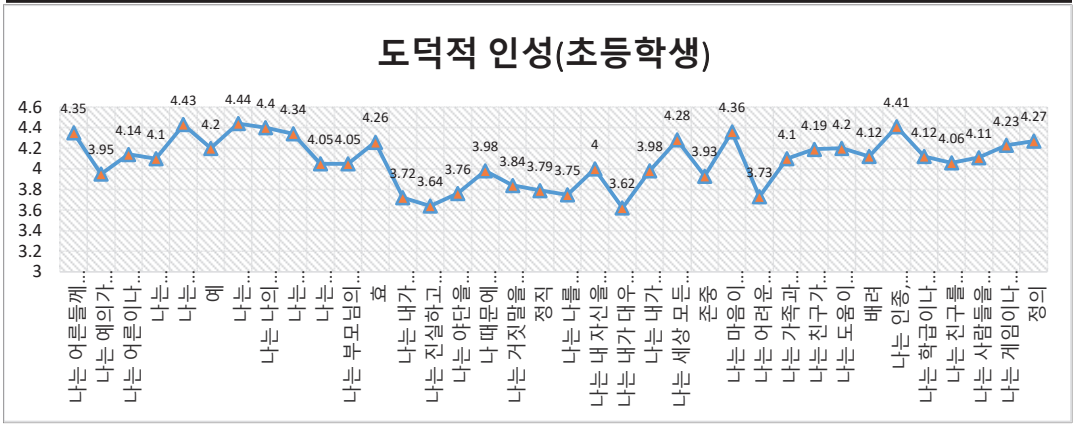
도덕적 인성은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공감), 정의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38>와 같이 도덕적 인성의 평균값은 4.14이다. 도덕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예는 4.20, 효는 4.26, 정직은 3.79, 존중은 3.93, 배려는 4.12, 정의는 4.27이다. 따라서 정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효, 예, 배려, 존중 순서로 높고, 정직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예에서는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가 4.43으로 가장 높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4.44로, 정직에서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가 3.98로 존중에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28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4.36으로 정의에서는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

은 문항은 예에서는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가 3.95로 가장 낮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와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가 4.05로 정직에서는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가 3.64로 존중에서는 ‘나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가 3.62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가 3.73으로 정의에서는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가 4.0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38> 초등학생 도덕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성	예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373	2	5	4.35	0.81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373	1	5	3.95	1.02
		나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잘 한다.	373	1	5	4.14	0.96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	373	1	5	4.10	0.92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	373	2	5	4.43	0.79
		예	373	1.8	5	4.20	0.69
	효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373	1	5	4.44	0.81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373	1	5	4.40	0.87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373	1	5	4.34	0.86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373	1	5	4.05	0.96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373	1	5	4.05	1.04
		효	373	1.8	5	4.26	0.71
	정직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373	1	5	3.72	1.03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373	1	5	3.64	1.03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373	1	5	3.76	1.08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373	1	5	3.98	1.01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373	1	5	3.84	1.09
		정직	373	1	5	3.79	0.81
	존중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73	1	5	3.75	1.29
		나는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373	1	5	4.00	1.17
		나는 내가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373	1	5	3.62	1.10
		나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373	1	5	3.98	1.04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73	1	5	4.28	0.96
		존중	373	1.8	5	3.93	0.75
	배려(& 공감)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373	1	5	4.36	0.95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	373	1	5	3.73	1.21
		나는 가족과 친구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373	1	5	4.10	1.00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으면, 가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373	1	5	4.19	1.04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373	1	5	4.20	0.91
		배려	373	1.2	5	4.12	0.71
	정의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373	2	5	4.41	0.79
		나는 학급이나 학교 규칙, 사회 공공장소 규칙 등을 잘 알고 지킨다.	373	1	5	4.12	0.90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373	1	5	4.06	1.08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373	1	5	4.11	0.97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73	1	5	4.23	0.92
		정의	373	2	5	4.27	0.81
도덕적 인성			373	2.2	5	4.14	0.66



[그림 Ⅳ-24] 도덕적 인성(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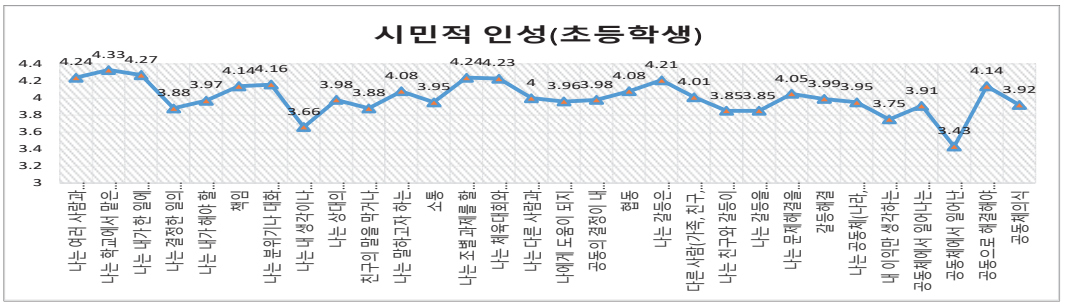
나) 시민적 인성

시민적 인성은 책임, 소통, 협동, 갈등해결능력, 공동체의식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39>과 같이 시민적 인성의 평균값은 4.02이다. 시민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책임은 4.14, 소통은 3.95, 협동은 4.08, 갈등해결능력은 3.99, 공동체의식은 3.92이다. 따라서 책임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협동, 갈등해결능력, 소통 순서로 높고, 공동체의식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책임에서는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가 4.33으로 가장 높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4.16으로 협동에서는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가 4.24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21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책임에서는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가 3.88로 가장 낮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가 3.66으로 협동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가 3.96으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와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가 3.85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가 3.4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39> 초등학생 시민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민적 인성	책임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73	1	5	4.24	0.86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373	1	5	4.33	0.83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373	1	5	4.27	0.86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373	1	5	3.88	0.9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373	1	5	3.97	1.06
		책임	373	2	5	4.14	0.69

	소통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373	1	5	4.16	0.93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370	1	5	3.66	1.07
		나는 상대의 몸짓이나 표현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다.	373	1	5	3.98	0.99
		친구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373	1	5	3.88	1.09
		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한다.	373	1	5	4.08	0.93
		소통	373	1.8	5	3.95	0.73
	협동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	373	1	5	4.24	0.87
		나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373	1	5	4.23	0.93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373	1	5	4.00	1.10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373	1	5	3.96	1.06
		공동의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협력한다.	373	1	5	3.98	1.00
		협동	373	1.8	5	4.08	0.75
	갈등해결 능력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373	1	5	4.21	0.91
		다른 사람(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	373	1	5	4.01	1.04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373	1	5	3.85	1.08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373	1	5	3.85	1.11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373	1	5	4.05	0.98
		갈등해결	373	1.8	5	3.99	0.74
	공동체 의식	나는 공동체(나라, 학교, 학급 등)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3	1	5	3.95	1.11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73	1	5	3.75	1.20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373	1	5	3.91	1.03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373	1	5	3.43	1.31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3	1	5	4.14	0.96
		공동체의식	373	1	5	3.92	0.93
시민적 인성			373	2	5	4.02	0.67



[그림 Ⅳ-25] 시민적 인성(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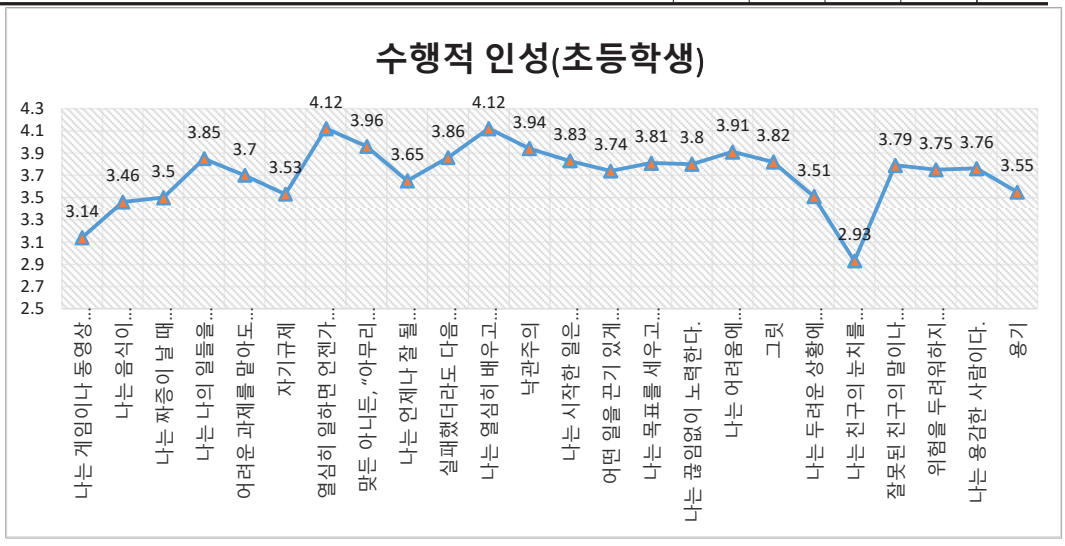
다) 수행적 인성

수행적 인성은 자기규제, 낙관주의, 그릿, 용기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0>과 같이 수행적 인성의 평균값은 3.71이다. 수행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규제는 3.53, 낙관주의는 3.94, 그릿은 3.82, 용기는 3.55이다. 따라서 낙관주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그릿, 용기 순서로 높고, 자기규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가 3.85로 가장 높으며, 낙관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12로 그릿에서는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가 3.91로 용기에서는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가 3.14로 가장 낮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65로 그릿에서는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74로 용기에서는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가 2.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0> 초등학생 수행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행적 인성	자기규제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	361	1	5	3.14	1.50
		나는 음식이 맛있더라도 과식하지 않는다.	361	1	5	3.46	1.28
		나는 짜증이 날 때 기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조절 할 수 있다.	361	1	5	3.50	1.23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361	1	5	3.85	1.11
		어려운 과제를 맡아도 나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61	1	5	3.70	1.21
		자기규제	361	1	5	3.53	0.88
	낙관주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361	1	5	4.12	1.04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61	1	5	3.96	1.15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61	1	5	3.65	1.30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361	1	5	3.86	1.15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61	1	5	4.12	0.97
		낙관주의	361	1.2	5	3.94	0.83
	그릿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	361	1	5	3.83	1.17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361	1	5	3.74	1.16
		나는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	361	1	5	3.81	1.15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361	1	5	3.80	1.22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	361	1	5	3.91	1.08
		그릿	361	1	5	3.82	0.93
	용기	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를 피하기보다 마주하려 한다.	361	1	5	3.51	1.22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	361	1	5	2.93	1.38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361	1	5	3.79	1.13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361	1	5	3.75	1.14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361	1	5	3.76	1.27
		용기	361	1.6	5	3.55	0.76
수행적 인성			361	1.6	5	3.71	0.73



[그림 Ⅳ-26] 수행적 인성(초등학생)

라) 지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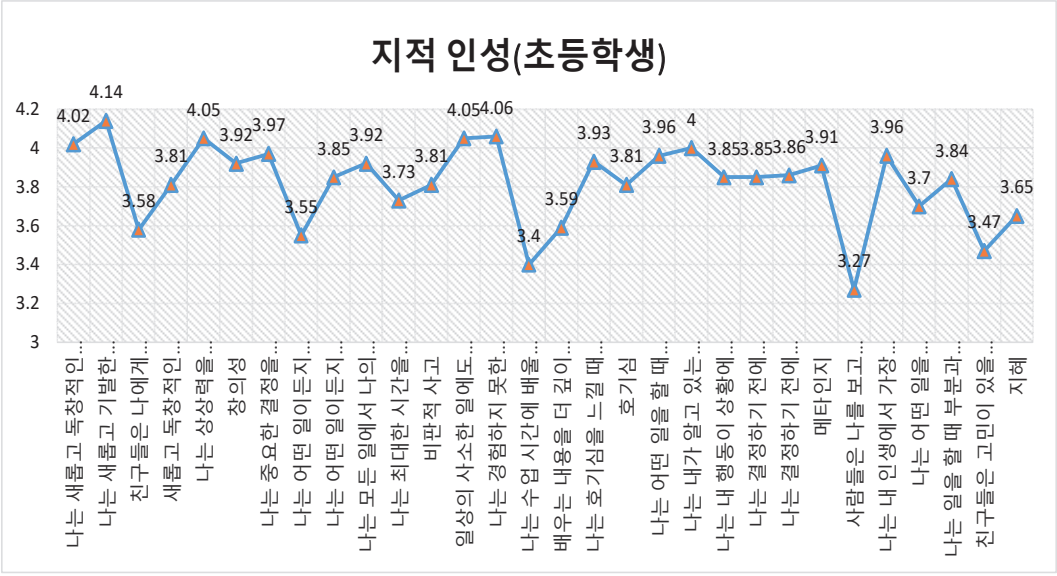
지적 인성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호기심(& 성취동기), 메타인지, 지혜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1>와 같이 지적 인성의 평균값은 3.82이다. 지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3.92, 비판적 사고는 3.81, 호기심(& 성취동기)은 3.81, 메타인지는 3.91, 지혜는 3.65이다. 따라서 창의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 호기심(& 성취동기) 순서로 높고, 지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창의성에서는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가 4.14로 가장 높으며,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가 3.97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가 4.06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가 4.00으로 지혜에서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가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창의성에서는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가 3.58로 가장 낮으며,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가 3.55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가 3.40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와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가 3.85로 지혜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가 3.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1> 초등학생 지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적 인성	창의성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361	1	5	4.02	1.04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361	1	5	4.14	0.99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	361	1	5	3.58	1.30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 이다.	361	1	5	3.81	1.19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361	1	5	4.05	1.10
		창의성	361	1	5	3.92	0.88
	비판적 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361	1	5	3.97	0.95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361	1	5	3.55	1.07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검토한다.	361	1	5	3.85	1.02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361	1	5	3.92	1.02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361	1	5	3.73	1.09
		비판적 사고	361	1.4	5	3.81	0.80
	호기심 (& 성취동기)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느낄 때가 많다.	361	1	5	4.05	1.04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361	1	5	4.06	1.11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	361	1	5	3.40	1.34
		배우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361	1	5	3.59	1.23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361	1	5	3.93	1.07
		호기심	361	1	5	3.81	0.82
	메타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	361	1	5	3.96	1.01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361	1	5	4.00	1.02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361	1	5	3.85	0.99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361	1	5	3.85	1.09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나의	361	1	5	3.86	0.99

		결정이 적절하다고 할지 생각해 본다.					
		메타인지	361	1	5	3.91	0.79
	지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361	1	5	3.27	1.30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361	1	5	3.96	1.07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361	1	5	3.70	1.12
		나는 일을 할 때 부분과 전체(최종 목표)의 관계를 파악한다.	361	1	5	3.84	1.07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조언을 구한다.	361	1	5	3.47	1.29
		지혜	361	1	5	3.65	0.85
지적 인성			361	1.6	5	3.82	0.72



[그림 Ⅳ-27] 지적 인성(초등학생)

2) 중학교

중학생의 인성 지수는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네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원의 하위 구인별로 각 문항의 최소, 최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가) 도덕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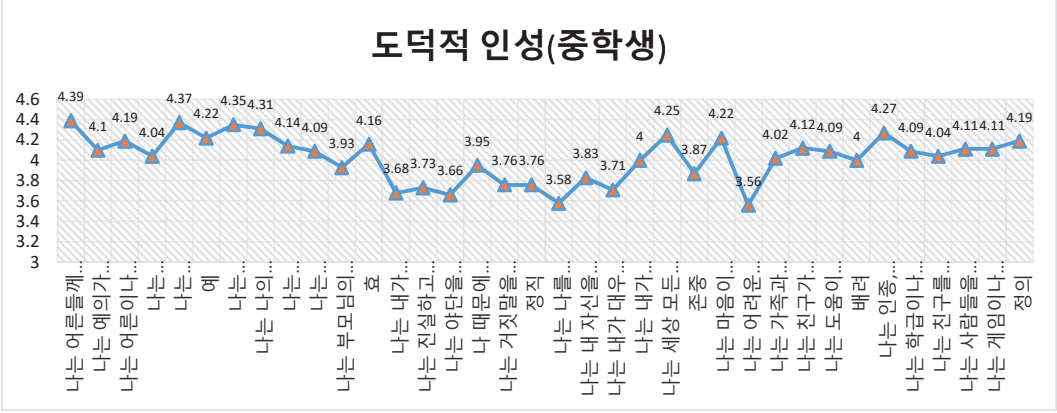
도덕적 인성은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공감), 정의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2>과 같이 도덕적 인성의 평균값은 4.08이다. 도덕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예는 4.22, 효는 4.16, 정직은 3.76, 존중은 3.87, 배려는 4.00, 정의는 4.19이다. 따라서 예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효, 정의, 배려, 존중 순서로 높고, 정직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예에서는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가 4.39로 가장 높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4.35로, 정직에서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가 3.95로 존중에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25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4.22로 정의에서는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예에서는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가 4.04로 가장 낮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가 3.93으로 정직에서는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가 3.66으로 존중에서는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3.58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가 3.56으로 정의에서는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가 4.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2> 중학생 도덕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

				값	값		편차
도덕적 인성	예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323	1	5	4.39	0.75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323	1	5	4.10	0.87
		나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잘 한다.	323	1	5	4.19	0.92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	323	1	5	4.04	0.93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	323	1	5	4.37	0.82
		예	323	1	5	4.22	0.70
	효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323	1	5	4.35	0.83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323	1	5	4.31	0.87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323	1	5	4.14	0.90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323	1	5	4.09	0.87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323	1	5	3.93	1.00
		효	323	1	5	4.16	0.73
	정직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323	1	5	3.68	1.04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323	1	5	3.73	1.06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323	1	5	3.66	1.07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323	1	5	3.95	0.94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323	1	5	3.76	1.04
		정직	323	1	5	3.76	0.79
	존중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23	1	5	3.58	1.25
		나는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323	1	5	3.83	1.12
		나는 내가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323	1	5	3.71	1.07
		나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323	1	5	4.00	0.92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23	1	5	4.25	0.91
		존중	323	1	5	3.87	0.76
	배려(& 공감)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323	1	5	4.22	1.01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	323	1	5	3.56	1.16
		나는 가족과 친구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323	1	5	4.02	0.98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으면, 가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323	1	5	4.12	0.94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323	1	5	4.09	0.90
		배려	323	1.8	5	4.00	0.65
	정의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323	1	5	4.27	0.91
		나는 학급이나 학교 규칙, 사회 공공장소 규칙 등을 잘 알고 지킨다.	323	1	5	4.09	0.86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323	1	5	4.04	1.02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323	1	5	4.11	0.91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23	1	5	4.11	0.95
		정의	323	1	5	4.19	0.83
도덕적 인성			323	1	5	4.08	0.68



[그림 Ⅳ-28] 도덕적 인성(중학생)

나) 시민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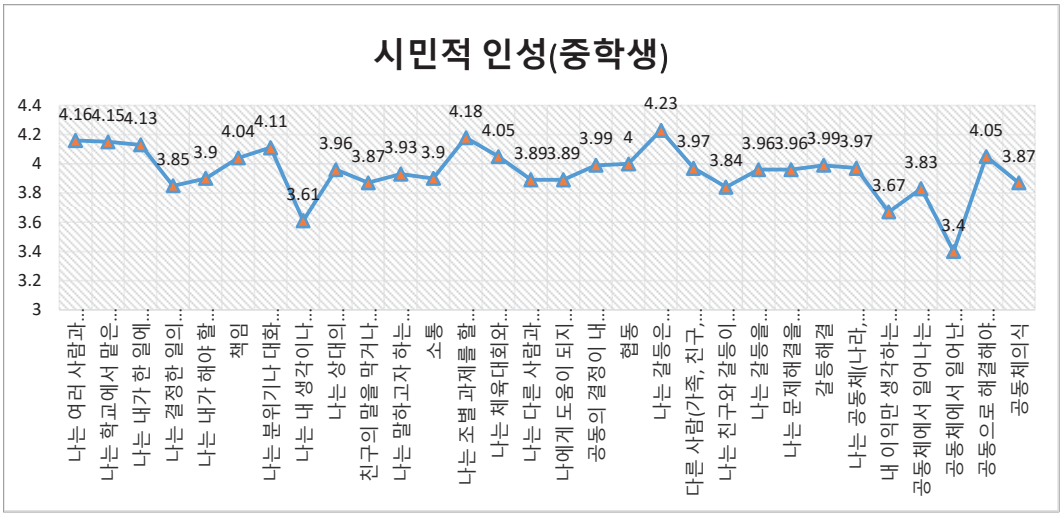
시민적 인성은 책임, 소통, 협동, 갈등해결능력, 공동체의식의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3>와 같이 시민적 인성의 평균값은 3.96이다. 시민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책임은 4.04, 소통은 3.90, 협동은 4.00, 갈등해결능력은 3.99, 공동체의식은 3.87이다. 따라서 책임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협동, 갈등해결능력, 소통 순서로 높고, 공동체의식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책임에서는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가 4.16으로 가장 높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4.11로 협동에서는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가 4.18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23으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책임에서는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가 3.85로 가장 낮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가 3.61로 협동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가 3.89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가 3.84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 3.4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3> 중학생 시민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민적 인성	책임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23	1	5	4.16	0.86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323	1	5	4.15	0.84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323	1	5	4.13	0.87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323	1	5	3.85	0.95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323	1	5	3.90	1.00
		책임	323	1	5	4.04	0.73
	소통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323	1	5	4.11	0.91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321	1	5	3.61	1.03
		나는 상대의 몸짓이나 표현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다.	323	1	5	3.96	0.94
		친구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323	1	5	3.87	0.97
		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한다.	323	1	5	3.93	0.97
		소통	323	1	5	3.90	0.72
	협동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	323	1	5	4.18	0.88
		나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323	1	5	4.05	0.87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323	1	5	3.89	1.06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323	1	5	3.89	1.01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공동의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협력한다.	323	1	5	3.99	0.93
		협동	323	1	5	4.00	0.75
	갈등해결 능력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323	1	5	4.23	0.97
		다른 사람(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	323	1	5	3.97	0.89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323	1	5	3.84	0.99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323	1	5	3.96	0.9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323	1	5	3.96	0.97
		갈등해결	323	1	5	3.99	0.73
	공동체 의식	나는 공동체(나라, 학교, 학급 등)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3	1	5	3.97	1.03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23	1	5	3.67	1.16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323	1	5	3.83	1.01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323	1	5	3.40	1.21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23	1	5	4.05	0.93
		공동체의식	323	1	5	3.87	0.90
시민적 인성			323	1	5	3.96	0.69



[그림 Ⅳ-29] 시민적 인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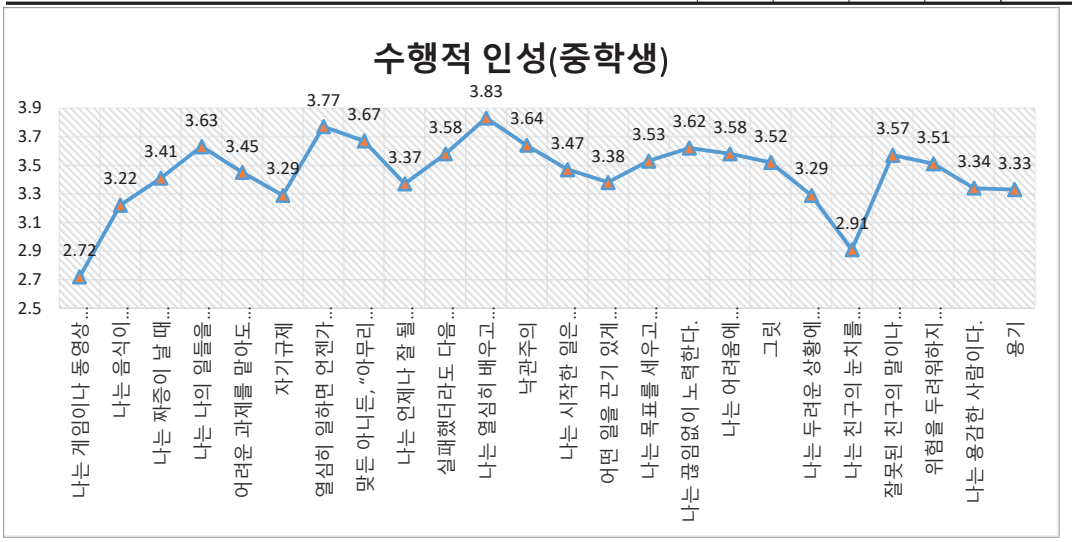
다) 수행적 인성

수행적 인성은 자기규제, 낙관주의, 그릿, 용기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4>와 같이 수행적 인성의 평균값은 3.44이다. 수행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규제는 3.29, 낙관주의는 3.64, 그릿은 3.52, 용기는 3.33이다. 따라서 그릿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낙관주의, 용기 순서로 높고, 자기규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가 3.63으로 가장 높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83으로 그릿에서는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가 3.62로 용기에서는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가 2.72로 가장 낮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37로 그릿에서는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38로 용기에서는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가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4> 중학생 수행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행적 인성	자기규제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	224	1	5	2.72	1.31
		나는 음식이 맛있더라도 과식하지 않는다.	224	1	5	3.22	1.24
		나는 짜증이 날 때 기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조절 할 수 있다.	224	1	5	3.41	1.10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224	1	5	3.63	1.04
		어려운 과제를 맡아도 나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4	1	5	3.45	1.21
		자기규제	224	1	5	3.29	0.84
	낙관주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24	1	5	3.77	1.11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24	1	5	3.67	1.16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24	1	5	3.37	1.27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224	1	5	3.58	1.09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24	1	5	3.83	1.09
		낙관주의	224	1	5	3.64	0.91
	그릿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	224	1	5	3.47	1.16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224	1	5	3.38	1.25
		나는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	224	1	5	3.53	1.10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224	1	5	3.62	1.09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	224	1	5	3.58	1.02
		그릿	224	1	5	3.52	0.91
	용기	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를 피하기보다 마주하려 한다.	224	1	5	3.29	1.16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	224	1	5	2.91	1.24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224	1	5	3.57	1.09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224	1	5	3.51	1.11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224	1	5	3.34	1.32
		용기	224	1	5	3.33	0.79
수행적 인성			224	1	5	3.44	0.76



[그림 Ⅳ-30] 수행적 인성(중학생)

라) 지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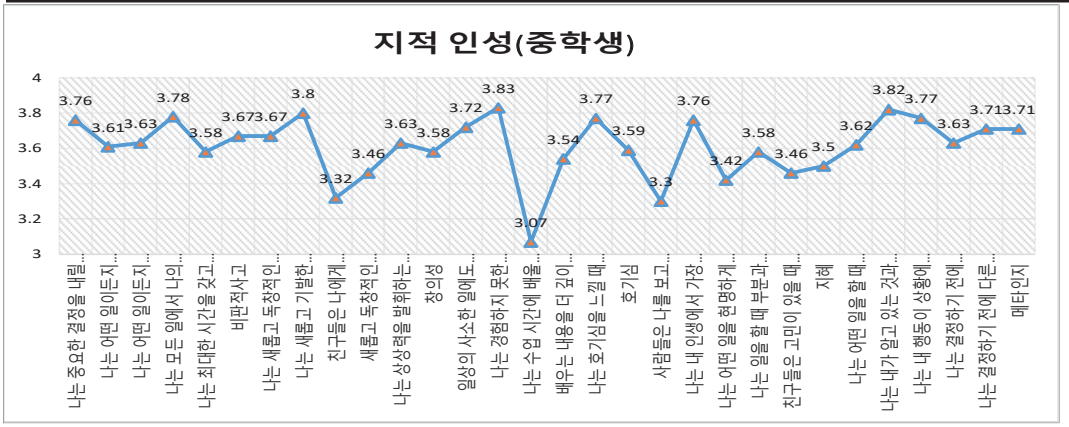
지적 인성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호기심(& 성취동기), 지혜, 메타인지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5>과 같이 지적 인성의 평균값은 3.61이다. 지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는 3.67, 창의

성은 3.58, 호기심(& 성취동기)은 3.59, 지혜는 3.50, 메타인지는 3.71이다. 따라서 메타인지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호기심(& 성취동기), 창의성 순서로 높고, 지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가 3.78로 가장 높으며, 창의성에서는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가 3.80으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가 3.83으로 지혜에서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가 3.76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가 3.58로 가장 낮으며, 창의성에서는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가 3.32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가 3.07로 지혜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가 3.30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가 3.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5> 중학생 지적 인성의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적 인성	비판적 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224	1	5	3.76	1.06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224	1	5	3.61	0.97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좋은점 &나쁜점)을 고루 검토한다.	224	1	5	3.63	1.01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224	1	5	3.78	0.99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24	1	5	3.58	1.04
		비판적사고	224	1	5	3.67	0.80
	창의성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224	1	5	3.67	1.13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224	1	5	3.80	1.10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	224	1	5	3.32	1.27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 이다.	224	1	5	3.46	1.13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24	1	5	3.63	1.12
		창의성	224	1	5	3.58	0.94
	호기심 (& 성취동기)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느낄 때가 많다.	224	1	5	3.72	1.12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224	1	5	3.83	1.13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	224	1	5	3.07	1.19
		배우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224	1	5	3.54	1.11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224	1	5	3.77	1.08
		호기심	224	1	5	3.59	0.83
	지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224	1	5	3.30	1.20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224	1	5	3.76	1.08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224	1	5	3.42	1.10
		나는 일을 할 때 부분과 전체(최종 목표)의 관계를 파악한다.	224	1	5	3.58	1.01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조언을 구한다.	224	1	5	3.46	1.14
		지혜	224	1	5	3.50	0.83
	메타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	224	1	5	3.62	1.06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224	1	5	3.82	0.96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224	1	5	3.77	0.97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224	1	5	3.63	1.02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할지 생각해 본다.	224	1	5	3.71	0.96
		메타인지	224	1	5	3.71	0.77
지적 인성			224	1	5	3.61	0.72



[그림 Ⅳ-31] 지적 인성(중학생)

3) 고등학교

고등학생의 인성 지수는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네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차원의 하위 구인별로 각 문항의 최소, 최대,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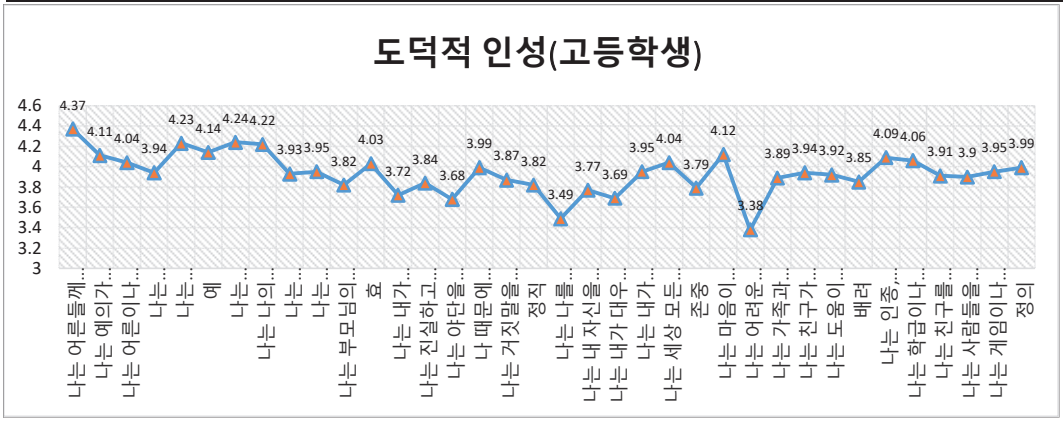
가) 도덕적 인성

도덕적 인성은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공감), 정의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6>과 같이 도덕적 인성의 평균값은 3.97이다. 도덕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예는 4.14, 효는 4.03, 정직은 3.82, 존중은 3.79, 배려는 3.85, 정의는 3.99이다. 따라서 예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효, 정의, 배려, 정직 순서로 높고, 존중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예에서는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가 4.37로 가장 높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4.24로, 정직에서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가 3.99로 존중에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04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4.12로 정의에서는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예에서는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가 3.94로 가장 낮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가 3.82로 정직에서는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가 3.68로 존중에서는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3.49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가 3.38로 정의에서는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가 3.9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6〉 고등학생의 도덕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성	예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374	1	5	4.37	0.87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374	1	5	4.11	0.94
		나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잘 한다.	374	1	5	4.04	1.04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	374	1	5	3.94	0.94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	374	1	5	4.23	0.93
		예의	374	1	5	4.14	0.80
	효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374	1	5	4.24	0.95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374	1	5	4.22	0.98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374	1	5	3.93	1.03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374	1	5	3.95	0.95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374	1	5	3.82	1.08
		효	374	1	5	4.03	0.84
	정직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374	1	5	3.72	1.03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374	1	5	3.84	1.01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374	1	5	3.68	1.04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374	1	5	3.99	0.93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374	1	5	3.87	1.03
		정직	374	1	5	3.82	0.78
	존중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74	1	5	3.49	1.16
		나는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374	1	5	3.77	1.12
		나는 내가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374	1	5	3.69	1.04
		나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374	1	5	3.95	0.99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74	1	5	4.04	1.02
		존중	374	1	5	3.79	0.76
	배려(& 공감)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374	1	5	4.12	1.02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	374	1	5	3.38	1.21
		나는 가족과 친구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374	1	5	3.89	1.04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으면, 가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374	1	5	3.94	1.02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374	1	5	3.92	0.97
		배려	374	1.2	5	3.85	0.73
	정의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374	1	5	4.09	0.93
		나는 학급이나 학교 규칙, 사회 공공장소 규칙 등을 잘 알고 지킨다.	374	1	5	4.06	0.89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374	1	5	3.91	1.00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374	1	5	3.90	0.98

		대한다.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74	1	5	3.95	1.01
		정의	374	1	5	3.99	0.89
도덕적 인성			374	1	5	3.97	0.76



[그림 Ⅳ-32] 도덕적 인성(고등학생)

나) 시민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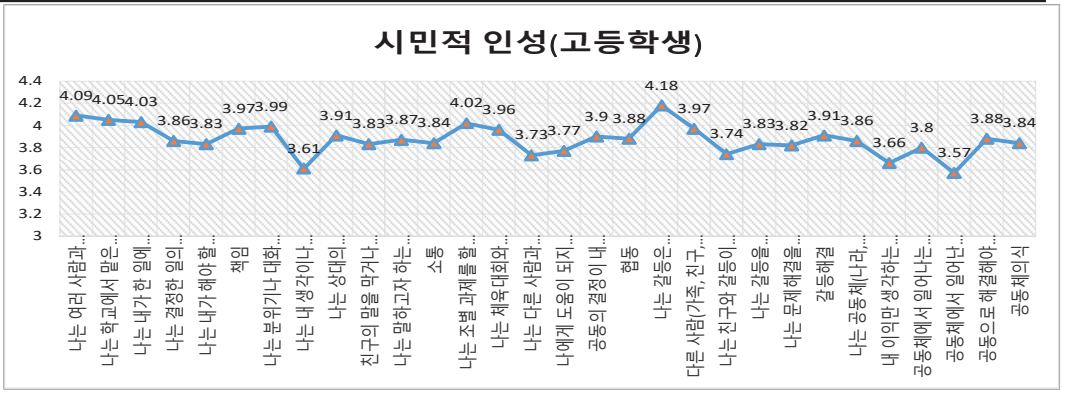
시민적 인성은 책임, 소통, 협동, 갈등해결능력, 공동체의식의 다섯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7>과 같이 시민적 인성의 평균값은 3.89이다. 시민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책임은 3.97, 소통은 3.84, 협동은 3.88, 갈등해결능력은 3.91, 공동체의식은 3.84이다. 따라서 책임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갈등해결능력, 협동 순서로 높고, 소통과 공동체의식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책임에서는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가 4.09로 가장 높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가 3.99로 협동에서는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가 4.02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4.18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책임에서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가 3.83으로 가장 낮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가 3.61로 협동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 3.73으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가 3.74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가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7〉 고등학생의 시민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민적 인성	책임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374	1	5	4.09	0.92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374	1	5	4.05	0.93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374	1	5	4.03	0.92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374	1	5	3.86	0.99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374	1	5	3.83	1.04
		책임	374	1	5	3.97	0.79
	소통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374	1	5	3.99	0.99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373	1	5	3.61	1.03
		나는 상대의 몸짓이나 표현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다.	374	1	5	3.91	0.96
		친구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374	1	5	3.83	0.99
		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한다.	374	1	5	3.87	0.99
		소통	374	1	5	3.84	0.79
	협동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	374	1	5	4.02	0.99
		나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374	1	5	3.96	1.01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374	1	5	3.73	1.08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374	1	5	3.77	1.06
		공동의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협력한다.	374	1	5	3.90	0.95
		협동	374	1	5	3.88	0.83
	갈등해결 능력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374	1	5	4.18	0.93
		다른 사람(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	374	1	5	3.97	0.95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374	1	5	3.74	1.01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374	1	5	3.83	1.02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374	1	5	3.82	1.01
		갈등해결	374	1	5	3.91	0.77
	공동체 의식	나는 공동체(나라, 학교, 학급 등)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4	1	5	3.86	1.05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374	1	5	3.66	1.20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374	1	5	3.80	1.05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374	1	5	3.57	1.18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74	1	5	3.88	1.04
		공동체의식	374	1	5	3.84	0.98
시민적 인성			374	1	5	3.89	0.77



[그림 Ⅳ-33] 시민적 인성(고등학생)

다) 수행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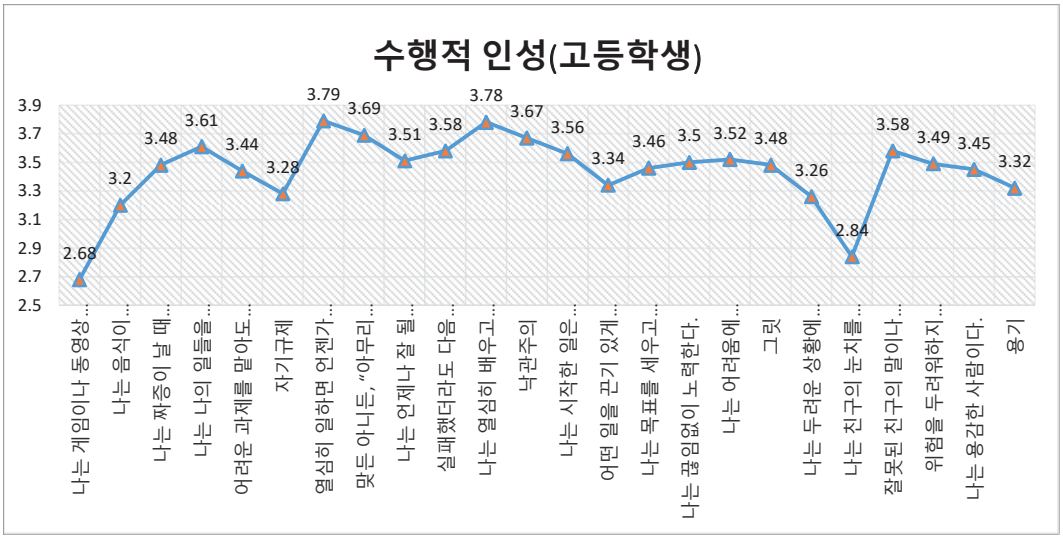
수행적 인성은 자기규제, 낙관주의, 그릿, 용기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8>와 같이 수행적 인성의 평균값은 3.44이다. 수행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규제는 3.28, 낙관주의는 3.67, 그릿은 3.48, 용기는 3.32이다. 따라서 낙관주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그릿, 용기 순서로 높고, 자기규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가 3.61로 가장 높으며, 낙관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가 3.79로 그릿에서는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가 3.56으로 용기에서는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가 2.68로 가장 낮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51로 그릿에서는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34로 용기에서는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가 2.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8〉 고등학생의 수행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행적 인성	자기규제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	277	1	5	2.68	1.28
		나는 음식이 맛있더라도 과식하지 않는다.	277	1	5	3.20	1.20
		나는 짜증이 날 때 기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조절 할 수 있다.	277	1	5	3.48	0.99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277	1	5	3.61	0.97
		어려운 과제를 맡아도 나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77	1	5	3.44	1.04
		자기규제	277	1	5	3.28	0.79
	낙관주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77	1	5	3.79	1.06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77	1	5	3.69	1.02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77	1	5	3.51	1.13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277	1	5	3.58	1.01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77	1	5	3.78	0.98
		낙관주의	277	1	5	3.67	0.81
	그릿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	277	1	5	3.56	1.07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277	1	5	3.34	1.12
		나는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	277	1	5	3.46	1.10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277	1	5	3.50	1.03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	277	1	5	3.52	0.97
		그릿	277	1	5	3.48	0.88

	용기	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를 피하기보다 마주하려 한다.	277	1	5	3.26	1.12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	277	1	5	2.84	1.21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277	1	5	3.58	1.04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277	1	5	3.49	1.01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277	1	5	3.45	1.16
		용기	277	1	5	3.32	0.70
수행적 인성			277	1.2	5	3.44	0.71



[그림 Ⅳ-34] 수행적 인성(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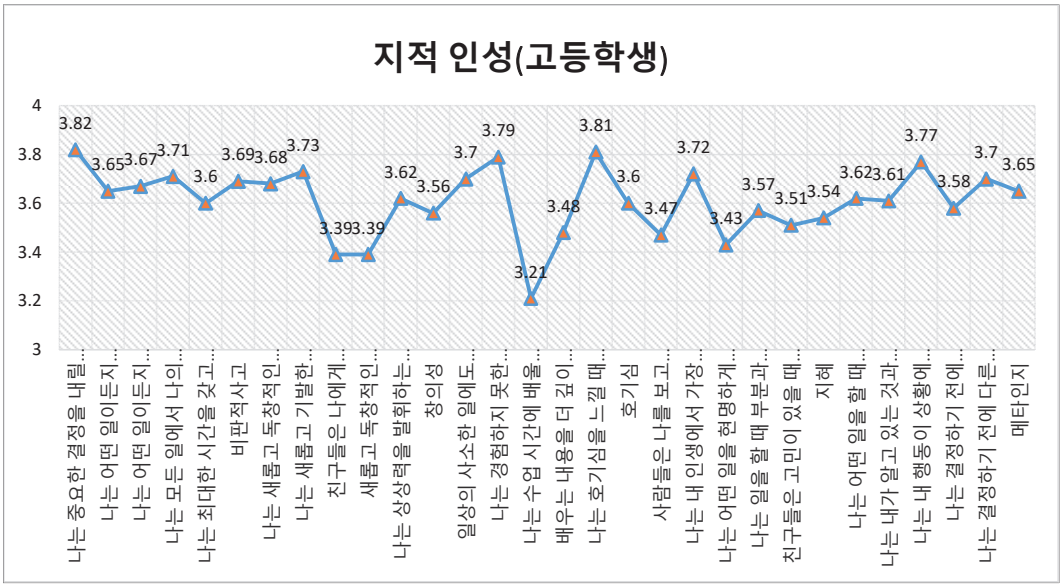
라) 지적 인성

지적 인성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호기심(& 성취동기), 지혜, 메타인지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49>과 같이 지적 인성의 평균값은 3.61이다. 지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는 3.69, 창의성은 3.56, 호기심(& 성취동기)은 3.60, 지혜는 3.54, 메타인지는 3.65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메타인지, 호기심(& 성취동기), 창의성 순서로 높고, 지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가 3.82로 가장 높으며, 창의성에서는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가 3.73으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가 3.81로 지혜에서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가 3.72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가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가 3.60으로 가장 낮으며, 창의성에서는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39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가 3.21로 지혜에서는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43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가 3.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49> 고등학생의 지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적 인성	비판적 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277	1	5	3.82	0.96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277	1	5	3.65	0.97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검토한다.	277	1	5	3.67	0.95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277	1	5	3.71	0.93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77	1	5	3.60	0.99
		비판적사고	277	1	5	3.69	0.79
	창의성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277	1	5	3.68	1.02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277	1	5	3.73	1.09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	277	1	5	3.39	1.13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 이다.	277	1	5	3.39	1.14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277	1	5	3.62	1.12
		창의성	277	1	5	3.56	0.91
	호기심 (& 성취동기)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느낄 때가 많다.	277	1	5	3.70	1.06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277	1	5	3.79	1.09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	277	1	5	3.21	1.10
		배우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277	1	5	3.48	1.04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277	1	5	3.81	1.02
		호기심	277	1	5	3.60	0.81
	지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277	1	5	3.47	1.08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277	1	5	3.72	0.97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277	1	5	3.43	1.03
		나는 일을 할 때 부분과 전체(최종 목표)의 관계를 파악한다.	277	1	5	3.57	1.00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조언을 구한다.	277	1	5	3.51	1.03
		지혜	277	1	5	3.54	0.79
	메타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	277	1	5	3.62	1.01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277	1	5	3.61	1.01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277	1	5	3.77	0.94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277	1	5	3.58	1.03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할지 생각해 본다.	277	1	5	3.70	0.96
		메타인지	277	1	5	3.65	0.81
지적 인성			277	1	5	3.61	0.75



[그림 Ⅳ-35] 지적 인성(고등학생)

4) 전체

가) 도덕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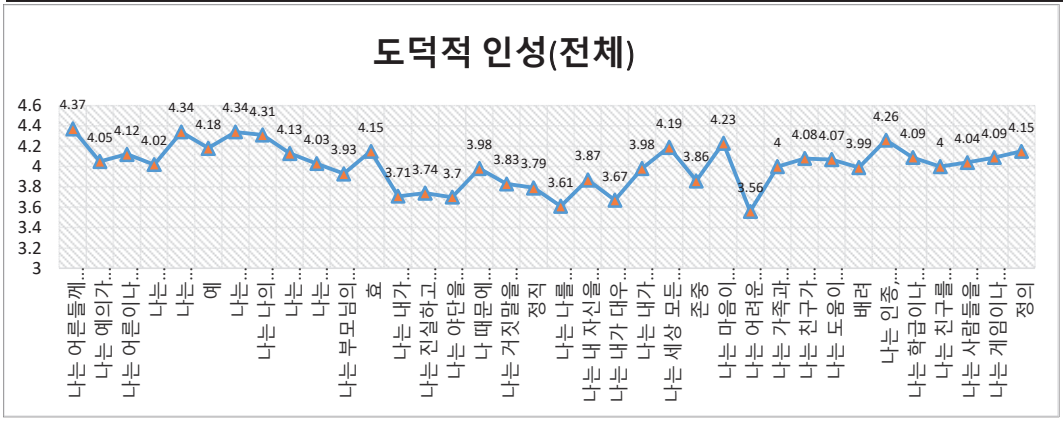
도덕적 인성은 예, 효, 정직, 존중, 배려(& 공감), 정의의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50>과 같이 도덕적 인성의 평균값은 4.06이다. 도덕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예는 4.18, 효는 4.15, 정직은 3.79, 존중은 3.86, 배려는 3.99, 정의는 4.15이다. 따라서 예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효와 정의, 배려, 존중 순서로 높고, 정직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예에서는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가 4.37로 가장 높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4.34로, 정직에서는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가 3.98로 존중에서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4.19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4.23으로 정의에서는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예에서는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가 4.02로 가장 낮으며, 효에서는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가 3.93으로 정직에서는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가 3.70으로 존중에서는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3.61로 배려(& 공감)에서는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가 3.56으로 정의에서는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가 4.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50〉 전체 학교급의 도덕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덕적 인성	예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1070	1	5	4.37	0.81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1070	1	5	4.05	0.95
		나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잘 한다.	1070	1	5	4.12	0.97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	1070	1	5	4.02	0.93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	1070	1	5	4.34	0.85
		예의	1070	1	5	4.18	0.73
	효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1070	1	5	4.34	0.87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1070	1	5	4.31	0.91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1070	1	5	4.13	0.95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1070	1	5	4.03	0.93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1070	1	5	3.93	1.05
		효	1070	1	5	4.15	0.77
	정직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1070	1	5	3.71	1.04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1070	1	5	3.74	1.04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1070	1	5	3.70	1.07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1070	1	5	3.98	0.96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1070	1	5	3.83	1.06
		정직	1070	1	5	3.79	0.79
	존중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070	1	5	3.61	1.24
		나는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1070	1	5	3.87	1.14
		나는 내가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1070	1	5	3.67	1.07
		나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1070	1	5	3.98	0.99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070	1	5	4.19	0.97
		존중	1070	1	5	3.86	0.76

	배려(& 공감)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1070	1	5	4.23	1.00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	1070	1	5	3.56	1.20
		나는 가족과 친구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1070	1	5	4.00	1.01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으면, 가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1070	1	5	4.08	1.01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1070	1	5	4.07	0.94
		배려	1070	1.2	5	3.99	0.70
	정의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1070	1	5	4.26	0.89
		나는 학급이나 학교 규칙, 사회 공공장소 규칙 등을 잘 알고 지킨다.	1070	1	5	4.09	0.88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1070	1	5	4.00	1.04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1070	1	5	4.04	0.96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070	1	5	4.09	0.97
		정의	1070	1	5	4.15	0.85
도덕적 인성			1070	1	5	4.06	0.70



[그림 Ⅳ-36] 도덕적 인성(전체)

나) 시민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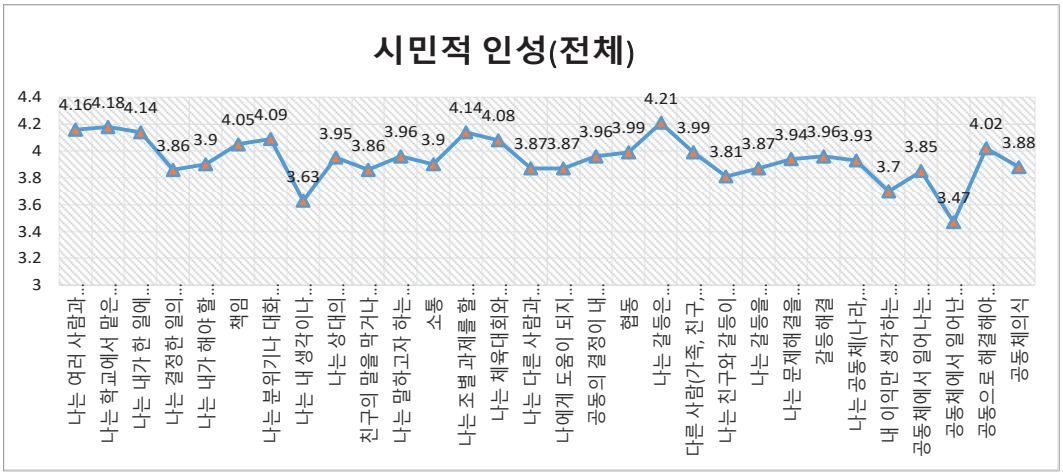
시민적 인성은 책임, 소통, 협동, 갈등해결능력, 공동체의식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51>와 같이 시민적 인성의 평균값은 3.95이다. 시민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책임은 4.05, 소통은 3.90, 협동은 3.99, 갈등해결능력은 3.96, 공동체의식은 3.88이다. 따라서 책임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협동, 갈등해결능력, 소통 순서로 높고, 공동체의식이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책임에서는 '나는 학교에

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가 4.18로 가장 높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 4.09로 협동에서는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 가 4.14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 4.21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책임에서는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가 3.86으로 가장 낮으며, 소통에서는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가 3.63으로 협동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와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가 3.87로 갈등해결능력에서는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가 3.81로 공동체의식에서는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가 3.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51> 전체 학교급의 시민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시민적 인성	책임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 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1070	1	5	4.16	0.88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1070	1	5	4.18	0.87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1070	1	5	4.14	0.89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1070	1	5	3.86	0.98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1070	1	5	3.90	1.04
		책임	1070	1	5	4.05	0.74
	소통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070	1	5	4.09	0.95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1064	1	5	3.63	1.04
		나는 상대의 몸짓이나 표현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다.	1070	1	5	3.95	0.96
		친구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1070	1	5	3.86	1.02
		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한다.	1070	1	5	3.96	0.97
		소통	1070	1	5	3.90	0.75
	협동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1070	1	5	4.14	0.92

		협동한다.					
		나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1070	1	5	4.08	0.95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1070	1	5	3.87	1.08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1070	1	5	3.87	1.05
		공동의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협력한다.	1070	1	5	3.96	0.97
		협동	1070	1	5	3.99	0.78
	갈등해결 능력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1070	1	5	4.21	0.93
		다른 사람(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	1070	1	5	3.99	0.96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1070	1	5	3.81	1.03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1070	1	5	3.87	1.03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1070	1	5	3.94	0.99
		갈등해결	1070	1	5	3.96	0.75
	공동체 의식	나는 공동체(나라, 학교, 학급 등)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70	1	5	3.93	1.07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070	1	5	3.70	1.19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1070	1	5	3.85	1.03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1070	1	5	3.47	1.24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70	1	5	4.02	0.99
		공동체의식	1070	1	5	3.88	0.94
시민적 인성			1070	1	5	3.95	0.71



[그림 Ⅳ-37] 시민적 인성(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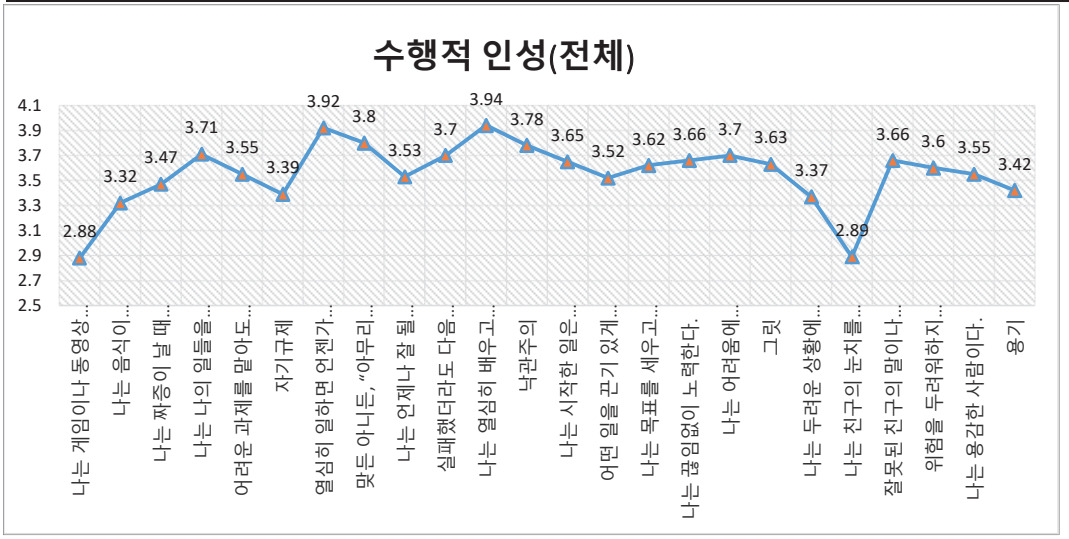
다) 수행적 인성

수행적 인성은 자기규제, 낙관주의, 그릿, 용기의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52>과 같이 수행적 인성의 평균값은 3.55이다. 수행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기규제는 3.39, 낙관주의는 3.78, 그릿은 3.63, 용기는 3.42이다. 따라서 낙관주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그릿, 용기 순서로 높고, 자기규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가 3.71로 가장 높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94로 그릿에서는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가 3.70으로 용기에서는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가 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자기규제에서는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가 2.88로 가장 낮으며, 낙관주의에서는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가 3.53으로 그릿에서는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가 3.52로 용기에서는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가 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52> 전체 학교급의 수행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행적 인성	자기규제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 놓고 본다.	862	1	5	2.88	1.40
		나는 음식이 맛있더라도 과식하지 않는다.	862	1	5	3.32	1.25
		나는 짜증이 날 때 기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조절 할 수 있다.	862	1	5	3.47	1.12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862	1	5	3.71	1.06
		어려운 과제를 맡아도 나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862	1	5	3.55	1.16
		자기규제	862	1	5	3.39	0.85
	낙관주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862	1	5	3.92	1.08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862	1	5	3.80	1.12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62	1	5	3.53	1.25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862	1	5	3.70	1.10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62	1	5	3.94	1.02
		낙관주의	862	1	5	3.78	0.86
	그릿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	862	1	5	3.65	1.14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862	1	5	3.52	1.19
		나는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	862	1	5	3.62	1.13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862	1	5	3.66	1.13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	862	1	5	3.70	1.04
		그릿	862	1	5	3.63	0.92
	용기	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를 피하기보다 마주하려 한다.	862	1	5	3.37	1.18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	862	1	5	2.89	1.29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862	1	5	3.66	1.09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862	1	5	3.60	1.10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862	1	5	3.55	1.26
		용기	862	1	5	3.42	0.76
수행적 인성			862	1	5	3.55	0.74



[그림 Ⅳ-38] 수행적 인성(전체)

라) 지적 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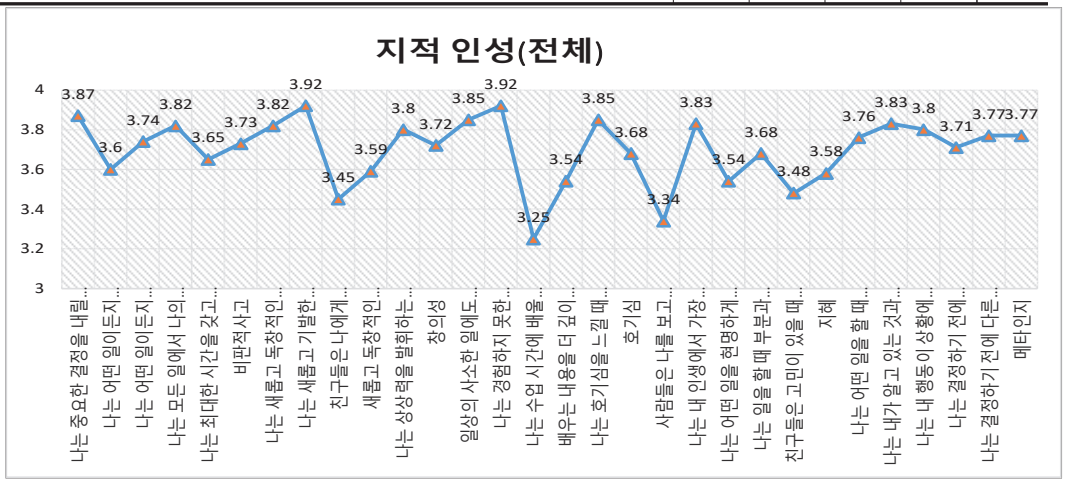
지적 인성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호기심(& 성취동기), 지혜, 메타인지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53>와 같이 지적 인성의 평균값은

3.70이다. 지적 인성의 구인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는 3.73, 창의성은 3.72, 호기심(& 성취동기)은 3.68, 지혜는 3.58, 메타인지는 3.77이다. 따라서 메타인지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성, 메타인지, 호기심(& 성취동기) 순서로 높고, 지혜가 가장 낮다. 구인별 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가 3.87로 가장 높으며, 창의성에서는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가 3.92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가 3.92로 지혜에서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가 3.83으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가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인별로 가장 낮은 문항은 비판적 사고에서는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가 3.60으로 가장 낮으며, 창의성에서는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가 3.45로 호기심(& 성취동기)에서는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한다.' 가 3.25로 지혜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 가 3.34로 메타인지에서는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53> 전체 학교급의 지적 인성 기술통계

영역(구인)		문항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적 인성	비판적 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862	1	5	3.87	0.98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862	1	5	3.60	1.01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검토한다.	862	1	5	3.74	1.00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862	1	5	3.82	0.99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862	1	5	3.65	1.04
		비판적사고	862	1	5	3.73	0.80
	창의성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862	1	5	3.82	1.07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862	1	5	3.92	1.07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 한다.	862	1	5	3.45	1.25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 이다.	862	1	5	3.59	1.17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862	1	5	3.80	1.13
		창의성	862	1	5	3.72	0.92
	호기심 (& 성취동기)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느낄 때가 많다.	862	1	5	3.85	1.08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862	1	5	3.92	1.12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	862	1	5	3.25	1.23
		배우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862	1	5	3.54	1.14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862	1	5	3.85	1.06
		호기심	862	1	5	3.68	0.82
	지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862	1	5	3.34	1.21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862	1	5	3.83	1.05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862	1	5	3.54	1.09
		나는 일을 할 때 부분과 전체(최종 목표)의 관계를 파악한다.	862	1	5	3.68	1.04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조언을 구한다.	862	1	5	3.48	1.17
		지혜	862	1	5	3.58	0.83
	메타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	862	1	5	3.76	1.0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862	1	5	3.83	1.01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862	1	5	3.80	0.97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862	1	5	3.71	1.06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할지 생각해 본다.	862	1	5	3.77	0.97
		메타인지	862	1	5	3.77	0.80
지적 인성			862	1	5	3.70	0.73



[그림 Ⅳ-39] 지적 인성(전체)

다. 인성지수의 학교급별 비교

1) 도덕적 인성

도덕적 인성 항목들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결과는 <표 Ⅳ-54>와 같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모두 4개이다(효, 존중, 배려, 정의). 정직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낮으며, 정직 항목에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도덕적 인성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4.14로 가장 높고, 중학교는 4.08, 고등학교가 3.9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이 모두 등분산인 경우 scheffe를 등분산이 아닌 경우 Dunnett T3의 준거를 활용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등분산이 아닌 항목들 중 효, 존중, 배려, 정의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4> 학교급에 따른 도덕적 인성의 차이

항목	학교급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Dunnett T3
예의	초등학교(a)	373.00	4.20	0.69	1.124	.325	-	
	중학교(b)	323.00	4.22	0.70				
	고등학교(c)	374.00	4.14	0.80				
효	초등학교(a)	373.00	4.26	0.71	8.131	.000		a > c
	중학교(b)	323.00	4.16	0.73				
	고등학교(c)	374.00	4.03	0.84				
정직	초등학교(a)	373.00	3.79	0.81	.551	.576	-	
	중학교(b)	323.00	3.76	0.79				
	고등학교(c)	374.00	3.82	0.78				
존중	초등학교(a)	373.00	3.93	0.75	3.031	.049		a > c
	중학교(b)	323.00	3.87	0.76				
	고등학교(c)	374.00	3.79	0.76				
배려	초등학교(a)	373.00	4.12	0.71	13.820	.000	a, b > c	
	중학교(b)	323.00	4.00	0.65				
	고등학교(c)	374.00	3.85	0.73				
정의	초등학교(a)	373.00	4.27	0.81	10.410	.000		a, b > c
	중학교(b)	323.00	4.19	0.83				
	고등학교(c)	374.00	3.99	0.89				
도덕적 인성	초등학교(a)	373.00	4.14	0.66	5.577	.004		a > c
	중학교(b)	323.00	4.08	0.68				
	고등학교(c)	374.00	3.97	0.76				

*p > .05, ** p >.01, *** p > .001*

2) 시민적 인성

시민적 인성 항목들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결과는 <표 Ⅳ-55>과 같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모두 2개이다(책임, 협동). 모든 문항에서 고등학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학교급에 따라 시민적 인성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4.02로 가장 높고, 중학교는 3.96, 고등학교가 3.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이 모두 등분산인 경우 scheffe를 등분산이 아닌 경우 Dunnett T3의 준거를 활용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등분산이 아닌 항목들 중 협동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적 인성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5> 학교급에 따른 시민적 인성의 차이

항목	학교급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Dunnett T3
책임	초등학교(a)	373.00	4.14	0.69	4.755	.009	a > c	
	중학교(b)	323.00	4.04	0.73				
	고등학교(c)	374.00	3.97	0.79				
공동체 의식	초등학교(a)	373.00	3.92	0.93	.688	.503	-	
	중학교(b)	323.00	3.87	0.90				
	고등학교(c)	374.00	3.84	0.98				
협동	초등학교(a)	373.00	4.08	0.75	6.665	.001		a > c
	중학교(b)	323.00	4.00	0.75				
	고등학교(c)	374.00	3.88	0.83				
소통	초등학교(a)	373.00	3.95	0.73	2.032	.132	-	
	중학교(b)	323.00	3.90	0.72				
	고등학교(c)	374.00	3.84	0.79				
갈등해결	초등학교(a)	373.00	3.99	0.74	1.579	.207	-	
	중학교(b)	323.00	3.99	0.73				
	고등학교(c)	374.00	3.91	0.77				
시민적 인성	초등학교(a)	373.00	4.02	0.67	3.118	.045		a > c
	중학교(b)	323.00	3.96	0.69				
	고등학교(c)	374.00	3.89	0.77				

*$p > .05$, ** $p > .01$, *** $p > .001$*

3) 수행적 인성

수행적 인성 항목들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결과는 <표 Ⅳ-56>과 같다. 수행적 인성은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 3.71, 중학교 3.44, 고등학교 3.44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이가 없다. 낙관주의와 회복탄력성&그릿 항목에서는 초등학교가 중, 고등학교에 비해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이 모두 등분산인 경우 Scheffe를, 등분산이 아닌 경우 Dunnett T3의 준거를 활용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56> 학교급에 따른 수행적 인성의 차이

항목	학교급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Dunnett T3
자기규제	초등학교(a)	361.00	3.53	0.88	8.868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29	0.84				
	고등학교(c)	277.00	3.28	0.79				
낙관주의	초등학교(a)	361.00	3.94	0.83	11.762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64	0.91				
	고등학교(c)	277.00	3.67	0.81				
회복탄력성&그릿	초등학교(a)	361.00	3.82	0.93	13.396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52	0.91				
	고등학교(c)	277.00	3.48	0.88				
용기	초등학교(a)	361.00	3.55	0.76	9.142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33	0.79				
	고등학교(c)	277.00	3.32	0.70				
수행적 인성	초등학교(a)	361.00	3.71	0.73	14.041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44	0.76				
	고등학교(c)	277.00	3.44	0.71				

*p > .05, ** p >.01, *** p > .001*

4) 지적 인성

지적 인성 항목들에 대한 학교급별 비교 결과는 <표 Ⅳ-57>과 같다. 지적 인성은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교 3.82, 중학교 3.61, 고등학교 3.61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집단이 모두 등분산인 경우 Scheffe를, 등분산이 아닌 경우 Dunnett T3의 준거를 활용하였다. 메타인지, 창의성, 호기심&성취동기 항목에서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혜, 비판적 사고 항목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57> 학교급에 따른 지적 인성의 차이

항목	학교급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증	
							scheffe	Dunnett T3
메타인지	초등학교(a)	361.00	3.91	0.79	8.854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71	0.77				
	고등학교(c)	277.00	3.65	0.81				
창의성	초등학교(a)	361.00	3.92	0.88	15.899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58	0.94				
	고등학교(c)	277.00	3.56	0.91				
지혜	초등학교(a)	361.00	3.65	0.85	2.490	.083	-	
	중학교(b)	224.00	3.50	0.83				
	고등학교(c)	277.00	3.54	0.79				
비판적 사고	초등학교(a)	361.00	3.81	0.80	2.556	.078	-	
	중학교(b)	224.00	3.67	0.80				
	고등학교(c)	277.00	3.69	0.79				
호기심& 성취동기	초등학교(a)	361.00	3.81	0.82	7.096	.001		a > b, c
	중학교(b)	224.00	3.59	0.83				
	고등학교(c)	277.00	3.60	0.81				
지적 인성	초등학교(a)	361.00	3.82	0.72	8.568	.000		a > b, c
	중학교(b)	224.00	3.61	0.72				
	고등학교(c)	277.00	3.61	0.75				

*p > .05, ** p >.01, *** p > .001*

V

인성교육의 구조와 방안 탐색

인성교육 개념, 내용, 목표 도출 과정 1

인성교육의 구조 2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중점 3

Ⅴ. 인성교육의 구조와 방안 탐색

1. 인성교육의 개념, 목표, 내용 도출 과정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현재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시행 중에 있으며(2021-2025), 국가수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었다(2022. 12. 22.). 따라서 인성교육진흥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되, 교육자치의 취지 및 지역적 가치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절에서는 기존의 인성교육 관련 문헌 및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진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초점집단인터뷰(F.G.I)를 가미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설정 및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Ⅴ- 1> 전문가 패널 현황

패널	소속	전공	학위
A	교육대학	AI 윤리 / 윤리교육학	박사
B	교육대학	윤리교육학	박사
C	교육대학	인성교육 / 윤리교육학	박사
D	일반대학(교직)	도덕심리학	박사
E	교육대학	윤리교육학	박사
F	사범대학	AI 윤리 / 윤리교육학	박사
G	사범대학	윤리교육학	박사
H	사범대학	윤리교육학	박사
I	사범대학	인성교육 / 윤리교육학	박사
J	초등학교	시민교육 / 윤리교육학	박사
K	사범대학	도덕심리학	박사

가.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델파이 조사의 적정 인원은 15명 내외이고, 최소 인원은 12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본 연구진은 13명을 전문가 패널로 하여 델파이 조사를 계획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흔히 개방형 설문조사로 진행하고, 2차 혹은 3차 델파이 조사는 직전 차수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폐쇄형 설문조사로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동의 정도나 중요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김윤경, 2017).

인성교육 및 도덕교육 전문가 패널 13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본 설문지는 기존 학교급별 인성교육 관련 문헌 및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작성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병행하여 초점집단 인터뷰가 가미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발송된 설문 대상자 가운데 11인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응답 결과에 대해서는 평균과 안정도, 합의도, 내용타당도를 산출하였다. 안정도(CV)는 표준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눈 것으로 0.5이하인 경우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합의도(consensus)는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0.75이상이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n: CVR)의 최소값과 관련하여 N=11일 때, 0.59이상이어야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Lawshe, 1975).[2)]

본 절에서 인성교육 방안과 관련한 중요항목을 추출하려는 문장은 평균 4 이상, 내용타당도 0.59 이상일 때 패널들 간의 내용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CV값이 0.5이하였으므로 설문을 종료하였다. 또한, 합의도도 대부분의 문항이 0.75 이상이었으므로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다만 평균이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내용타당도가 미흡한 경우, 패널의 답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N=9일 경우, 0.78 이상, N=10일 경우, 0.62 이상, N=11일 경우, 0.59 이상이어야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분석결과

1)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설정 및 구성요소

경기도교육청의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설정 및 구성요소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미래 사회변화의 특징을 반영한 인성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Ⅴ- 2> 다차원적 인성의 4가지 범주

인성의 범주	의미
지적 인성	진리 탐구, 지식, 지혜와 관계된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 비판적 사고 ② 메타인지(및 성찰) ③ 창의성 ④ 호기심
도덕적 인성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 예 ② 효 ③ 정직 ④ 존중 ⑤ 배려(공감) ⑥ 정의
시민적 인성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 협동 ② 소통 ③ 책임 ④ 갈등해결 ⑤ 공동체 의식
수행적 인성	지적·도덕적·시민적 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 자기조절&관리(효능) ② 낙관주의(& 성장마인드셋) ③ 그릿(인내와 끈기) ④ 용기

가) 인성의 구조와 관계에 대한 설명

<표 Ⅴ- 3>인성의 구조와 관계 설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1) 인성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네 범주(지적,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의 **덕과 역량들이 중첩적으로 구성**된다.	0	0	3	3	5	4.18	0.45	0.21	0.63
(2) 인성은 **다차원적이**며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된다.	0	0	4	3	3	3.9	0.2	0.22	0.56

“① 인성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네 범주(지적,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의 덕과 역량들이 중첩적으로 구성된다.” 는 설명과 관련하여 델파이 조사 평균값(4.18)은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CVR은 N=11일 때의 기준(0.59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의도(0.63)도 기준(0.75이상)에 부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패널 E, F, K는 인성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한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이론적 근거 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인성은 다차원적이며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된다.” 는 설명과 관련하여 델파이 조사 평균값(3.9)은 4에 미치지 못했고, CVR 역시 N=10일 때의 기준(0.62 이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합의도(0.56)도 기준(0.75이상)에 부합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패널 C와 H는 각 인성의 범주가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C는 지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시민적 인성에 포함되거나 메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았고, H는 수행적 인성과 나머지 3가지 인성이 다른 범주에 속한다고 보았다.

나)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범주별 타당성

<표 Ⅴ- 4>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범주별 타당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지적 인성		2	1	4	4	3.9	0.45	0.29	0.63
도덕적 인성		1	1	5	4	4.09	0.63	0.23	0.75
시민적 인성			1	6	4	4.27	0.81	0.15	0.75
수행적 인성				7	3	4.3	0.81	0.11	0.81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범주별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적 인성을 제외하고,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은 내용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시민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은 평균과 CVR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적 인성” 에 대해서는 합의도 0.63(기준 0.75이상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패널들 간 상이한 견해가 공존하지만 지적 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패널 J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인성이 필요” 하다고 보았으며, 패널 H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에 근거하였을 때 다른 덕들을 질서지울 수 있는 메타 덕목으로서의 지적 덕목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보았다. 한편 E는 “메타인지” 와 “성찰” 은 어울리지 않으며, “호기심은 지적이라기보다 정의적 요소에 부합”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적 인성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가 가능하지만 지적 인성의 하위 요소에 대한 근거와 개념설명이 필요하다.

“도덕적 인성” 과 관련한 패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C는 하위 요소에 우애 및 우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E는 “예, 효, 정직, 존중, 배려(공감), 정의” 등의 덕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도덕적 인성으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H는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관계 및 차이가 보다 명확하게 표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적 인성” 과 관련하여 패널 B는 “도덕적 인성은 주로 개인적 차원, 시민적 인성은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인성 간에 중첩되는 그리고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E는 “시민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성에서 ‘준법’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행적 인성”과 관련하여 패널 J는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서적 측면이 보완”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는 “용기”가 수행적 인성요소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고, H는 “역량이 아닌 ‘인성’으로 포괄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보완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 추가할 인성과 관련하여 J는 학교급별 인성교육 과정 구현을 위해서는 “인성의 요소뿐만 아니라 인성의 수준 차원에서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F는 미래 사회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관련 인성 범주”에 대해 제시하였다. 한편 C는 “덕과 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며, 하위 요소들을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구진이 제시한 인성의 범주에 “덕과 역량이 혼재되어 있고, 인성의 범주 당 4~6개의 요소만 제시되다보니 하위 요소 선정이 다소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성

<표 Ⅴ- 5>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중복선택 허용)

미래사회의 변화 / 특징	요구되는 인성
① 디지털 문명시대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환적 패러다임이 요구됨.	• **지적 인성: 10명** • 수행적 인성: 1명 • 도덕적 인성: 1명 • 시민적 인성: 1명 • 기타_ 자기저작 능력: 1명
②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 창의 분야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함.	• **지적 인성: 6명** • **도덕적 인성: 5명** • 시민적 인성: 3명 • 수행적 인성: 1명
③ 불확실성 시대 •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가 도래함.	• **시민적 인성: 6명** • **수행적 인성: 4명** • 도덕적 인성: 3명 • 지적 인성: 2명 • 기타_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좌표 설정 능력: 1명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증가함.	• **수행적 인성: 9명** • 도덕적 인성: 2명 • 지적 인성: 1명 • 시민적 인성: 1명 • 대인관계: 1명

“① 디지털 문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으로 10명의 패널이 지적 인성을 지지하였고, 수행적 인성, 도덕적 인성, 기타(자기저작 능력)는 각 1명이 지지하였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 다차원적 인성 가운데 지적 인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인공 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으로 6명이 지적 인성을 지지하였다. 이 가운데 C는 창의성을, D는 메타인지와 창의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 뒤로 도덕적 인성(5명), 시민적 인성(3명), 수행적 인성(1명) 순이었다. 인공 지능 시대에 지적 인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성도 중요하며, 시민적 인성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 불확실성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으로 6명의 패널이 시민적 인성을 지지하였고, 그 뒤로 수행적 인성(4명), 도덕적 인성(3명), 지적 인성(2명), 기타(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좌표 설정 능력, 1명) 순이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무엇보다 시민적 인성이 요구되며, 수행적 인성, 도덕적 인성, 지적 인성 또한 고르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으로 9명의 패널이 수행적 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중에서 C는 자기조절 및 관리, D는 낙관주의 및 성장마인드셋, I는 회복탄력성, 자기조절, 그릿을 강조하였다. 그 밖에 소수의 패널이 도덕적 인성(2명), 지적 인성(1명), 시민적 인성(1명), 기타(대인관계, 1명)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행적 인성에 대한 교육적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2)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성교육의 방향

가) 인성교육 방향 정립을 위한 미래 사회변화 추가 내용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된 미래사회 변화(디지털 문명 시대, 인공 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외에 추가할 사회변화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갈등, 대립, 양극화 시대

- 우리편 편향, 편견과 집단 갈등, 양극화, 격차 등 (패널 D)
- 갈등과 대립의 시대, 분열과 갈등의 시대: 윤리적 소통은 사라지고,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시대 (패널 I)
-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 사회 돌입 (패널 J)

패널 D, I, J가 언급하듯이 미래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이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다문화적 가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 및 공정의 가치가 부각되는 대목이며, 이와 결부된 시민적 인성 및 도덕적 인성 향상을 위한 분야의 노력이 요구된다.

▶ 미디어 및 정보사회의 문제

- 미디어 사회의 도래로 거짓정보의 홍수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선전선동에 놀아나는 노예가 될 수 있으므로 예리한 판단력을 지니도록 교육이 요구됨. 정보사회의 도래로 통제가 강화되며 자유와 자율이 위축되는 경향이므로 이에 대해 저항하고 감시하려면 합리적인 개인적 관점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 (패널 E)

패널 E가 우려하듯이 미래 사회는 디지털 정보사회의 진전 및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서 학습자가 거짓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통제가 강화되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위축되는 이른바 벤덤과 푸코가 제안한 '판옵티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또한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나 비판적 사고는 지적 인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교육방식의 변화

> 미래 사회에서는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지식 위주 교육방식이 사라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대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적 분류에 따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패널 B)

패널 B가 제시한 것처럼 미래 사회의 교육은 교사 중심의 지식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배움 및 참여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안 중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변화와 결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사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융복합 내지 통합 교육의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으로 민주시민교육 보완 필요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 가지 중점 사항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 기술 보완 필요,
> OECD 변혁적 역량 개념, 웰빙 개념 등 연계 보완 검토할 수 있음 (패널 F)

패널 F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 중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OECD 변혁적 역량개념, 웰빙 개념 등도 포괄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념적 지형 및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만나는 지점에서 접근 가능한 '시민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변혁적 역량 개념도 고려하고, 수행적 인성의 영역에서 웰빙 개념을 다루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보기> 중에서 1-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는 <표 V-6>와 같다.

<보기>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①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②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③ 자기관리 및 조절 교육
④ 비판적 사고 교육	⑤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⑥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⑦ 공동체 의식교육	⑧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⑨ 다양성 존중 교육
⑩ 인간 존엄 교육	⑪ 자기 주도적 학습 교육(디퍼러닝)	⑫ 기본적 예절 교육
⑬ 대인관계 교육	⑭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⑮ 인문학적 감수성 교육
⑯ 기타 ( )		

<표 Ⅴ- 6> 미래 인성교육 방향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1-2가지 선택)

디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① : 1명	① : 3명	① : 3명	② : 3명
③ : 2명	② : 1명	② : 2명	③ : **5명**
④ : **5명**	④ : 1명	③ : 1명	⑥ : 2명
⑤ : 2명	⑤ : 1명	④ : **4명**	⑦ : 3명
⑥ : 1명	⑩ : **7명**	⑤ : 3명	⑧ : 1명
⑧ : 1명	⑪ : 2명	⑥ : 1명	⑨ : 1명
⑪ : **5명**	⑭ : 1명	⑧ : 3명	⑬ : 3명
⑩ : 2명	⑮ : **4명**	⑨ : 3명	⑭ : 1명
⑫ : 1명		⑩ : 2명	
⑮ : 1명		⑬ : 1명	
		⑭ : 2명	

미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디지털 문명 시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패널들이 선택한 인성교육 방법으로 “비판적 사고 교육”(5명) 및 “자기주도학습 교육(디퍼러닝, 5명)이다. 비판적 사고교육은 지적 인성의 하위요소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고, 자기주도학습 교육은 지적 인성과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수행적 인성과 보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시대”의 성격을 고려할 때, 패널들이 가장 선호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간 존엄 교육”(7명)이며, 다음으로 “인문학적 감수성 교육”(4명)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존엄하다는 도덕적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그 한 가지 대안을 인문학적 감수성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문제제기 및 목적설정 능력, 창의적 사고 등)을 함양할 수 있다.

“불확실성 시대”의 성격을 고려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패널들 가운데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11명의 패널 중 4명이 비판적 사고 교육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

로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3명),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3명), 협력적 태도 함양교육(3명), 다양성 존중 교육(3명)을 선호하였다. 패널들이 불확실성의 양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인성교육의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식정보 사회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둘 경우, 비판적 사고 교육을, 기후·생태환경 변화를 염두에 둘 경우,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이나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격을 고려한 인성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패널들은 자기관리 및 조절교육(5명)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3명), 공동체 의식교육(3명), 대인관계 교육(3명)이 선정되었다. 3명 이상의 패널들이 선택한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사회정서학습(SEL) 혹은 회복탄력성 함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화하거나 새롭게 포함해야 할 교수·학습 방안을 다음의 <보기>에서 세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적고 그 이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보기〉 효과적인 인성교육 교수 · 학습 방안

① 프로젝트 학습	② 논쟁 수업	③ 봉사학습
④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⑤ AI 기반 문제해결 학습	⑥ 창의융합학습(STEAM)
⑦ 개별화 학습 (individualized learning)	⑧ 문제중심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⑨ 에듀테크 활용 수업
⑩ 협동학습	⑪ 기타( )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기>의 교수·학습 방안 중 세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제안하게 하였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응답한 패널 수는 10명이다.[3)]

3) 패널 A가 2순위와 3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가중치의 총합은 60이 아니라 59이다.

<표 Ⅴ- 7> 인성교육의 효과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교수·학습 방안	가중치	우선순위
프로젝트 학습	17	1
논쟁 수업	8	3
봉사학습	5	4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	5	4
AI 기반 문제해결 학습	1	
창의융합학습	2	
개별화학습	3	
문제중심학습	4	
에듀테크 활용수업	3	
협동학습	11	2
기타	0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우선순위별로 보았을 때, 프로젝트 수업, 협동학습, 논쟁수업, 봉사학습 및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 순이었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프로제트 학습”이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데, 패널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1순위로 선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은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고 전달된다. 미래사회에서 학생의 인성교육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함께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패널 A)
- 미래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특히 인성 측면에서)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직접 해결하는 등의 능력이 요구될 것이기에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매체의 발달을 고려하여 에듀테크가 반영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널 C)
-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거나 의사소통하는 측면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 (패널 G)

그런가 하면 “협동학습”을 1순위로 선정한 근거로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학생들은 다양한 이슈가 개입된 복잡한 문제해결을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패널 K)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논쟁수업”을 1순위로 선정한 근거를 살펴볼 때, 논쟁수업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사고”(패널 D),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 및 합리적 사고를 배양하는 좋은 수업 방법”(패널 E)이다.

끝으로 “학습에 대한 학습”을 1순위로 선정한 패널 I에 따르면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은 “메타인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성 함양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에 대해 자기점검 및 개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3) 학교급별 인성교육 체계화

가) 경기도 인성교육 비전: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교육부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인성교육의 비전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과 역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 8> 인성과 역량을 구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비전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경기도의 인성교육 비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1	4	2	4		2.81	-0.27	0.38	0.33

델파이 조사 결과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비전은 타당하지 않다는 패널들의 의견이 현저하다. 평균(2.81)도 낮은 편이고, 합의도와 CVR 역시 낮다. 인성과 역량을 구분하고 있는 경기도 인성

교육 비전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은 크게 긍정, 보통, 부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인성과 역량 구분을 긍정하는 의견

- (도덕적)인성은 목표이고 역량은 도구/수단이다. 인성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양하게 설정하거나 재개념화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본적인 역량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역량을 구조화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널 A)
- 인성은 인간의 본성으로서 선천적 성격이 강한 반면, 역량은 인성으로부터 기인한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기능 혹은 능력을 의미함. 따라서 마음의 층위로 본다면, 인성이 밑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역량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패널 B)
- 인성과 역량은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인성에는 역량적 요소도 있지만 가치나 덕목에 관한 내용적 차원도 포함된다. 역량에는 도덕적, 윤리적 영역에 관한 영역도 있지만 개인적, 사회적 영역도 포함되기에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됨 (패널 D)

인성과 역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부 있는데, 인성은 체(體)로서 목표이자 선천적인 것으로 보되, 역량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일종의 용(用)으로서 도구(수단)이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 인성과 역량 구분의 타당성을 보통으로 간주하는 의견

- 앞서 제시되었듯 인성은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 안에 덕과 역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앞서 수행적 인성이 인성의 하위 요소로 제시된 것과 달리 비전에서는 인성과 역량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하나의 체계에서 서로 다른 구조화가 병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패널 H)
- 인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인성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인성과 역량의 두 단어를 구분하기보다는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개인의 도덕적 품성이 사회적 맥락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제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임 (패널 K)

인성과 역량의 구분에 대해 그 타당성을 보통으로 간주하는 의견에 따르면 총체적 개념으로서 인성 안에 덕과 역량이 포함되므로, 인성과 역량을 대등한 것으로 병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인성과 역량 구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 인성역량은 인성을 역량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인성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인성과 역량은 앞선 내용에다가 역량이라는 것을 대등하게 추가한 것으로 이해됨. 역량은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개념으로 유럽에서 인문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위주로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미국에서는 역량이라는 말을 자제하는 주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패널 E)
- 이런 식의 설정이 갖는 문제는 인성과 역량을 상호 독립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임. 하지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시각에서 볼 때 '인성은 역량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인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인성교육종합계획 포함)을 통해 볼 때, '인성역량은 인성의 하위 요소이지 않는가?'라는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음, 일종의 범주의 오류를 범하게 됨 (패널 I)

- 인성과 역량이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이론적이든 혹은 경험적이든 합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지 선언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국제기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는 역량의 개념과 범주를 고려할 때, 과연 인성이 역량과 분리될 수 있는지가 의문임 (패널 G)
- 인성은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의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느껴짐. 인성과 역량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인성의 개념을 성품(지성, 도덕성, 시민성)과 역량(지적 역량, 도덕적 실천역량, 시민적 실천역량, 수행적 역량)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패널 J)
- 인성은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인성은 도덕적 덕과 가치중립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역량은 인성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능/기술'에 해당합니다. 이에 도덕적인 덕이든 가치중립적인 특성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렇기에 인성과 역량은 경기도의 인성교육 비전처럼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 C)

인성과 역량의 구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인성과 역량을 구분한다는 것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본다는 것인데, 인성이 역량을 포괄하기 때문에 양자의 구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인성이 역량과 분리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인성은 역량을 포함한 총체적인 것이고, 역량은 인성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지식과 기능이 결합된 일종의 수행적 기술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각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의 적절성에 대해 패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 Ⅴ- 9>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학교급	인성교육 목표(중점사항)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초등학교	예의와 배려, 소통, 협동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기르고,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의 기초 역량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7	3	4.18	0.81	0.14	0.88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성찰적 내면화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지적 인성과 회복 탄력적인 수행적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1	2	6	2	3.81	0.45	0.23	0.88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 지향적 관심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7	3	4.18	0.81	0.14	0.88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내지 중점사항에 대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평균 및 합의도가 높은 편이며, CVR 역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평균이 4.0 이하이고, CVR 또한 N=11일 때, 0.59 미만이므로 타당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목표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간의 위계화

학교급별 인성교육 목표 간 위계화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성을 위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연구진에서 제시한 학교급별로 인성교육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이 있다(B, D, E, F, G, H, I, K).

다음으로 학교급별로 개선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목표에만 구체적인 덕이 나열되고 있어서 학교급별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C), 중학교의 목표에서 수행적 인성능력을 회복탄력성에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D), 중등학교의 경우, 진로와 관련하여 더 높은 인성 차원의 범주가 제시할 필요가 있고(J), 고등학교 목표 중 '나와 공동체의 행복'은 '나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중학교의 인성교육 목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덕과 역량 중 비판적 사고, 창의성 회복탄력성만 제시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창의성과 회복탄력성이 왜 중학교에서부터 신장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시한 C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라)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핵심 주제

학교급별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할 핵심 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 10>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핵심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학교급	핵심 주제
초등학교	● 학생들이 도덕적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이기심과 이타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요망됨 (패널 B) ● 덕 및 역량에 대한 이해 및 습관화 (패널 C) ●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정직, 성실, 책임 등 어느 것을 제시해도 좋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청과 사회가 추구하는 덕목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패널 E) ● 우리 사회에서 중시하는 기본적 가치 및 덕목, 습관화 방법 및 계획 수립 (패널 G) ● 덕목 이해(명제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의 습득) 및 체화 등 (패널 I) ●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량 기르기 (패널 A) ● 의사소통, 존중, 배려, 공감, 갈등해결 (패널 D) ●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가상, 실재 공간, 인간뿐만 아니라 AI, 자연과의 관계 포함)

	(패널 J) ●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협력, 책임감 (패널 K)
중학교	● 의사소통, 존중, 배려, 공감, 갈등해결, 사회적 문제해결력 (패널 D) ● 학교폭력이 제일 문제이므로 ‘존중’, ‘배려’ 등이 중요하다. (패널 E) ● 도덕적 정체성, 삶의 의미와 목적, 친구 및 시민 간 우정, 시민적 예의 등 (패널 I) ● 기본적 가치 및 덕목 간 갈등 사례 및 자주적 해결 방안, 자아정체성의 도덕적 탐색 의미 및 방안 (패널 G) ● 올바른 가치관 형성하기(윤리적인 관점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패널 J) ● 책임감 있는 사고와 행동 수행 역량 기르기 (패널 A) ● 공동체 의식, 갈등해결, 회복탄력성 (패널 K) ● 덕 및 역량에 대한 습관화, 비판적 사고 능력 (패널 C)
고등학교	● 개인, 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의 쟁점 인식 및 인성적 대응 방안 (패널 G) ● 인공지능 시대, 기후변화 시대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 등 (패널 I) ● 글로벌 시민의식(패널 K) ● 비판적 사고 능력, 시민불복종 등 (패널 C) ● 의사소통, 존중, 배려, 공감, 갈등해결, 참여적 시민의식 (패널 D) ● 올바르게 실천하고 참여하기(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패널 J) ●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판적 사고 역량 기르기 (패널 A) ● 진로문제가 고민이므로 ‘의사소통’이 중요(패널 E)
학교 급별 연계성	● 초 · 중 · 고교 공통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최소 도덕주의 관점에서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패널 B). ● 학교급별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기보다, 같은 주제를 확장 및 심화, 추상화시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친구와의 관계라고 하였을 때, 초등학교 급에서는 친구의 기본적인 의미와 친구 사이의 예절, 중학교 급에서는 나와 다른 존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고등학교 급에서는 친구의 의미 확장 등 (패널 H)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적 가치 및 덕목 이해와 습관화(체화)에 대한 필요성이 현저하며(B, C, E, G, I), 의사소통 및 배려와 공감 등 올바른 관계형성하기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A, D, J, K). 올바른 관계형성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나 AI와의 관계까지 확장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J).

중학교에서는 대인관계 능력(D, E, I)과 갈등해결 능력(D, G, K)이 부각되고 있고,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정체성(G, I, J)도 강조되고 있으며, 회복탄력성 등

수행역량(A, K)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C)도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및 참여와 관련한 주제들이 현저하다. 가령, AI, 기후변화시대의 세계 공동체 이슈 및 글로벌 시민의식(G, I, K), 참여적 시민의식(C, D, J), 비판적 사고 역량(A, C)이 제시되고 있고, 진로문제와 연계한 주제도 제안되고 있다(E).

한편 학교급별로 공통된 주제를 확장 및 심화하는 계열성 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B, H). 가령, 친구와의 관계를 초등학교에서는 친구의 기본적인 의미와 친구 간 예절을, 중학교에서는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등학교에서는 친구의 의미 확장을 다룰 수 있다(H).

마)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 11>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학교급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
초등학교	● 덕, 역량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패널 C) ● 체험위주, 토론과 활동중심, 수업연계 (패널 D) ● 실천 및 체험학습에 중점 (패널 G) ●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기초로서 협동학습, 개별화학습, 에듀테크 등 (패널 F) ● 협동학습, 감사일기 (패널 K) ● 사회정서학습, 긍정훈육(사회적 기술 및 삶의 기술 훈련 및 체화) (패널 I) ●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기술 익히기 (패널 J) ● 놀이와 관계 중심 (패널 A) ● 이야기 접근법, 교사의 모범행동 제시법, 반복하여 가르치기, 일관되게 가르치기 (패널 E) ● ‘인지적’ 습관화, 다양한 경험을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간접적/직접적으로 쌓는 것 (패널 H)
중학교	● 문제해결학습, 프로젝트학습 (페널 E) ●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봉사활동 (패널 I) ● 공동 및 협력 학습에 중점 (패널 G) ● 논쟁학습, 협동학습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패널 J)

	● 수업에서 PBL 모형 적용하기, 자기성찰 (패널 K) ● 다양한 경험을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지도자와 함께 간접적/직접적으로 쌓는 것,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수합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패널 H) ● 체험위주, 토론과 활동중심, 수업연계, 가정연계, 지역사회연계 (패널 D) ●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에 효과적인 봉사활동, 경험학습 등 (패널 F) ● 사회적 현상 조사 분석 중심 수업 (패널 A) ● 덕, 역량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패널 C)
고등학교	● 인문학적 감성교육, 교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패널 I) ● 다차원적 인성과 역량의 통합에 효과적인 프로젝트 학습 또는 PBL 방식, 창의융합방식 (패널 F) ● 프로젝트 학습 (패널 K) ● 토의 및 토론에 중점 (패널 G) ● 실천체험 중심의 진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패널 J) ● 비판적 사고 토론 교육 (핀란드와 독일의 고등학교 철학교육 주제 참고) (패널 A) ● 덕, 역량에 대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패널 C) ● 논쟁법, 토론법 (패널 E) ● 윤리학자들을 지식적으로 교육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탐구들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패널 H) ● 체험위주, 토론과 활동중심, 수업연계, 가정연계, 지역사회연계 (패널 D)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급 전체적으로 실천 체험형 인성교육 및 협동학습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학교급별로 보다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실천체험 학습(C, D, G) 및 협동학습(F, K)을 비롯하여, 기초적인 인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정서학습 및 사회정서적 기술 익히기(I, J)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학교에서는 프로젝트 수업 및 협동학습이 부각되고 있고(E, I, G, J), 논쟁 학습(J), 문제해결학습(K), 봉사활동(F) 등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교과수업연계(I) 및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D)가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수업 및 협동학습(I, F, K)이 제안되고 있으며, 토의 및 토론과 비판적 사고교육(A, C, E)이 타 학교급에 비해 부각되고 있으며, 진로체험형 인성교육(J), 인문학적 감성교육(I) 등이 제시되고 있다.

바) 학교 단위 인성교육 효과성 평가에 대한 방안

학교 단위 인성교육의 효과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살펴볼 때,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신중하게 바라보는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인성교육 효과성 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을 보면, 자체평가(I)나 양적 측정(G)이 가능하며, "행동의 변화" (J), "학생의 문제 행동" 및 "학교폭력 감소" 와 연계한 평가(D)를 통해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성의 네 가지 범주화를 기반으로 한 "정량지표" 와 단기 역량 개발 및 관리 평가나 중장기 교수·학습방법 심화 개발 등의 "정성지표" 개발이 가능하다(F).

한편 인성교육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들도 여럿 있다. '평가' 에 집착할 경우, 자칫 "교육만능주의적 접근" 으로 흐를 수 있으며(B), 거시적인 인성평가 시스템 구축이나 일관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 H).

- 학교의 인성교육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먼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행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위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 실행 기준(학교, 지역사회 등 주어진 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과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선제시 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C)

- 거시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한국에서 평가 이슈는 장점보다 부작용을 낳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전문성이 마련되기 이전의 평가는 많은 경우 만족도 평가에 머무르거나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검토에 그치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부담과 의무감이 없는 상태에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각 학교 인성교육의 실재를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H)

사) 인성 수업에서 학생 평가

인성 수업에서 학생 평가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 수업은 교과활동 및 비교과활동[4]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비교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담당 교사의 과도한 노력을 요하고,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평가의 목적: 학생의 성장 촉진

- 인성에 대한 학생평가는 성적 산출보다는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함. 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 제공 (패널 I)
- 학생 자신의 성찰을 기반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 (패널 K)
-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그런 관점에서 서술로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하고 점수나 등급화를 배제한다. (패널 E)
- 학생 평가의 본질이 결국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전달하고 발전을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수업 내에서의 성찰들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H)

지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 목적에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인성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성을 평가할 경우, 성적 산출이나 점수 부여나 등급화는 지양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이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E, H, I, K).

▶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평가 및 측정도구 활용

- 과정 중심 평가 패러다임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패널 G)
- 인성(도덕) 수업은 다양한 도덕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손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연습을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평가 또한 그런 지점에 관한 논의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패널 B)

4) 비교과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다.

- 자기보고 외에 친사회적 행동 관찰, 또래들의 평가, 봉사나 사회활동 참여 실적 (패널 D)
- 학생의 인성 평가는 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 C)
- 인성과 역량 평가 도구 개발 고려, 학생 봉사/실천 등 참여 활동 계획 및 이력 관리 등 (패널 F)
- 인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도구(삶의 목적, 회복탄력성, 도덕적 민감성 측정 도구 등)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학교 단위별 측정도구 적용. 근거를 기반으로 인성의 수준을 가늠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패널 J)

인성 수업에서 평가 방법은 과정 중심 평가 패러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학습 방법과 결부지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B, G). 인성 수업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자기보고, 친사회적 행동 관찰, 또래평가, 사회봉사 활동 참여 실적을 활용할 수도 있고(D),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C). 더 나아가 인성 수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인성수업의 목표와 결부된 측정도구(삶의 목적, 회복탄력성, 도덕적 민감성 등)를 선정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장 및 발달과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F, J).

4)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Ⅴ- 1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①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해야한다.	1			7	3	4	0.81	0.27	0.88
② 인간성 강화를 위해 대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	6	3	4.09	0.63	0.17	0.88

“①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는 물음에 대해 10명의 패널은 ‘타당하다’ 고 보았으나 1명의 패널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고 보았다. 그러나 합의도(0.88)가 기준치(0.75 이상)를 넘어 패널 간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평균 및 CVR을 볼 때,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은 내용타당도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 및 디지털 기반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므로 인성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C, E, F, G, K). 다만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수업이나 활동이 포함될 경우, 사용자인 학생 간에 인성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그 확산성과 영향력” 이 심대하며, “인성교육 문제” 가 발생활 수 있으므로, “인성교육 자체를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하여 교육적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 다는 의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J).

“② 인간성 강화를 위해 대면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는 물음에 대해 9명의 패널이 ‘타당하다’ 고 보아 높은 합의도를 나타냈으며, 평균 및 CVR을 볼 때, ‘인간성 강화를 위한 대면인성교육 강화’ 는 내용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인성교육은 대면교육(교사와 학생 간 만남)이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다(B, D, E, F, I, J). 그런가 하면 대면 인성교육과 온라인 인성교육의 조화 또한 디지털 전환시대에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C, K). 오프라인 인성교육과 온라인상의 인성교육의 관계에 대한 K의 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콜버그의 도덕적 딜레마 토론이 도덕적 문제 상황의 게임과 같이 대하게 만든다는 비판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한 삶에 대한 질문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답변될 수 있다는 덕 윤리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학교는 그 자체로 인성교육을 위한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의 '삶의 공간'이 지금의 세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삶 속에서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H).

나)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주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핵심주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학교급별로 핵심 주제를 제안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 1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주제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의견 종합

학교급	핵심 주제
초등학교	• 타인존중 (패널 B) • 디지털 매체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패널 C) • 사이버 에티켓 (패널 D) •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권리와 책임, 디지털 접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안전 (패널 J) • 디지털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대면 인성교육에서 차이가 있지만 핵심주제는 대면 인성교육과 유사함 (패널 K) • 디지털 시대의 문제 - 주로 악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 올바른 사용법 (패널 F) • 학생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매체 탐색 및 사용 방안 (패널 G) •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및 정보윤리 준수 (패널 E)
중학교	•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생산하는 정보가 타인 및 사회에 미칠 영향 성찰 (패널 C) • 디지털시민의식 (패널 D) •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및 판단력 (패널 E) • 디지털 법률, 디지털 상업, 디지털 건강과 복지 (패널 J) • 대인관계 (패널 B)

	• 디지털 시대의 인성 - 바람직한 인성과 역량 내면화, 인간화 (패널 F) • 디지털 매체 활용에 있어 바른 인성의 의미 및 상호 의사소통 방안 (패널 G) • 공동체 의식, 갈등해결, 회복탄력성 (패널 K)
고등학교	•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패널 C) • 디지털시민의식 (패널 D) •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패널 E) • 디지털 시대의 주체. 인성에 기초한 디지털 사회의 변화주체, 사회적 쟁점대응 (패널 F) • 디지털 정치 참여 (패널 J) • 글로벌 시민의식 (패널 K) • 인간존중 (패널 B) •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디지털 환경 활용 및 구축 방안 (패널 G)
기타	• 앞에서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내용'의 차원은 아닙니다. 다만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이 가상의 것으로 남아 있고 실제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딜레마가 항상 제기된다는 점에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적이나 글로 된 서술보다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널 H)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다뤄야할 핵심 주제로 디지털 에티켓(B, C, D, J, K)이 가장 부각되었고,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사용법(F, G), 디지털 리터러시(E, J), 디지털 권리와 윤리적 책임(E, F)이 고르게 제시되었다.

중학교에서 다뤄야할 핵심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시민성(C, D, E, J)이 부각되었고, 디지털 기반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B, F, G), 디지털 건강과 복지(J, K)가 고르게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 다뤄야할 핵심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비판적 사고) 및 디지털 시민의식(참여)이 가장 부각되었고(C, D, E, F, J, K), 그 밖에 인간존중 및 올바른 디지털 환경 활용(B, G)이 제시되었다.

그런가 하면 패널 H가 제시한 가상공간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 방안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제고를 높일 방안과 관련하여 <예시>를 참고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문가 패널은 <예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교사의 디지털 활용 인성교육 역량 강화 (B, C, D, H, K)
  ②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B, C, D, E, I, H, K)
  ③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연수 (B, F, I, H)
  ④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관련 교사활동 지원(동아리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B, C, F, J)
  ⑤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B, J)

전문가 패널들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7명)을 강조했고, 다음으로 "교사의 디지털 활용 인성교육 역량 강화" (5명),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연수" (4명) 및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관련 교사활동 지원" (4명), "학교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2명) 순으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H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사가 어떻게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바라볼 것인지를 진지하게 제시하고 있다.

- 예상컨대 학생들이 교사보다도 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고 전문적일 수 있는 만큼, 교사가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틱톡이나 유튜브가 어떠한 식으로 학생들에게 유희를 제공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철없는 문화로만 여긴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서 디지털을 활용할 경우에도 개별 교사의 역량 강화와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연수나 자료가 보급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은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패널 H).

5) 인성교육의 여건 조성

인성교육은 다양한 수준에서 부과되고 있다. 가령, 국가 수준에서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지자체에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2015 개정, 2022 개정)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인성교육을 제시하여 전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수준에서는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상

황을 고려한 인성교육 비전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학교 수준에서는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제시한 전체 비전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색에 맞는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 국가수준, 교육청수준의 인성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의 적절성(효과성)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의 인성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의 적절성(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14>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의 인성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의 적절성(효과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①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구체화			4	6	1	3.72	0.27	0.17	0.75
② 국가나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보완			3	6	1	3.45	0.27	0.17	0.81
③ 학교의 특색을 강조한 인성교육		1	3	4	3	3.81	0.27	0.26	0.63

“①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구체화”, “② 국가나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보완”, “③ 학교의 특색을 강조한 인성교육” 범주 모두 평균이 4.0 미만이고, CVR 역시 N=11 일 때, 0.59보다 작으므로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학교의 특색을 강조한 인성교육 역시 적절하지 않다. 특히 “③ 학교의 특색을 강조한 인성교육”은 합의도도 0.63으로 전문가 패널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의 인성교육은 “대강화”로, 시도 수준은 “구체화”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G). 다만 시도 수준의 구체화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연하자면 구체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및 지역, 그리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특색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J). 그런가 하면 학교 특성(공립, 사립 등)에 따라 목표 및 프로그램과 활동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F).

한편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종합계획’, ‘2015/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 등 국가수준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기조와는 달리,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여건, 운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의견으로는) 효과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C).

- 국가 수준에서 전체적인 방향성과 교육과정의 체계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한편, 실질적인 실현은 (일반 교과의 교과서 개발과 같은)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의 경우 교과가 아닌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춘 인성교육이 나름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개별 학교 단위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보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이유에서, 일반화된 학교를 가정하고 이루어지는 개발보다 조금 더 특수성과 특색을 가진 개발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학교들의 선택지가 더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미국의 Character.org나 CASEL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H).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전문가를 통한 “인성교육 내용 구체화 및 보완”이 필요하며(J), 개별 단위 학교의 특색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물론 이 경우 비교과 활동 차원의 프로그램보다 개별 교과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을 전문가 패널 H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적절성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생활”,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 “인성교육 실행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쉽”, “학교폭력 예방교육과의 연계”,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학교환경이 인성교육에 얼마나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Ⅴ-15>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평균	CVR	CV	합의도
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1		3	7	4.45	0.81	0.21	0.80
②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생활			1	2	8	4.63	0.81	0.15	0.90
③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			1	3	7	4.54	0.81	0.15	0.80
④ 인성교육 실행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쉽				2	9	4.81	1	0.08	1.00
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				5	6	4.54	1	0.11	0.80
⑥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				2	9	4.81	1	0.08	1.00

“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②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생활”, “③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 “④ 인성교육 실행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쉽”, “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 “⑥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 방안 모두 평균, 합의도, CVR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장의 리더쉽, 학교폭력 예방교육과의 연계,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은 높은 평균값을 지닐 뿐만 아니라 높은 내용타당도를 보여준다.

“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민주적 분위기에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이고(K), “다차원적 인성 범주에서 시민적 인성”과 결부된다(F). 그런데 패널 J는 “민주적 학교문화보다 올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J의 관심사는 시민적 인성의 형성보다 도덕적 인성의 형성에 보다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생활”은 “다차원적 인성 범주에서 도덕적 인성”에 해당하고(F), “교칙 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참여 행사 등을 결정할 때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K)은 시민적 인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③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는 “다차원적 인성 범주에서 수행적 인성에 해당”한다(F). 그런가 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인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성교육과 내면적 상관성을 지닌다(E).

“④ 인성교육 실행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쉽”과 관련하여 “학교의 분위기는 학교장”이 상당 부분 결정하고(J),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실 “설문조사 결과, 학교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학교장의 의지와 지원”이다(C).

“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인성교육의 실제적 효과가 드러나는 가장 실제적인 사항”이고(E), “학교폭력 및 학습권 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J).

“⑥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은 인성교육의 적절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교육 자체가 세 주체의 협동과 소통 및 유기적 연계를 전제”하기 때문이고(E),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인성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인성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C, K).

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요소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예시>를 참고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예시>

①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② 교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개발	③ 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개발
④ 인성함양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의 다양화	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⑥ 관리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⑦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⑧ 에듀테크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예시>에

언급한 부분이 모두 필요하다(B, E). 다수의 패널들은 “② 교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개발”을 강조하였고(A, C, D, G, J), 이미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밀리게 되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H), 학교현장에서 유의미한 인성교육의 실행을 위해서는 교사와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역량과 “태도”변화가 중요하다(C, G, H, K).

그런가 하면 패널 I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생태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도교육청 수준에서 미래 핵심 인성역량을 체계적으로 설정한 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포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단위 학교별로 ‘인성교육 계획 수립 – 실행 – 성과 확인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을 내실 있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함 (패널 I).

라) 인성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

교육부,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그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의 방안보기> 가운데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1순위는 1점으로 계산하였다. 응답한 패널 수는 10명이다.

<표 Ⅴ-16> 인성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 (N=10)

교수-학습 방안	가중치	우선순위
① 교사의 인성교육 의지 및 역량 부족	4	
② 관리자의 인성교육 역량 및 의지부족	8	4
③ 가정 연계 부족	6	5
④ 지역 연계 부족	0	

⑤ 기술 발달 및 사회변화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 부족	0	
⑥ 인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17	1
⑦ 교사의 과중한 업무	9	3
⑧ 교육부 및 교육청의 의지 및 지원 부족	10	2
⑨ 지시 및 실적 보고 위주의 형식적 행정 처리 관행	5	
⑩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개발 및 보급 부진	1	

인성교육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들은 ⑥ 인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⑧ 교육부 및 교육청의 의지 및 지원 부족, ⑦ 교사의 과중한 업무, ② 관리자의 인성교육 역량 및 의지부족, ③ 가정연계 부족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은 “교사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할 경우, 관리자와 학부모는 담당 교사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에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방관”하게 된다(B, J).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인성교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에 전가하는 학부모 및 사회적 시선도 인성교육의 저해요인이다(G). 교사의 업무 과중을 고려할 때,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E), 더 나아가 교과연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의 다양한 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J).

요컨대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구성하는 교육생태계의 인성 친화적 분위기 조성, 정부 및 교육청의 일관성과 지속성 담보한 인성교육 정책,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인성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권한과 자율성 부여 등이 필요하다.

2. 인성교육의 구조와 정의

가. 인성교육 체계의 구성 원리와 특징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은 다양하다.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의 구조와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 교육 비전과 원칙에 기초한 인성교육의 비전과 목표, 핵심 내용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생태학적 세 축(triadic)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의 관련 주체들(stakeholder), 즉, 학생, 교사, 정부, 학부모, 지역사회 및 대중매체의 요구와 인성교육 분위기(ethos),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유기적인 협력 관련 구축, 온라인-오프라인의 조화로운 연계에 기초한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실태 조사와 전문가 대상 FGI 결과와 함께 미국, 영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국외 인성교육의 최근 동향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1) 인성교육의 목표와 원칙

【인성교육의 목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 함양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 물음은 바꾸어 말하면,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과 역량을 기대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장차 한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인성교육 정의를 참고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재정의하였다.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을 길러** 도덕적 인간과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나와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며 인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인성교육의 목표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자신과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학생의 주도성, 유연성, 윤리적 책임,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행복)이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교육 동향에 따른 OECD의 제안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 목표를 적극 반영하였다. OECD 교육 2030 학습 프레임워크와 학습 나침반 2030에서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모든 학습자에게 변혁적 역량, 개인과 사회의 웰빙(well-being)이 요구되므로 학습자의 주도성과 협력적 행위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행복 추구를 위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먼저 경기교육백서(2022)에서 제시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방향성 정립’과 경기도민 교육 여론 조사에서 학교교육에서 효과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인성 함양 및 도덕성 발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특히 본 연구진이 실시한 인성교육 실태조사에서 ‘회복 탄력성 향상’이나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이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그간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한 인간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의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주도성과 자기성찰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해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학교 인성교육의 정책을 분석해 보면, 인성이 지닌 다차원이고 복합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도덕적 덕성과 주도성 및 회복탄력성,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참여하는 시민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학생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인성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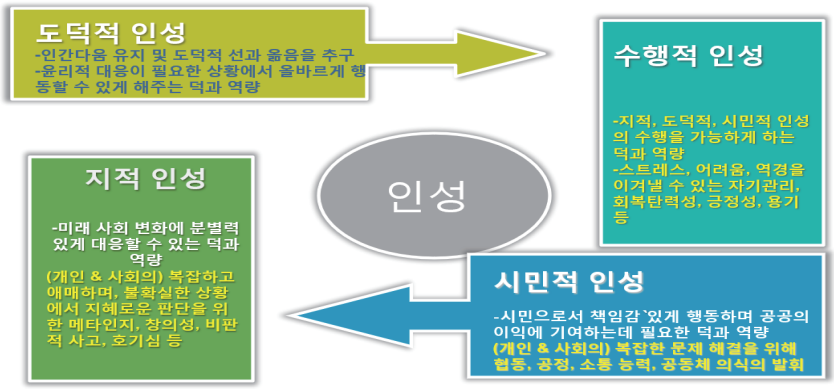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수행적 인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적 인성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시민적 인성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인성을 갖춘 한 개인은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 및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에도 기여하게 된다.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3가지 원칙(자율, 균형, 미래)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자기 인식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을 이해 및 성찰하고 도덕적 인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둘째,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 개인의 행복과 타인 및 공동체의 번영이 함께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추구되는 인성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셋째, 미래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불확실하고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 미래 인성교육 내용

【인성교육의 내용】
- 인성의 4가지 차원: 도덕적 인성 + 시민적 인성 + 수행적 인성 + 지적 인성
- 인성의 4가지 차원과 그 하위 덕 및 역량들의 균형과 통합



[그림 Ⅴ-1] 인성의 4가지 차원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은 다차원적 인성을 그 구성 및 내용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델파이 조사 결과(V.1)를 볼 때, 다차원적인 인성의 구성요소로서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은 높은 타당성을 확보한 데 비해, 지적 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며 내용타당도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시대와 인공지능시대라는 '미래사회의 변화전망'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전문가 패널은 학습자의 인성 중 지적 인성의 요구도가 다른 인성 요소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미래 인성교육의 다차원적 인성 구성과 관련하여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다차원적인 인성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한 개별 인간으로서 인간답고 공동체적 존재로서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덕과 역량들이 중첩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 [그림 Ⅴ-1]와 같이 다차원적인 인성은 중첩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총체성을 갖는다.

인성의 네 차원에서 각각 포함하고 있는 하위 덕과 역량을 제시하면 [그림 Ⅴ-2]와 같다.



[그림 Ⅴ-2] 4가지 인성의 하위 덕과 역량

첫째, 도덕적 인성은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덕과 역량으로써 ① 예, ② 효, ③ 정직, ④ 존중, ⑤ 배려(&공감), ⑥ 감사[5], ⑦ 정의 등 7개의 대표적인 덕과 역량이 이에 속한다. 도덕적 인성은 한 인

간으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인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선과 옳음을 추구하려는 성향으로 선택과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과 윤리적 행동을 지향한다. 이 도덕적 인성의 하위 덕목과 역량은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 가치·덕목 8가지 중 5가지와 동일하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정의'를 도덕적 인성의 하위 요소로 포함하고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시민적 덕이나 공동체 삶에서 대표적으로 요청되는 가치·덕목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본 연구진에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실천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성향은 한 인간이 개인적으로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 또는 역량이라고 판단되어 도덕적 인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하위 요소로 보았다.

둘째, 시민적 인성은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덕과 역량으로 ① 협동, ② 책임, ③ 공동체 의식, ④ 공정, ⑤ 소통능력 ⑥ 갈등해결능력 등 6개의 대표적인 덕과 역량이 이에 속한다. 시민적 인성은 공동선을 고려하고 도덕적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며 공론의 장에 참여하려는 자질이며, 사회적 양극화 속 복잡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협력과 의사소통, 책임, 공정 등과 같은 시민적 인성이 요청된다. 특히, 이 시민적 인성에서 '공정'은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수단시 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개방적인 태도로 타인에게 진실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인성의 하위 요소인 '정의'와는 그 특성이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행적 인성은 지적·도덕적·시민적 인성의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덕과 역량으로 ① 자기 규제, ② 회복탄력성 & 그릿(GRIT), ③ 낙관주의, ④ 용기 등 5개의 대표적인 덕과 역량이 이에 속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 역경 속에서 꾸준히 정진하는 힘과 성향을 키우기 위해 수행적 인성이 요구되는 바, 자기 규제(자기 관리), 회복탄력성, 낙관주의(긍정성), 그릿, 용기 등과 같은 수행적 인성은 미래 사회에서 다른 인성들과 적절히 결합될 때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에서 행복과 번

5) '감사'는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인간관계에서 배려를 받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배려 관계가 완성될 수 있다는 점, 감사를 표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인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감사하기'는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행적 기술과도 결부되어 있다.

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넷째, 지적 인성은 진리 탐구, 지식, 지혜와 관계된 덕과 역량으로 ① 창의성, ② 호기심, ③ 신중함[6], ④ 메타인지, ⑤ 비판적 사고 등 5개의 대표적인 덕과 역량이 이에 속한다. 애매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될 때,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분별하는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창의성, 호기심, 신중함, 메타인지 등과 같은 실천적 지혜를 활용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적 인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인성은 국외 인성교육의 체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였다. 먼저, 쉴즈(D. L. Shields)는 데이비슨과 리코나(M. Davidson & T. Lickona)의 인성 관점을 더 확장하여 인성이란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측면의 인성(the multiple dimension of character)을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네 가지는 각각 분절되기보다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으므로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반영하였다(보고서 Ⅲ.3 참고).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인성이 어느 하나 결여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가 인성교육과 사회정서학습을 통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인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 2022〉에서 제시한 'CSED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의 체계'를 고려하였다(보고서 Ⅱ.2.나.1) 참고). 여기서는 학생이 학교 및 사회에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번성할 수 있도록 4가지 인성 차원에서 강조하는 인성 강점과 사회정서적 역량 및 기술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체계는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이 시민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도덕적 인성의 함양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던 점이나 사회정서적 역량이나 기술의 함양을 통합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

6) 지적 인성의 초기 모델에서는 ① 창의성, ② 호기심, ③ 비판적 사고 , ④ 메타인지로 구성하였다가 연구진의 논의와 피터슨과 셀리그만의 인성강점 목록을 참고하여 신중함을 추가하였다. 신중함은 실천적 지혜를 발휘가기 위해 필수적인 덕이며, 특히 미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며 장기적 목표와 포부를 생각하며 충동을 절제하는 사람의 자질이다.

기도교육청 인성교육은 학생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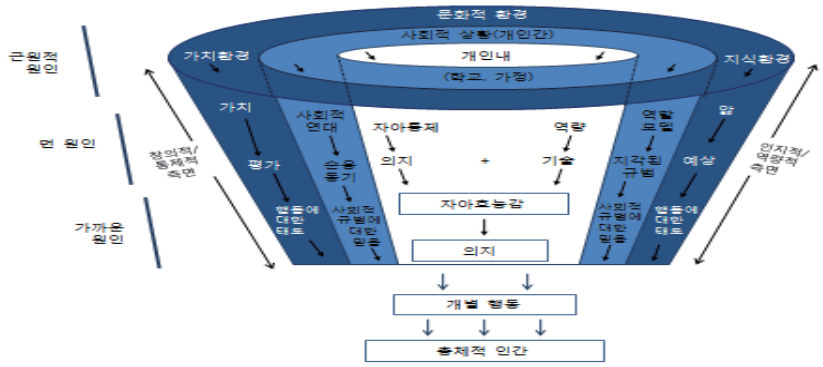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영국의 쥬빌리 센터(the Jubilee Centre)의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프레임워크도 본 연구의 다차원적 인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쥬빌리 센터의 인성교육 프레임워크는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에 속하는 구체적인 인성 자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s)은 분별력과 올바른 행동, 지식, 진리와 이해의 추구에 필요한 인성 자질을, 둘째, 도덕적 덕(character virtues)은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인성 자질을, 셋째, 시민적 덕(civic virtues)은 공동선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위해 필요한 인성 자질을, 넷째, 수행적 덕(performance virtues)은 지적, 도덕적, 시민적 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적 가치가 있는 인성 자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4가지 차원의 인성 자질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므로 인성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3) 생태학적 세 축(triadic) 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의 전략

1) 교실: 도덕 교과와 기타 교과 간 연계/ 교과 수업 & 교실 분위기 조성
2) 학교: 교과교육 활동 & 인성 친화적 학교 분위기 조성
3) 학교 밖: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협력
4) 덕과 사회정서학습 기술(skill)의 연계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성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그림 Ⅴ- 3]과 같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 축 이론(TTI, theory of triadic influence)에 근거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Ⅴ- 3] 인간 행동에 대한 생태학적 세 축(triadic) 이론(현주, 2013)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사회적-생태적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원인의 수준이다. 전자는 개인 내, 개인 간, 문화-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근원적인 원인, 먼 원인, 가까운 원인으로 구분된다(현주, 2013; 이인재, 2016).

사회적-생태적 흐름은 '개인 내적 흐름(비교적 안정적인 생물학적 성격적 특성)', '개인 간 흐름(사람들과의 애착, 부모・교사・이웃 등)', '문화-환경적 흐름(개인의 사회적 제도와의 관계 등 개인이 속한 광범위한 문화 및 환경적 특성)'과 같이 3개의 원인 수준을 거치면서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행동에 대한 '근원적 원인'과 '먼 원인'은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보다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원적 원인은 문화적 실제, 매스미디어, 정치, 경제-사회적 상태, 학교이용 가능성, 부모의 가치, 개인 자신의 성격 등 개인 수준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변인들이지만 긍정적 청소년 발달에 크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 원인은 개인의 일반적 자아개념, 자기통제, 부모 또는 동료와의 애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 개인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까운 원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개인의 일반적 가치에 대한 인식, 특정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일반적 지식, 구체적 믿음과 기대 등으로 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전조가 된다. 개인, 사회, 문화의 3개의 주된 흐름 이외에 각 흐름은 보다 인지적, 합리적인 측면과 정

의적, 정서적, 통제가 요구되며 덜 합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아래의 세 축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고 이 양자가 통합될 때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축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인성교육은 교실, 학교, 학교 밖 그리고 덕과 사회정서학습 기술의 연계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생태학적 세 축 이론에 따른 인성교육의 전략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가령,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환경 조성방안과 관련하여 '민주적 학교 문화조성, 소통과 배려와 존중의 학교생활, 학교장의 인성교육 관련 리더십,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관계' 등이 높은 내용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런가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인성으로 '수행적 인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 패널들은 수행적 인성 가운데 자기조절 및 관리, 낙관주의 및 성장 마인드셋, 회복탄력성, 그릿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 교과 수업 & 교실 분위기 조성

교실 차원에서 볼 때, 교과 수업과 교과 수업 외 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과 수업은 다시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라고 볼 수 있는 도덕 및 윤리 수업과 기타 교과 수업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 수업이 학생들의 지적 수월성과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도덕 및 윤리 수업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기본적인 도덕적 인성과 시민성 인성 발달에 직접적이면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기타 교과 수업에서는 자체의 고유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지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의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연습, 반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 및 윤리 수업과 기타 교과 수업 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를 통해 배운 여러 인성들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통해 알고 마음으로 다져진 것들이 반복적으로 실천됨으로써 습관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교과 수업 외 활동, 즉 교사의 모범, 또래 간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관계 형성, 따뜻하고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학생들이 인정, 존중받는 교실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과정 활동 & 학교의 문화(도덕적 분위기) 조성

학교 차원에서 볼 때, 교육과정 활동과 학교의 문화(도덕적 분위기)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 활동이란 교과 수업과 교과외 활동, 즉 창의적 체험활동, 범 교과 주제 수업, 학교 차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교과 수업 활동을 통해 배운 인성을 구성하는 덕과 역량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반복, 체험, 내면화할 수 있으므로 이 양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협력해야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아무리 교육과정 활동이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해도 인성 친화적인 학교 풍토, 즉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운 인성을 구성하는 덕과 역량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7]가 조성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확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활동과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 조성이 연계되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학교 밖: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

학교의 인성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과 학교 내 인적, 물적 자원 활용만으로는 어렵다.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변 환경,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효과 증진을 위해 이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함은 물론 이들이 가진 인성교육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존중과 지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일관된 태도, 바람직한 양육 등은 학생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 공간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인성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실천에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학부모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

7) 인성 친인성교육을 중시하는 학교 분위기, 교사와 학교장의 인성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확보,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등

어 냄은 물론 가정과 연계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도 학교 인성교육에 영향을 크게 행사하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특히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배운 인성을 구성하는 덕과 역량을 반복, 실천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공간으로 크게 기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성교육의 자원(resources), 즉 바람직한 인성 모델 제공, 지역사회의 도덕적 분위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교 인성교육을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인성교육의 자원을 확보하여 활용함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덕과 역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국내·외의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본 연구진이 수행한 인성교육 실태 조사, 국외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이구동성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진이 수행한 인성교육 실태 조사에서 학교 인성교육과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핵심적 의견을 보면, '가정과 학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며, 학교 인성교육에 대한 안내와 참여가 필요하다' 였다.

라) 덕과 사회정서학습 기술(skill)의 연계

미국 사회정서학습 협회(CASEL)에 따르면, 사회정서적 역량(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은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 관계, 책임 있는 의사 결정' 의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삶의 발달적·사회적·개인적 과업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과업 수행의 탁월성(excellence)을 지향하는 수행적 인성과 관련이 깊다. 그러므로 수행적 인성 함양을 목표하는 인성교육은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최근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는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를 2022년에 발표하였는데, 다양한 인성 강점(character strength)과 사회정서적 기술 및 역량은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현장의 교육자들은 이 양자를 통합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가 목표하는 바는 학생이 '행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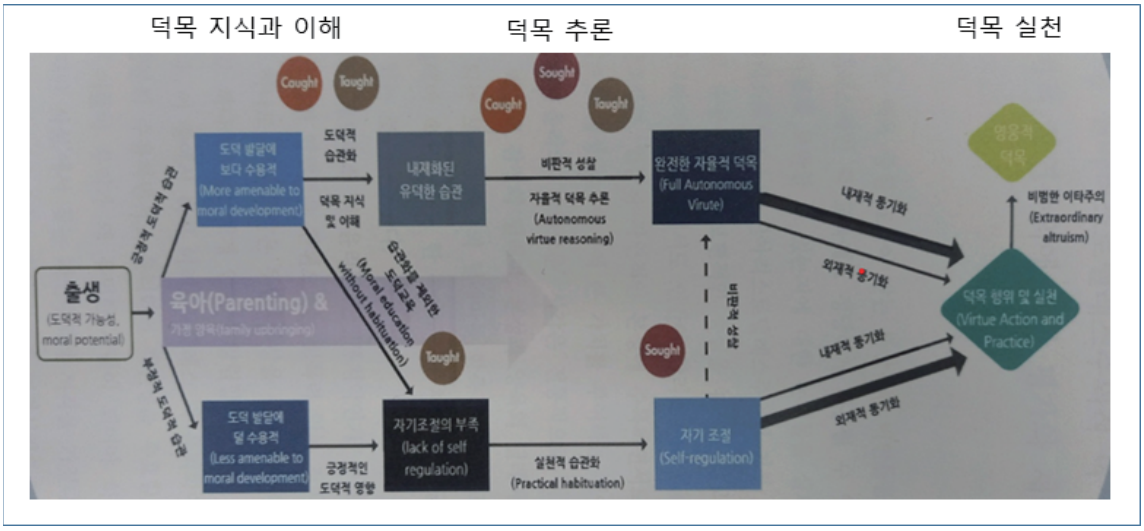
노력하는 사람이 지닌 인성’ 을 지니게 하는 것이며, 이는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핵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배려적이고 지원적인 환경’과 ‘인성 강점 및 사회정서적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할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보고서 Ⅱ.2.나.1) 참고)

본 연구진이 실시한 학교급 별 인성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인성교육 목표로 ‘회복 탄력성 향상’이나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과 같이 수행적 인성교육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필요한 인성교육 요소에 대한 응답도 ‘자기 관리 능력’이나 ‘긍정성 함양’ 등 수행적 인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수행적 인성은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사회정서적 역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교사·학생·학부모 모두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 폭력 예방’이, 중학교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이, 고등학교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 향상’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회정서학습의 관계 능력,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역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4) 인성발달을 고려한 학습자 주도적 인성교육

인성의 발달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인성발달의 긍정적 사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부모 모델, 좋은 친구, 친사회적 성향을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자연스럽게 도덕성이 발달하여, 도덕적 습관화와 덕목 지식 및 이해를 통해 유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비판적 성찰 및 자율적 덕목 추론 능력을 함양하여 완전한 자율적 덕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내재적 동기에 따라 덕을 구현하는 행위(예를 들면 정직한 행동) 및 실천 성향(예를 들면 매사 정직한 경향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한편 다른 발달 경로는 인성 발달의 소극적 사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발달에 부정적인 부모 및 친구 관계에 노출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계 및 환경에 노출될 경우, 도덕적 발달은 더딜 수밖에 없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도 자기규제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재적 동기에 따라 덕을 구현하는 행동은 드물고 주로 외재적 동기화에 따라 행동에 옮기는 사례가 많다.



[그림 Ⅴ- 4]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인성 발달 모델
(Jubilee Centre, 2017; Arthur & Kristijánsson, 2022: 4; 이기연, 2022: 83 참고)

이러한 인성발달의 틀에서 청소년의 낮은 수행적 인성은 도덕적 가치의 지식과 이해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학생들이 좋은 사람이 무엇이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도 충분한 습관화의 부족으로 내재적 동기가 결핍되어 있어 상황이나 여건이 조금만 유리하지 않다면 도덕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성함양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기규제 능력 개발을 위한 실천적 습관화는 필수적이다. 실천적 습관화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자율적 덕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습관화만 되었을 뿐 비판적 성찰이 결핍된다면 내재적 동기화가 부족하게 된다. 자기규제를 할 수 있다 해도 자율적 실천 동기가 부족하여 행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림Ⅴ-4]에서 볼 수 있듯이 인성은 환경, 의도적 가르침, 학생의 성찰의 세 방법를 통해 발달한다. 인성을 이루는 덕들은 성장환경과 학교환경에서 모델링(modeling)을 통해 자연스럽게 포착될 수 있으며(caught) 학교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워서(taught),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가치와 덕을 선

택하여 일종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는(sought) 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인성교육을 받을 때 학습자 스스로 환경을 통해 관련 덕을 포착하고,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삶의 비전과 목적과 연계하며 생활에서 적용한다.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성이 발달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중등 인성교육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권장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지향해야 한다(Ⅲ장의 내용 참조). 깊이 있는 학습을 활용한 인성교육은 다음의 세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째, 학생의 삶과 연계되어 덕의 지식을 이해하고 추론능력을 발휘하며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교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덕과 역량을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성찰은 인성의 모든 덕과 역량의 학습에 필요하지만, 특히 지적 인성의 학습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교육부, 2021c).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 전략은 유사한 내용 주제를 반복하여 학교급의 발달 특징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5)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인성교육

본 연구진이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학교급별 핵심 주제로,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에티켓 및 디지털 매체의 올바른 사용법이, 중등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비판적 사고) 및 디지털 시민성(참여)이 부각되었다.

디지털 공간은 비실재감과 익명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인간의 도덕적 행위 동기를 감소시키는바, 이에 대한 인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습 방법 자체에 혁신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러한 학습 방법은 일정 부분 유지되거나 더 활성화될 것이므로, 인성교육에서도 이러한 학습 환경 변화 양상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고,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프라인 학습 프로그램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 환경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독자적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단지 강의를 중심으로 기술이 활용되는 시스템과 달리 학습 전반에 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술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해당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성교육도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오프라인의 강의 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학습 관리적인 측면에서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향에서 온라인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보고서 Ⅵ 참고).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이후 포괄적인 수준에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6) 단위학교 인성교육의 효과 검증 및 환류의 중요성

입시위주 교육 시스템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인성교육, 단위 학교의 여건에서 실행가능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우리 학교에는 어떤 인성교육이 필요한가? 계획했던 인성교육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유의미했는가? 인성교육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방법 중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실제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과학적 연구에 기반을 둔 인성교육, 즉 효과성 증거 기반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인성교육의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인성교육 계획과 실행에 반영해야 한다. 양적 측정은 행동의 변화, 학생의 문제 행동, 학교폭력 감소, 인성지수의 상승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기보고 척도를 이용하여 인성지수의 상승 여부를 사용하는 진단은 피험자가 직접 보고함으로써 자신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문제 행동이나 학교폭력 감소 등 관찰 평가나 객관적인 준거에 따른 평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효과성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인성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진단 목적으로 활용되고 단위 인성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결과 평가만큼이나 과정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인성교육의 실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라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인성교육에서의 효과성 평가는 실행의 충실성을 평가해야 한다(Berkowtiz, 2014).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만족도나 효과성 인식 조사를 하여 효과성을 진단한다. 과정의 충실함을 조사하는 것이 과정 평가에서 중요하다. 실행의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만으로 실행의 충실도를 충분히 측정할 수 없다. 실행의 충실성을 측정하는 항목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실행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행에 관해 조사 ② 실행의 횟수: 계획에 따라 몇 번 제때 교육했는가? ③ 실행의 완결성: 인성교육 활동들이 충분히 실행되었는가? 실행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인성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효과성 인식, 실행의 충실도가 고루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분위기에 대한 평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실행 결과는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한다. 주로 교실과 학교의 분위기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학교 내의 표준 규범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안전감 등이 중요한 요건이다. 교실이나 학교 분위기는 도덕적 결정을 행위로 실행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거나 실행의 내적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인간 행위가 환경과 성품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적 가치(존중, 배려 등)이 학생간 상호작용의 바탕이 되고, 도덕적 규준이 확립되어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성교육에는 인성 친화적 교실 및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포

함되기에 인성교육의 효과 전반을 측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나. 인성요소별 덕목의 의미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체계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성의 4가지 차원에 포함되어 있는 덕 또는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인성의 4가지 차원별로 포함되어 있는 덕 및 역량의 개념 정의를 간략히 표로 제시한 후,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원, 의미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 도덕적 인성

차원	덕목	정의
도덕적 인성	예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대인관계에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을 지키는 성향과 자질
	효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고(養志) 육체적 물질적으로 봉양(楊口體)하려는 성향과 자질
	정직	자신에게 진실하고 타인을 속이지 않고 부정하게 행위하지 않는 성향과 자질
	존중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만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향과 자질
	배려공감	타인의 필요를 헤아리고 자신의 것처럼 반응하는 성향과 자질
	정의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실천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는 성향
	감사	호의나 도움을 받았을 느끼는 고마운 마음과 태도로 행동하는 성향
	도덕적 선과 원칙을 추구하는 인성, 윤리적 가치가 성품화된 자질(덕), 디지털 환경과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인간다움의 핵심	

가) 예

예(禮)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예의(禮意), 예의(禮義), 예의(禮儀), 예의(禮誼)는 말로서 활용되고 있다. 예의(禮意)는 '예로서 올바르게 나타내는 존경의 뜻' 이며, 예의(禮誼)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도리, 예의(禮儀)는

예의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 예의(禮儀)는 '사람들이 지켜야 예절과 의리'로 정의된다. 사전적 의미로 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대인관계에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자에 따르면 예는 인간 삶의 보편적 형식에 대한 이론적 탐구활동이자 지식교육을 실천적으로 집약하는 구체적 행위규범의 내면화로 설명하고 하고 있다(장정호, 2010). 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보편적 행위규범으로 인간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요소, 규범들이고 넓게는 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퇴계에 따르면 예는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 기준으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다. 예를 통해 도덕적 사회 질서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미영, 2011; 김선주, 2017). 따라서 예는 개인의 내면적 덕으로 존재하며 강제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예절이나 예의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상호과정에서 모든 절차나 질서를 준수하려는 마음가짐과 태도 일정한 격식을 갖추는 일이기에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시대의 형식에 맞게 드러내야 한다. 개인 예절,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예절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일이다. 예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타인에게 친절을 배푸려는 덕이 필요하다(정창우 외, 2013).

나) 효

효도의 사전적 의미는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로서, 그 윤리적 의의를 '생명의 내원(來援)에 대한 감사', '모든 덕행의 근본', '부모의 신뢰에 대한 자녀의 진실한 응답' 및 '인간애의 근원'으로 제시할 수 있다(김태훈, 2012). 효(孝)는 가장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민족 고유의 정신이었다(김태훈, 2012). 우리나라에서의 효는 자식이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이며, 유교의 기본적 윤리규범의 하나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경애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하는 도덕이다(허세일, 2001).

논어(論語)의 학이편에서 효도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며 동시에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 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 모습은 부모의 의식주 생활에 불편이 없게 편안하게 해야 함(奉養의 孝)은 물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순종하는 것(養志의 孝)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부모님을 육체적·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한다. 즉, 효도의 밑바탕에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감은의 정신이 담겨 있다(박효정 외, 2000; 유병열, 2008; 정창우 외, 2014).

오늘날 효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 부모를 도와줌, 부모를 위해줌, 다정한 행동, 학업성취, 마음을 편하게 해드림, 잘 성장하는 일이 포함되었다(박영신, 김의철, 안자영과 이임순, 2014; 김선주, 2017).

다) 정직

정직은 매우 일상적이고 친숙함에도 논의하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음을 의미하며(박효정 외, 2000), 바르고 곧은 심성으로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에 따라 행하는 마음을 말한다(조연순 외, 1998). 정직한 사람이란 곧 정직성에 대한 바르고 강한 신념을 가지며, 정직한 행동을 하고, 스스로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송명자, 1995).

정직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사실대로 표현하는 ‘대화에서의 정직’과 훔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만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규칙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에서의 정직’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정창우 외, 2013). 버톤(Burton)은 정직의 덕은 판단, 행동, 정의적 특성으로 구성되며 정직한 행동은 ‘속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훔치지 않기’ 로 범주화하였다(Burton, 1976; 김선주, 2017). 정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정직성은 ‘충실한(faith)’, ‘진실성(trust)’, ‘정당성(righteous)’, ‘준법성(principled)’의 4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다(장희선, 손경원, 2010).

라) 존중

존중은 정중하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그들이 존엄성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빈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대로 상대를 대하라'의 황금률이 존중의 대표적 원칙이다.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기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심리학에서 자기존중은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성향, 행동, 신념을 존중하는 것이다. 행위자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알고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믿음이 있다(김영경, 2021). 진정한(authentic)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결점과 인생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최경숙, 2007).

이러한 나와 타인 간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상호존중의 관계 정립 이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은 물론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 생명 존중의 개념으로 확대하기도 한다. 존중의 대상 범위를 자신, 타인, 모든 생명체로 확대될 수 있다. 이병승은 나이든 어른들을 예의바르게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등의 숲에 사는 동물들을 생각해 주는 것, 장난으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새를 해치지 않는 것 등의 환경과 생명 전반에 대한 존중을 포함시키고 있다(이병승, 1998; 김선주, 2017)).

마) 배려/공감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염려해 줌', '남을 위하여 여러모로 마음을 씀' '이리저리 마음씀' 등 '으로 풀이되고 있다(김선주, 2017). 이는 배려란 기본적으로 내가 타인의 입장에 서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골고루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조연순 외, 1998)임을 보여준다. 나딩스에 따르면 배려는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것이고, 나와 타인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타인의 필요와 행복에 책

임을 느껴 그를 보살피고 돕는 도덕적 태도라 할 수 있다(Noddings, 2002; 정창우 외, 2014에서 재인용). 따라서 배려는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 타인의 잘못에 대한 관대함과 관련이 있다. 친절은 정성스럽고 정다운 태도를 의미하며, 타인의 행복과 기분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Borba, 2004). 관대는 너그럽고 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는 것,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입장을 널리 받아들이는 것 등을 의미한다(Borba, 2004; 정창우 외, 2014에서 재인용).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공감으로 대인관계나 친사회성, 공격성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울게 되는 정서 전염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김혜리 외, 2013). 배려와 관련해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무심결에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으로서(Hoffman, 1976),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이 감정에 대리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서적 경험으로서 공감이외에도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Broke, 1971),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안녕을 고려하는 능력(Hogan, 1969)으로 인지적 능력으로서 공감을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에서는 공감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감이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인지적 측면과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도 느끼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김혜리 외, 2013)

바) 감사

사전적으로 감사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나 도움을 받았을때 (친절이나 유익한 것을 받았을 때) 느끼는 고마워하는 마음이다(Froh & Bono, 2014; 추병완 재인용, 2015). 감사의 대상이 항상 사람이 필요는 없다. 동물이나 자연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며 좀더 확대해서 우주, 신, 운명 등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인식이 최소한 요구된다.: 1) 긍정적인 혜택이나 이득을 얻었다는 인식 2) 그 혜택이 외부로부터 왔다는 인식 3) 그 혜택이 내가 마땅히 받을만하지 않았음에도 받았음을 인식.

혜택을 준 은인의 선한 마음에 수혜자로서 선으로 반응할 도덕적 이유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호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무감사 nongratitude) 나아가 호의에 배신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의 호의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회는 분열할 수 있다. 감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간의 연대와 호의의 베품이 확대될 수 있다. 덕으로서의 감사 성향은 우리가 얻은 긍정적 경험과 결과에서 타인의 선의의 역할을 인식하고 고마워하는 정서로서 그 선의에 반응하려는 일반화된 경향성을 의미한다(추병완, 2015).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을 높이고, 대인 관계적 안녕에 필요한 자원을 갖게 하고, 내재적 동기와 목표 추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추병완, 2015).

사) 정의

정의(justice)는 소크라테스 시대로부터 서양철학자들은 그의 의미를 논해왔다. 일찍이 Aristoteles는 넓은 의미의 정의와 좁은 의미의 정의로 구분하고, 넓은 의미의 정의는 합법적인 것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는 공정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창우 외, 2008). 정의는 때로는 마음의 평정상태와 행복을, 때로는 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대인간의 좋은 관계는 물론 제도와 인간 간의 좋은 관계로 확대되었다.

옳음(rightness)으로서의 정의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 등에 대해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의 도덕적 추론 능력으로서의 정의 발달과 정의사회의 제도로서 정의를 구분할 수 있다. 도덕적 인성에서 정의는 콜버그와 같은 도덕적 추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한 개인이 도덕적 상황과 그와 관련된 가치나 원리에 대한 숙고로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인지적 능력의 발달처럼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경험과 선택을 통해 무엇이 옳고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숙고하며 자신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발달시킨다. 콜버그는 자기 행동의 물리적 결과에 대한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덕적 문제 상황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의 추론의 6단계를 보편적 정의원리에 입각하여 체계화하였다.

덕으로서의 정의는 옳음에 대해 숙고하고 옳음을 실천하고자 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한다.

2) 시민적 인성

차원	덕목	정의
시민적 인성	협동	공동의 목표를 위해 또래와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것
	책임	자신이 맡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고, 자신의 언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
	공동체 의식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지니고, 공동체의 선과 행복에 기여하는 자질과 태도
	공정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수단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개방적인 태도로 타인에게 진실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
	소통능력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표현·전달·공유하는 태도
	갈등해결능력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하는 상대방의 입장과 차이를 인정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갈등을 관리하교 해결하는 것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과 협력하는 가운데 공동선의 증진에 기여하는 인성,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데 필요한 자질(덕)	

가) 협동

협동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부연하자면 협동(cooperation)은 “사회의 공동선을 창출하고 증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힘과 능력을 집약시키는 것이요 상부상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은 공동체가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본 덕목이다(정창우 외, 2013).

협동은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서서 공공의 목표와 이익을 우선적 가치로 간주한다. 협동은 행동적인 측면이 강한 용어로서 “개인이 집단의 공통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즉 공동으로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옮김, 2009).

협동의 미덕은 공동체 의식, 연대성, 조화정신과 내면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식의 하위요소이기도 하다.

나) 책임

책임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를 의미하며,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로서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미국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6pillars)에 언급된 책임(responsibility)의 하위 요소에 책임의 덕목이 상세화되어 있다.[8] ①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 ② 끊기 있게 시도해 볼 것, ③ 자기 통제(훈련)를 할 것, ④ 행동하기 전에 그 결과를 고려할 것, ⑤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 책임질 것. 여기서 책임은 인내, 절제, 신중함, 도덕적 민감성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정창우 외, 2013).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행동은 자신을 향할 수도 있고, 타인을 향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미래적인 시점에 파급효과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책임은 개인의 행위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을 포괄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국가, 더 나아가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대한 책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공동체 의식

공동체는 이익사회와 대비되는 공동사회(Gemeinschaft)를 지향한다. 공동사회란 “혈연에 의한 가족, 지연에 의한 촌락, 우정에 의한 도시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의사에 따라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를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며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익 상충, 권리 간 갈등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스마트 폰 하나로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그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의

8) https://charactercounts.org/character-counts-overview/six-pillars/

식은 유대감과 연대의식, 인류애와 상호의존적 의식을 포괄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 하는 생태적 인간으로서 생태학적 감수성 및 자연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담지자로서의 참여적 태도로 확장될 수 있다(정창우, 2019).

라) 공정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긍정심리학에서 본 공정의 미덕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 등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인 도덕 판단의 산물"이다.

공정함과 관련된 심리적 강점들을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속임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피부색으로 인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나쁘다." 등(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옮김, 2009).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 (6pillars)에 언급된 공정(fairness)의 하위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규칙대로 놀기(규칙을 따라 경기할 것), ② 차례를 지키고 공유할 것, ③ 개방적인 태도로 타인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④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 것. 여기서 공정은 규칙 준수, 수용성 및 진실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창우 외, 2013).

마) 소통능력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때문에 소통능력이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소통능력은 의사소통능력에 다름 아니다. 부연하자면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유병열 외, 2013).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명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 듣는 기술, 발표 기술이 요구되며, 고든(T. Gordon)이 제안한 '나-전달법(I Message)'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Kirschenbaum, 추병완 외 옮김, 2006).[9)]

인성교육은 "타인과의 협력적 삶을 증진시키는 소통 역량을 가진 인간"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표현 및 전달 능력과 함께, 개방적이고, 비판적이며, 자기성찰적인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정창우, 2019).

바) 갈등해결능력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김민수 외, 1995). 때문에 갈등해결능력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가 발생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갈등은 초기 가정에서 형제간의 경쟁관계에서 비롯된다. 가령, 음식을 더 많이 먹기 위한 싸움,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려다가 일어나는 다툼, 학교에 들어간 후 또래 아동 간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더 나아가 집단 간 이익 분쟁,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인종 갈등, 종교 및 문화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다.

갈등해결능력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는 주장을 넘어서서 도덕적 가치와 원칙에 근거한 갈등 해결을 지향한다. 구성적 방식의 갈등 해결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갈등이나 분쟁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을 추구한다(Kirschenbaum, 추병완 외 옮김, 2006; 정창우, 2019). 갈등해결능력은 협동적인 인간관계 조성하기,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 화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감정조절 등 갈등예방능력을 전제로 한다. 갈등해결능력은 갈등관리능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9) 'I Message'는 특수한 행동을 기술하고,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말한 다음, 감정의 이유를 말한다. 가령, "나는 네가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서 화가 나, 왜냐하면 우리 약속에서 신뢰가 중요하니까." I Message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수행적 인성

차원	덕목	정의
수행적 인성	자기 규제	의도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성격 특성으로 '감정, 집중하기, 행동' 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
	회복탄력성	변화와 도전, 좌절, 곤란한 상황이나 역경에 직면해 적응적으로 대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웰빙 상태로 복귀하는 능력
	낙관주의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 사고방식
	그릿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념과 열정으로, 회복탄력성과 끈기를 바탕으로 내재적 동기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
	용기	성공할 확신이 없을지라도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힘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회에서의 편견이나 억압도 참고 옳은 일을 실천해내는 것
	도덕적 가치나 판단을 실행하기 위한 인성, 과업 완수 지향적(mastery orientation) 덕(&기능). 학업이나 직업처럼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탁월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함	

가) 자기규제

자기 규제(self-regulation)는 의도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성격 특성으로(Seligman, 우문식 외 역, 2011), '감정, 집중하기, 행동' 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Greenberg, 2003). 자기 규제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줄 안다. 그래서 자기 규제 능력은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선을 유지할 줄 아는 아동은 학습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Denham, 2015). 아울러, 자기 규제는 자기 통제력을 포함한다. 자기 통제력은 나중에 얻을 더 큰 만족을 위해 순간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줄 아는 만족지연 능력이다. '마시멜로' 실험으로 유명한 바우마이스터(Baumeister, 2012)는 자기 통제력이 모든 덕목의 상위에 있으며, 나머지 강점들을 가능하게 하는 강점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을 규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아동은 자기 앞에 놓인 마시멜로 한 개를 참지

못하고 먹어버렸으며, 마시멜로를 두 개 먹으려고 더 기다린 아동들보다 수행이 서툴렀다. 1년 이상이 지난 후,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기다린 아이들보다 학업성취도와 SAT점수가 더 낮았다(Mischel 외, 안진환, 2015). 결국, 학생이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주도하고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규제와 관련된 인성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규제능력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욕망과 욕구를 알맞게 조절해서 표출하는 힘인 절제는 자기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덕목인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동기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절제를 핵심적인 미덕이라고 하였다(Seligman, 2011). 도덕적 동기와 연결된 자기 규제 능력은 학생의 도덕적 행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나) 낙관주의

낙관주의(optimism)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과 인생을 희망적으로 밝게 보는 생각이나 태도로, 최선을 뜻하는 라틴어 optimum에서 유래되었다. 즉 최선의 가능성을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낙관주의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낙관주의는 실재의 좋은 측면만을 보려고 하거나 선이 악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입장은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는데, 라이프니츠는 “가능한 세계 중 가장 최선의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고 설명한다(Russell, 서상복 역, 2020). 이러한 낙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현재에 감사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악을 방관하며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면, 비교적 최근 심리학에서 낙관주의는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을 통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태도, 사고방식으로 만족감과 즐거움은 높이고 불안과 우울감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열 살 아동에게 낙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 아동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Seligman, 김세영 역, 2010). 낙관적인 사람은 자신이 최고가 될 날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

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한다. 또한,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Seligman, 2011).

이러한 낙관주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와 구별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위험에 처할 일이 적다고 믿는 것이다(Weinstein, 1984). 예를 들어, 자신은 절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거나 질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믿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안전에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등 미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심리학이 강조하는 낙관주의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지속성(permanence)과 만연성(pervasiveness)은 낙관성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이다(Seligman, 김인자 외 역, 2010). 지속성은 한 개인이 절망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나쁜 사건 때문에 느낀 무기력을 지속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쉽게 극복하는지를 가늠한다. 만연성은 절망감의 여파를 다른 영역까지 확산시키는지, 아니면 애초에 일어난 한 가지 영역에만 일부로 한정시키는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 좋은 일은 지속적이고 전부로 설명하고, 나쁜 일은 일시적이고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든 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며 자신이 성공했을 때 그 기회를 한껏 살린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삶 전체에 전이시켜 오랫동안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목표하는 교육은 학생이 낙관성을 지니도록 도와야 하며, 낙관성은 학습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Seligman, 우문식 외 역, 2012).

다)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나타내는 ‘resilience’는 본래 라틴어의 ‘resiliens’에서 출발한 것으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의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Garmezy, 1993). 이러한 ‘resilience’가 교육학에서 차용되면서, 회복탄력성은 변화와 도전, 좌절, 곤란한 상황이나 역경에 직면해 적응적으로 대처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웰빙(well-being) 상태로 복귀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회복탄력성이 현대 교육학의 주요 주제인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교육학의 오래된 물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각해진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이를

개선 또는 예방하려는 노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김윤경, 2020).

회복탄력성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은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기 조절 능력', '긍정성', '대인관계능력'을 중요한 특성으로 포함한다(김주환, 2011). 먼저 내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 성격이 낙관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며 친사회적 행동 기술을 지닌 아동은 보상 기회와 타인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경을 잘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외적 요인은 학생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외적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에 지지적인 가족이나 교사, 친구가 많다면, 혹은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지역 센터나 복지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정보를 제공받고 정서적으로 독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외적 요인은 개인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공감이나 소통을 잘 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사회적 안전망을 잘 구축하면서도 아동이 내적 요인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낙관주의, 유머, 정서 조절, 자기 관리 같은 기술과 공감, 의사소통, 협력 기술 가르치기 포함된다. 또한 긍정적인 학급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동아리나 봉사 활동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속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김윤경, 2020).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수행적 인성과 관련된 인성교육에 포함된 것으로 회복탄력성 교육은 즉 인성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 그릿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으로, Growth(성장), Resilience(회복탄력성), Intrinsic motivation(내재적 동기), Tenacity(끈기)의 약자이며, 심리학자 더크워스(Duckworth)가 개념화하였다(Seligman, 우문식 외, 2011). 더크워스에 따르면 그릿은 재능보다 성공을 더 잘 예측하는 요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하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깊이 이해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Duckworth, 김미정 역, 2019). 그릿은 실패에 직면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이 헌신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회복탄력성보다 포괄적이다. 그릿은 먼 미래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절대 그것을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꾸준함과 관련이 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을 통해 그릿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형적으로 그릿이 뛰어난 사람들은 도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릿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삶에 열정이 있으며, 양질의 연습을 꾸준히 하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나면 타인을 위한 봉사한다는 목적의식을 갖는다. 이들은 자신의 일이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좌절, 실망, 희생 등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다(Duckworth, 김미정 역, 2019). 더크워스는 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두 가지 길 즉, 에우다이모니아와 헤도닉을 통해 설명한다(Duckworth, 김미정 역, 2019). 그릿은 육체적·향락적 쾌락과 관련된 헤도닉보다 고귀한 삶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행복인 에우다이모니아와 더 잘 연결된다. 그릿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타적 목적의식은 도덕적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의 탁월성뿐 아니라 도덕성을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길러줄 필요가 있다.

마) 용기

용기는 성공할 확신이 없을지라도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굳은 의지를 발휘하는 힘이다(Seligman, 우문식 역, 2011). 무릇 용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꿋꿋하게 실천한다. 용기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미덕으로, 어떤 문화권이든 이 강점을 몸으로 보여준 영웅들이 있다. 이런 영웅들은 용감성, 끈기, 정직, 열정을 함께 보여준다. 『국가(Politeia)』나 『니코마코스 윤리학(Ethica Nicomache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기는 서양철학에서 중요한 덕목이었다. 플라톤은 지혜, 절제, 정의와 더불어 용기를 인간이 지녀야 할 네 가지 덕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다. 동양에서도 전통적으로 용기는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맹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는 당면한 도덕적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동기이자 근원으로 큰 용기를 의미했다. 맹자는 용기란 내 삶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선택의 상황

에서 직관적 판단으로 발현되는 것이고, 이 때 내린 결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론적 판단을 통해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자세가 요구되며, 도덕적 용기의 실천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보았다(김민재, 2019).

과거에 용기는 군인이나 위대한 영웅에게 해당되는 덕목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용기는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이며, 용기가 없이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어렵다. 도덕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실천을 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며, 그런 점에서 용기는 도덕적 실천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미숙, 2015). 이에 피터슨과 셀리그만은 "한 개인이 도덕적 용감함에서 실패하면, 윤리적 진정성의 상실을 두려워할 수 있다." 고 했다.

그런데, 도덕적 용기는 무조건 두려움을 참고 견디어 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회에서의 편견이나 억압도 참고 옳은 일을 실천해내는 것이다. 즉, 도덕적 용기는 도덕적 가치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단지 자신의 두려움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용기는 규범성이 내재하여,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고미숙, 201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지나치게 느끼는 비겁한 사람과 대담함이 지나친 무모한 사람 사이의 중용을 이룬 사람이다. 즉,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과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견뎌 내고 두려워하며,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담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다" (Aristoteles, 박문재 역, 2022). 용기는 수행적 인성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성의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다.

4) 지적 인성

차원	덕목	정의
지적 인성	창의성	하나의 사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도 현실에 적응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나 문제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거나 해결해내는 것
	호기심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절하며 그 상황을 탐구하는 것
	신중함	개인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추론과 자기관리의 형태로서 미래를 향한 인지적인 지향성을 지닌 것
	메타인지	인지 수행 과정에서 사고 작용을 인식하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방향과 결정을 조절하는 것
	비판적 사고	적절한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여러 주장과 견해를 평가하는 가운데 진지한 반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해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성 ,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덕(&기능)	

가) 창의성

창의성(creativity)은 독창성과 함께 적응성으로 구성된다. 정신분열증처럼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한 독창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창의성 개념에는 개인의 독창성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옮김, 2009).

전통적으로 창의성은 창조자(Creator)로서의 신의 창조활동에 속했고, 창의의 기원 역시, 뮤즈(Muses)에 의해 영감(inspiration)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시기에 이상적인 인간상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인간으로부터 이탈하여 예술가로서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대두되었다. 가령,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등장하는 '천재' 개념은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동심'과 맞닿아 있고, 그것은 특수한 인간의 소질이라기보다는 인간 일반이 지닌 보편적 소질이다(최문규, 2000). 그런가 하면 니체가 언급하듯이 "놀이하는 어린아이"에게서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로서의 초인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 초인의 이미지는 창의성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윤영돈, 2008).

창의성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네 가

지 핵심역량(4C) 중 하나인데,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간주된다(이지성, 2020).

그런데 예술영역의 창의성과 과학영역의 창의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개별교과교육과 창의성교육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교과의 학업성취(학업역량)는 '창의적 자기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의적 수행'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안동근, 2020).

도덕과에서의 창의성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당위들 간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문제해결력과 결부되어 있다. 도덕적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호기심, 개방성, 집중력, 자신감, 인내심이 요구된다(이연수, 2017).

개별 교과교육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성을 담보한 참여활동, 창작활동 및 제작활동이 핵심적인 학습활동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김재인, 2018).

나) 호기심(성취동기)

호기심은 철학과 과학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와 관련된 인간의 지적 능력 중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형이상학』첫 문단에서 "모든 인간은 본래 앎을 욕구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감각(시각)이 지닌 쓸모(유용성)를 떠나 그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혜(sophia)에 대한 사랑(philos)으로서 철학(philosophia)은 우주와 사물의 본질을 묻는 호기심, 즉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인가?' '자연, 그것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Heidegger, 강성위 옮김, 1978).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영화 줄거리에 몰두하기", "라디오에서 나오는 새로운 노래 주의 깊게 듣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낯선 사람과 격의 없이 이야기하기", "시간의 경과를 괘념치 않고 십자말풀이 완성하기" 등.

호기심은 "도전적인 기회에 대응하는 한 사람의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추구, 그리고 조절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호기심은 "특정한 물체, 사건, 그리고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 상황을 탐구"하려는 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그들의 탐구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호

기심은 성취동기와 결부된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옮김, 2009).

다) 신중함

신중함은 “개인의 장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실천적 추론과 자기 관리의 형태로 미래를 향한 인지적인 지향성”이다(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옮김, 2009). .

신중함의 어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프로네시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천적 지혜에 의한 합리적 선택은 “욕구적 지성” 혹은 “사유적 욕구”로 설명된다(『니코마코스윤리학』, VI.2.4-5), 실천적 지혜는 인지 vs 정의, 추론 vs 직관 같은 이분법적 사유를 지양(止揚)한다. 사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움직이게 하지 못하지만 실천적인 사유는 목적을 지향한다. 실천적인 사유로서 실천적 지혜는 삶의 목적을 지향하며,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덕이다.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인간적 차원에서 좋은 것과 관련하여 이치에 따른 선택 능력이자 개별적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름다운지, 좋은지를 선택하는 덕인 것이다(*N.E.,* 1143b).

신중한 사람들은 단기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충동을 절제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한다. 신중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미래를 계획하고, 장기적 목표와 포부를 갖고 있다.”, “자멸로 이끄는 충동을 견디고, 당장 매력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유익한 활동을 끈기 있게 하는 데에 능숙하다.”, “다양한 목표와 흥미를 조화시키고, 이것들을 안정적이고 분명하면서도 갈등 없는 삶의 형식으로 만든다.” (Peterson & Seligman, 문용린 외 옮김, 2009).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Lebenswelt)이며, 온라인 기반 초연결사회인 가상세계에서는 무심코 한 하나의 행동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러므로 신중함은 고전적인 덕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요구되는 덕이라 할 수 있다.

라) 메타인지

메타인지란,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모니터하는 ‘초인지(招認

知)’의 정신작용으로 사고에 대한 사고, 인식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서상훈·유현심, 2019; 최재붕, 2020). 메타인지 분야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프라벨(J. H. Flavell)은 메타인지 개념을 인지적 모니터링으로 설명한다. 그는 인지 수행의 광범위한 다양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네 가지 현상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본다.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인지적 경험, 목표 및 과제, 전략 및 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활용되고 재구성된다(Flavell, 1979). 브라운 역시 메타인지가 우리의 삶 속 문제해결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 심문으로 시작하는 인지적 실행과정에서 메타인지적 기술로써 예측하기, 계획하기, 확인하기 및 모니터링은 효율성을 높여준다(Brown, 1977). 이렇듯 1970~80년대에 정립된 인지발달 차원의 메타인지 개념이 최근 들어 미래교육의 필수요소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교육의 목료로 지식의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을 사용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 기능, 인성뿐만 아니라 메타인지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Fadel et al., 이미소 역, 2016).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배워야하는지 교육 현장에서 쉽게 간과된다. 그 이유는 우리 교육 현장이 경쟁으로 가득차 메타인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시기, 연습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메타인지는 영재가 아니어도 누구나 훈련하면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전략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Padmanabha, 2020).

메타인지 능력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지적 인성과 덕목과 관련이 있으며, 메타인지의 핵심인 모니터링과 컨트롤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도성과 자율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 모니터링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과정이고, 컨트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후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기 규제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도와줘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과제 수행에 있어 주도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스스로 조절해보는 경험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마)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란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나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

이자 평가이다(Fisher, 최원배 역, 2015). 모든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시도하고 평가하고 제안하는 것의 의미에 관해 질문을 하게 된다(No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이로 인해 비판적 사고는 고차적 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의 깊게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자 사고력을 향상하는 행위로 본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일반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증거와 논증을 바탕으로 여러 견해와 주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요소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에는 인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 과정에서는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를 위해서 참을성과 인내와 같은 정서적 측면이 요청된다. 섣부른 비판적 사고는 오히려 편견을 갖게 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상대방과의 협업을 위한 출발점을 찾게 되고 타협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에 대한 도덕적 헌신과 건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에 안목을 길러줄 수 있어 유용하다(Noddings & Brooks, 정창우·김윤경 역, 201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립맨 역시 비판적 사고는 추론 능력과 더불어 타인 존중, 경청,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Lipman, 박진환·김혜숙 역, 2005). 피셔의 경우 비판적 사고가 도덕과 교화를 거부하고 지적 의견 차이를 허용해 공정한 마음과 지적 통합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치와 태도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Fisher, 노희정 역, 2011).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인성적 자질로서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강조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즉 비판적 사고 과정은 사고와 정서를 연결하여 도덕적 헌신과 행동을 이끌 수 있다. 다양한 의견과 나와 다른 의견을 검토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는 다른 사람의 사고에 반응하는 감정이입과 결합하면서 도덕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된다.

3.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중점

한 인간의 삶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노년과 죽음으로 향하는 일련의 여정이다. 인간의 육체적 성장은 주로 청소년 시기까지 일어나지만, 인간의 정신적 성숙은 평생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 또한 생애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정창우, 2019). 여기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중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기존의 학교급별 인성교육 내지 인성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동일한 인성검사 문항에 대해 초등학교가 전반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중학교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창우 외, 2013; 현주 외, 2014). 그런가 하면 초·중·고 학교급 모두 사회성이나 도덕성(관습, 규칙)에 비해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정창우 외, 2013).

한편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학교급에 따른 인성 수준과 관련하여 초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가 위치했고, 고등학교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에 비해,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수행적 인성은 학교급별 전반에 걸쳐 다른 인성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수행적 인성 함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성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가. 목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를 수립할 때, 국가수준의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종합계획,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함께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문명, 기후변화 및 생태환경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 더 나아가

10) 도덕적 인성은 초등학교(4.14) > 중학교(4.08) > 고등학교(3.97) 순으로, 시민적 인성 역시 초등학교(4.02) > 중학교(3.96) > 고등학교(3.89) 순으로 나타났다. 수행적 인성은 초등학교(3.71) > 중학교(3.44) 및 고등학교(3.44) 순으로, 지적 인성 역시 초등학교(3.82) > 중학교(3.61) 및 고등학교(3.61)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 Ⅳ. 2 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미래사회의 변화 및 개인적 요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학교 인성교육의 첫 걸음으로,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인성교육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나 타인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자기 주도적이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덕과 역량을 습득 및 내면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타당성을 확보한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예의와 배려, 소통, 협동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기르고,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의 기초 역량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Ⅳ.1)에서 교사 및 학생은 초·중·고 학교급 모두에서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이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라고 응답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는 초·중·고 학교급 모두에서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라고 응답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목표는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기초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중학생 시기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성장을 경험하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서가 풍부하게 발달하여 감정이 민감하게 동요하기 쉽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충돌하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소질과 능력, 도덕적 가치나 신념에 대해 탐구하여 자신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나아가 그간 배웠던 도덕적 가치나 신념들이 본격적으로 성격에 통합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자신과 세계를 탐구하여 자신의 도덕적 가치, 신념, 원칙들을 발견하고 정체성에 통합하는 시기이기다. 이러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기초 역량과 덕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에 대해 성찰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정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을 대비해야하는 학교급의 특성상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내실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고등학교의 교과활동 및 비교과 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은 대학 입시와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과활동의 경우, 실천 체험보다는 학문 중심의 주지주의적 학습이 현저하다. 대학입시를 목표로 한 지식 위주의 교육은 '자칫 성적이 좋으면 인성은 큰 문제가 아니야'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교육공동체(가정-학교-지역사회)와 사회 일반에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성'을 지니는 것은 지식 습득 이전에 교육의 근간이다. 고교 내신성적이 좋다고 반드시 인성 수준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고교 내신성적과 인성 수준은 상관이 없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고등학교급에 놓여 있다(윤영돈, 2015).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서 내용타당성을 확보한 고등학교의 인성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 지향적 관심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내용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내용은 본 연구진이 설정한 인성의 4가지 차원(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에 기반하여 제시될 수 있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4가지 인성 차원의 덕과 역량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필요한 다양한 인성의 덕과 역량을 가르쳐 습관화한다면 중·고등학교에서 반복 및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 경험 범위나 수준을 고려할 때, 4가지 인성 차원에 속하는 덕과 역량들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최소한 "① 초등학생의 시기에 꼭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인성인가? ②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인가? ③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습득 및 실천이 가능한 인성인가? ④ 초등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가?" 등을 기준으로 그 범위나 비중의 측면에서 위계화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에 속하는 덕과 역량들은 초등학생부터 중점적으로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에 속하는 덕과 역량들 중 초등학생 시기에서도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것에 초점을 두어 범위와 우선 순위에서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주요 내용은 첫째, 도덕적 인성으로 한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 가치 및 덕(정직, 존중, 감사, 정의), 자기 규제 및 기본예절(효, 규칙 준수), 둘째, 올바른 관계 형성(인간 상호관계는 물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 및 AI와의 관계까지 포함) 및 공동체적 삶을 위해 필요한 공감/배려, 협력, 책임, 공동체 의식. 소통능력, 갈등해결능력, 도덕적 민감성 등 시민적, 수행적 인성과 관련된 것, 셋째,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능력, 창의성, 호기심 등의 지적 인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학교

초등학교가 즐겁게 사회화를 통해 사회 규범과 가치를 익힐 수 있는 데 비해, 중학교 단계는 일종의 반사회화의 단계로서 당연시해왔던 사회 규범과 가치에 대회 회의적이고 거부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니체의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초등학교가 기존의 사회 규범과 가치를 기꺼이 짊어지는 '낙타'의 단계라면 중학교는 기존의 사회 규범과 가치를 거부하는 '사자'의 단계에 상응한다. 중학교 단계를 인간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사실 철학적 인간학자인 막스 셸러는 인간의 고유한 본성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음에서 찾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에서 인성교육은 학습자의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발달 단계에 부합한 인성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세계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주제들을 들을 수 있다. 자기이해와 자존감 형성과 관련된 주제가 대표적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행적 인성의 사회 정서적 능력의 자기탐색, 자기 인식, 자기관리, 자존감(자기 효능감) 향상, 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 사고, 호기심과 집중력 향상의 기초 역량과 관련된 주제, 도덕적 인성 도덕적 가치나 신념, 원칙에 대한 주제, 타인과 관계 맺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갈등해결 실천하기 등이 대표적인 주제이다.

온라인 인성교육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인성 및 시민성에 관한 내용주제로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디지털 매체의 도덕적 지식 및 활용과 관련된 예절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 인성이 어떻게 도덕적 인성과 연관되어 지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행적 인성의 덕들을 집중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3) 고등학교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디지털 문명 시대"를 고려할 때 지적 인성 중에서도 "비판적 사고교육" 및 "자기주도적 학습교육(디퍼러닝)"이

요구되고, “인공지능 시대”를 염두에 둘 때, 지적 인성과 결부된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이 요구되며, 도덕적 인성과 관련된 “인간존엄교육”이나 “인문학적 감수성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불확성 시대”를 직면하여 관련 사안의 윤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공동 해결을 위한 협업 능력 등과 결부된 “시민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기관리 및 조절교육”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대인관계 교육” 등 “사회정서학습”(SEL)이나 “회복탄력성”교육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중점은 고등학교급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 중학교급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핵심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 및 참여와 관련한 주제들을 들 수 있다. 가령, AI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 기후변화시대의 세계공동체 이슈 및 글로벌 시민의식, 참여적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역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논의들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의 주요 관심사인 진로문제와 연계한 주제 개발도 필요하다.

다. 방법 및 전략

인성교육의 방법 및 전략과 관련하여 학교급별 인성 함양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접근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의 대표적인 대상은 인성을 구성하는 4가지 차원(도덕적, 시민적, 지적, 수행적 인성) 및 사회정서적 역량,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활동 및 교과 외 활동, 학교 인성교육과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간의 유기적 연계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다룰 필요가 있다.

1) 초등학교

가) 다차원적 인성의 통합에 기초한 통합적 인성교육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 2022〉에 따르면 4가지 인성 차원에 속한 덕과 역

량을 알고, 이해하고, 적용・시연(범)・실천하는 것의 통합 가능성을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있다(부록 참고). 4가지 인성 차원과 사회정서적 역량의 통합은 배운(알게 된) 4가지 인성 차원에 속하는 덕과 역량을 실제로 잘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skill)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 습득을 병행하고 연계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또한 특히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가정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급의 인성교육을 수립할 때부터 학부모를 참여시켜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노력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도덕과 중심의 교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 인성교육

초등학교는 담임을 중심으로 한 교실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한 덕이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담임교사가 추가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지속되지 않고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 수업은 어떤 교사든 준비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 인성교육의 요소를 투입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특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특히 바른생활 및 도덕 교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덕과 역량을 가르치고(이러한 기본적인 덕과 역량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자기 이해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기 신념화를 다지는 기회 제공), 다른 교과에서는 각 교과의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바른생활 및 도덕 교과에서 강조한 덕과 역량을 반복, 체험, 연습, 지지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덕과와 국어과의 교과 융합은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활동 중에 도덕과에서 강조한 덕과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국어과의 고유 목표인 정확히 그리고 유창하게 읽고, 말하고, 쓰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과에서 배운 덕과 역량(경청, 공감, 자기 주도적 도덕적 행동화 등)을 체험, 성찰,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도덕과와 체육과의 교과 융합을 통해 정직, 배려, 책임, 협동심, 규칙 준수 등을 익힐 수 있으며, 도덕과와 음악과 및 미술과의 교과 융합을 통해 훌륭한 음악사의 모범적인 삶에 감동받아 그렇게 살고있는 의지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교과 융합적 인성교육을 위해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문제해결학습

(PBL)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사유, 선택,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도 중요한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놀이(play)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 및 체험위주의 습관화

초등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놀이는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덕과 역량을 익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놀이를 통해 긍정적 행동이나 정서를 반복적으로 강화하여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적인 덕과 역량은 한번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되지 않기에 지속적인 반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재미있게 익힌 덕과 역량을 교과활동, 교과외 활동,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주 실천, 연습, 체험, 반복하여 내면화함으로써 배운 덕과 역량이 요청될 때 자연스럽게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라) 기본적인 덕과 역량의 실천 기능(skills) 습득 강화

초등학교 인성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로 기본적 덕과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당위적 접근에만 머물고 정작 알고 있는 중요한 덕이나 역량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능 습득에는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는 알고 있는 기본적 덕과 역량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기능 습득에도 관심을 두어 효과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기능 습득은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는 사회정서적 능력 또는 기능 습득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

인공지능 시대 및 디지털 기반 온라인 수업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시대에 알파 세대에 부합하는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챗봇, 모바일 게임, VR 어플리케이션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의 방안을 강구하여 적절하게 접목하여야 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은 디지털 활용 과정에서 인성 문제를 유발하는 약점도 있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습 심리에 부합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중학교

가) 협력적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중학교 교육목표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기초 역량과 덕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에 대해 성찰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발휘하여 도덕적 정체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 과정에서 인성과 관련된 교육목표를 중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인성함양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온전한 자기이해는 자기 주도적 성찰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을 반성적 성찰하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이해를 할 수 있게되어 체화된 인성의 경지를 스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의 인성교육은 또래들과 협력하는 협동형 자기주도학습, 즉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협력할 때 계발할 수 있다. 다른 잇점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협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급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

나) 학교공동체 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 교육

코로나 19 기간 동안 사회적 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이나, 또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들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

안감이나 초조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이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정서 안정, 교우관계 형성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대면 접촉 감소로 발생한 사회성, 공감능력 부족 문제 개선을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22. 9.6).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정서역량을 키울 수 있으려면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사와 학생 구성원 모두가 인간 존재로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문화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김선희 외, 2020). 학교 차원의 사회 · 정서학습의 관계형성 기술 향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나눔의 문화와 민주적이고 행복한 학교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협력적인 관계 맥락 내에서 사회정서학습을 실행하는 일은 현재 학교 현장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왕따, 부적응 문제, 친구 관계 등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진행하여 학급이나 학교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관계 형성, 관계 개선,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생활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감정코칭, 공동체 놀이, 신뢰 서클, 존중의 약속, 비폭력대화 훈련, 학급회의, 또래 조정활동이 있다. 둘째, 갈등 해결이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 서클, 긴급 개입 서클, 회복적 상담, 의사결정 서클, 회복적 질문을 통한 성찰문 쓰기 등이 있다. 셋째, 피해, 가해가 명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 회복적 대화 모임, 회복적 서클 등이 있다(Morrison, 2005) .

다) 마음챙김 교육을 통한 수행적 인성 함양

Ⅳ장의 인성지수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에 입문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비해 수행적 인성이 급격히 하락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욕구 조절에 자주 실패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의지나 조절 역량 자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규제를 높이는 첫 단계는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집중하며 알아차리는(자각하는) 연습이다.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자각하는 연습은 욕구나 충동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사회 · 정서적 건강의 기초이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사회 · 정서적 기술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며 상황과 장소, 대상에 맞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회 · 정서적 기술의 활용과 함께 마음챙김이 필요하다. 마음챙김은 비판적 알아차림으로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 속에서, 비(非)판단적으로, 순간 순간의 경험의 전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나타나는 알아차림" 혹은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김철호, 2017).

- P=멈춤(pause). 일이 어렵다고 느낄 때 멈춰라
- E=내쉬는 것(exhale). 숨을 내쉬고 들이 쉬어라. 단지 숨 쉬기를 유지하라.
- A=인정하고(acknowledge), 받아들이고(accept), 허용하기(allow). 어떤 상황이든 인정하고, 그 상황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받아들이고, 고요한 곳에서 쉬면서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지켜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 C=선택(choose).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몇 분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라.
- E=관계(engage). 이제 당신은 사람들과, 상황과, 삶에 관여할 준비가 된 것이다.

마음챙김 교육은 심리적 정서적 위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종의 치료로서 심리정서 지원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 이후 정서적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낮은 수행적 인성 (특히 회복탄력성과 그릿)으로 도덕적 실패를 경험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정서적 위기를 예방하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유리, 2020).

라)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도덕적 정체성 기르기

중학교 시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자유학년제 도입이 권고된 이후 2022년 1월 기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제, 3

학년 2학기는 진로 연계학기로 운영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에 맞추어 자유학기제에 자아 이해 및 도덕적 정체성 확립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중학교 시기는 자아를 확립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건강하게 정립해 가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하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그 기간 중에는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심지어 자살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걸 보니... 어찌 보면 사춘기에는 (자기이해와 자존감 관련한 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춘기는)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보니 (이런 교육을 통해) 본인의 소중함을 깨닫고 타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 이00, 40대 중반 -

이러한 자아 확립의 활동은 도덕적 자아 형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먼(Damon, 1984)에 따르면 아동기의 자기 이해는 자신의 신체, 능력 및 거주형태, 복장, 특징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신체적 자아가 주를 이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이 속하고 있는 집단이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들을 발달시켜간다. 여전히 자기 이해는 도덕적 가치나 원칙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뤄진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의견에 민감하며 자신의 평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도덕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도덕 영역에서의 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독서활동과 더 넓어진 사회관계 및 이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 안에 포함된 가치나 이념들을 분석하며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서전 쓰기 활동에서 여성혐오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이해하며 여성주의라고 이념의 관점에서 자신을 재 발견하였다(송여주, 김석윤, 2018). 미국 청소년을 연구한 데이몬(Damon)의 연구 사례에서도 청소년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평화주의자이다.", "나는 미국적으로 사고한다." 등과 같이 진술하며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들이 자신의 중심적 요소에 두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중학교 시기에는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로의 이행은 도덕성과 자아간의 분리와 부조화로부터 통합으로의 진행으

로 대표될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기 중반이 될 때까지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도덕적 자아를 발견하고 정체성의 일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교

가) 진로교육 및 정규 교육과정과의 접목

초·중·고 학교급에서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1순위 36.3%, 2순위 16.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글쓰기, 독서, 철학 등 인문학적 소양교육(1순위 20.3%, 2순위 18.8%)이었다(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2021.6.22.).[11] 고등학교급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학진학에 초점을 맞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성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도, 효과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2019)에서도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1순위: 초등 46.0%, 중학교 39.9%; 2순위: 고등학교 24.8%)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나 고등학교 급에서는 진로교육이 1순위였고, 다른 학교급에 비해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2019년 35.6%, 2020년 34.9%, 2021년 37.2%)가 높게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부(2020.10)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교과교육과 분리된 일회성 행사는 지양(止揚)하고, '정규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을 지향(志向)한다. 특히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별도의 일회성 행사 성격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인성교육 접근방안을 고려할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인성교육'과 '진로교육')와 개별 교과(내 교과목)의 성취기준 간 연계표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12]

---

11)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온라인플랫폼(www.eduforum.or.kr)에서 실시(2021.5.17.-6.17)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참여 설문」 조사에 10만 여명이 참여한 결과이다.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으로 2022 총론 시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1순위 5.6%, 2순위 10.1%)과 민주시민교육(1순위 5.1%, 2순위 8.2%) 및 디지털 기초소양교육(1순위 3.8%, 2순위 7.6%)은 그 필요성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게 나오지는 않았다.

1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관련 성취기준을 교과(목) 교육과정의 부록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 및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안전·건강 교육", "인성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고등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데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으로 '고교학점제'를 들 수 있다.[13] 2025년부터 전면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 제도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결부된 진로 학업 설계가 강조된다.

이상과 같은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급에서의 인성교육은 '정규교과' 안에서 범교과 학습으로 접근하되,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접근할 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탁월성과 도덕성의 통합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신 반영 정도가 크지 않거나 수능 교과목이 아닌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인성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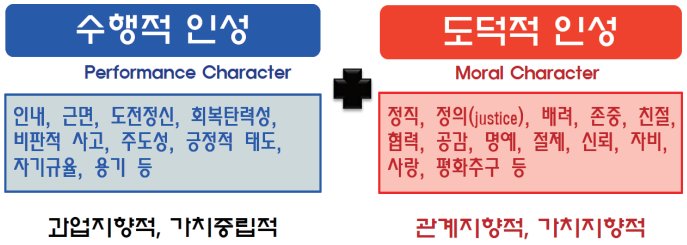
고교 인성교육의 가능 근거로서 데이비슨과 리코나 등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Davidson & Lickona, 2006; Davidson, Lickona & Khmelkov, 2008: 유병열 외, 2012; 박병기 외, 2014; 윤영돈, 2015; 윤영돈, 2018). 리코나와 데이비슨 등에 따르면 인성은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수행적 인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발휘와 결부된 탁월성(excellence)을, 도덕적 인성은 도덕성(morality)을 지향한다. 예컨대 수행적 인성은 인내심, 근면함, 회복탄력성, 도전정신, 비판적인 사고, 주도성, 용기, 긍정성, 자기규율 등과 같이 유혹이나 저항(어려움) 등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으로 볼 수 있다면, 도덕적 인성은 정직이나 정의(justice), 배려와 협력, 존중 등 핵심적 도덕 가치를 의미한다.

수행적 인성은 "과업 지향적"(mastery orientation),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닌 데 비해, 도덕적 인성은 "관계 지향적"(relational orientation), 가치지향적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들 수 있다.

13)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2018~2021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2022~2024년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의 추진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교육부, 2021c).

성격을 지닌다. 고등학교급에서 개별 교과목의 고유한 학습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행적 인성이 체득될 수 있다. 가령, 학생들은 수학 교과목에서 미적분 내용을 배우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인내'나 '정확성'을 체득할 수 있고, 체육 교과목을 통해 '용기'나 '강인함'을 체득할 수 있다.



[그림 Ⅴ-5]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
(출처: Davidson & Lickona, 2006, pp. 5-6 정리)

고등학교 단계의 인성교육은 이들 두 가지 종류의 인성이 결합될 때, 그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행적 인성은 개별 교과목의 고유한 학습목표를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익힐 수 있고, 수행적 인성과 함께 도덕적 인성은 도덕과, 국어과 및 사회과 등에서 익힐 수 있다. 특히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인성을 내용적 측면과 교수·학습 및 평가의 측면에서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형태로 체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결핍될 경우, 인성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인성이 결여된 수행적 인성은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수행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타인의 과제물을 표절하는 등 그릇되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덕적 인성은 도덕적 목적을 지닌 '수행'을 선택하도록 동기화시키고, 그러한 도덕적 목적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게 한다. 그런데 수행적 인성이 결부되지 않은 채, 도덕적 인성만으로는 좋은 목표나 의도를 실행에 옮기는 게 매우 어렵게 된다. 이를 테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했더라도 자신감이나 재능, 조직능력과 인내 등 수행적 인성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활동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탁월성’과 ‘도덕성’, 즉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통합을 추구하는 고등학교 단계의 인성교육은 쉴즈의 인성 개념으로 확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쉴즈는 개인차원의 인성을 지적인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차원의 풍토(문화) 간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Shields, 2011).

요컨대 고등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지적 인성 및 수행적 인성, 사회적 인성 및 도덕적 인성 간 결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합은 명시적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 같은 학습활동 및 학업성취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인성교육은 도덕적 인성을 바탕으로 하되,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 시민적 인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의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이들 개인 차원의 인성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 참여·실천을 촉진하는 인성교육

고등학교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급에서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은 개별 교과의 목표 및 내용요소에 인성 및 덕목을 반영하거나 학생의 주도성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이를테면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수업, 배움 공동체 수업, 거꾸로 교실 등을 통해 학생의 인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교과 간 융합수업, 창의 체험활동과의 연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학문 중심의 교과목이 부각되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실효성은 학습자의 참여·실천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및 협력 학습 등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를 통해 일정부분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양정실 외, 2013).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및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박선화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에서

는 창의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감성능력을 함양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역량은 인공지능이 지니기 어려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미래의 교수 · 학습에서는 주제탐구형 수업, 프로젝트 학습, 문제중심 학습 등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성 및 주도적 문제해결력 신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과 영역별 미래 교수 · 학습 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문사회 영역에서는 토의 · 토론 학습(1순위), 협력 · 협동학습(2순위), 프로젝트 학습(3순위), 문제해결학습(4순위), 질문중심학습(5순위) 순이었다(박선화 외, 2017). 본 연구(V.1)에서도 프로젝트 학습 및 협동학습이 미래 인성교육의 중요한 교수 · 학습 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 프로젝트 접근법

대표적인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모형인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한 고등학교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 프로젝트 접근법은 구성주의 학습원리에 근거하며, 학습자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시한다.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교사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접근법을 통해 학습자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체득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과 결부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절차로 '준비하기 → 주제선정 → 프로젝트 계획 → 정보 탐색 → 과제해결 → 결과물 개발 → 발표 → 평가'를 들 수 있다.[14]

프로젝트 접근법의 주된 목적과 취지는 절차나 단계보다는 '삶으로서의 학교와 학습'에 있고, 학습자의 주도적 · 능동적 참여와 몰입을 촉진하고, 존중, 협력, 갈등해소, 역할분담, 의사결정 및 선택 등 공동체 정신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기능을 익히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과 결

14) 프로젝트 학습의 절차는 학자별로 다소 상이하다. Chard의 4단계('예비단계 → 프로젝트 시작 → 프로젝트 활동의 단계 → 프로젝트 마무리'), 텔렌의 6단계('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 → 탐구계획 수립 및 역할 분담 → 탐구활동 실시 → 발표 준비 → 발표 → 평가') 등을 들 수 있다(이미숙 외, 2012).

부되어 있다(윤은주, 2003; 윤은주, 2006).

고등학교 보통교과목 중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은 수능대상 교과목이 아니므로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하다. 가령,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진로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동아시아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가 있고, 융합 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가 있다.

이들 교과목은 ‘학문적 탁월성과 도덕성을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접근법의 일환인 “과제연구”(Research & Education; R&E)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다(윤영돈, 2018). 여기서 학문적 탁월성은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제연구에서 “학문적 탁월성”만 추구할 경우, 지적 인성 내지 수행적 인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 인성은 간과되기 쉽다. 때문에 과제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행적 인성을 도덕적 인성과 통합할 수 있도록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교사가 학습자를 지도할 경우, 과제연구를 통한 인성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과제연구는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고에서도 정규교과나 학술동아리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탐색·숙고하고, 읽기·말하기·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및 표현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 간에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익힐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적인 성과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몰입과 성취감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 더 나아가 시민적 인성도 체득할 수 있다.[15]

15) 가령 ‘줄기세포연구’와 결부된 생명윤리 관련 과제연구를 진행한다고 할 때, 과제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학생의 희망 진로를 고려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경제학(혹은 윤리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의 경제적 가치(혹은 윤리적 문제)를, 생명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배아 복제 연구의 과학적 가능성과 한계를, 언론 홍보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영화 및 언론에 나타난 과학의 유토피아 및 디스토피아의 측면을, 교육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배아복제연구와 관련한 설문조사와 교육적 측면을,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제연구의 지향점이 드러나는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후 개별 내용을 창의융합 보고서 형식으로 통

고등학교 프로젝트 활동은 교실을 넘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도 있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변화와도 결부되어 있다. 기존 도서관이 도서 대출 및 열람 중심의 정적인 공간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서관은 협업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지식을 생산하는 동적인 공간이다. 가령, 일본의 미래 교수 · 학습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루미 종합고등학교에서는 1학년-2학년 기간에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 분야 및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3학년 때 본격적인 과제연구를 통해 연구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이러한 개별연구는 문헌고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방법 및 실험절차를 도서관에서 안내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매년 학생연구보고서 및 포트폴리오를 비치하여 활용함으로써 고등학교의 연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박선화 외, 2017).

▶ '고전과 명저' (Great Books)를 기반으로 한 토의 · 토론 교육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일명 VUCA로 표현되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두들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이 아니라 '편향되고 왜곡된 세상' 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마트 폰에 과몰입하고 있다.

고전을 읽고 토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쓰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전을 읽고 그것을 매개로 말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도 가능하고, 배움의 공동체로서 비경쟁적이고 협력적인 토의도 가능하다(윤영돈, 2021).

인공지능은 제작자가 정해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확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해 준 과제를 풀 수 있을 뿐, 문제와 목표는 스스로 설정하지는 못한다. 문제제기 및 목표설정 능력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고유한 것이다(김재인, 2018).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버그가 생기면 작동을 멈추지만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버그나 고장이 나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수렴되는

합할 수 있다(윤영돈 외, 2015).

물음뿐만 아니라 발산하는 물음도 제기할 수 있으며, 예술적인 창조성을 바탕으로 제기된 물음을 해소할 수 있다(김재인, 2018).

미국 세인트존스대학의 카넬로스 총장은 고전을 기반으로 한 교양교육은 "다방면에 균형 잡힌 인간"을 육성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여전히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4C 핵심역량(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이나 구글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등과 같은 소프트 스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Kanelos, 2018; 이용화 · 이유정, 2021).

세인트존스대학의 고전을 기반으로 한 비경쟁적 토의세미나 모델을 고등학교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16] 이를 테면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등 동서양의 고전이 포함된 교과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전을 기반으로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을 통해 도덕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다. 가령, 고전을 매개로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지닌 질문을 토론 참여자와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구체화할 수 있다. 고전을 기반으로 한 비경쟁적 토론 및 글쓰기는 마치 소크라테스가 민회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장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젊은이들과의 비공식적 토론을 하듯이, 고전을 기반으로 한 읽기와 말하기와 쓰기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명시적 교육과정과 함께 잠재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인성교육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EBS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제작팀, 2019).

16) 세인트존스대학의 세미나는 교수자(tutor)와 학습자의 역할 및 진행방식에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교수자 2명과 학습자 20명(이내)이 사각형으로 배치된 큰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텍스트를 두고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교수자는 토론을 촉진하는 튜터(tutor)로서의 성격이 현저하다. 세미나를 시작하는 질문을 제시하지만 후속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최대한 촉진한다. 세인트존스대학의 세미나 모델은 교수자(튜터)가 학생들에게 학설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공언(profess)하는 교수(professor)로서의 역할은 제한하고 지양한다. 때문에 세미나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은 교수자-학습자 간의 대화 구조보다는 "학습자-학습자 간의 대화"의 양상이 현저하게 부각되며,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매개로 한 질문과 문제를 제기하면, 동료 참가자들은 그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물음과는 다른 논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세미나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역동성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료 참가자에 대한 정서적 태도 및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패가 있는 디베이트(찬반토론)는 지양하고 학습자의 이성적 측면 및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대화(dialogue)로서의 비경쟁-열린 수업 방식"이다(이용화·이유정, 2021).

라. 평가 및 환류

학교급별 인성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과목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인성'(도덕적, 시민적, 지적, 수행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1) 초등학교

인성교육에서 평가의 의미를 자칫 사람의 됨됨이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평가 방법을 선택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상 인성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이때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인 도덕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업 시수와 더불어 수업의 내용, 방법뿐 아니라 평가 방법을 안내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도덕과 수행평가에서 활용되는 체크리스트, 포트폴리오 등 학습자의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인성과 관련된 기초 내용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 인성교육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학생의 고정적인 특질에 대한 평가로 접근되거나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학생이 다차원적 인성을 함양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평가를 해야 한다. 또 학생 및 학부모가 인성 평가 결과를 해석할 때, 특정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지나치게 문제 행동처럼 여기거나 특정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여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 관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한다.

특히 학년 군 간 학습 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초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및 환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1-2학년 군의 경우, 한글 학습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언어 중심의 평가보다는 그림, 사진, 연극 등 비언어 중심의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 과정을 하나의 즐거운 학습 과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4학년 군은 활동 중심으로 평가하되, 일기쓰기, 체크리스트, 공언하기 등의 방법과 더불어 학급 보상제도 등을

통해 실천 및 습관화가 이뤄지도록 안내한다. 5-6학년 군에서는 지적 인성의 초보적 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성찰일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등의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한편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중학교

중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다차원적인 인성' (도덕적, 시민적, 지적, 수행적 인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흥미로우며 충실했으며 학습목표를 도달하였는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수·학습과 연관하여 과정중심 평가로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인성평가 이후 표준화 인성도구를 활용한 자기보고 방식뿐만 아니라 교사의 친사회적 행동 관찰, 학생 상호 평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경우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범위를 학습자 만족도,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인성지수, 개선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효과성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를 하여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백워드 교수-학습 설계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방법은 교육 효과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인성교육 관련 주제를 재구성하여 계획하는 단계에서 인성수업의 목표와 결부된 측정도구(삶의 목적, 회복탄력성, 도덕적 민감성, 진로효능감 등)를 개발하여 교수-학습 내용이 목표와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고등학교

인성교육과 관련한 평가는 개별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며, 주로 자기보고식 평가이므로, 인성 평가가 대학진학이나 취업의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왜곡된 반응을 보일 소지가 크다. 인성교육에서 평가의 목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평가는 학생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촉진하는 피

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어야지 점수나 등급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과 관련한 평가는 다차원적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과정중심 평가의 패러다임과 결부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자기보고 방식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 관찰, 또래 평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고, 교과 활동(혹은 비교과 활동)으로 실시한 인성교육의 성과를 학교생활기록부(세부능력과 특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교과교육에서 인성교육 관련 주제를 재구성하여 계획하는 단계에서 인성수업의 목표와 결부된 측정도구(삶의 목적, 회복탄력성, 도덕적 민감성, 진로효능감 등)를 선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학생의 성장 및 발달과 인성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VI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 1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 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실천 과제 3

Ⅵ.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란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인성교육적 대응을 내용으로 하고, 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인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다움의 한 측면으로 논의된 디지털 시민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인공지능 윤리 등을 포함한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에 더해 에듀테크 활용을 포함한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되짚어 보고, 교육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전개하기 위한 방향 제시하고자 한다.

1.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

디지털 사회 진입에 따른 교육은 주로 정보윤리 교육에서 최근 디지털 시민성 교육으로 발전해왔다.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 원칙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한 직접적인 연구는 드물다. 하지만 인성의 하위 요소로 분류되는 예절, 책임, 공감 등은 정보 윤리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

1) 인성교육 차원의 정보윤리 교육 현황

가) 네티켓을 통한 기초 예절교육

네티켓이란 넷(network)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온라인 공간에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절이다. 네티켓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하는 예절이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대한 강조로 이뤄진다. Shea(1995)는 네티켓의 핵심 규칙을 제시하며 가장 먼저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더라도 상대방이 인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추병완, 2000). 익명성에 기초하여 이뤄진 온라인 특성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네티켓을 지키는 것인지 알리기 위해 사용영역별 네티켓 규범을 제시하였다(김명숙, 2006). 각 내용은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 온라인 대화를 할 때,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등의 예절에 대해 상황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익명성을 기조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등이 쉽게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면대 면으로 사람을 만날 때처럼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상대도 사람임을 기억하고 예의를 갖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언비어, 속어, 욕설 게재를 삼가고 상호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유익한 자료를 공유받았을 때에는 자료를 올린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등 일상에서 예절을 지키는 것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언어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온라인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주고 받지 않는 것이다. 대면 의사소통이 주로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온라인을 활용하면 영상, 사진, 음성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자료를 유통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 페이크, 딥 보이스 등 상대의 영상이나 목소리를 위조하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는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공간은 정보 확산의 속도가 오프라인에 비해 빠르고, 정보의 지속력이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일단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고 난 뒤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이에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셋째,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삼간다.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올릴 때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을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상의 네티켓 내용은 일상적인 예절로 강조해왔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서 경어 사용, 감사 표현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점검하는 태도 등을 일깨우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과 연관성을 갖는다.

나) 인터넷 과몰입/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중독이란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강선경·차유정, 2021).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개념도 파생되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조절실패) 개인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고 중요한 활동으로 나타나나며(현저성), 그 결과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문제적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만 3-69세) 중 24.2%가 과의존 위험군으로 보고된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변인은 가족 관계, 또래 관계, 학교생활, 인터넷 특성 이외에도 자기 통제력, 정서와 같은 요인이 작용한다(김동일 외, 2017). 인터넷 중독 예측 변인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기 통제력으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만족을 지연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서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내용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스트레스가 높거나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과의존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김지온, 2021; 노승현, 2022),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은 중독의 결과에 대한 인지와 대안 활동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근본적인 수준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강선경·차유정, 2021).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임진숙 외, 2005; 김동일 외, 2020). 첫째,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이용 패턴을 만들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사용 패턴을 점검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요일, 시간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로 인해 생활에 끼친 영향이 없는지 검토한다. 둘째,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다. 자신이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는 근본적 문제로서 스트레스, 부정적 감정, 낮은 자아존중감 등 원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 심리상태로서 감정과 충동을 인지하고 이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뤄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들어 자신의 핸드폰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사용시간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장소, 심리상태 등에 따라 대체 활동을 계획해두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지를 호소하고 인터넷 보상 활동을 감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이처럼 정보윤리에서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인성과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는 점(Munno et al., 2017)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적 처방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경우 온라인 게임 중독 성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신우열 외, 2009)를 토대로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회복탄력성을 함양해주는 것은 정보윤리의 문제에 대해 인성교육적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절제나 성실의 가치는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인성 특질이 될 수 있다. 성실의 가치를 통해 과의존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고, 절제의 덕목을

내면화함으로써 과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행적 인성으로 포함되는 목표 설정, 그릿 등을 통해 인터넷 과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기술을 기를 수 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 실천하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꿋꿋하게 노력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의 발생 원인을 교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인성교육적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의 적대적 표현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된다(이승현 외, 2015). 사이버 폭력의 유형은 <표Ⅵ-1>과 같이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와 같은 행위로 분류된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표Ⅵ-1> 사이버 폭력 유형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유형	정의
사이버언어폭력	인터넷,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불특정 다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원치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이나 문자(쪽지)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 등에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신상정보유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정보(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사이버 갈취	인터넷에서 나의 사이버(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
사이버 강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거쳐 사이버 폭력 경험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꼴로, 성인은 10명 중 1.5명꼴로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혼자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가해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 동기를 조사했을 때 상대에 대한 보복 행동으로, 재미나 장난으로 시작하는 경우,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했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사이버 폭력 가해 동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 결과가 초래하는 법률적 책임에 대한 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법률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자각이 있으며, 또 성인 역시 악성 댓글 정도의 사이버 폭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 가해 동기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즉각적인 보복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으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감, 죄책감 등을 느끼기 쉽지 않아 폭력적인 행위가 더 증폭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언어로 폭력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체적인 폭력보다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폭력 행위는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기록으로 존재하고, 유통되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특성 때문에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더라도 자신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 일상에서 억제했던 행위조차 통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인성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습자의 공감 능력, 자기 조절 등을 길러줌으로써 학습자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한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개발된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맞춤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 의사소통, 자기 존중감,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 자기 조절, 감정 조절, 사이버상의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사이버 폭력 인식 및 대처의 항목을 통해 학교급에 따라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7] 각각의 주제는 인성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내용들로 인성교육의 주요 근거 이론으로 활용되는 사회정서학습의 기술로 제시되는 자기 관리, 타인과의 관계 기술을 비롯해 도덕적, 수행적, 공동체적 인성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인성교육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인성교육 차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시민성 교육 현황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두 가지 개념을 종합하는 용어라 볼 수 있다(윤혜림, 2021). 정보리터러시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다양한 측면을 이해, 평가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초기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의미와 같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다뤄지거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접한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박하나 외, 2021). 예를 들어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와 테크놀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지식,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52, 노들, 2022에서 재인용). 그러나 디지털 기반 생활이 확장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시민성’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식에 더해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활용 기술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맥

17)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topbullying.re.kr/mps), 검색일: 2022.12.23

락에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김진숙, 2020).

국내에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의 일상화 경향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 향상의 요구가 반영되어 2021년을 기점으로 더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최지혜 외, 2022). 디지털 시민성의 뜻을 살펴보자면 유네스코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생성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역량,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역량” 등으로 정의한다(김법연 외, 2021).

리블(Ribble, 2011)은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관한 규범”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소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비롯해,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보안 또는 자기보호, 디지털 권리와 책임 등을 제시하였다(배서현 외, 2019). 좀 더 넓게는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 요소로 온·오프라인에서 인간의 책임, 존중, 공감, 소통, 권리, 참여의 문제를 비롯해 자기이미지와 정체성,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성과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문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박보람 외, 2019).

일반적으로 시민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관계 설정시 중첩적인 영역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달리, 디지털 관련 논의에서는 시민성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하위 내용 요소에 인성교육에서 다루던 내용을 비롯해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이중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깊은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의 정체성, 자기보호, 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디지털 사회의 정체성

김대군(2012)은 자아정체성은 타자에 의해 주어지는 인성적 특성의 집합체로 정의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이 다중 정체성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실의 자아와 괴리, 다중적 자아의 분열 문제 등으로 인해 윤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공간에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온라인에서도 인격적인 형태로 발현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별도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공간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체성을 바로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하다.

디지털 공간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갖는 특수성 또한 존재한다. 자신이 가진 특성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비대면 환경과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은 ID로 대변되는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질 수 있다. 포토샵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내거나 인공지능 배경 합성을 사용해 내가 있고 싶은 장소에 내가 있는 것처럼 가상의 정보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서의 자아는 “개개인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남긴 개인정보나 활동정보를 통합, 분석해 제 3자가 제시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으로 정의된다(조성은, 2013).

대체로 현실 세계에서 다중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병리적 문제로 여겨지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적 성향을 발견하고 조화를 이루는 경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요한, 2016). 다중 자아의 형성이 적절히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의 나와 가상 공간의 나, 또 가상 공간의 여러 가지 나의 모습에 괴리가 생기는 것에서 정체성의 혼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 자기 표현 욕구를 투영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최근순, 2002)

더욱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자아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디지털 공간에서 도덕적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도덕적 일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병완, 2012). 다양성과 일관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추구하며, 본능적 충동을 절제하는 자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나) 디지털 사회의 자기보호

디지털 사회의 상호작용은 시공간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직접 시간 약속을 정하고 특정 장소에서 만나야 의사소통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다. 이러한 개방적 상호작용의 특징 때문에 정보 침해, 해킹, 정보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추병완, 2011). 이 문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 기술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상에서 서로 알고 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유통되고 이로 인해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해킹을 통해 불법 공유되는 일까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보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달라는 요구는 청소년을 비롯해 예비교사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이준 외, 2022). 디지털 사회에서 자기 보호는 신체적인 형태라기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18]

SNS에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을 때 담긴 개인정보의 양은 생각보다 많다. 단순히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올린 사진일지라도 이미지에는 방문한 장소, 시각, 같이간 사람, 입고 있는 옷, 먹은 음식 등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기술이 검색 기능과 결합되면서 개인의 쇼핑 목록, 검색 기록, 위치정보 등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방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게다가 공적 생활에서도 국가 행정 서비스 등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킹을 신고하고

18)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 검색일:2022.12.24.

사이버 고충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9] 또 개인정보 보호가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기술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령별 특성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20]

다) 디지털 사회의 책임

디지털 사회에서는 개발자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사용자로서 소비자의 영향력도 폭증하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단을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SNS에서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이 가진 영향력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 극대화되어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임상수, 2019).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거의 영구적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한 결과에 대한 책임의 지속력 역시 오프라인보다 훨씬 길다. 가짜뉴스, 유언비어 등의 정보를 만들고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자신이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하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소비자로서 자신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때 악용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원래 기술이 개발된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 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까지 악용하지 않도록 책임 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의 책임은 이렇게 도덕적 원칙이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책임 위에 책무의 개념을 포함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흔히 인성적 요소로 언

19)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secondPage), 검색일: 2022.12.24.
20)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 검색일: 2022.12.24.

급되었던 책임은 responsibility로 사전적 수준에서 의미를 보자면 과제나 사물을 다루는 의무에 해당한다. 디지털 시민성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책임은 accountability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박기범(2018)은 책임(accountability)의 개념이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 시작된 개념임을 밝히며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시민에게 매년 업무보고서(account)를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고, 시민은 이를 보고받을 권리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시민성에서 필요한 책임이란 제도에 따르는 의미의 법적인 책임(responsibility)보다는 시민의 자율적 권리에 기초한 책임(accountability)의 개념이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자율적 판단을 내리게 되면서 책임의 개념은 설명 가능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으로 연계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이 여타의 기술과 달리 자율적 판단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 결과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을 개발 및 활용하는 데 있어 설명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상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자, 책임자, 관리자의 행위 주체에 따른 책임에 관한 세부적 내용으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기술의 사용자로서 기술을 오남용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한편 예비 개발자로서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인성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인성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어떤 방향에서 활용방안이 탐색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 조사의 범위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이 검토된 2019년 이후로 한정하여 디지털 기술의 시의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교수·학습 자료 개발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효과성이 검증된 수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교육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내용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연구 현황

인성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현황은 다음 <표 Ⅵ-2>와 같다. 주로 온라인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인성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이는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인성교육의 효과를 재고할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이뤄진 현실적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수준까지는 개발되지 않고 기술 활용의 가능성과 방향 정도에 대한 제언이 이뤄지고 있다.

<표Ⅵ-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내용
송선영	2019	인간과 인공지능형 로봇간의 관계에서 도덕과 인성교육 과제 연구	인공지능형 로봇과 시스템 확대에 맞춰 시작된 코딩교육에 대응하여 타 교과 코딩교육의 내용 요소를 검토하여 본래적 인성 함양을 위한 과제를 검토함.
조정호	2019	4차산업혁명시대 교육의 개선방향: 인성교육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위가 부여될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라 인성교육의 과제가 인간 이외의 존재에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토대로 인성교육 개념 정립의 필요성 밝힘.
김윤경 박균열	2020	Rubrics and Schoolwide Approach to the Character Education and Some Implications to 인공지능-Based Character Education.	인공지능 기반 인성교육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 전 과정이 모듈화 되어 절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8단계의 절차를 제시하고 개별화된 맞춤식 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분석한 데이터나 프로그램 효과성 비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힘.
김봉제 박균열	2020	Concern-Based Acceptance Model for Character Education and Some Implications to 인공지능 Ethics	인성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성별에 따른 관심도 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윤리적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박미현 허균	2020	인성교육을 위한 언택트 시대 원격교육 사례 연구 : 교수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원격교육 실행 후 학습자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인성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 설계 개선 방안 제안함.
이경미	20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가방안 연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안함.
조재형 고재석	2021	코로나시대 고전기반 온라인 인성교육 교육 효과성 분석	대학 인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실행 후 개발한 평가척도를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함.
박형빈	2021	초등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용 인공지능의 도덕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인공지능 기술 종류에 따라 자동화, 적응, 통합, 설명 등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함.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강의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 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제시함.
윤정진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융복합 온라인 수업모형 개발 연구	영화를 활용하여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융복합 온라인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디지털리터러시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전문가 평가결과를 제시함.
이난	2021	코로나시대의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피드백을 활용한 대학의 교양강좌 운영에 관한 연구	온라인 수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컨텐츠 제작 관련 기술적 자질 향상이 중요하며 온라인 피드백을 통해서도 인성 영역의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함.
김국현	2022	2022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시안)에서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목표로서 초연결 인성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Rest의 4구성요소에 비추어 제시함.
김국현	2022	2022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시안)에서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목표로서 초연결 인성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Rest의 4구성요소에 비추어 제시함.
원은석	2022	팟캐스트를 활용한 대학 교양 인성교육의 효과	거꾸로학습법과 과제중심학습법을 적용하여 수업 전 과제로 팟캐스트를 듣고 수업시간에 토론 및 심화활동 수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검증함.

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 현황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인증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현황은 <표Ⅵ-3>과 같다. 이하의 프로그램은 이미 2장에서 한 차례 소개된 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특징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증된 프로그램 자료가 모두 웹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디지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5개 정도로 파악된다.

<표Ⅵ-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 현황

기관	연도	프로그램명	특징	적용 대상
교육부	2017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학생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 -인지적 역량에 IT 언어로 8시간의 코딩 수업 포함	초
	2020	사이버미학	-초등5-6학년, 중학교1-3학년 대상으로한 정보윤리 주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수업환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방안 제시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 저작권법에 관한 이해 내용 포함 -패들렛, 니어파드, 띵커벨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규칙	초(5-6) 중
	2021	언제어디서나 우리는 존중과 책임	-대면, 비대면 수업으로 구성 -학생 자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보호자로 구성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내용 전개 ex) 공동체 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 -존중, 책임 강조	초,중
	2021	네 손을 잡아줄게	-관계와 진로의 기초가 되는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하기 -자기 탐색 및 표현 어플 사용 -자기효능감	초
	2021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	-미래세대 생명존중, 동물복지 교육 필요성 -e-book형태로 제공 -프로그램 연계 영상 콘텐츠 QR코드 형식으로 제공	초

			-존중, 사랑, 공존	

다섯 개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은 어플리케이션 활용, e-book 등으로 아직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은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 중 차후 심화된 기술 활용을 위해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글로벌브릿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일하게 인성교육에서 코딩교육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학년군의 특성에 맞춰 직접적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흥미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하위 요소에 인지적 역량을 제시하고 그 안에 IT 언어를 포함하여 인성교육과의 관계를 설정했다. 이는 코딩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인성교육에서 주로 강조하는 도덕적 가치덕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지만, 인성교육의 내용이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공동체적 인성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 기술 활용의 내용과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

가. 디지털 생활에서 발생하는 인성 문제 대응

지금 세대의 특성은 태어났을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것으로 디지털 네이티브(Digtal Native)세대(Prensky, 2001, 이연승·김주원 역 2019)로 불리운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면대 면을 기본으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그 일상 공간이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세대의 삶의 양식에 맞는 인성교육 필요성이 대두된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행동 양식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말 그대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은 비단 일상생활에서 직접 만나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해두기만 하면,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 'instagramable' 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유행함에 따라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의사 결정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삶에서 디지털 공간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밀착되어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공간의 생활이 일상생활의 의사결정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혐오 표현의 소비 경로를 살펴보면 디지털 생활공간에서의 윤리적 삶이 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혐오 표현은 모바일,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SNS 등에서 증오를 선동하거나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 혐오를 표현하는 것으로, 동조 및 지지를 구하며 혐오를 표현하는 유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때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혐오 표현을 할 가능성이 크고, 범죄 행동으로 표출할 가능성도 높다(조제성·조윤오, 2019). 온라인에서 사용된 혐오 표현은 정치인, 대중스타, 인플루언서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혐오 표현이 담긴 용어가 고유 명사로 만들어져 온·오프라인에서 소비되는 양상을 나타난다(정희진·조아미, 2019).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혐오 표현과 관련된 실태조사(2021) 결과에서도 혐오 표현을 경험하는 곳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높게 나타난다. 혐오 표현의 대상은 여성, 출신지역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게임이나 개인 운영 방송, 채팅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혐오 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공간은 온라인의 뉴스 기사댓글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약 60%로, 혐오차별이 증가한 결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거나 범죄로 이어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이 오프라인 삶에도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생활과 관련한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

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행동 기제 자체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연구 결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폭력행위가 온·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낮은 자기 통제력, 비행친구와의 접촉, 부모의 강압적 양육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라인에서는 긴장과 화, 폭력 용인 태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오프라인에 둘 다 유의한 요인이었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가장 강한 요인이었던 반면 온라인에서는 그것보다는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가 통제력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다(이성식, 2006).

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언어폭력 가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검증한 연구에서도 오프라인에서는 연령에 따라 가해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온라인에서는 연령과 가해의도에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주관적 규범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넷의 폭력행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한다면 폭력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성용은·윤병훈, 2017). 이처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시민성 등 소양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생활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 방법 혁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활용으로 인한 사회 및 산업 체제 전반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송영근 외, 2022). 기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이 정보 처리 과정의 변환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는 사회 변화를 의미하였다면 2010년 대 이후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지식 활용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송영근 외, 2022).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도구로 디지털 기술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교육정책 비전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0).

또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향상, 인공지능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명, 디지털 혁신 지원 교육환경 구축, 교육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정보화 역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원격수업이 보편화되었지만,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1단계 교육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1996년 무렵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컴퓨터 교육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활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던 교육은 2000년을 기점으로 <2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ICT 활용을 촉진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사이버대학이 인가되고 이러닝 지원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혁신계획이 마련되었다. 2006년 <3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유러닝체제를 지향하며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2010년 <4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스마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2015년부터 시행된 <5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도입되었고 2019년 인공지능 기술혁신을 토대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발표되었다. 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6단계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인공지능 교육을 더하여 지능정보학습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교육부, 2021a).

짧지만은 않은 교육 정보화 역사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갖는 특징은 인공지능 기술을 축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원격교육이 갖는 특이점이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이 전개된다는 점이었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체제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을 인공지능으로 보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 기회 제공을 늘리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내용을 반영하고, 방학(방과 후) 수업을 확대하고 있다(교육부, 2022b). 또 <인공지능교육진흥법>제정을 추진하여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교육

부, 2022b).

물론 디지털 전환이라 하여 인공지능기술을 단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이뤄지던 원격교육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21] 이때 원격교육을 단지 온라인 교육으로 좁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 ·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학습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코로나 시기 원격수업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에듀테크(edutech)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등장한 단어이다(홍정민, 2017). 에듀테크는 이러닝에 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닝이 온라인에서 강사의 강의 능력에 집중해 만들어진 교수-학습 모델이라면 에듀테크는 학습, 기억, 공유 등 학습 전반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 운영 및 학사관리로 응답하며,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이옥화 외, 2021). 또 상호작용이 적다는 비대면 원격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한형종·홍수민, 2022).[22]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표Ⅵ-4>와 같이 에듀테크에 대한 기능과 종류를 유목화한 내용을 담아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

2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subMenuId=15#undefined

22) 메타버스(metaverse)는 일반적으로 현실과 유사하거나 현실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여 다양한 사용자가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세계로 실시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게더타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대표적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표Ⅵ-4〉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교육부·한국학술정보원, 202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에듀테크
학습 콘텐츠	교수 학습 지원 자료	수업지원	디지털 교과서, 똑똑! 수학탐험대, Vrew, 잇다(ITDA), 지식샘터, Noteshelf
		학습지원	라이브워크시트, Seesaw Class, 띵커벨, 콴다, 구글 아트앤컬쳐, 스마트북클럽, AI 펭톡, 칸아카데미, 토도수학, Fraction Challenge
	자기 주도 학습	실감형 컨텐츠	구글스트릿뷰, 구글어스, 실감형 콘텐츠, 사이언스올 실감형콘텐츠, CoSpaces Edu, 스텔라리움, UniteAR, Quiver, 서커스 AR
		SW교육	라이트봇, 스크래치, 야미코딩, 어메이징 드론, 엔트리, Orange 3, 이솝, Code.org., 팅커캐드, 누리 VR코딩, 스케치업, 아두이노, 카미블록, 파이썬
		AI교육	구글두들바흐, Blob Opera, Deep Dream, Scroobly, AutoDraw, AI for Oceans, KT AI 코딩 블록, 퀵드로우, TensorFlow, 티처블머신, 머신러닝 for 키즈, Affectiva, AI Duet, Power BI
소통	영상 활용	화상수업	게더타운, 네이버웨일온, 온에어스튜디오, EBS 온라인클래스, 이프랜드, e학습터, MS팀즈, ZOOM, 스타림 야드, U-Smarter, 미더스, 카카오워크
	텍스트	마인드맵	MindeMeister, XMind, OKMINDMAP
		실시간 협업	구글잼보드, NearPod, 맨티미터, Allo, WorldWall, 패들렛, WHITEBOARD, fi
창작	자료	저작도구	Number piece, 네이버 클로바더빙, 망고보드, 미리캔버스, brook creator, 알지오매스, Explain Everything, 키즈페인트, PENUP, 구글프레젠테이션, Sway, ArtRage, office365, 이비스 페인트 X, 파워포인트, 프레지
		영상제작	유투브 스튜디오, 키네마스터, 플립그리드, OBS Studio,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관리	학급 운영	과제관리	구글클래스룸
		일정관리	Notion, 원노트
		구성원 관리	클래스팅, 위두랑
	평가	교사 피드백	Socrative, 카훗, QuizN, 클래스카드, 구글설문지, MS 폼즈, plickers
		AI 피드백	Classting AI, 노리 AI 스쿨 수학, 매쓰플랫, 밀크티

또 지속 가능한 교육 정보화를 위해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 이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 개선하는 한편 학부모 온(On)누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교육부, 2022a). <2030 경기미래교육>과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역시 미래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해 디지털 교육 환경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학생들은 학교라는 일상적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 절약, 과제 제출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험했던 원격 수업이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에 동의하면서, VR 기술을 활용해 수업의 방식을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김현자 외, 2021). 학생뿐 아니라 교사 역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경우가 증가하여 기성세대 교사에 비해 컴퓨터와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SNS 활용 비율이 높고,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영향력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구하라 외, 2022).

인성교육의 실행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한 에듀테크 활용에 대해 검토가 요청된다. 즉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기존에 활용되어 오던 온라인 기반 수업에 더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VR 등의 기술이 접목된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의 활동과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실천 과제

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목표 설정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자칫 인성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방향에서 교육 목표가 설정된다면 교육 실행 과정에서 인성적 측면보다 에듀테크에 대해 더 흥미를 보이는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 방향이 기존의 인성교육과 어

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도 역시 기존의 인성교육과 같이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나타낸다.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지점이다. 첫째, 인성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되는 맥락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과거에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 진화의 역사를 되짚어 인간 이외의 생명체보다 뛰어난 인지능력, 사회성,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였다. 혹은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인간 존재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김기숙, 2017), 인간만이 갖는 이성에 근거하여 인류의 절대적 존엄성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고유 역할이 대체되면서 과연 인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습과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와 같이 고등정신기능을 인간다움의 특징으로 한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인공지능 로봇의 우수한 판단능력을 바탕으로 나타난 인간과의 유사성은 상징적인 수준에서나마 로봇을 인간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것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돌봄 로봇 등을 통해 타인을 돌보는 감정적 측면의 행위도 기술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감성을 타 존재와 비교하여 갖는 인간 고유 특질로 정의하는 것 역시 한계가 노정된다.

인간의 창의성을 대표하던 예술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성이 높은 창작품이 제작되고, 법적으로도 저작권의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지위가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기술이 완성단계가 아니라 2050년 즈음 인공지능 기술의 특이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기술이 인간다움을 상징하던 부분을 대체하게 될지 모른다. 더욱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인간이 갖는 특성 조차,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이 논의됨에 따라 인간 이외의 존재가 도덕적 행위자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는 기존 인성교육에서 ‘인간다운 성품과 특질’이라고 여겨졌던 내용에 대해 반문하며, 어떻게 인간다움을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기술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생의 특정 시기에 학습한 인성교육의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끊임없이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사색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은 디지털 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성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성교육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인성교육은 주로 대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인성 문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에 반해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은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성적 문제와 더불어 그 외에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성 문제에 주목한다.

즉 인간을 둘러싼 생태 환경이 인간, 자연 이외에 디지털 환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좁게는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 양식을 논의하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로봇 등 비인간 존재에 대해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기존의 인성교육에서 다루던 문제의식보다 확장된 범주에서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디지털 기반의 인성교육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과 인간의 생태 환경의 확장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성문제를 다룬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이에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목표는 ‘디지털 기술 변화를 고려하여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바람직한 성품을 갖추고, 행위 양식을 탐구하여 실행한다’와 같이 설정하여 교육의 의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내용 구체화

1) 디지털 시민성과 인성의 균형 추구

2019년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역시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만들어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응하고자 법률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술의 응용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인공지능 논의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은 2022년, 메타버스와 관련된 윤리 원칙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이는 큰 틀에서 사회적 규범을 만들고, 이에 대한 교육으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접근으로 개인의 자율성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한계가 노정된다.

물론 이렇게 원칙을 만들고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하는 것도 시민으로서 해야하는 역할이지만,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사회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행위할 수 있는 기초 인성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임상수(2021)는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정 설계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악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주의 접근, 미디어 활용과 생산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방향,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접근 방향은 포함된 반면 개인의 자율적 규제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디지털 교육에서 바람직한 행위자와 관련된 논의가 개인의 인성적 특질에 기초하여 논의되기보다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으로 종합되어 다뤄져왔던 경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인성과 시민성에는 중첩된 영역으로서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택과 갈등 상황에서 도덕적 인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 행위하는 도덕적 인성의 고유한 영역도 존재한다(정창우, 2019).

학습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요건이라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방향에서도 역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스스로 윤리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서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개인의 윤리적 삶이 인성, 혹은 도덕성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바, 그동안 시민성 중심으로 이뤄져온 디지털 기반 교육에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김국현(2022)은 디지털 윤리를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윤리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레스트의 4구성 요소 이론에 기초하여 디지털 윤리 역량을 제시

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디지털 시공간에서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영향을 윤리적 관점에서 상상하는 ‘디지털 민감성’, 디지털 시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윤리적 원리와 규칙에 따라 추론하는 ‘디지털 판단력’, 다른 가치보다 윤리적 가치를 중요히 여기며 도덕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대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디지털 윤리적 동기화’, 개인이 윤리적 행동대안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으로서 ‘디지털 윤리적 품성’ 등의 내용을 제시한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민교육이 시민적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의 문제에 대응해왔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도덕적 인성에 비중을 두고 자율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2) 디지털 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는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포함해야 한다. 인성교육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인간다움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삶의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혹은 인간다움을 향상하는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이때 인간은 디지털 기술의 전환을 맞이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화하고 이를 탐구하여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예절 문제는 디지털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측면에서 교육이 확충되어야 한다. 초창기에 온라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청소년이나 성인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사회 분야가 확충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예절 교육의 대상이 유아, 노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안내하는 기본적 내용부터, 온라인에서 나타났던 ‘익명성’이라는 장치 뒤에 비인격적 행태가 나타났던 것처럼, 챗봇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역시 기술 뒤에 놓인 상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장미영·박찬홍, 2020).

다음, 디지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소양을 기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은 개인이 취미를 향유하는 사적 공간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수용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성숙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을 길러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나 시민성교육에서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동체적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 변화의 핵심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활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사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여,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교육에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학습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소프트웨어와 달리 '자율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지현아, 2017).

이에 디지털 사회의 윤리적 문제 역시 온라인에서의 다중정체성, 비인격화 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 사용의 합목적성, 자율적 판단의 윤리적 기준 등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인공지능 윤리 담론으로 수렴되고 있고 국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인공지능 윤리의 3대 기본 원칙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요약된다.

먼저 인간 존엄성 원칙이란 인간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계 제품과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사회의 공공선 원칙은 가능한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발활용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의도에 맞게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림Ⅵ- 1]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요건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인공지능윤리의 교육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능 정보화사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AI 원리로 배우는 AI 윤리>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2).

이러한 사회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티켓,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 기존의 논의를 아우름과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기술을 포함한 내용까지 확장한 디지털 사회의 모습에서 필요한 인성적 측면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이에 따라 인간다움을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인공지능 윤리의 논의가 윤리 원칙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성적 측면을 부각하여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를 종합하여,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기존에 초등 5-6학년

군에서 정보윤리를 다루던 내용을 확장하여 초등 3-4학년부터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탐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제의 범위 역시 네티넷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탐구하는 한편 인간과 인공지능로봇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22c). 또 중학교 단계에서는 가상공간과 현실을 비교 분석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여 디지털 미디어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과학 기술의 범주를 넓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안내하고 있다(교육부, 2022c).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윤리를 제시하여 정보윤리, 미디어 윤리, 인공지능 윤리 등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도록 안내한다(교육부, 2022c).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사회의 윤리적 문제로 정보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인공지능 윤리의 내용을 포함하되 교육 대상의 나이, 기술 활용 수준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의 난이도 달리하여 교육한다. 교육 내용선정 시 유의해야 할 것은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에서 디지털 교육과 인성교육의 대상은 전 연령의 국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이 시기에 직접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과 달리 호주, 싱가폴,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유치원)과정부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이영호, 2022).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유치원생 등 미취학 연령 뿐 아니라 노인인구, 고등교육기관의 학령인구,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교육 대상의 특징에 따라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방법의 현실화

1) 교육 플랫폼 구축에 대비한 종합적 인성교육 설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사용했던 에듀넷 티 클리어에서 한 단계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진로 설계 등의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에서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전반적인 학습 관리 차원의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플랫폼이 완성된 이후에는 인성교육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프로그램 전후 참여한 인성 평가에 참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습자에게 맞춤식 인성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평가 환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어 학습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인성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유도 용이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에서도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존재했는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수업 결과의 공유가 용이해질 수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을 이용하면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해 유아, 노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의 내용을 학습하고 코칭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학교 밖의 환경에서는 인성교육 컨텐츠를 접하기는 쉬워도 학습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차후 디지털 기반 학습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학교 밖 학습자가 자신의 인성교육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맞춤식 학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술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미 중국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의 학습 태도를 점검하고, 이 결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교사와 가정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습자의 동선까지 모니터링하여 학교에서 생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23] 즉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경우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의존이나 대면 활동 상호작용 감소,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환경이 어디까지 국내에 적용될 수 있을

23) https://www.youtube.com/watch?v=JMLsHI8aV0g, 검색일: 2022.12.22.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게 될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형태가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교육의 결과를 수합하고 환류하는 거시적 시스템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동향을 조사하거나, 향후 정책 제안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24]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 담당 인사를 발령하여 교육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 환경 자체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성교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비단 수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방향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김윤경·박균열(2020)의 연구에서처럼 인성교육의 전 과정이 모듈화되어 절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인성교육 요구 분석 데이터, 프로그램 효과성 데이터 등을 구축하여 향후 플랫폼을 활용해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

2)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 자료 개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 방법을 확장하는 첫 걸음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반영된 교육 플랫폼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인성교육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기술의 활용과 인성교육의 실행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디지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전개한다는 것은 발전한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삶의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존에 활용해온 전통적 인성교육 방법 이외에도 디지털 환경

24) 교육부, 빅데이터로 본 주간 교육동향 카드뉴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1&lev=0&statusYN=W&s=moe&m=0310&opType=N&boardSeq=92939, 검색일: 2022.12.22.

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이 단지 신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다양한 데이터 및 도구를 활용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교육 활동 자체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혼자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교실 수업과 달리 온라인 수업에서 실재감을 느끼기 어려우며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다(박주현 외, 2021). 특히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에 어렵고, 원격 수업 진행 과정에서 초상권, 저작권 침해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권점례 외, 2020).

지금까지는 주로 인성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 학습 컨텐츠 개발에 중심을 이루었으며 어팩티바, 튜터링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이 일부 논의되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온라인기술 이외에 빅데이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에듀테크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렵다면 적용되기 어렵다. 일례로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널리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된 것과 달리 접근성이 좋지 않아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옥화 외, 2021).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피드백 결과를 수합하여 현장에서 활용이 편리한 기술을 중심으로 수업자료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효과적이라면, 기술의 접근성에 따라 교육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학습격차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기기 및 프로그램 사용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온라인 학습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역할 비중이 높다(강유진 외, 2021).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디지털 기반 원격수업 관련 법에서도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25] 또 <표Ⅵ-5>와 같이 교육분야 인공지능 분야 윤리원칙에서도 에듀테크의 활용 목적은 인간 성장에 있음을 밝히며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Ⅵ-5>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개요(교육부, 2022d)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개요	
적용대상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
권리·책임주체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
원칙의 성격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
대원칙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10대 세부원칙	교육분야 인공지능은 1.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2.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3.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4.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5.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6.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25)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對面)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

	7.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8.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9.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10.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이미 정부는 상대적 디지털 훈련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디지털 융합훈련 시설 확대 설치해 지역 청년의 접근성 제고하고, 디지털 분야 초급훈련에 접근할 수 있도록 AR, VR, 메타버스 등 접목한 원격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2a). 또한 도서지역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디지털 문제해결센터(가칭)를 설립해 농어촌 도서지역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장애학생대상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SW 교육 자료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2a).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실행과정에서 교육 기회가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VII

요약 및 정책 제언

연구의 요약 1

정책방안 제안 2

Ⅶ.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문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에 확산되면서 교육 전반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준비해야 한다. OECD는 미래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학습자들이 변혁적 역량을 갖추고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번영인 '웰빙(well-beibg)' 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을 제안하며 학습 틀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인성교육 전반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인성교육의 방향과 전략,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우선 인성교육 정책 변화 및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인성교육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포괄적인 법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법' 에 근거하여, 매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세워 발표해왔는데, 주로 주체적·공공적 시민역량 강화에 목표를 둔 시민적 인성교육을 추진해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를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 방향성 정립" 을 추진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펜데믹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소통, 공감, 배려, 예의(바른 언어)에 인성의 영역에 한정되어 인성교육이 논의되고 있다. 국외 인성교육으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학생의 번성과 행복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 인성교육협회(Character.org)는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인

〈인성 및 사회정서 발달 국가 지침서(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이하 CSED, 2022)를 발표하여 사회정서학습과 통합한 새로운 인성교육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영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와 같은 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을 발표해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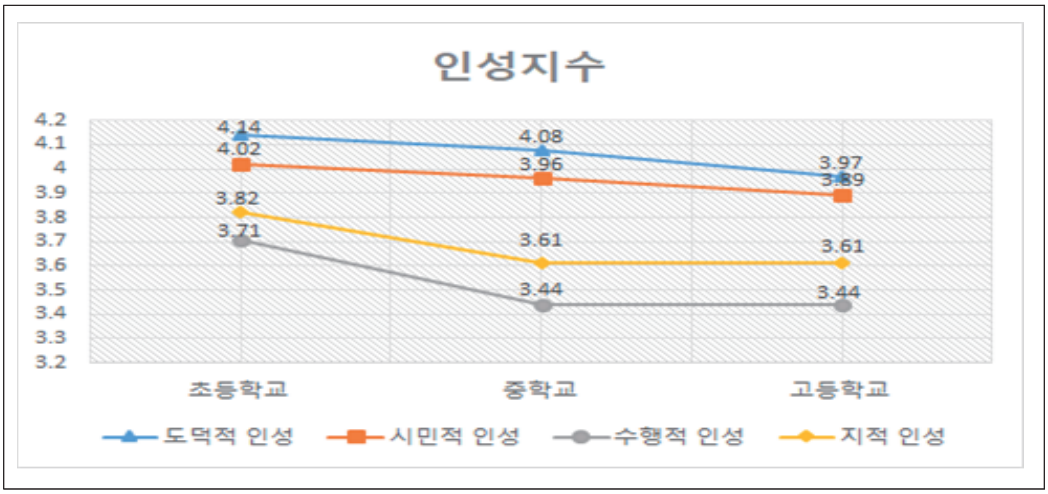
Ⅲ장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밝히고 인성교육의 틀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은 미래교육에 대한 활발한 담론을 가져온다. 디지털 문명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미래 사회의 변화가 개인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이 진전될수록 이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으로 다차원적 측면의 인성(the multiple dimension of character)에 기초한 인성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수행적 인성과 도덕적 인성의 통합을 강조한 데이비슨과 리코나(M. Davidson & T. Lickona)의 논의에서 좀 더 확장된 논의로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이 총체적으로 연관된 인성 모델이다. 공감과 배려와 같은 도덕적 인성은 인내, 끈기, 용기 등과 같은 수행적 인성이 부족하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고, 공적인 일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적 인성을 발휘할 때도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지적 인성이 요구된다.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 역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이 결여된다면 비도덕적 목표를 위해 지적 탐구와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차원적 인성교육은 어느 하나 결여되지 않고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Ⅳ장에서는 학교 인성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와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학교급의 인성지수를 조사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학부모·교사는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인성교육의 방향 전환에 동의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성교육의 효과성에 낮은 동의를 보였다. 그리고 미래 인성교육의 틀에 근거하여 인성의 구인을 도덕적 인성, 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설정하고 인성별 하위구인을 설정하였다. 4영역 20개의 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Ⅶ-1>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인성

지수와 시민적 인성지수에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값이 낮아지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 차원의 인성지수 중 수행적 인성이 가장 낮으며 지적 인성, 시민적 인성, 도덕적 인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과 공동체에서의 도덕적 가치나 규범, 사회적 기대 등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잘 관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좀 더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호기심을 갖고 용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시사한다.

[그림 Ⅶ-1] 인성지수 결과





Ⅴ장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래 인성교육은 디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사회 변화이외에도 갈등, 대립, 양극화 시대, 미 디어 및 정보사회의 문제들, 미래사회로 인한 교육방식의 변화를 대응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맞추어 비판적 사고교육, 자기주도 학습, 인간 존엄성 교육,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을 포함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필요한 교수-학습 방안으로 ①프로젝트 학습 ②협동학습 ③논쟁수업 ④봉사학습 ⑤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이 선호되었다.

경기도 인성교육 비전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으로 인성과 역량의 구분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은 총체적 개념으로 덕과 역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인성이 덕이며 선천적 성격이라면 역량은 사회적 기능이나 가치와 무관한 능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과 역량은 구분될 수 있으나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인성의 네 차원의 덕들과 사회 정서적 역량들이 인성발달은 물론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을 길러 도

덕적 인간과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나와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한다. [그림 Ⅶ-2] 미래사회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은 네 차원의 인성교육의 틀과 6가지 원리를 제안하였다.



[그림 Ⅶ-2] 인성교육의 구조와 전략

사회 정서적 역량의 토대 위에서 ①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과외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 ②인성 친화적 교실 &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한 인성교육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 & 회복적 생활교육 연계) ③인성 발달을 고려한 학습자 주도적 인성교육 ④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한 인성교육 ⑤학교 및 프로그램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환류하기 ⑥대면- 비대면이 전환되어 인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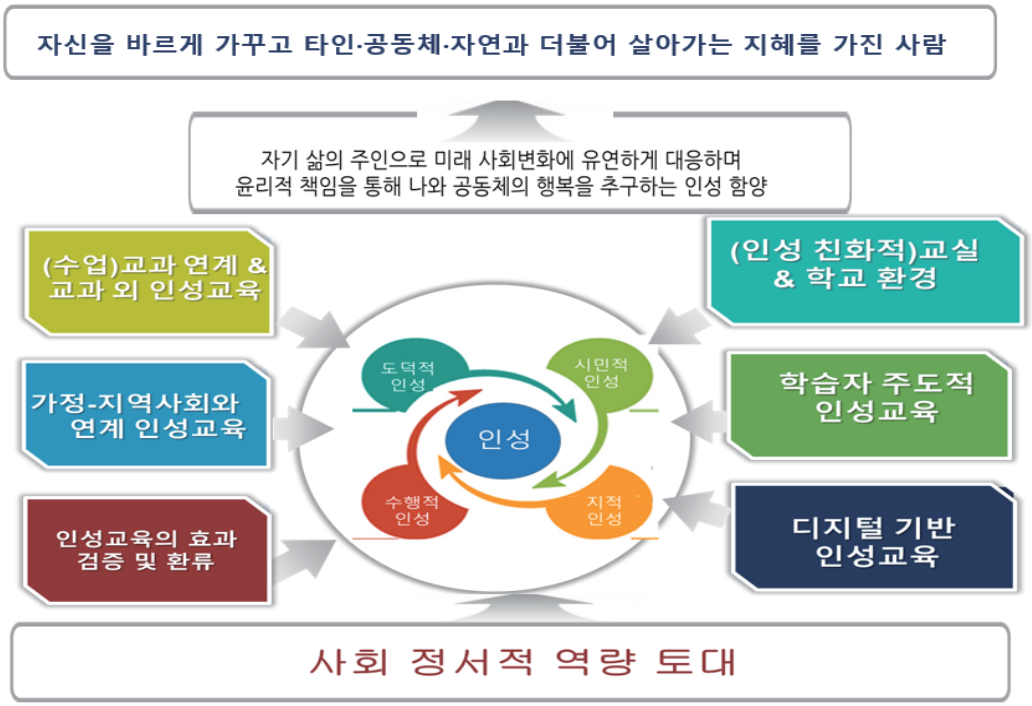
Ⅵ장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진입한 이래,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으며 온라인 기반 삶이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비실재감과 익명성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인간의 도덕적 행위 동기를 감소시키는 바, 이에 대한 인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생활에 초점을 맞춘 인성교육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인성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혁신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의 핵심기술 변화를 고려

하여 인성교육의 실행에 직접적인 연계성을 밝히는 교육” 으로 정의하고 그 필요성과 내용,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먼저,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였다. 정보윤리 교육에서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네티켓을 통한 예절교육, 인터넷 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한 긍정적 정서,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절제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공감, 의사소통 등의 교육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시민성 교육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정체성 문제, 자기보호, 책임 문제가 인성교육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향후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은 개인의 인성 특성에 기초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간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정보윤리, 디지털 시민성, 인공지능 윤리 등 디지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된 윤리적 이슈를 망라하되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추출하여 교육 대상별로 선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방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교육환경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변모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인성교육 분야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방법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후 포괄적인 수준에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실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술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인성교육 모델은 [그림 Ⅶ-3] 과 같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성교육의 목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미래 사회변화에 대처하며 자신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여 자신과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림 Ⅶ-3] 경기 인성교육의 모델



정책 제언 1 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

미래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 지적 인성을 통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의 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그리고 인성교육 진흥법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개념을 도덕적, 시민적 인성만이 아닌 수행적, 지적 인성으로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및 학교 밖 교육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을 길러** 도덕적 인간과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나와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자신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로 ‘자기 삶의 주인 되기’와 ‘나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기’로 재정의하여 인성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번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합하는 정책적 틀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중심의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함양’을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으로 인성의 네 차원으로 구체화하였다.

<표 Ⅶ-1> 인성교육 범위의 재설정

영역	기존의 인성교육	본 연구의 제안
목표	•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함양 •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의 덕과 역량으로 구체화

		• 지혜로운 사람,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 (&자기실현)
내용	• 도덕적 인성교육, 시민적 인성교육과 관련 덕과 역량	•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의 균형있는 통합적 지도
쟁점	• 인성교육의 중점 -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 수행적 인성교육의 강화 - 성찰과 습관형성, 기능의 교육 ◆ 지적 인성교육의 강화 -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교육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체화하였다.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아래에 포함되거나 대체되어 추진된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계획은 시민이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성이나 도덕적 가치관(도덕적 인성), 또는 개인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수행적 인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지녀야 할 주도성이나 성찰 능력(지적 인성)과 같은 인성적 요인들을 포괄하기에는 협소한 인성 개념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의 해외 사례에서도 인성교육은 시민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수행적 인성, 지적 인성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인성지수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수행적 인성지수가 가장 낮으며 학생들은 이를 인식하고 인성교육 목표로 ‘회복 탄력성 향상’이나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을 배워야 할 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삶의 탁월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적 인성이 인성교육의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도 교사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적 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Ⅶ-1> 네 차원의 인성교육 모델은 국내외 학문적 동향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여 공감·배려·책임과 같은 기본적인 도덕적 덕과 시민적 덕과 역량 중심의 인성교육으로부터 수행적 인성과 지적 인성을 이루는 덕을 포함시킨 미래 인성교육 모델의 강조점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 제언 2 중등학교의 인성교육의 강화

인성은 상황에 적절하며 윤리적인 행위를 할 성품적 특질이거나 행위 경향성이기 때문에 지식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인성은 곧 습관의 총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도덕적 행위와 함께 행위의 도덕적 가치을 알고 실천하는 행위자의 도덕적 의지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인성교육에서는 행위자 스스로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자 열망하며 자신의 삶의 전반에서 가치 실현하려는 태도와 의지 함양이 중요하다.

인성지수의 연구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좋은 사람, 덕을 갖춘 사람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태도나 의지를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선행연구들은 비슷하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 스스로 인성을 이루는 덕을 실천하지 않거나 덜 실천하고 있으며 관심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등학교의 인성교육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반복'(24.1%),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적음'(20.7%)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소수지만 '인성교육에 무관심한 학생 태도'가 문제라는 학생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삐딱하다', '불량 학생을 변화시키기에는 인성교육으로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수업도 아이들은 들을 생각이 없다' 등과 같이 학생의 태도 문제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낮추는 원인으로 인식되었다. 학생들의 시각에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인성교육에 무관심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중등 인성교육의 내실화 방안은 <표 Ⅶ-2>와 같다. 학습자 주도적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과 연계하고 학생의 지적 발달에 맞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습자 주도적 학습은 일회적 행사나 전시위주의 실천체험 중심형 수업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덕에 관한 깊은 이해와 자발적 실천을 위한 기능의 심화 학습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천체험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수업이나 활동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표 Ⅶ-2> 중등 인성교육 내실화 방안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개선방안
• 내용 반복 • 실천 체험활동 부족 • 지루한 내용	• 인성교육에서의 학생 주도성 강화 • 학교급에 맞는 내용(주제)과 준거 개발 •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인성교육에 무관심한 학생 태도	• 인성교육에 무관심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활용 및 교육 방안 제안 • 예방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치료 (&전문가 지원)을 연계한 인성교육의 병행
• 교사의 인성교육 내용과 방법	• 회복적 생활교육(존중과 책임의 긍정적 상호지원)을 통한 인성교육 •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인성교육 역시 다른 교과 수업처럼 선행학습 정도가 상이하다. 비록 다른 교과처럼 학습자 성취도를 지필고사로 확인할 수 없지만, 개별 덕들에 대한 이해 정도나 실천하려는 의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교 교육 이전의 가정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했어야 할 덕의 발달이 지체된 학생들이 있으며 다른 학생들은 자율적 덕을 습득한 상태일 수도 있다. 병리적 상태로 덕이 지체된 상태이며 많은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상대로 인성교육을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성교육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집중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성과 문제행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예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성교육)과 전문가와 연계한 처방적 지원의 인성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처방적이고 치료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손경원・주향란, 2012).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위기의 학생[26]에게 인성 발달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현주, 2013).

인성교육 친화적 교실 환경을 구축하고 교과 외 교육과정에서 인성의 덕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하여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존중과 배려, 책임, 공동체 의식 함양,

26)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심각한 위기로는 가출, 학업중단, 폭력, 성매매, 약물 오남용들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등이 지적되며(최원현, 2012), 학교부적응 학생의 범주에는 학습부진, 무동기/무의욕적 태도 등 '학업관련 부적응', 교우관계 미숙(사회적 고립), 교사와의 관계 등 '관계 부적응' 등 '학교규칙 부적응' 등이 있다(윤철경 등, 2011).

갈등해결능력 함양 등 학생의 실제 생활 이슈와 함께 지도할 수 있어서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성교육의 교과 수업에서 보다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덕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은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유보하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며 배려와 존중, 책임의 더 나은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깨우치는 간접적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직접적 교육과 간접적 교육은 교육 접근의 차이일 뿐 모두 학생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학습으로 학습자가 주도적인 교수-학습 방법들(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 봉사학습, 협동학습 등)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Ⅶ-3> 모든 학교급에 걸쳐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급의 여건을 고려한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 역량에 관한 교육은 기능의 학습이기 때문에 기능을 이해하고 행동을 체험해 보는데 그치지 않고 기능을 반복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을 파악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그 경험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성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정보윤리, 디지털 시민성, 인공지능 윤리 등 디지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된 윤리적 이슈를 망라하되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추출하여 교육 대상별로 선별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된다.

<표 Ⅶ-3> 미래 인성교육 방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놀이를 이용한 인성교육 • 모델링 교육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인성교육 • 도덕적 정체성을 위한 교육	• 진로교육과 연계한 인성교육 • 고전과 명저 기반 토론 교육
[공통] 프로젝트 학습, 토론학습, 봉사학습, 협동학습, (마음챙김과 연계한) 사회 정서 학습, 이야기 교육, (디지털 기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인성교육, 에듀테크, 블렌디드 러닝		

정책 제언 3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인성교육 정책 수립 및 실현

교원의 인성교육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선한 행동에 대한 학생의 동기를 유발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우수학교 사례들은 교과수업 외의 특별 사업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행한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며, 다른 학교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 외 활동의 과도한 추진은 교사들의 소진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인성교육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교사의 소진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또한 교사의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생의 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이나 활동이 성의가 없다’, ‘선생님이 화를 너무 많이 내신다’, ‘선생님은 업무하시고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다’ 인성교육이 다양한 행사나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수업의 질이 학생에게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성은 낮고 교사는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 역시 행사나 일회적 행사 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현장에 교사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여러 요소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 정책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청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교과 활동보다는 개별 교과의 인성교육 관련 주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교사의 업무도 경감하고, 실효성도 있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중 인성교육 관련 범교과 학습주제를 교과별로 체계화하여 학교급별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자료에는 인성 관련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설문문항도 포함하여 제시하여 개별 교과의 인성 수업(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4 인성 발달 특징을 고려한 인성교육 성취기준 설정

인성교육의 성취기준 설정에는 덕의 표준적 기준에 대한 상이한 해석 가능성, 감정과 태도, 의지 등의 정의적 요소, 수행과 관련된 지식 및 기능과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므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인성과 덕 개념이 추상적으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개인 사회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둘째, 인간 마음, 신체, 물리적 환경의 복잡한 요소들의 작용의 총체이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구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moral functioning)이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성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욕이나 열망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윤현진, 추병완, 정창우, 2009; 정창우, 2013; character.org, 2022)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은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공하기보다 <인성교육 프레임워크 지침서>(2019)와 같은 지침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 시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을 시대적 요구에게 대응하고 있다.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로서 미국의 인성협회에서 제공하는 인성과 사회정서 발달의 표준안(National Guidelines for Character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이다. <표 Ⅶ-4 >의 수행적 인성의 그릿(Grit)에 관한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으로서 ‘덕의 지식과 이해’의 기준과 ‘행위로의 적용과 실천’의 기준으로 크게 구분하여 학교급(& 연령)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인성의 네 차원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덕 개념을 학생들의 생활 맥락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며 온라인 기반 또는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제안되고 있는 동향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인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네 차원의 인성교육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Ⅶ-4> 학교급별 인성교육 성취기준 예시: 수행적 인성의 그릿(Grit)

성취기준	학교급	세부기준
1. 그릿의 성격 강점을 알고 **이해하며 실행한다.**	초3~초 5 (8-10세)	- • 그릿의 정의를 설명한다(예: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
	초6~중2 (11-13세)	• 긍정적인 태도, 노력 및 그릿을 보여주는 자신의 롤모델에 관해 설명한다.
	중3~고3 (14세~18세)	• '그만둘 수' 있었지만 그릿으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경험을 설명한다. •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1) 태도와 (2) 노력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2. 그릿의 인성강점을 **적용하고 보여준다.**	초3~초 5 (8-10세)	• 그릿(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을 보여주는 자신의 역할((role) 모델의 예를 설명한다.
	초6~중2 (11-13세)	• 그릿을 보여준 경험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중3~고3 (14세~18세)	•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친구나 가족이 '그릿'을 발휘하도록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한다.

향후에도 국내외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학교급에 따라 동일 주제의 교육을 반복하지만 심화된 나선형 교육과정에 기반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려는 체계적이 노력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인지 · 정의 · 행동 영역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지식 · 기능 · 가치/태도 측면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유치원에서 부터 고등학교를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이 실행하는 계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정창우, 2013).

정책 제언 5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인성교육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운영되도록 교육청의 실질적 역할이 필요하다. 다차원적 인성교육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해요인을 탐색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체계를 마련한 뒤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은 형식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사로 실시하는 것을 인성교육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인성 문제는 가정을 비롯한 이웃, 공동체 등 다른 사회 환경의 맥락과 영향을 고려해야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여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이 인성을 가꿀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의 수업과 교과 외 활동, 가정과 지역 연계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학생 정보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이외에도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 기회를 확대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설명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성 이해 및 인성교육 강연 기회를 마련한다. 인성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정의 인성교육 역할과 인성교육 방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적인(도덕적, 시민적, 지적, 수행적)인성 함양 방안이다. 최근 도서관은 도서 대출과 열람의 기능을 넘어서서 협업과 제작과 촬영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교육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사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학습이나 고전 명저를 읽고 토론하는 교육은 학생 주도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

정책 제언 6 인성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인성교육 실행뿐 아니라 평가를 실행하여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위 학교 중심의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다음 해 학교 인성교육 계획에 환류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정착되어야 한다. <표 Ⅶ-5>는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을 활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기준점 삼아 묻고 답함으로써 실행 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채워가며 효과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성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활용, 보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차후 정책을 수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사의 인식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루브릭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피드백을 받고 환류하는 일은 중요하다. 다른 방법으로 인성지수 효과를 활용하는 일이다. 자기보고 척도에 근거한 만족도나 인성지수 검사를 통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진단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측정자의 주관적 자기 긍정성을 보일 수 있어 객관성이 낮을 수 있다. 또한 지필검사는 평균값을 활용하여 진단하고 있어서 특별한 필요나 요구를 지닌 학생들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의 효과를 자기보고 척도이외에도 관찰평가나 동료 평가, 학부모나 교사의 평가 등 평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인성지수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인성교육의 교수-학습 목표 도달도를 측정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

<표 Ⅶ- 5> 인성교육 실행 루브릭 활용

주요 기준	구체적인 기준
A.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 교육의 목표와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목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가? • 학교에 대한 자부심, 소속감, 정체성을 형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돕는가?
B. 우리 학교는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가?	• 학생들이 학교생활 규칙과 좋은 행동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가? 학교는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촉진하는가? •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의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격 자질의 범위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
C. 우리의 교육과정과 수업은 얼마나 인성(더불어 사는 사람 & 지혜로운 사람)과 사회정서역량을 잘 길러주는가?	•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인성(더불어 사는 사람 &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는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문화 자본을 가르치는가? • 교과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가? 효과적인 교육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인성(더불어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돕는가?

D. 교육과정 연계 활동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경험 세계를 넓힐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술, 창의, 공연, 스포츠, 토론, 도전 활동을 광범위하게 다루는가? • 지역, 국가 또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홍보하는가? • 학생들이 도전하고 전문성을 쌓을 양질의 활동을 제공하는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 학생들이 대회나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며,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는가?
E. 타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얼마나 잘 촉진하는가?	• 연령에 따른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봉사활동 기회가 다양하고, 의미 있으며, 질이 높고, 지속적인가? • 봉사활동 기회가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하는가? 학생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가?
F. 우리가 제공하는 것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어주는가?	• 인성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예를 들면, 비용, 시기, 부담 등)을 이해하며 감소시키고 있는가? • 모든 배경의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가? •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교육활동을 적절하게 조정하였는가?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은 전체학교접근(school-wide approach)에 효과적인 인성교육 실행을 위해 1) 학교 전반에서 2) (성교육, 진로 교육, 정보 윤리교육과 같은 범교과 학습에 해당하는 내용을) 인성교육의 범주에 통합하여 지도하되 관련 인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3)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 주체간의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통된 비전과 목적을 수립하여 교육의 계획, 과정,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성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활용, 보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검증하고, 차후 정책을 수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VIII 참고문헌

참고문헌

교육부(2013).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

교육부(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교육부(2017), 성적·장래 스트레스… 韓학생 삶 만족도 세계 최하위 관련 설명자료.

교육부(2020).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21~2025).

교육부(2020.10).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교육부(2021a), 2021 교육정보화백서.

교육부(2021b).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2021c).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중요사항[시안]. 1-48.

교육부(2021d).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기준. 1-15

교육부(2022a), 202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안(공청회 탑재본).

교육부(2022b),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2022c),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강명희, 장지은, 윤성혜(2015). "로봇키트 활용 교육이 중학생의 창의적 인성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4), 37-57.

강미선, 김대군(2020). 시조창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윤리교육연구, 69, 159-179.

강선경, 권진(2021). 청년의 인터넷 과의존과 분노의 관계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정서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235-240.

강선경, 차유정(2021). 인터넷 중독이 2030세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11), 391-401.

강유진, 박지훈, 박종석, 남정희(2021). 과학교육 기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CoProC) 프로그램 실천 교사들의 이해 분석. 대한화학회지, 65(2), 133-144.

강유진, 정도준, 박지훈, 김지나, 박종석, 남정희(2021). COVID-19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 초등과학교 육, 40(4), 460-479.

경기도교육청(2022), 2022 경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2차 전화조사 결과보고서. 1-83.

고명희, 엄경남, 이현숙(2022). 인성교육자는 학습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하는가: 인성교육자의 학습자 인식(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7), 403-420.

고미숙(2015). 도덕적 용기의 개념에 대한 재고. 윤리연구 제 103호. 271-300

고요한(2016). 디지털 이중자아와 인간교육의 방향. 한독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1), 3-19.

고재석, 조재형(2021). 코로나시대 고전기반 온라인 인성교육 교육효과성 분석 — 성균관대학교 <성균논어>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 71, 255-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인공지능윤리 기준.

곽종형, 김덕균, 김현우, 김세정, 김시우, 민원홍, 진성수, 박희원, 윤종진(2020). 효행장려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2), 에듀테크수업활용 가이드북.

구본권(2020).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서울: 어크로스.

구하라, 김종훈, 이승현(2022), MZ 세대 교사의 특성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

권선향, 신현우, 이현정, 홍세희(2020). 초등학생 인성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관계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11), 961-985.

권점례(2020). COVID-19 대응 온라인 개학에 따른 초, 중, 고등학교 원격 수업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연구보고. RRC 2020-2.

권정현, 문영빛(2020). 인성동화제작 프로젝트를 통한 가치덕목의 재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0(2), 491-511.

권지웅, 박종효(2020). 초등학생의 공감, 친사회성 및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성차. 한국인간발달학회, 27(3), 1-21.

권진, 김진욱, 박수빈. (2019). 청소년 사이버윤리로서의 SNS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연구 -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한 학업스트레스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 환경철학, 28, 127-155.

권태완(2021). 인성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자연생태 교육활동 탐색. 인문사회 21, 12(6), 2949-2962.

권해수, 윤일홍(2021). 인문학 기반 참여형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 11-1270000-001119-01. 법무부.

길병휘, 최상일(2001). “인터넷을 활용한 도덕 및 인성교육.“ 초등교육연구논총, 17.13-28.

김경자 · 온정덕(2014). 이해중심교육과정. 서울: 교육아카데미.

김경택, 김철(2000). 인성교육을 위한 학급경영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보교육학회논문지, 4(2), 147-158.

김광현, 맹성준, 강준혁(2022). 온라인 도박의 동기유발 특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 도박중독 경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64, 85-112.

김국현(2022). 2022 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방향. 윤리연구, 136, 51-73.
김금희, 강순실, 황재욱, 박형건(2020). 고등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및 효과 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1), 19-27.
김기숙(2017). 미래시대(포스트휴먼) 인성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54, 1-36.
김남경(2022). 쿠바의 오가노포니코 PEST 분석에 기초한 초등학교 텃밭교육의 전략적 발전방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513-537.
김대군(2012).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정체성 확립 방안. 윤리연구, 1(86), 219-242.
김대권(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 역량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활용 방안, 인성교육연구, 5(2), 1-23.
김동일, 금창민, 박알뜨리, 이승호(2017).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아시아교육연구, 18(2), 293-314.
김동일, 우예영, 임정은, 이수빈, 송주석, 최수미(2020).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1(5), 315-338.
김명숙(2006). 네티켓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기독교교육정보, 15, 283-306.
김문주, 신현주(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문융합 교육의 실제. 문화와 융합, 제42권 8호, 595-618.
김미경, 김경희, 김현미, 이수정, 육민정(2022).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 교육 2030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O 2022-1.
김민재(2019). 『맹자(孟子)』에 나타난 '도덕적 용기'의 의미와 교육적 활용 방향:
김병수(2021).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보호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봉제(2018). 영국의 인성교육 동향과 시사점. 초등도덕교육, 61, 33-58.
김서현, 전재배, 강병희(2022),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사회 참여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선주(2017),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척도 개발, 교양교육연구, 11(3)
김수향, 문미경(2021). 메타버스와 미래교육 학습자 정체성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슬기, 김태영(2021). 초·중등 AI 교육을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정의 및 구성 요소 연구.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5(5), 691-704.
김아영, 차우규(2021). 인성교육으로서 정보윤리교육의 핵심 주제 및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 탐색. 교원교육, 37(3), 115-130.
김언주(2000). 21C 정보화 사회와 인성교육. 교육심리연구, 14(1), 5-17.
김연후, 김하연(2022).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 특성의 잠재프로파일분석. 교육연구, 83, 45-62.

김영민, 허성호, 이려화(2022).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 태도 성향, 디지털 존중감이 디지털 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율성과 경직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3(4), 655-664

김영준, 강경숙(2018). 온라인 수업 기반 대학 인성교육 교양교과 운영방안. 인문사회 21, 9(4), 109-119.

김우경, 김영환, 박지숙(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리터러시 연구 동향분석. 리터러시 연구, 12(4), 93-125.

김위정(2021), 경기도민 교육여론조사, 기술보고 2021-05.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윤경(2020). 사회정서학습 이론과 실제. 서울: 다봄교육.

김재인(2018).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 서울: 동아시아.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서울: 위즈덤 하우스.

김지영(2022). 미래교육을 멘토링하다. 경기: 소울하우스.

김지온(2021).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특성 관련 요인 및 건강 행태 :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5(2), 91-105.

김지원, 이인재(2020). 초등학교 다문화 인성교육의 방향 탐색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31(1), 197-309.

김진숙(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해진 역량, ‘디지털시민성’. 월간 공공정책, 176, 22-25.

김진아(2020). 삶의 철학을 위한 철학상담과 인성교육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원리와 실천. 인간연구, 40, 35-60.

김진영, 이세림, 전종설(2021).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요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경험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6-337.

김진옥(2022). 에듀테크 활용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조사. 實科敎育硏究 28(1), 37-55.

김태훈(2012), 효 덕목의 윤리적 의의에 관한 규범적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7, 279-301.

김현욱, 최화숙(2022).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내용요소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2(2), 1109-1121.

김현자, 김경집, 김도희 김혜경, 남상희, 이정화(2021), 코로나 19상황에서 초·중학생의 학교교육 경험, 경기도교육연구원.

김현주(2020). 성별 및 학교 수준 변인에 따른 수학교과 인성수준 차이의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231-249.

김현진, 박정호, 홍선주, 박연정, 김은영, 최정윤, 김유리(2020). 학교교육에서 AI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교육공학연구, 36(스페셜), 905-930.

김형수(2021).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본 디지털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필요성과 방향. 리터러시 연구, 12(1), 249-282.

김형술(2020).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본 <양사룡전>의 자료적 가치. 동서인문학, 59, 233-260.

김혜리, 정명숙, 손정우, 박민, 엄진섭, 문은옥, 천영운, 최현숙, 이수미(2013),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55-275.

김혜준, 박하나, 정성희, 임규연(2022). 국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8(1), 105-131.

김혜진, 윤영돈(2016). 2015 개정 중학교 도덕과의 도덕적 보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윤리교육연구, 42, 125-147.

노들(202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성찰. 리터러시 연구, 13(1), 171-202.

노선희(2021). 지식사회학의 시각으로 보는 인성교육 및 시사점. 인문사회21, 12(6), 1447-1460.

노승현. (2022).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인터넷 과의존의 관계: 성별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 21, 13(5), 1813-1827.

문정애(2020). 다문화 정의와 인성 및 진로 교육. 인격교육, 14(2), 63-79.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인수위원회(2022), 제18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 경기교육 새롭게.

민현덕, 김미경, 고현(2022). 질문중심 하브루타 학습이 중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 13(2), 17-32.

박경애(2022). AI 시대 한문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 방향 - 논어를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44(1), 201-231.

박균섭(2022). 수양공부론, 근대수신담론, 인성교육론의 계보학. 인격교육, 16(1), 69-97,

박기범(2018). 디지털 시민성으로서 책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573-582.

박만구(2020). 인문학적 상상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수학교육.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24(2), 187-205

박미현, 허균(2020). 인성교육을 위한 언택트 시대 원격교육 사례 연구 : 교수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연구, 5(2), 25-42.

박병기 외(2014). 인성교육전문가 DB 구축을 위한 검증시스템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박선화 외(2017).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교수 · 학습, 교육평가 비전연구(Ⅱ):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의 교수 · 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17-3.

박성호, 최준섭(2022). 학생과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초등상담연구, 21(4), 331-369.

박용금, 조용태, 임병학(2020).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선진유학적(先秦儒學的) 의미. 인문학연구, 59, 639-668.

박윤경(2020). 고등학생의 독서 의식 탐구를 통한 독서 교육 사례 연구 - 학문 문식성(disciplinary literacy)과 공감적 독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2(4), 259-311.

박종덕(2020). 인성의 개념:「중용」의 관점. 도덕교육연구, 32(1), 85-109.

박주현(2021). 학교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설계 방안 탐색. RRI 2021-5.

박지희, 임홍남, 연정진(2022). 칼 로저스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함의 - 인본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2), 1651-1666.

박하나, 진명화, 박지우, 임규연(2021). 국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 분석. 교육문화연구, 27(5), 75-101.

박현영, 채수은(2022). 국내 사회정서학습(SEL)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인간발달연구, 29(1), 79-100.

박형빈(2022). 서당교육의 인성교육적 의의와 수업 적용 방안: John Wilson과 James Rest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33(2), 19-33.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 2021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방안, 교육부.

배서현, 최윤정, 선우성경, 추병완(2019). 디지털 시민에 관한 초등학생의 개념 분석. 초등도덕교육, 66, 141-180.

백남진 · 온정덕(2016).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이해와 설계, 서울: 교육아카데미.

서상훈 · 유현심(2019). 메타인지 공부법. 경기: BM성안북스.

서원혁(2022). 율곡 인성교육의 실천성 연구 -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7, 95-127.

서재복, 송태규, 임명희(2020). 중학생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인성과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885-905.

서진희, 박선미. (2022). 유치원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3(11), 738-747.
서향희, 박주희(2021). 학교현장에서 에듀테크(Edu Tech) 활용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3), 253-273.
성용은, 윤병훈(2017).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청소년 언어폭력 비교.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63-88.
성태제(2013).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한국교육학회, 55(2), 1-21.
손경원, 주향란 (20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기반 긍정적 행동지원의 이론과 실제. 도덕윤리과교육, 37, 427- 465.
손경원(2020). 고등학생의 인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및 학급토론 개방성의 조절효과 검증. 윤리연구, 128, 59-94.
송영범(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가 디자인하는 미래교육. 서울: 맘에드림.
신우열, 최민아,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43-81.
신재한(2020). ‘인성영재’의 개념 및 교육 원리 탐색. 인성교육연구, 5(2), 43-65.
신호재, 김보림, 김다희, 서민정, 석진규, 이수빈, 이수진(2021).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존중과 책임. TL 2021-06. 한국교육개발원.
신희주, 정종원, 신현기, 이은배, 황정숙, 김찬미(2021).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수.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 2021-146.
안관수(2021). 마음그램 척도 개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5(3), 135-154.
안은영(2020). SNS 이용이 청소년의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SNS 중독과 사이버 폭력 또는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7(2), 257-273.
양소영(2020). 창의·인성교육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 음악극의 창의적 접근 요소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0), 79-98.
양영희(2022). 가치교육을 통한 어휘교육의 인성 함양 교수ㆍ학습 시안 -혐오 표현을 대상으로. 청람어문교육, 88, 83-106.
양정실 외(2013).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6.
오준석, 배종희(2022). 초등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 인성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681-692.
유병열 외(2012). 인성교육의 체계화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인성교육의 체계화 연구팀.
유지현, 이시종, 김수미, 김옥진(2020). 토끼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이 초

등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9(2), 5-25.
윤가영, 신주랑, 신창호(2020). 국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연구 분석: 정의적 영역과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3(3), 117-142.
윤병수(2020). 생활 속 인성교육 자료 명상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대구광역시 교육청.
윤병수, 전종국(2021). 인성교육으로서의 마음챙김 명상. 정서・행동장애연구, 37(1), 189-208.
윤영돈(2015). 학교급별 인성 수준과 고교인성교육의 방향설정: 고교 인성교육 창의융합 과제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2(4), 153-172.
윤영돈(2018). 창의융합 과제연구를 통한 고등학교 인성교육 사례연구. 윤리교육연구, 49, 51-89.
윤영돈(2021). 세인트존스대학의 세미나 모델을 적용한 “서양고전과 윤리” 줌(zoom) 수업의 효과검증. 윤리연구, 134, 257-285.
윤은주(2003). 프로젝트 접근법의 존재론적 이해. 유아교육연구, 23(4), 193-206.
윤은주(2006). 프로젝트 접근법의 반성적 실천: 그 이해와 오해. 아동교육, 15(3), 187-198.
윤정진(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융복합 온라인 수업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007-1031.
윤현진, 추병완, 정창우(2009). 도덕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9-3-1.
윤혜림(2021).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수역량.“ 인문사회 21, 12(2), 2625-2638.
이경미(2020). 머신러닝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가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4(2), 223-231.
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연구보고 RRC 2012-4.
이명숙, 장진영(2016). ICT와 인성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9-18.
이미숙 외(2012).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2-21.
이민자, 김옥진(2020). 동물매개교육이 초등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3(1), 71-91.
이병승(1998), “자연교육의 정당화와 환경교육”, 교육철학, 16, 178.

이성식(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이숙정, 김혜영(2017). 디지털 시대 인성강화 교육모델의 개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9), 875-890.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쌍철(2020). 놀이로 꽃피는 인성 놀이터. 한국교육개발원. TL-2019-06.

이영호. (2022). 국가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현황 탐색 및 시사점 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6(5), 385-396.

이용섭, 김윤경(2022). 초등학교 원격 과학수업이 과학 학업성취도 및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5(2), 132-141.

이용화 · 이유정(2021). 세인트존스 칼리지의 세미나 모델을 적용한 교양 세미나 수업 개발 및 효과검증. 교양교육연구, 15(2), 113-132.

이은수(2022). 인성교육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 ‘심심풀이 M3 (Meta-Mind Meditation)’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명상심리상담, 27, 69-81.

이은순, 김은진(2021). 키즈 유튜브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 부모의 물질주의 가치관, 양육태도, 미디어 중재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7-58.

이은환(2020). 코로나 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이슈&진단, 414, 1-25.

이주호, 정제영(2022). AI 교육 혁명. 서울: 시원북스.

이지성(2019). 에이트. 서울: 차이정원.

이철현·전종호(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역량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311-338.

이태영, 송병호(2017).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대응 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195-226.

이하림(2020). 포스트휴먼 시대 핵심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한 초등 미술과 중심 교과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미술교육연구논총, 60, 35-78.

이현숙(2017). 소셜 미디어 이용 : 청소년 대상 윤리적 요인과 그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477-487.

이현진, 김규정(2021). 온라인상에서의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VR기반 게임 콘텐츠 연구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65-66.

이혜진(2019). 시민적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적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의사소통 역량을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62, 121-152.

이희정, 장은비(2020). 부모 및 교사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3), 53-75.
임상수(2019). 소셜 미디어 시대의 책임, 절제, 관용. 倫理硏究 127(1), 169-197.
임상수(2021).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와 도덕과 교육. 초등도덕교육, 75, 125-153.
임유화(2021). 빅데이터를 통해 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슈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2), 829-852.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2005).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8(2), 75-83.
장원경(2022).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저스티스, 189, 461-491.
장원호, 김두환, 박효민, 신인철(2021). 사회적 공감교육을 통한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 방안 연구. 서울교육 2022-75.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은주(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장희선(2020). 초등학생의 내·외재적 학습동기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습전략, 인성 차이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2), 649-676.
전명순(2020).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의 타당성 및 인성교육 방향성 모색. 효학연구, 31, 1-27.
전명순(2020).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성교육 내용 분석. 효학연구, 32, 23-49.
정근식(2020). 실학여행: 재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월간 공공정책, 178, 96-97.
정누리, 김정렬(2020). 초등 3·4학년군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영어 동화책의 분석 및 활용방안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117-137.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방송통신정책연구 2021-0-01627.
정여름, 손장호(2021). 유기견과 함께하는 동물매개교육(AA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34(1), 61-83.
정재원, 신윤희(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재개념화. 리터러시 연구, 13(2), 75-106.
정제영(2020). 모두가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개발 연구-인성탐험대. 법무부.
정지선, 이숙향(2020). 포스터 제작 협동 활동과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의 인성역량, 장애학생 수용태도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20(1), 51-80.
정창우(2017).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 교육과학사.

정창우(2019), 21세기 인성교육 프레임, 교육과학사.
정창우, 손경원, 김남준, 신호재, 한혜민(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교육부.
정창우·이혜진(2022). 도덕과에서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과제.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 55-82.
정혜현, 노하늘, 조재윤(2020). 중학교 언어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사례 연구 -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따뜻한 언어 행복한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71, 189-328.
정호범(2017).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24(4), 75-89.
조병익(2018).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을 디자인하라. 서울: 동아엠앤비.
조성은, 한은영, 장근영, 김선희(2013).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자아의 정체성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3(51).
조수현, 최욱(2017).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한 SNS 활용 초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논총, 37(2), 21-40.
조용(2022). 미래사회 대비 중학교 예술교육 구현 양상에 관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변화 분석 및 논의: 학급 뮤지컬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811-830.
조향숙(2021). 정보 윤리 주제 인성교육 자료- 사이버미학.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중학교 『도덕』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74집. pp. 95-115.
지준호(2021). 논어 군자론의 인격교육적 함의. 인격교육, 15(4), 129-146.
지현아(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학 인성교육 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39-61.
진숙경, 김성기 ,김수현, 이원희, 조경민(2016).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연계방안. 정책연구 2016-08. 경기도교육연구원.
진숙경, 김수현, 이원희(2017). 경기도 인성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현안보고 2017-23. 경기도교육연구원,
최경숙(2007). 자기존중감과 긍정심리학, 스트레스연구, 15(3), 205-214
최윤정(2020). 건설적 논쟁 수업이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초등도덕교육, 67, 1-23.
최은선, 현도익, 김미진, 주연수, 박남제(2021). 초개인화 시대 비대면 환경의 맞춤형 교수・학습 모형 분석. 한국정보기술학회 종합학술발표논문집, 232-233.
최재붕(2020). 포노 사피엔스. 서울: 쌤앤파커스.
최재천·장하준·최재붕·홍기빈·김누리·김경일·정관용(2020). 코로나 사피엔스. 서울: 인플루

엔셜.
최준섭(2020). 초등학생의 자기수용과 인성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421-1437.
최지혜, 이영선, 정소영. (2022). 디지털 시민성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8(5), 175-199.
추병완(2000). 청소년 네티켓 교육의 방향. 초등도덕교육, 6, 171-186.
추병완(201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시대에서 사이버윤리교육의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32, 1-20.
추병완(2012).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 윤리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1(87), 119-141.
추병완(2015), 감사의 도덕적 본질과 교육 방안, 교육과정평가연구, 18(1), 31-59.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통계청.
하지현(2021).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경기: 창비.
한국교육개발원(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RR2019-27).
한국교육개발원(202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RR2020-33).
한국교육개발원(20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RR2021-33).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싱가포르 초등 인성 & 시민 의식 교육과정 개정 [국제교육동향, 2022. 7. 20.]
한송이(2021). 내러티브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인성 음악교육 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317-1333.
한형종, 홍수민(2022). 초등 온라인 교육환경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요구도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3(8), 1383-1397.
함규진(2020). 전통 사상의 민주시민교육에서의 활용. 인격교육, 14(1), 119-134.
현주(2013). 위기학생 지도와 인성교육의 중요성. 교육정책 네트워크 이슈 페이퍼 CP 2013-02-2, 1-44.
홍진근, 이옥화, 유민선, 유민선, 김득준(2021).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경험 후 교사들의 인식 변화. 교육공학연구, 37(2), 429-458.
홍현주, 이인재(2022). ‘Second STEP’을 활용한 초등학생의 성장 마인드 셋 & 목표 설정과 문제해결 능력 함양 프로그램 개발. 윤리교육연구, 66, 183-212.

Anderson, S. E.(1997). Understanding Teacher Change: Revisiting the Concerns Based Adoption Model. Curriculum Inquiry. 27(3). 331-367.
Anderson, L. W., Krathwohl, D. R., Ariasian, P. W., Cruikshank, K. A., Maywe, R. E.,

Pintrich, P. R., Raths, J., Wittrock, M. C.(2001). A Taxonomy for Learning, Te aching, anmd Assessment: A Revision of Bloom’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ies. 강현석, 강이철, 권대훈, 박영무, 이원희, 조영남, 주동범, 최호성 역(2005).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경기: 아카데미프레스.

Arbesman, S.(2012). The Half-Life Facts, 이창희 역(2014). 지식의 반감기, 서울: 책읽는수요일.

Aristoteles, 박문재 옮김(2022).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현대지성.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2008). Global trend 2025: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박 안토니오 역(2009). 글로벌 트렌드 2025. 서울: 한울.

Baehr, J.(2012). Educating for Intellectual Virtues: A Fourth Option in Character Edu cation.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f the Jubilee Centre for Character and Virtues. 1-12.

Baumeister, R., Tierney J., 이덕임 옮김(2012). 의지력의 재발견. 서울: 에코리브르.

Bellanca, J. A., Dufour, R., Dufour, R., Costa, A. L., Kallick, B., Zhao, Y., Boss, S., Riordan, R., Callier, S., Wagner, T., Trilling, B., Fadel, C., Darling-Hanmond, L., Conley, D. T., Fullan, M., Zipkes, S., Esparza, D. R., Kay, K., Greenhill, V., Soulé, H. A. & Paine, S.(2015). Deeper Learning: Beyond 21st Century skills. 김하늬 · 최선영 역(2019). 디퍼러닝. 서울: 테크빌 교육.

Berkowitz, M.(2008). Educating for Civic Character. In Arthur, J. Davies, I. and Hahn. C.(eds.) The SAGE handbook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emocracy. Los Angeles : SAGE.

Bong-je, K., Gyun-yeol, P.(2020). “Concern-Based Acceptance Model for Character Education and Some Implications to AI Ethics.“ *Robotics & AI Ethics 5(1)*, 8 -15.

Borke, H. (1971). Interpersonal perception of young children: egocentrism or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5, 262-269.

Boston B. O.(2005). Restoring the balance between academics and civic engagement in public schools. Washington, D.C.: American Youth Forum.

Brown, A. L.(1977). Knowing when, where, and how to remember: A problem of met acognition. Advanced in instructional psychology, 1-102.

CERI(2006). The starter pack: Futures thinking in action. OECD

Character.org(2022). *Character &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tional Guide.*

Davidson, M, Lickona, T. & Khmelkov, V.(2008). Smart & Good Schools: A New Paradigm for High School Education. *Handbook of Moral and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370-390.

Davidson, M. & Lickona, T.(2006). Integrating Excellence and Ethics in Character Edu

cation. Social Science Docket(Winter-Spring 2006), 5-8.
Department of Education in UK(11. 2019), *Character Education Framework Guidance*.
Duckworth, A.(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김미정 역(2019). 그릿. 서울: 비즈니스북스.
Dweck, C.(2016).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ess. 김준수 역(2018). 마인드셋. 서울: 스몰비라이프.
EBS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제작팀(2019).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해냄.
Elias, M. J.(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 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 gist,* vol. 58, No. 6/7.
Fadel, C., Bialik, M. & Trilling, B.(2015). Four-Dimensional Education, 이미소 역(2016). 4차원 교육 4차원 미래역량. 서울: 새로운봄.
Fisher, A.(2001). Critical thinking : an introduction. 최원배 역(2010). 사고하는 방법. 경기: 서광사.
Fisher, R.(2008). Teaching Thinking : Philosophical Enquiry in the Classroom, 노희정 역(2011). 사고하는 방법. 경기: 인간사랑.
Flavell, J. H.(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Fullan, M.(1993). Change forces: Probing the depths of educational reform. New York: The Falmer Press.
Garmezy, N.(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 mlinson-Keasey, & K. Widaman.(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Golinkoff, R. M. & Hirsh-Pasek, K.(2016). Becoming Brilliant. 김선아 역(2018).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최고의 교육, 서울: 예문아카이브.
Greenberg, M. T. Weissberg, R. P., O' Brien, M. U. Zins, J. E. Fredericks, L.· Resni k, H.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 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Holmes, W., Bialik, M. & Fadel, C.(2019).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Promises and Implications for Teaching & Learning 정제영 · 이선복 역(2020).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서울: 박영스토리.
Ito, J. & Howe, J.(2016). Whiplash: How to Survive Our Faster Future. 이지연 역(2017). 나인, 더 빨라진 미래의 생존 원칙. 서울: 민음사.
Kanelos, P.(2018). An Ancient Approach to Education for the Post-Modern World, 한국

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8(11).
Lee Kai-fu(2018). Al Superpowers, 박세정 · 조성숙 역(2019). AI 슈퍼파워. 경기: 이콘.
Lim-Lange, C. & Lim-Lange, G.(2019). Deep Human: Practical Superskills for a Futur e of Success. 박선령 역(2020). 휴먼스킬. 서울: 니들북.
Lipman, M.(2003). Thinking in Education. 박진환 · 김혜숙 역(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경기: 인간사랑.
Lisheng Tong(2022). 儒家사상을 통해 본 『弟子規』의 인성덕목연구: 〈入則孝〉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2), 2755-2770.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2014), 2014 Character & Civic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2021), 2021 Character & Civic Curriculum.
Mischel, W., 안진환 옮김(2015). 마시멜로 테스트 : 스탠퍼드대학교 인생변화 프로젝트. 서울: 한국경제신문.
Morrison, B. (2005). Building safe and Healthy Wchool Communities: Restorative Justice and Responsive Regulation. In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Sydney, Australia
Noddings, N. & Brooks, R.(2016). Teaching Controversial Issues. 정창우 · 김윤경 역(2018). 논쟁수업으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서울: 풀빛.
Padnanabha, C. H.,(2020). Metacognition: Conceptual Framework. I-manager’s Journa l on Educational Psychology, 14(1), 1-11.
Russell, B., 서상복 옮김(2020). 러셀 서양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Schwab, C.(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Seligman, M., 김세영 옮김(2010). 마틴 셀리그만의 낙관적인 아이. 서울: 물푸레.
Seligman, M., 우문식, 윤상운 옮김(2011). 마틴 셀리그만의 플로리시. 서울: 물푸레.
Seligman, M., 우문식, 최호영 옮김(2012). 마틴 셀리그만의 낙관성 학습. 서울: 물푸레.
Shields, D. L.(2011). Character as the Aim of Education. *PDK(Phi Delta Kappan),* 92(8), 48-53.
Shields, D. L.(2011). Character as the Aim of Education. PDK(Phi Delta Kappan), 92 (8), 48-53.
Sousa, D.(2017). Existential Psychotherapy: The Genetic-Phenomenological Approach. New York.
Weinstein, N.D.(1984).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 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Wilson, J.(1972). Mental Health as an aim of education. R. S. Peters et al.(eds.), Educ ation and the Development of Reason, London &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WMO(2011). Climate for You. http://www.climate4you.com/ (검색일: 2011.05.06.)

Yoongyeong, K, Gyunyeol, P.(2020). Rubrics and Schoolwide Approach to the Character Education and Some Implications to AI-Based Character Education. *Robotics & AI Ethics, 5(2)*, 19-26.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The Future we want. https://www.oecd.org/education/2030/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Learing Compass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learning-compass-2030/OECD_Learning_Compass_2030_concept_note.pdf

The Jubilee centre(2017). The jubilee Centre Framework For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https://www.jubileecentre.ac.uk/527/character-education/framework

김서영(2021). 학생들 덮친 '코로나 블루' … '마음챙김' 교육을 해보는 건 어떨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2111416001 [경향신문, 2021. 2. 11.]

김소영(2020). n번방 사건', 한국 사회 인성교육의 대실패 [매일경제, 2020. 3. 25.]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03/306188/

곽민서(2022). 3분기 출산율 0.8명 아래로…인구 35개월째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3068200002 [연합뉴스, 2022. 11. 23.]

남정훈, 이우중, 남혜정, 박지원(2021). 누군 집·주식 대박, 누군 폐업 걱정…더 벌어진 빈부격차[연중기획-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일보, 2021. 3. 28.]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324515602?OutUrl=naver

이은이(2020).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 블루. 코로나 19 과학 리포트 1. https://www.ibs.re.kr/cop/bbs/BBSMSTR_000000000971/selectBoardArticle.do?nttId=18335

이주현(2020), 땅위를 굴러다니는 리얼리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51300.html [한겨레신문, 2020. 6. 28.]

IX 부록

경기도 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설문지(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1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설문지 2

학생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3

미래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4

델파이 조사 설문지 5

덕교육적 접근에 대한 추가 설명 6

부록-1

<경기도 인성교육 현황 및 실태 조사 설문지(교사용, 학생용, 학부모용)>

◎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선생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1) 성별	□ ①여성		□ ②남성
(2) 학교급	□ ①초등학교	□ ②중학교	□ ③고등학교 ☞**(2)-1번 문항으로**
(2)-1 학교 유형	□ ① 일반고 □ ② 특성화고 □ ③ 특수목적고 □ ④ 자율고 □ ⑤ 자사고 □ ⑥ 기타		

(3) 교직 경력	□ ①5년 미만 □ ② 5년 이상-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4)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 □ ② 중·소 도시 □ ③ 읍·면 (* 대도시, 중·소도시에 속한 읍·면에 있는 학교는 ③번에 v표를 해주세요.)
(5) 직급	□ ① 담임교사 □ ② 비담임교사 □ ③ 부장교사 □ ④ 관리자(교장/교감)
(6) 담당 교과 (중등만 응답)	□ ① 국어 □ ② 도덕 · 윤리 □ ③ 수학 □ ④ 사회 □ ⑤ 과학 □ ⑥ 실과(기술 · 가정) □ ⑦ 영어 □ ⑧ 음악 □ ⑨ 미술 □ ⑩ 체육 □ ⑪ 실업 □ ⑫ 기타 ( )

1. 선생님께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학교급 목표 설정을 위한 문항입니다.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급에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네 가지</u>를 골라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선택지가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회복탄력성 향상
② 기초적인 예절과 규범 습득
③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④ 인류애 및 생태 감수성 함양
⑤ 인성과 관련한 인문소양 함양
⑥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⑦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⑧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⑨ 도덕적 원리 및 가치에 대한 성찰과 실천
⑩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⑪ 타인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 향상
⑫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의 이해와 실천
⑬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함양
⑭ 기타( )

[3~6] 다음은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인성교육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덕이나 역량 에 관해 묻는 질문입니다.

3.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가르쳐야 할 '진리탐구, 지식, 지혜와 관계된 덕과 역량'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덕이나 역량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창의성
② 지적 호기심
③ 비판적 사고
④ 메타인지 및 성찰
⑤ 기타( )

4.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덕과 역량'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덕이나 역량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효 ② 공감 ③ 배려 ④ 성실
⑤ 예의 ⑥ 정직 ⑦ 정의 ⑧ 존중
⑨ 디지털 윤리의식과 실천 ⑩ 환경친화적 태도 및 생태 감수성
⑪ 기타( )

5.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덕과 역량'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를 골라주

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덕이나 역량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준법 ② 참여 ③ 책임 ④ 평화
⑤ 협동(협력) ⑥ 갈등해결능력 ⑦ 의사소통능력
⑧ 소속감과 연대
⑨ 관용과 다름의 수용
⑩ 공동체 의식(공동선과 공익 추구)
⑪ 기타( )

6. '인성 함양이 효과적이게끔 돕는 덕과 역량'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한 덕이나 역량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용기 ② 긍정성 ③ 열정(활력)
④ 자기주도성 ⑤ 자기효능감 ⑥ 그릿(절제, 끈기)
⑦ 성장 마인드셋
⑧ 자기 관리 및 조절
⑨ 기타( )

[7-10] 다음 인성교육 수업이나 활동이 개별 학생들의 인성 발달, 인성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학교폭력문제 감소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② 도움이 안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7. 선생님의 교과연계 인성교육 수업					
8. 선생님의 교과 외 인성교육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주제 수업 등)					
9. 평소 선생님의 생활지도					
10.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 활동					

(인성교육 특색사업이나 캠페인, 학예행사 등)					

11. 학교의 인성교육 관련 수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② 교사들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
③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이 부족하다.
④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⑤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약하다.
⑥ 다양한 활동들 간에 연계성이 없다.
⑦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⑧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⑨ 인성 함양보다는 학업 성취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⑩ 기타( )

12.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우수 사례 안내
② 교수 · 학습자료 지원
③ 인성교육을 위한 수업시수 보장
④ 만족도 및 효과성 검증 방법 안내
⑤ 교과별 인성 성취기준과 역량 안내
⑥ 인성교육 관련 교사 모임 및 활동 지원
⑦ 학생 발달특성을 반영한 인성교육 성취기준 마련

⑧ 기타(　　)

13. 단위 학교에서 인성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기 위해 다음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교 자율성 보장
② 충분한 예산 지원
③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
④ 교육부 및 교육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⑤ 학교 간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대화 창구 마련
⑥ 기타(　　)

1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이 원활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5. 어떤 학교의 분위기가 인성 친화적이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경직된 학교 조직 문화
② 교사의 관심과 의지 부족
③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
④ 학교장 등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부족
⑤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분위기
⑥ 기타(　　)

16. [담임교사 경력이 있는 경우만 응답] 담임교사로서 학급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얼마나 자주 활용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지도와 상담
② 인성교육 관련 학급 프로젝트(아침명상, 학급일기 등)
③ 인성교육 관련 특별 행사(어버이날 감사편지 쓰기 등)
④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교훈적인 이야기하기(조·종례 시간 등)
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온라인 콘텐츠,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성교육 수업 등)
⑥ 기타(　　)

17. 인성교육과 관련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어떤 조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교육청과 학교의 명확한 역할 분담
② 인성교육 업무담당자의 다른 업무 경감
③ 관련 교육정책 업무와 명확한 통합 또는 분리
④ 학교인성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⑤ 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 보장
⑥ 기타(　　)

18.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8-1번 문항으로**　② 만족하지 않는다☞ **18-1번 문항으로**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8-1. 현재 인성교육 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지원에 만족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접근과 활용이 불편하다.

② 교과 연계형 자료가 부족하다.

③ 전체적으로 자료의 양이 부족하다.

④ 전반적으로 내용의 질이 떨어진다.

⑤ 미디어 및 디지털 자료가 부족하다.

⑥ 특정 교과 중심으로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⑦ 다양한 교육활동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체험형, 토론형, 독서연계형 등)

⑧ 기타( )

19. 선생님께서는 지난 5년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연수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① 참여한 적 없다☞ **19-1번 문항으로**

② 1회☞ **20번 문항으로** ③ 2회☞ **20번 문항으로**

④ 3회☞ **20번 문항으로** ⑤ 4회 이상☞ **20번 문항으로**

19-1. 연수에 참여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주된 이유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② 다른 업무와 학생지도로 여유가 없다.

③ 연수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

④ 연수 장소와 시간이 부적절하다.(원거리, 대중교통이용불편, 저녁이나 주말 시간)

⑤ 연수에 관심이 있어도 참여 대상자가 업무담당자나 관련 교과교사로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기가 어렵다.

⑥ 기타( )

20.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1번 문항으로** ② 만족하지 않는다☞ **20-1번 문항**

으로

③ 보통이다☞ **21번 문항으로** ④ 만족한다☞ **20-2-1번 문항으로** ⑤ 매우 만족한다☞ **20-2-1번 문항으로**

20-1. 연수에 만족하시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주제가 진부하고 식상하였다.
② 내용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다.
③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④ 교과연계 방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⑤ 교사와 상호작용이 없는 일방적인 연수였다.
⑥ 학교 단위 인성교육 계획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⑦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범교과 수업 계획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였다.
⑧ 강연자의 개인적 인성교육 경험에 바탕을 둔 내용이라 신뢰하기 어렵다.
⑨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이어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⑩ 기타( )

20-2-1. 연수 주제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연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주제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생활지도
② 교과연계 인성교육
③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수
④ 인성교육정책과 업무 현안
⑤ 인권 등 인성 관련 교육프로그램
⑥ 학교단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⑦ 기타( )

20-2-2. 연수에 만족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된 이유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강연이 유쾌하고 흥미로웠다.

② 참여형 혹은 체험형 연수였다.
③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다.
④ 생활지도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⑤ 질의에 대한 피드백이 만족스러웠다.
⑥ 학교단위 인성교육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
⑦ 교과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다.
⑧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범교과 수업 계획에 도움이 되었다.
⑨ 기타( )

21.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다른 행정 업무 경감
② 전문교원 양성 시스템 구축
③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기회 제공
④ 인성교육 매뉴얼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⑤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제공
⑥ 교사 간 협력(교사동아리,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⑦ 우수교사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및 승진 가산점 등)
⑧ 기타( )

22.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 연계 수업의 효과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22-1번 문항으로**
④ 그런 편이다☞ **22-1번 문항으로** ⑤ 매우 그렇다☞ **22-1번 문항으로**

22-1.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의 효과나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십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고르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생에게 직접 질의
② 동료교사와 수업 나눔
③ 설문지를 이용한 수업 만족도 조사
④ 인성 발달 측정도구 또는 심리검사도구 활용
⑤ 기타 ( )

23. 선생님이 재직하시는 학교는 학교단위 인성교육의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합니까? 해당 사항을 모두 고르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업무 담당자가 평가
②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③ 인성 발달 측정도구 또는 심리검사도구 활용
④ 교육활동평가회를 통한 의견 수렴(교직원만 참여)
⑤ 교육대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교사, 학생, 학부모 참여)
⑥ 기타 ( )

24. 인성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안내
② 평가 절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③ 인성 발달 측정 도구 보급 및 결과 분석 지원
④ 인성교육과 관련한 과정 중심 평가 예시 개발 및 보급
⑤ 기타( )

25.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교인성교육 관련 의사결정 시 학부모 참여
②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
③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④ 주민 시설 및 지역 내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확대
⑤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학부모 초청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확대
⑥ 기타( )

26. 지역 연계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② 지역 내 전문기관(대학 등)과의 교육협력
③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학부모 재능 기부 포함)
④ 마을교육 및 교육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기회 확대
⑤ 기타( )

27. 지금까지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이외에 경기도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학생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1) 학교급	□ ① 초등학교 ☞ **(2)-1번 문항으로** □ ② 중학교 ☞ **(2)-2번 문항으로** □ ③ 고등학교 ☞ **(2)-3번 문항으로**
(2)-1. 학년(초)	□ ① 4학년 □ ② 5학년 □ ③ 6학년 ☞**(3)번 문항으로**
(2)-2. 학년(중)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3)번 문항으로**
(2)-3. 학교유형(고)	□ ① 일반고 □ ② 특성화고 □ ③ 특수목적고 □ ④ 자율고 □ ⑤ 자사고 □ ⑥ 기타
(2)-4. 학년(고)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3) 성별	□ ① 여학생 □ ② 남학생
(4)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 □ ② 중·소 도시

	□ ③ 읍. 면 (* 대도시, 중·소도시에 속한 읍·면에 있는 학교는 ③번에 v표를 해주세요.)

1.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급(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하기 및 힘든 일에 좌절하지 않기
② 기초적인 예절 익히기
③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④ 인류와 생태에 대한 사랑과 봉사/보호 활동
⑤ 인성과 관련한 지식 함양 및 독서
⑥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예: 계획세우기, 숙제하기, 운동하기 등)
⑦ 자신의 꿈과 연관된 삶의 의미 찾기
⑧ 학교나 이웃의 일에 참여하고 책임 의식 갖기
⑨ 도덕적 규범 이해하고 성찰하기
⑩ 친구 사귀기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⑪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⑫ 기타( )

3. 여러분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 학교 활동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① 교과수업 활동
② 봉사활동
③ 독서 활동(국어 교과시간 외)
④ 체육 활동(체육 교과시간 외)

⑤ 예술 활동(음악, 미술 교과시간 외)
⑥ 동아리 활동(창체동아리, 자율동아리 등)
⑦ 자치 활동(학급회의, 전교 어린이회, 학생자치회 등)
⑧ 학교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바른말 사용 캠페인, 학교 텃밭 가꾸기 등과 같은 학교특색활동)

4. 학교의 수업시간(교과시간과 창체시간 모두)에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여러분의 인성 발달에 대체로 효과적입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학교의 수업시간(교과시간과 창체시간 모두)에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이유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다.
② 학생들이 바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
③ 실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적다.
④ 인성교육에서 배우는 내용과 학교 분위기가 다르다.
⑤ 학교 바깥의 다른 요인들, 가령 폭력적인 영상, 물질 만능주의,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가 인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⑥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성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예: 사용시간 조절과 같은 자기 관리 문제 또는 악플 방지와 같은 존중 문제)
⑦ 기타( )

6. 학교의 수업시간(교과시간과 창체시간 모두)에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배움과 감동이 있다.
② 내용이 참신하고 재미있다.
③ 학생이 주도하는 활동이 많다.

④ 실천·체험 위주의 활동적인 내용이 많다.
⑤ 나의 삶에 필요한 인성교육 주제를 다룬다.
⑥ 기타( )

7. 학교의 수업시간(교과시간과 창체시간 모두)에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어떤 점이 여러분의 인성 발달에 효과적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골라 주십시오. 이외에 효과적인 점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②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게 되었다.
③ 정직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④ 자신의 일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다.
⑥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⑦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게 되었다.
⑧ 친구와 협력을 잘하게 되었다.
⑨ 긍정적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
⑩ 자기 관리와 조절을 잘 하게 되었다.
⑪ 기타( )

8. 학교 선생님의 생활지도가 대체로 여러분의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8-1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8-2번 문항으로**

8-1.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칭찬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높아진다.
② 생활지도가 대부분 인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③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
④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감해주신다.
⑤ 생활지도하시는 선생님의 평소 언행이 모범이 된다.
⑥ 선생님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신다.

⑦ 기타( )

8-2.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의 공감과 이해가 부족하시다.
② 선생님은 생활지도 시 규칙과 규정을 더 강조하신다.
③ 생활지도 규정을 정할 때 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신다.
④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⑤ 기타( )

9.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을 원활히 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0. 지금까지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이외에 경기도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학부모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성교육 실태 및 현황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학부모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설문 요청을 받은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1) 자녀의 학교급	□ ① 초등학교 ☞ **(2)-1번 문항으로** □ ② 중학교 ☞ **(2)-2번 문항으로** □ ③ 고등학교 ☞ **(2)-3, (2)-4번 문항으로**
(2)-1. 자녀의 학년 (초등학교)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 ⑤ 5학년 □ ⑥ 6학년
(2)-2. 자녀의 학년 (중학교)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2)-3. 자녀의 학교 유형 (고등학교)	□ ① 일반고 □ ② 특성화고 □ ③ 특수목적고 □ ④ 자율고 □ ⑤ 자사고 □ ⑥ 기타
(2)-4. 자녀의 학년(고등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학교)	
(3) 자녀의 성별	□ ① 여학생 □ ② 남학생
(4) 자녀와의 관계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조부모 □ ④ 기타
(5) 자녀의 학교 소재지 (읍/면/동)	□ ① 대도시 □ ② 중·소 도시 □ ③ 읍. 면 (* 대도시, 중·소도시에 속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③번에 v표를 해주세요.)

1. 학부모님께서는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2. 자녀가 다니는 학교급에서 중요한 인성교육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목표가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회복탄력성 향상
② 기초적인 예절 습득
③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
④ 인류애 및 생태 감수성 함양
⑤ 인성과 관련한 인문소양 함양
⑥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향상
⑦ 진로와 연계한 삶의 의미 탐색
⑧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및 참여
⑨ 도덕적 규범과 원리에 대한 이해와 성찰
⑩ 또래관계 능력 향상 및 학교폭력 문제 예방
⑪ 존중, 배려, 책임 등 기본적인 덕목 및 규범의 이해와 실천
⑫ 기타( )

3.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인성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3-1번 문항으로** ⑤ 매우 그렇다☞ **3-1번 문항으로**

3-1. 어떤 점이 학생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②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게 되었다.
③ 정직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④ 자신이 일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⑤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다.
⑥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⑦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게 되었다.
⑧ 친구와 협력을 잘하게 되었다.
⑨ 기타( )

4.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학교인성교육 관련 의사결정 시 학부모 참여
② 학교인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 및 협조
③ 가정 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
④ 주민 시설 및 지역 내 기관에서의 부모교육 확대
⑤ 가정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학부모 초청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확대
⑥ 가정 연계 인성교육(가정 내 인성교육 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콘텐츠, 학교 유튜브 채널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⑦ 기타( )

5. 지역 연계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지역사회의 체험 공간 및 시설 확충
② 지역 내 전문기관(대학 등)과의 교육협력
③ 지역 내 인적 자원 활용(학부모 재능기부 포함)
④ 마을교육 및 교육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기회 확대
⑤ 기타( )

6. 지금까지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이외에 경기도 인성교육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2

<미래 인성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성지수와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제시된 질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1) 성별	□ ①여성		□ ②남성		
(2) 학교급	□ ①초등학교	□ ②중학교	□ ③고등학교 ☞**(3)번 문항으로**		
(3) 학교 유형	□ ① 일반고 □ ② 특성화고 □ ③ 특수목적고 □ ④ 자율고 □ ⑤ 자사고 □ ⑥ 기타				
(4) 교직 경력	□ ①5년 미만	□ ② 5년 이상-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 ④15년 이상-20년 미만	□ ⑤20년 이상
(5)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		□ ② 중·소 도시	□ ③ 읍. 면	

	(* 대도시, 중·소도시에 속한 읍·면에 있는 학교는 ③번에 v표를 해주세요.)
(6) 직급	□ ① 담임교사 □ ② 비담임교사 □ ③ 부장교사 □ ④ 관리자(교장/교감)
(7) 담당 교과 (중등만)	□ ①국어 □ ②도덕 · 윤리 □ ③수학 □ ④사회 □ ⑤과학 □ ⑥실과(기술 · 가정) □ ⑦영어 □ ⑧음악 □ ⑨미술 □ ⑩체육 □ ⑪실업 □ ⑫기타 ( )

[1~4] 다음은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고려한 인성교육 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미래에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디지털 문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대인관계 교육
② 인간 존엄 교육
③ 인문 소양 교육
④ 공동체 의식 교육
⑤ 기본적 예절 교육
⑥ 다양성 존중 교육
⑦ 비판적 사고 교육
⑧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⑨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⑩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⑪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⑫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⑬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⑭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⑮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⑯ 기타 ( )

2.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과 창의력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대인관계 교육
② 인간 존엄 교육
③ 인문 소양 교육
④ 공동체 의식 교육
⑤ 기본적 예절 교육
⑥ 다양성 존중 교육
⑦ 비판적 사고 교육
⑧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⑨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⑩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⑪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⑫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⑬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⑭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⑮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⑯ 기타 ( )

3. 미래에는 기후·생태환경·인구구조의 변화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로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대인관계 교육
② 인간 존엄 교육
③ 인문 소양 교육
④ 공동체 의식 교육
⑤ 기본적 예절 교육
⑥ 다양성 존중 교육
⑦ 비판적 사고 교육
⑧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⑨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⑩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⑪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⑫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⑬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⑭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⑮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⑯ 기타 ( )

4.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증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대인관계 교육
② 인간 존엄 교육
③ 인문 소양 교육
④ 공동체 의식 교육
⑤ 기본적 예절 교육
⑥ 다양성 존중 교육
⑦ 비판적 사고 교육
⑧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⑨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⑩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⑪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⑫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⑬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⑭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⑮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⑯ 기타 ( )

[5~8] 다음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 인성을 추출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5. ‘디지털 문명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학생에게 어떤 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용기	② 정의	③ 책임	④ 협력
⑤ 호기심	⑥ 창의성	⑦ 주도성	⑧ 의사소통
⑨ 갈등해결	⑩ 회복탄력성	⑪ 공감과 배려	⑫ 공동체 의식
⑬ 비판적 사고	⑭ 정직과 성실	⑮ 존중과 예의	⑯ 사회 정서 기술
⑰ 그릿(절제, 끈기)		⑱ 메타인지 및 성찰	
⑲ 기타 ( )			

6.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학생에게 어떤 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용기	② 정의	③ 책임	④ 협력
⑤ 호기심	⑥ 창의성	⑦ 주도성	⑧ 의사소통
⑨ 갈등해결	⑩ 회복탄력성	⑪ 공감과 배려	⑫ 공동체 의식
⑬ 비판적 사고	⑭ 정직과 성실	⑮ 존중과 예의	⑯ 사회 정서 기술
⑰ 그릿(절제, 끈기)		⑱ 메타인지 및 성찰	
⑲ 기타 ( )			

7. ‘불확실성의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학생에게 어떤 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용기 ② 정의 ③ 책임 ④ 협력
⑤ 호기심 ⑥ 창의성 ⑦ 주도성 ⑧ 의사소통
⑨ 갈등해결 ⑩ 회복탄력성 ⑪ 공감과 배려 ⑫ 공동체 의식
⑬ 비판적 사고 ⑭ 정직과 성실 ⑮ 존중과 예의 ⑯ 사회 정서 기술
⑰ 그릿(절제, 끈기) ⑱ 메타인지 및 성찰
⑲ 기타 ( )

8.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고려할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학생에게 어떤 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이외에 추가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용기 ② 정의 ③ 책임 ④ 협력
⑤ 호기심 ⑥ 창의성 ⑦ 주도성 ⑧ 의사소통
⑨ 갈등해결 ⑩ 회복탄력성 ⑪ 공감과 배려 ⑫ 공동체 의식
⑬ 비판적 사고 ⑭ 정직과 성실 ⑮ 존중과 예의 ⑯ 사회 정서 기술
⑰ 그릿(절제, 끈기) ⑱ 메타인지 및 성찰
⑲ 기타 ( )

9.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AI 수업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수업 형태의 실행이 예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실행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1번 문항으로**
②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9-1번 문항으로**
③ 보통이다 ④ 동의하는 편이다 ⑤ 매우 동의한다

9-1. 동의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 기타’에 적어주십시오.

①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도 인성교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사람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③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해 별도로 가르쳐야 해서 인성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④ 기타( )

10. 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에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에 적어주십시오.

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 · 학습 설계 안내 연수

②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교수 ·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③ 인간다움을 유지 · 고양할 수 있는 놀이 및 휴식 환경 조성

④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연수

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관련 교사활동 (동아리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⑥ 기타( )

11. 지금까지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 이외에 미래 인성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록-3

<학생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인성지수 척도

척도 구분				문항수(최종문항*)		
1.인성교육법	도덕적 인성	1.예	공경	5	45	55
		2.효	효도	5		
		3.정직	거짓말 안하기, 솔직함	5		
		4.존중	자기존중	5		
			타인존중			
		5.배려	공감-친절	5		
	시민적 인성	6.책임	책임성, 규칙 준수	5		
		7.소통	대화능력(관계능력)	5		
		8.협동	협력	5		
		9.갈등해결	갈등인식,	5		
	추가	1.정의	공정, 공평, 인권존중	5	10	
		2.공동체의식	공동체성,공동선	5		
2. 행복			삶의 만족	3	9	
			경험한 감정	6		
3. 배경변인		(개인) 성별, 학년, 자율성, 봉사활동		4	9	
		(학교) 교우관계, 교사 신뢰		2		
		(가정) 경제여건, 자녀지지, 부모-자녀 갈등해결		3		
총 문항 수				73		

◎예시 문항 반응 (5점 리커르트 척도)

나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전혀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

학생 인성지수 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제시된 질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본 조사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다음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의사소통, 갈등해결능력)을 **교과 수업(예: 도덕, 국어, 사회 등)과 봉사활동, 각종 체험활동(예술, 체육, 동아리, 교내외 행사나 캠페인 활동 등)**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대화 그리고 학생과의 놀이나 게임과정에서도 배려나 소통, 존중, 갈등 해결을 배우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의 핵심 덕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성교육과 관련됩니다.

설문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____① 예 ____② 아니오

1부 다음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4.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① 하위권	② 중위권	③ 상위권			
5. 올해 인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번 있다	③ 3-4번 있다			
④ 5-6번 있다	⑤ 7번 이상 있다				
6. 인성교육 관련 활동이나 수업 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영향 받지 않았다	② 별로 영향 받지 않았다	③ 약간 영향 받았다			
④ 매우 많이 영향 받았다	⑤ 잘 모르겠다.				
7.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가정에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선생님께서는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부모님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없다	② 30분~ 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11. 가정 경제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2. 행복[27]

◎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내가 속한 학급, 학교, 동아리, 지역사회 등)**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이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 에서부터 '항상 느꼈다(5점)' 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3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는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6 무기력한(모든 일에 귀찮거나 의욕이 없는)	①	②	③	④	⑤

27) 출처: 서인국 외(2011)

3.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9개의 덕과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주십시오.

덕목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예의/1	나는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예의가 바르다는 말을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웃으며 인사를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에게 대화 예절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공공장소의 예절을 알고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효/2	나는 부모님(보호자)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부모님(보호자)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부모님(보호자)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부모님(보호자)의 말씀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정직/3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진실하고 솔직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야단을 맞더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존중/4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행동을 다른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배려(공감)/5	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친구를 못 본 척한다. (역문항)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가족과 친구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있으면, 가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책임/6	나는 여러 사람과 협력활동을 할 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결정한 일의 결과가 나쁘더라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협동/7	나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함께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학급 일이나 학교의 단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의 결정이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소통(관계능력)/8	나는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생각이나 판단이 늘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상대의 몸짓이나 표현을 살피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의미를 생각하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의 말을 막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황에 맞게 잘 전달한다.	①	②	③	④	⑤
갈등해	나는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사람(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갈등이	①	②	③	④	⑤

	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본다.					
결/9	나는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정의/10	나는 인종, 성별, 재산이나 능력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학급이나 학교 규칙, 사회 공공장소 규칙 등을 잘 알고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를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사람들을 형편과 여건(학업능력, 가정여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게임이나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의식/11	나는 공동체(나라, 학교, 학급 등)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학급이나 학교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감사합니다.

부록-4

<미래 인성지수 조사 설문지>

미래 인성지수 조사

척도 구분				문항수(최종문항*)	
1. 미래 사회 대비 인성	지적 인성	1. 비판적 사고		5	45
		2. 창의성		5	
		3. 호기심		5	
		4. 지혜		5	
		5. 메타인지		5	
	수행적 인성	6. 자기조절 및 관리		5	
		7. 낙관주의(& 성장 마인드셋)		5	
		8. 그릿(인내& 끈기)		5	
		9. 용기		5	
2. 행복(ha)			삶의 만족	3	9
			경험한 감정	6	
3. 배경변인(B)		(개인) 성별, 학년, 자율성, 봉사활동		4	9
		(학교) 교우관계, 교사 신뢰		2	
		(가정) 경제여건, 자녀 지지, 부모-자녀 갈등 해결		3	
총 문항 수				63	

◎예시 문항 반응 (5점 리커르트 척도)

나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그저 그렇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미래 인성역량지수 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검사는 초·중·고학생들의 인성지수와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으니 제시된 질문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설문지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설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문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인성교육 방안 탐색 연구팀장 손경원
(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 조교수)
연구자 연락처: 043-261-2709/ kwson@chungbuk.ac.kr

본 조사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다음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의사소통, 갈등해결능력)을 **교과 수업(예: 도덕, 국어, 사회 등)과 봉사활동, 각종 체험활동(예술, 체육, 동아리, 교내외 행사나 캠페인 활동 등)**을 배우고 익히게 됩니다.

○ 선생님과의 상담이나 대화 그리고 학생과의 놀이나 게임과정에서도 배려나 소통, 존중, 갈등해결을 배우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인성의 핵심 덕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성교육과 관련됩니다.

설문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____① 예 ____② 아니오

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교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4.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① 하위권		② 중위권		③ 상위권		
5. 올해 인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1-2번 있다		③ 3-4번 있다		
④ 5-6번 있다		⑤ 7번 이상 있다				
6. 인성교육 관련 활동이나 수업 후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영향 받지 않았다		② 별로 영향 받지 않았다		③ 약간 영향 받았다		
④ 매우 많이 영향 받았다		⑤ 잘 모르겠다.				
7.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8.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가정에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9. 선생님께서는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중간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0. 부모님과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없다	② 30분 ~1시간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3시간 이상		
11.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어렵다	⑤ 매우 어렵다		

2. 행복[28)]

◎ 다음은 삶의 만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관계적 측면 (가족, 친구 등 사람들과의 관계), 집단적 측면(내가 속한 학급, 학교, 동아리,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보기를 보고 내가 느끼는 것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 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삶의 **관계적 측면(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내가 속한 학교, 동아리, 지역사회 등)** 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이 경험한 감정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 에서부터 '항상 느꼈다(5점)' 까지의 보기 중에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문 항	전혀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 이다	가끔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2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3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4 짜증나는	①	②	③	④	⑤
5 부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6 무기력한(모든 일에 귀찮거나 의욕이 없는)	①	②	③	④	⑤

28) 출처: 서인국 외(2011)

3.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성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덕목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판적사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충분한 근거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좋은 점 &나쁜 점)을 고루 검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모든 일에서 나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함께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최대한 시간을 갖고 정보나 사실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성	나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할 때 신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은 나에게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것이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호기심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울 내용을 궁금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배우는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호기심을 느낄 때 질문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지혜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치, 의미, 꿈 등)를 생각하며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일을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을 할 때 부분과 전체(최종 목표)의 관계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은 고민이 있을 때 내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메타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행동이 상황에 적절한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할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자기조절&관리	나는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을 시간을 정해놓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음식이 맛있더라도 과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짜증이 날 때 기분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게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일들을 스스로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어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낙관주의 (&긍정마인드셋)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맞든 아니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실패했더라도 다음 기회를 생각하며 더 노력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유능하게 잘 할	①	②	③	④	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릿(인내&끈기)	나는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목표를 세우고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끊임없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려움에 부딪쳐도 목표에 집중하며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용기	나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문제를 피하기보다 마주하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하지 못한다.*(역)	①	②	③	④	⑤
	잘못된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5

<학교급별 인성교육 체계화를 위한 델파이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및 AI 시대에 따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별 인성교육 체계화를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해야 할 학교 인성교육 개념, 목표,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한 관점
-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함.
- '기본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가진 사람을 지향'함으로써 '인성'을 '역량'과 구분하여 개념 제시함.

▣ 경기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정책의 비전
- 전체 교육 비전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제시함.
- 3대 원칙을 미래, 자율, 균형으로 제시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인간상으로 제시함.
- 《2022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주체적이고 공공적인 삶을 실천하는 시민을 비전으로 시민적 인성교육을 지향했음.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교육 지원과,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적 인성교육 전개를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온라인 인성교육 플랫폼 조성, 비대면 환경에서의 시민적 인성교육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함.
- 이와 달리 2023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성교육의 방향은 시민교육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강조함.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의 설정 및 구성요소]

1. 본 연구에서는 미래 사회변화의 특징을 고려할 때, 다음의 인성구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표 1> 다차원적 인성의 4가지 대범주

인성의 범주	의미
지적 인성	진리 탐구, 지식, 지혜와 관계된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비판적 사고 ②메타인지(및 성찰) ③창의성 ④ 호기심

도덕적 인성	윤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예 ②효 ③정직 ④존중 ⑤배려(공감)⑥ 정의
시민적 인성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협동 ②소통 ③책임 ④갈등해결 ⑤공동체 의식
수행적 인성	지적·도덕적·시민적 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덕과 역량(인성 특성)
	①자기조절&관리(효능) ② 낙관주의(& 성장마인드셋) ③ 그릿(인내와 끈기) ④ 용기

1-1. 인성의 구조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근거
(1) 인성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네 범주(지적, 도덕적, 시민적, 수행적)의 **덕과 역량들이 중첩적으로 구성**된다.						
(2) 인성은 **다차원적이**며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구분된다.						

1-2. 앞의 <표 1>과 같이 미래지향적 핵심 인성을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각 범주별 타당성의 정도를 선택해주세요.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그렇게 응답한 이유 또는 근거
지적 인성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수행적 인성						
이 밖에도 추가할 인성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1-3.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인성을 위의 <표 1>에서 골라주십시오

미래 사회의 변화	특징	요구되는 인성
① 디지털 문명시대	•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환적 패러다임이 요구됨.	
② 인공지능 시대	•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 창의 분야까지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함.	
③ 불확실성 시대	•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가 도래함.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	•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증가함.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의 방향]

미래 사회의 변화	특징
① 디지털 문명시대	•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환적 패러다임을 요구함.
② 인공지능 시대	•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 창의 분야까지 대신할 것으로 전망함
③ 불확실성 시대	•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로 점차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 사회 도래함.
④ 포스트 코로나 시대	•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부정적 측면이 증가함.

2-1.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회변화 특징이 있을까요?

2-2.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을 아래 <보기 1>에서 1~2가지씩 골라 그 번호를 골라 적어 주시고 혹은 다른 추천할 교육 방안을 적어주십시오.**

디지털 문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불확실성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기 1: 미래 인성교육의 방향 〉

① 도덕적 문제해결 교육	⑤ 메타인지 및 성찰 교육	③ 자기 관리 및 조절 교육
④ 비판적 사고 교육	② 긍정적 태도 함양 교육	⑥ 의사소통 능력 교육
⑦ 공동체 의식교육	⑧ 협력적 태도 함양 교육	⑨ 다양성 존중 교육
⑩ 인간 존엄 교육	⑪ 자기 주도적 학습 교육(디퍼러닝)	⑫ 기본적 예절 교육
⑬ 대인관계 교육	⑭ 개인적·사회적 책무성 교육	⑮ 인문학적 감수성 교육
⑯ 기타 ( )		

[2-3]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강화 또는 새롭게 포함해야 할 교수·학습 방안을 <보기 2>에서 세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적고 이유 또는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보기 2: 효과적인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안 〉

① 프로젝트 학습	② 논쟁 수업	③ 봉사학습
④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⑤ AI 기반 문제해결 학습	⑥ 창의융합학습(STEAM)
⑦ 개별화 학습(individualized learning)	⑧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⑨ 에듀테크 활용 수업
⑩ 협동학습	⑪ 기타( )	

[학교급별 인성교육 체계화]

3.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체계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3-1. 교육부의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에서는 인성교육의 비전을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성과 역량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성교육 비전	전혀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					

예시를 참고하여 인성과 역량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십시오.

〔예시〕 인성은 자아정체성을 포함하고, 경험적 차원뿐만 아니라 선험적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데 비해, 역량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요구에 따른 맥락-의존적인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과 심리사회적 속성들을 의미하며 인성에 비해 측정이 용이하다.

3-2-1. 학교급별 교육 목표 및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각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학교급	인성교육 목표(중점 사항)	전혀타당하지않음	타당하지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타당함
초등학교	예의와 배려, 소통, 협동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습관 형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을 기르고, 지적 인성과 수행적 인성의 기초 역량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과 시민적 인성의 성찰적 내면화를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지적 인성과 회복 탄력적인 수행적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익힌 도덕적 인성, 시민적 인성, 지적 인성, 수행적 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 지향적 관심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2 학교급별 교육 목표 및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간의 위계화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을 주십시오.

3-3. 학교급별 인성교육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핵심 주제)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4. 효과적인 학교급별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학교급	효과적인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5 학교 단위 인성교육 효과성 평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3-6. 인성 수업에서 학생 평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사회를 맞이하여 인간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경기미래교육>과 <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는 미래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교육 환경을 확대·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수업, 온·오프라인 블랜디드 수업,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수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그렇게 응답한 이유 또는 근거
①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을 실행해야한다						
② 인간성 강화를 위해 대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4-2.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핵심주제)은 무엇일까요?

학교급	핵심 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3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높일 방안에 대해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십시오.

<예시>

① 교사의 디지털 활용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②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③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 연수, ④ 디지털 기반 인성교육 관련 교사활동 지원(동아리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⑤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인성교육의 여건 조성]

▣ 국가 수준에서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매년 지자체에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성교육을 제시하여 전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학습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수준에서는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인성교육 비전과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 수준에서는 국가, 교육청에서 제시한 전체 비전을 고려하여 학교의 특색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의 인성교육과 학교 인성교육의 적절성(효과성)을 각각 평가해주시고, 그밖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그렇게 응답한 이유 또는 근거
① 국가 수준,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구체화						
② 국가나 교육청 수준 인성교육 내용의 보완						
③ 학교의 특색을 강조한 인성교육						
④ 그 외 기타 의견: ( )						

5-2.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의 적절성(효과성)을 평가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범주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그렇게 응답한 이유 또는 근거
①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② 소통, 배려, 존중하는 학교생활						
③ 회복적 생활교육과의 연계						
④ 인성교육 실행을 중시하는 학교장의 리더쉽						
⑤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의 연계						
⑥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적 관계 형성						
⑦ 그 외 기타 의견: ( )						

5-3.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성교육의 체계화 및 효과 제고를 위해 필요하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예시>
① 교사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② 교과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개발 ③ 비교과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역량 개발 ④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의 다양화 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⑥ 관리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⑦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 ⑧ 에듀테크 역량 강화

5-4. 교육부·교육청·학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기2> 에서 세 가지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적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십시오.

〈보기 2: 효과적인 인성교육 저해 요인 〉

① 교사의 인성교육 의지 및 역량 부족	② 관리자의 인성교육 역량 및 의지 부족	③ 가정 연계 부족
④ 지역 연계 부족	⑤ 기술 발달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인성교육 방안 부족	⑥ 인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⑦ 교사의 과중한 업무	⑧ 교육부 및 교육청의 의지 및 지원 부족	⑨ 지시 및 실적 보고 위주의 형식적 행정 처리 관행
⑩ 효과적인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부진		⑪ 기타( )

감사합니다.

부록-6

<덕 교육적 접근에 대한 추가 설명>

덕교육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해석: 비판과 대응

①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비판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은 윤리학적 기초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심리학적 기초로서 사회학습이론 및 긍정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이 사회화의 맥락에서 행위자가 속해있는 공동체에서 권장하는 덕을 습관과 모델링을 통해 습득하는 것을 설명한다면, 긍정심리학은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에 나타난 도덕적 탁월성(성격 강점과 덕목)을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지향한다.

덕윤리를 좁게 규정할 경우, 인성교육은 덕교육(virtue education)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흔히 덕교육의 관점은 가치·덕목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무엇보다 습관을 통한 덕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에 따른 덕 윤리 및 덕 교육의 관점은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의 근거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가치·덕목중심의 교육은 이론적 차원 및 실천적 차원에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였다(정창우, 2004: 128-160; 윤영돈, 2012: 37-40; 정창우, 2020: 이기연, 2022: 40-50).

먼저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비판으로 상대주의 비판, 상황주의 비판, 결정론적 함의에 대한 비판의 요지를 살펴보자.

상대주의 비판의 초점은 행위자가 추구해야할 가치·덕목의 기준이 시대와 사회의 맥락에 따라 자의적이기 때문에 가치 및 덕목은 규범윤리가 지닌 “행위지침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노영란(2003: 227-244)에 따르면 덕 윤리의 행위지침력은 그 폭(breadth)과 구체성(specificity) 그리고 결정성(decisiveness)의 측면에서 볼 때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상황주의 비판의 초점은 개인이 지닌 인성 특질과 덕목이 도덕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인성적 요소들의 불안정

성에 대한 비판은 예일대학의 심리학자인 핫숀과 메이(1928-1930)의『인격교육연구』라는 실험연구에서 '정직'과 '봉사'와 같은 인성특질과 관련된 행동양상에 대해 3년에 걸쳐 관찰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만 명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행위자로 하여금 일관되게 정직하거나 커닝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는 인격 혹은 덕성은 일종의 언어적 허상에 불과하고, 상황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이다(정창우, 2020: 207; 이기연, 2022: 43).

결정론적 함의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개인의 기질 및 어린 시절의 양육의 영향이 결정론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 놓여 있다(이기연, 2022: 44-45). 마치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그것이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않든지 관계없이 유년기의 양육 경험이 이후의 행동성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듯이(윤영돈, 2012: 52),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의 견해 또한 아동 시절의 습관화가 한 개인의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향후 삶의 여정에서, 인성교육 혹은 도덕 교육에 의해 변경되기 어려운, 인성의 경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권위주의적·보수주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 객관적 평가 방법의 부족함, 비현실적 교육 목표의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은 기존 질서와 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위를 지닌 주체가 핵심 가치·덕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학교장이 인성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인성교육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권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이기연, 2022:47-48).

그런가 하면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은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인성교육의 효과성 검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용되는 자기보고법(self-report)은 주관적인 보고에 머물며, '자아에 대한 귀인주의'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험에 의거한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이기연, 2022: 48-49).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은 최고선으로서 '행복(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교육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가『니코마코스윤리학』(10권 6-8장)에서 추구하는 일차적인 행복은 지적인 탁월성

에 근거한 관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이는 인성교육의 목표로서 접근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차적인 행복은 영혼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실천적 지혜를 따를 때 구현되는 성품적 탁월성에 근거하는데, 성품적 탁월성을 지닌 유덕한 인간은 일종의 '군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초·중·고 학교급의 인성교육 목표로 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② 비판에 대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대응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기초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진영에서는 이론적 차원 및 실천적 차원의 대응을 통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덕 교육이 오늘날 인성교육의 유의미한 패러다임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먼저 이론적 차원의 비판에 대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덕 교육의 진영은 일정 부분 공리주의나 칸트 의무론과 같은 근대 규칙윤리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덕 윤리의 부활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중첩된다. 공리주의나 칸트 의무론은 행위자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나 동기로서의 감정의 측면을 배격하면서 공리(utility)나 정언명법과 같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리를 강조한다. 그런데 앤스컴(Anscombe, 1958), 맥킨타이어(MacIntyre, 1984), 스토커(Stocker, 1996) 등이 주장하듯이 근대 규칙윤리학은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함으로써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전일적인 모습, 감정과 욕구, 구체적인 삶의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윤영돈, 2022: 198-201).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해 이론적인 차원에서 상대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도덕적 행위자의 구체적인 삶은 부정할 수 없고, 상황과 삶의 맥락에서 도덕적 판단은 일정 부분 자의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대주의로 함몰되는 것은 아니다(이기연, 2022: 51-53).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중용으로서의 성품적인 덕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며, 그것은 일정 부분 객관주의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니코마코스윤리학』, 2권 8장).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또 다른 비판으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인성적 특질이 유동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일관된 인성 특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대응에 따르면 상황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성(인격)은 상당 부분 일관성과 안정성을 지닐 수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나타난 실천적 지혜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성품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다.[29] 인성의 발현은 상황에 따른 종속변수라기보다는 상황과 한 개인의 인성적 과정(인지, 감정, 의지 등)의 함수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별적 상황에서 행위자의 반응 양식은 각자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실천적 지혜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황주의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때문에 상황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상호작용주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상호작용주의란 주어진 상황과 개별 행위자의 인성 특질이 둘 다 한 개인의 행동에 길항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Szutta, 2013: 26-29, 이기연, 2022: 54-55에서 재인용).

끝으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론적 차원의 비판은 개인의 기질 및 어린 시절의 양육의 영향이 이후의 인성 특성에 결정론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대응에 따르면 인성의 요소 중 행위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에 인성의 형성에 대한 자발적 측면과 자기 통제와 자기 조절의 가능성에 근거하여 상황적인 유혹 내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기의 습관화 및 훈육의 결과로 형성된 인성이라하더라도 반성적 성찰,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 의지력을 통해 과거 유덕하지 않았더라도 유덕한 인성을 지니는 게 가능하다(엄성우, 2021; 이기연, 2022: 63).

---

29)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제2의 천성으로 간주할 정도로 습관을 강조하지만 유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실천적 지혜(phronēsis)라는 이성적 능력을 요구한다(*Nicomachean Ethics*, 1126b4, 1109b20-23; Louden, 1998).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선하고 덕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타고난 본성(physis, nature), 습관(ethos, habit) 그리고 이성적 능력(logos, reason)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Politics*, 1332a39-1332b11, 1334b5-13; *Nicomachean Ethics*, 1179b20-21). 타고난 본성은 자연에 의해 중립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기에 습관을 통해서 덕이 현실화될 수 있고, 실천적 지혜라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더라도 덕의 항상성을 지닐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판에 대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권위주의적·보수주의적 교육으로 경도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에 주목한다. 실천적 지혜는 다원화된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에 상황의 다양성 가운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규정할 수 있다. 때문에 실천적 지혜에 입각할 때, 기성세대에 의한 보수적인 덕목의 강요를 지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인성교육을 넘어설 수 있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인지주의에 입각한 도덕교육과도 차별화되는 교육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이기연, 2022: 63-66).

다음으로 인성 특질이 유동적이기에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시와 평가 방법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 따르면 가치·덕목과 인성특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포괄적이며 유연한 접근이 오히려 교육의 맥락에서 효과적이라고 대응한다. 이기연(2017)에 따르면 덕목 및 인성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간략하게 제시되는 것은 인성과 관련한 수많은 서사(이야기)를 삭제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러너와 칼리나(Lerner & Callina, 2014)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근거하여 “관계적 발달체계”(relational developmental systems)를 통해 덕목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가령, 행동의 일관성보다 ‘인성의 일관성’에 주목하여 “어떤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발달 영역을 위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것이 효과를 가지는지”를 총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가치·덕목 중심의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비판은 비현실적 교육 목표를추구한다는 데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대응은 행위자의 현실적인 삶에서의 탁월성에 근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 추구하는 최고선으로서의 일차적 행복은 지적 탁월성과 결부되어 있고, 이는 인간의 이념형이라 할 수 있는 철학자가 추구하는 ‘관조적 삶’을 지향한다. 한편, 두 번째 차원의 행복은 쾌고의 문제가 노정된 현실 속에서 발현될 수 있는 성품적 탁월성과 결부되어 있다. 가령, 운동선수나 군인과 같이 경기나 전투에서 용기와 같은 성품적 탁월성을 발휘하는 데는 늘 ‘고통’

이 노정되어 있다. 때문에 “목적에 도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품적) 탁월성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니다.”(『니코마코스윤리학』, 3권 9장). 요컨대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기반한 인성교육의 목표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성품적 탁월성에 둔다. 한편 ‘관조적 삶’으로서의 지적인 탁월성은 성품적 탁월성을 지닌 유덕한 행위자들이 이후에 추구할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간주한다(이기연, 2022: 68-71).